

국립국어원 2011-01-18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40-01

2011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김봉국

■ 연구 보조원 : 천인영 · 김경혜

■ 조사 지역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호명마을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연구책임자 : 김 봉 국

연구보조원 : 천인영 · 김경혜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2011년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의한 것으로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호명마을에 거주하는 토박이 화자들의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담화는 강원 정선 지역 토박이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전사한 것으로, ‘마을 들여다 보기, 논농사, 밭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세시 풍속’ 등을 담고 있으며, 어휘, 음운, 문법은 『지역어 조사 질문지』의 항목에 따라 그 항목을 녹취하여 전사한 것이다.

주요어 : 정선,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Abstract〉

A report transcribed through the medium of recording is comprised of Oral speech, vocabulary, phoneme, grammar.

Life of rural community, rice farming, dry-field farming, harvesting & winter's life and so on is comprised of in oral speech. It is transcribed natural speech of natives in Gangwon-do Jeongseon-gun into writings in accordance with fixed form. In case of vocabulary, phoneme, grammar, It is transcribed in investigation item in accordance with “Questionnaires of dialect vocabulary”.

Keywords: Jeongseon, Oral speech, vocabulary, phoneme, grammar

2011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2
3. 전사 자료	15
제 1 편 구술 발화	17
제 2 편 어휘	153
제 3 편 음운	197
제 4 편 문법	233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정선군은 강원도 남동부에 위치한 군으로 북쪽으로는 강릉시와 접하고, 북서쪽으로는 평창군이, 남쪽은 영월군이, 동쪽으로는 동해시·삼척시·태백시와 인접한다. 정선군은 강원도의 산간오지로, 도 면적의 7.8%를 차지하며, 영서 산악지대로서 태백산맥이 관통하는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선군은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군 전역에 걸쳐 산악이 겹쳐 있어, 겨우 남한강 유역 연안의 계곡에만 좁고 길다란 평지가 있을 뿐이다.

임계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덕왕때 9주로 확정되어, 명주군(지금의 강릉시)에 속하였다가 고려(1018년)때에는 강릉군에 속하였고 조선시대(1906년) 고종 43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임계면이 정선군에 이관되어 정선군 임계면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임계면은 산과 강, 비옥한 농토가 산재해 있으며, 특히 정선군 감자의 75%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화암면은

행정구역



<강원도 행정구역>



<정선군 행정구역>

1.2 조사 기간

- 1차 조사 : 2011년 08월 19일-29일
- 2차 조사 : 2011년 10월 28일-31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 고
- 성별 : 남
- 나이 : 78세(갑술생, 호적에는 1931년생), 화암면에서 8대째 거주
- 출생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 거주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 직업 : 농업
- 경력 : 농업
- 학력 : 초등학교 졸, 야간 중학교 몇 개월 다님
- 병역 : 면제
- 제보자 소개 과정 : 화암면 이장을 통해서 소개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한학을 공부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약간 허스키함.

(2) 보조 제보자

- 이름 : 최
- 성별 : 남
- 나이 : 83세, 임계면에서 13대째 거주
- 출생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거주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병역 : 군생활(강원 양구 3년 근무)

- 제보자 소개 과정 : 친척의 소개를 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한학을 공부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분명함.

- 이름 : 전
- 성별 : 여
- 나이 : 85세
- 출생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 거주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 직업 : 농업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글을 모름)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주제보자의 아내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분명함.

1.4 조사자

(1) 이름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교수)/천인영(대구대학교 석사졸업)/김경혜(인하대학교 석사과정)

(2) 조사 일시 : 2011년 8월 20일-28일

(3) 조사 장소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제보자의 집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제보자의 집

(4) 조사 내용

○ 1차 조사 : 2011년 08월 20일-28일(고 , 최)

○ 2차 조사 : 2011년 10월 20일-28일(고)

○ 구술발화 SGW_JS_01-02(최)

- SGW_JS_05-07(고)
- SGW_JS_25-26(고)
- 어 회 SGW_JS_03-04(최)
- SGW_JS_08-16(고)
- 음 운 SGW_JS_17-22(고)
- 문 법 SGW_JS_23-24(고)

SGW_JS_01	구술	58분	SGW_JS_14	어회	1시간 11분
SGW_JS_02	구술	47분	SGW_JS_15	어회	1시간 21분
SGW_JS_03	어회	38분	SGW_JS_16	어회	1시간 09분
SGW_JS_04	어회	18분	SGW_JS_17	음운	35분
SGW_JS_05	구술	1시간 10분	SGW_JS_18	음운	1시간 41분
SGW_JS_06	구술	1시간 02분	SGW_JS_19	음운	24분
SGW_JS_07	구술	1시간 34분	SGW_JS_20	음운	1시간 02분
SGW_JS_08	어회	1시간 03분	SGW_JS_21	음운	18분
SGW_JS_09	어회	1시간 29분	SGW_JS_22	음운	22분
SGW_JS_10	어회	1시간 10분	SGW_JS_23	문법	44분
SGW_JS_11	어회	22분	SGW_JS_24	문법	1시간 50분
SGW_JS_12	어회	1시간 45분	SGW_JS_25	구술	31분
SGW_JS_13	어회	1시간 35분	SGW_JS_26	구술	31분

구술 : 06시간 33분

어회 : 12시간 01분

음운 : 04시간 22분

문법 : 02시간 34분

=====

총 25시간 30분

=====

1.5 전사

(1) 1차 전사(2011년 10월)

구술발화 : 김경혜

어회 : 김봉국/천인영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2) 1차 점검(2011년 11월)

구술발화 : 김경혜

어휘 : 김봉국/천인영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3) 2차 점검(2011년 11-12월)

구술발화 : 김봉국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 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나 제보자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항목 중 주제보자인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아무 표시는 하지 않았고, 보조제보자인 할머니인 경우에는 (+할머니)로, 보조제보자인 경우에는 (+성명)으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e)'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11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 예. 그러면 이제 저 본격찌그로 이제 여쭙볼께 인는데, 혹시 어르신 그 지금 요기 호촌 마을이 자나, 아니 호촌 마으린데, 이 마으리 언제 형성된는지 알 쯔 인나요여? {예. 그러면 이제 저 본격적으로 이제 여쭙볼 게 있는데, 혹시 어르신 그 지금 여기 호촌 마을이잖아, 아니 호촌 마을인데, 이 마을이 언제 형성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이 마으리 형성되기는 그 오래돼:쪼요. {이 마을이 형성되기는 그 오래 됐지요.}

인제 오래 그 조선시대 전 초기때부터 대:따봄이다. {인제 오래 그 조선시대 전 초기 때부터 됐다고 봅니다.}

돼:따 보는데 그 호:초니라고 지명 헐:거는, 거는 인제 유래를 제가 드꼬 이쨌는데, 여개가 이거 우리 마을 이르미 범: 호짜, 요 미테 아래똥네가 풍촌, 풍년 풍짜 마디 촌짜. {됐다 보는데 그 호촌이라고 지명 한 거는, 그건 인제 유래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거 우리 마을 이름이 범:호 자, 요 밑에 아랫동네가 풍촌, 풍년 풍 자 마디 촌 자.}

@ 풍녀? {풍녀?}

풍녕 풍, 풍녀 풍. {풍년 풍, 풍년 풍.}

@ 아, 풍녀 풍, 바람 풍 짜네요? {아, 풍녀 풍, 바람 풍 자네요?}

아니 풍년풍이라 여 바람풍 이쨌. {아니 풍년 풍이라 여기 바람 풍 있지.}

풍녀~이라고 왜 ** {풍년이라고 해. 왜 **}

@ 풍년 풍 짜, 네네. {풍년 풍 자, 네네.}

마디 촌 짜 해가지고 풍초니고, 여개는{마디 촌 자 해가지고 풍촌이고, 여기는}

@ 아 마디 촌 짜네요? 여기는뇨? {아 마디 촌 자네요? 여기는요?}

여개는 호:며~이라고 호:명, 이 지명이 그 동:네 지명 호:며~인데 범: 호 짜하고 마디 촌 짜하고 부처가지고, 아래똥네가 호:초니래요. {여기는 호명이라고 호명, 지명이 그 동네 지명이 호명인데, 범: 호 자하고 마디 촌 자 하고 부처 가지고, 아랫동네가 호촌이에요.}

@ 아, 범 호 짜하고? {아, 범 호 자하고?}

마디 촌 짜하고. {마디 촌 자하고.}

@ 마디 촌 짜해서 아, 호초니구나, 다 합친 거네여. {마디 촌 자해서 아, 호촌이구나, 다 합친 거네요.}

야, 합체 예 {네, 합쳐 예}

그래 합체, 합치니까 인제, 익 화암며니 장녀네 그 이 개명 곤처쪼요. {그래 합쳐, 합치니까 인제 이 화암면이 작년에 그 개명 고쳤어요.}

그전 동며니래요. 동면 동면 호:초닌데, 그래 곤 곤처가지고 인제 여개 엔:나레 그 인제 호:촌니로 그리 쯔니러완는데 왜:서 호:명이나 하머는, 그저네 여개 동네 이 집 이르게 생긴 이 모양이 연하부:수형국, 연꼬치 물에 떠 인는 형구기다, 엔:날 도:성이 짜글 쪼게 위예다 큰: 기와찌비 정선군 부자터이 시방도 이쨌요. {그전에는 동면이에요. 동면 동면 호촌린데, 그래 고쳐 가지고 인제 여기 옛날에 그 인제 호촌리로 그렇게 쯔 내려왔는데 왜서 명이나 하면 그전에 여기 동네 이 집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이 연화부수형국,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이다, 옛날 도성이 작을 적에 위예다 큰 기왓집이 정선군 부자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 인제 연꼬치 무레 떠 인는 건, 떠이따는 거슨 연모시 이썬요. 여 연똥, 물, 그초? {그 인제 연꽃이 물에 떠 있는 것, 떠있다는 것은 연똥이 있어요. 연똥, 물, 그렇지요?}

그래 연꼬때궁에 구녀~이 이썬야 됩미다. {그래 연꽃 대궁에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요 *** 싹다올로오미 연똥 모양을 대가지고 인는데 연하 어, 어 부:수형구기라고 형국짜르 거든뇨, 또 지명이. {그래 요 *** 싹 다 올라오면서 연꽃 모양을 대 가지고 있는데 연화부수형국이 라고 형국 자르거든요, 또 지명이.}

그르니깐두루 버:마초니 아주 연:나레는 또 호:며~이라 지끼 저네는 그래 조선 {그러니까 범화촌이 아주 옛날에는 또 호명이라 짓기 전에는 그래 조선}

@ 명 짜는 무슨 명 째가요? {명 자는 무슨 명 잔가요?}

올 명 짜래요. {올 명 자래요.}

@ 네? {네?}

올: 명. {올 명.}

또 호:래~이 운다아~이요, 그래 버:마촌, 아주 아주 연:나레 버:마초늘 뜰 뽕짜, 꼬 퇴짜, 여 연 꼬치 무레 떠이쓰이간두루 버:마초니라고 이러케 제:때요. {또 호랑이 운다 아니요, 그래 범화촌, 아주 아주 옛날에 범화촌을 뜰 범 자, 꽃 화 자, 여 연꽃이 물에 떠 있으니까 범화촌이라고 이렇게 지었대요.}

@ 아, 범화촌.{아, 범화촌.}

그래다보니까 그중에도 그 시대에 어떤 그사람 쯤 이리 쯤 성격리 팔팔한 왈왈한 개구재~이 라서 개구재~이.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도 그 시대에 어떤 그 사람 쯤 성격이 팔팔한 개구쟁이라서 개구쟁이.}

@ 예, 팔팔한 예. {예, 팔팔한 예.}

그래 그런분들 이따가 버:마 범:도 아마 호:랑이를 버:미라해, 그까진 버:마촌 하피리머이인느냐 이기야, 아주 호:랭이가 운다고 호:명이라 하자. {그래 그런 분들 있다가 범화 범도 아마 호랑이를 범이라고 해, 그까짓 인제 범화촌 하필 뭐가 있느냐 이거야, 아주 호랑이가 운다고 호명이라 하자.}

그래서 흥 호:며~이 호:명돼땀미다, 여:가. {그래서 흥 호명이 호명되었답니다, 여기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 아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성 씨 분드리 사세요? 며 토 되나요? {아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성 씨 분들이 사세요? 몇 호 되나요?}

여게::가 전:씨드리 젤: 만치요. {여기기가 전 씨들이 제일 많지요.}

전씨 전씨, 정선 전씨. {전 씨 전씨, 정선 전 씨.}

@ 정선 전씨 {정선 전 씨}

이 이놈 전, 사라민제 임그똥짜 이놈 전. 정선 전 씨. {이 이놈 전, 사람 인 자, 임금 왕 자 이놈 전, 정선 전 씨.}

@ 아, 여기 한 머토 정도 돼요? {아, 여기 한 몇 호 정도 돼요?}

요 아루똥네가 저 지금 한 이십호 돼:요. {요 아래윗동네가 저 지금 한 이십 호 돼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 그럼 여기에는 이제 머 사나 강 골짜기 머 이런 유래 가튼 거뜰 이썬니까? 여기 산도 이꼬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 산이나 강 골짜기 머 이런 유래 같은 것들 있습니까? 여기 산도 있고.}

여게 흙 이 고을 이름 젤:거는 아주 연:날 거 아주 머 참 고려때 한나 어뜨 운:제 이 땅 생기 구 저. {여기 이 고을 이름 지은 거는 아주 옛날 거 아주 뭐 참 고려 때 했나 언제 이 땅 생기고 저.}

지구가 생계씨니 멀더 머 동:목재니 어우시리니 그차내요? {지구가 생겼으니 뭐 동목재니 어우

실이니 그렇잖아요?}

@ 다시 한 번 동? {다시 한 번 동?}

동:목제, 또 어 어우실, 어우실, 고 다으메 이망이, 이마~이.{동목제, 또 어 어우실, 어우실, 그 다음에 이망이, 이망이.}

@ 이망이요? {이망이요?}

응. 이. {응. 이.}

@ 이망이가 뭔가요? {이망이가 뭔가요?}

이마~이랑 거 고을 이르미 이마~이라 또 {이망이란 그 고을 이름이 이망이라한다.}

@ 아, 이망 이망 이. 이망이. {아, 이망 이망 이 이망이.}

또 가:둔지, 가:둔제 가:둔지, 가:둔지, 가둔 요 가:둔지라 이따 요게. {또 가둔지, 가둔제...가둔지, 가둔지, 가둔 요 가둔지라고 있다 요기에.}

@ 아 저수지 가튼 게 가슨? {아 저수지 같은 게 가둔?}

게 그냥 그 그 가:둔지라고 인제 가:둔, 가둔 까, 골:까자 가둔지. 요 감:제, 감:제. 이 동네 고을 이르미 그루 돼 이썸미다. {그게 그냥 그 가둔지라고 인제 가둔, 가둔 가, 골 가 자, 가둔지. 여기 감제, 감제. 이 동네 고을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곤 유래를 좀 알 수 이썸까요? {그곤 유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래 가둔:제:: 유래는 그게 가:둔지라 하는데 그게 {유래 가둔제, 유래는 그게 가둔지라 하는데 그게 }

@ 가둔젠? {가둔젠?}

가:둔지, 지 지 지지. {가둔지, 지 지 지지.}

그기 뭐 가:둔지런데, 거 가:둔지는 유래는 읍:꼬, 거게 지금 그 사니 복판 하나 이썸가지고, 그 제 모 묘:짜리가 조금 된 거 큰 여나부:수형국 인제 이따. {그게 뭐 가둔지런데, 거 가둔지는 유래는 없고, 거기에 지금 그 산이 복판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제 묘자리가 조금 된 거 그 연화부수형국 인제 있다.}

여노~파다.

그런 그런 지며~이 이썸.{그런 그런 지명이 있지.}

@ 연호파요? {연호파요?}

이 이:너, 이너, 고기, 여너, 여너라지 머 이너라 하든지 인는데 {이 잉어, 잉어, 고기, 연어, 연어라지 머 잉어라 하든지 있는데}

저거 저거에:는 후리똥, 고기 고기 잠는다고 후리치자나 후리. {저거 저거에는 후리똥, 고기 고기 잠는다고 후리치잖아, 후리.}

@ 예 {예}

후리치고 이짜게 그물메기, 고기 잠는 그물쳐써, 그물, 그물메기{후리치고, 이쪽에 그물메기, 고기 잠는 그물쳐어, 그물, 그물메기}

고다:메 고기 또 자불라고 아페가 물 안 헤벼고 설토~, 물 이따 설통. {그 다음에 고기 또 잡을라고 앞에 가 물 안 *** 설통, 물 있다 설통.}

@ 설통뇨? {설통이요?}

응.{응}

무래 다머 ㅈ:따고. {물에 담어 났다고.}

@ 설통은 뭐예요? {설통은 뭐예요?}

그기 고기가 무:러서 무:러 가지고 내려 가지고서는 그 드러가는 걸 {그게 고기가 물어서 물어 가지고 내려 가지고서는 거기 들어가는 걸}

@ 아 설통, 아 예 그 설통을 예 네. {아 설통, 아 예, 그 설통을, 예 네 }

그래서 인제 그 그 고기가 인는 사:니, 그이가 여:너, 여:너 거가 논다. {그래서 인제 그 고기가 있는 산이, 거기가 연어, 연어 거기가 논다.}

여너 형구짜리다 이런데 거게 물만 이씨며는 무:리, 고긴 무리씨야 되쟈뇨. {연어 형국자리다 이런데, 거기에 물만 있으면는 물이, 고기는 물 있어야 되잖아요.}

물만 이씨면 아주 큰: 대:지파~이 나는데, 여 무리 요기 사:키로 올라가무는 삼척, 대전, 삼척무라 정선무리 하파 내려오다가 보면 새:요. {물만 있으면 아주 큰 대지팡이? 나는데, 여기 물이 요기 4기로 올라 가며는 삼척, 대전, 삼척 물이랑 정선 물이 합해 내려오다가 보면 새요.}

이 드판 미트로 여 서킬 고인 이 호:면 통충가제는? 미테 석 고행이 서켜거 데이꺼든. {이 덕단? 밑으로 여 석회를, 이 호면 ****는 밑에 석 고행이 석회로 돼 있거든.}

빠지니까 거 가:둔지란테두 우:거 배짱과~이요. {빠지니까 거기 가둔지라는 데도 위로는? 배짱광이요.}

병마리 장거리도 정가리라고, 여:도 무리 업씨요. {*** **** *****, 여기도 물이 없어요.}

여게 올라가는 요게. {여기 올라가는 요기에.}

@ 아 그래서 배짱광이라고요? {아 그래서 백짱광이라고요?}

응. {응.}

거게 어 물만 썩:: 언내려가며는 그 여:노파란 고기가 노:는 형구기다. {거기에 물만 썩 내려가며는 그 연호파란 고기가 노는 형국이다.}

그 참 조:은 자리래요. {그 참 좋은 자리래요.}

그래가주 그게 그 아페 고기 아페, 이 논: 다 고 아펠 지리메다 묘 쓰고, 또 고기 꼬리 요 꼬라~니 인는 데 여다 쓰고, 등 지리미다 쓰고, 그런 그 언젠 그 지가 사대로 애:기 드꼬, 건 그런 게이쑈. {그래가지고 그게 그 앞에 고기 앞에, 이 논 다 고 앞에 지느러미에다 묘 쓰고, 또 고기 꼬리 요 꼬랑지 있는 데 여기다 쓰고, 등 지느러미에다 쓰고, 그런 그 지가 4대로 애기 들고, 그 건 그런 것이 있지요.}

그리고 여 어:우시리라는 데는 어우실, 이 고기 어짜라고, 고기 어짜, 새 우 짜여. {그리고 여기 어우실이라는 데는 어우실, 이 고기 어 자라고, 고기 어 자, 새 우 자여.}

어우실 라는 데가, 그 그 한문 꼬래 쓰는데, 그게 으음 장:말기, 대말기라 대말기,꼭 산:꼬매기를 대말기라 한다고, 우리 강원도 말로, 대말기. {어우실 이라는 데가, 그 그 한문 그렇게 쓰는데, 그 게 음 장말기, 대말기라 대말기, 꼭 산 꼭대기를 대말기라 한다고, 우리 강원도 말로, 대말기.}

@ 네네 {네 네.}

대말기{대말기}

산 꼭따기{ 산 꼭대기}

@ 대말기, 대말기.{대말기, 대말기}

그게 올라가며는 그 인제 일본 시대 때 그 피때, 피때를 세워꺼드뇨. {거기에 올라가면 그 인제 일본 시대 때 그 핏대, 핏대를 세웠거든요.}

고 이쓰면 하튼 요 구끼 세워가지고 멀:리 보면 구끼 인제 모 하는교 그 피때라는 그걸 세우머는 인저 그 어:우실 저 짜게는 삼척 하장, 저 쪼그론 인는게, 이 쪼게는 동면 호:초니, 저 쪼게는 백:전, 저 쪼게 여똥, 그런데 그거는 올라가며는 옴:날레 조수가 너머면 마:리 바다가 바단무리 너머따고 바다 조개이쑈, 조개. {그거 있으면 하튼 요 국기 세워 가지고, 멀리 보면 국기 인제 모 하는거요, 그걸 세우머는 인제 그 어우실 저 쪽에는 삼척 하장, 저 쪽으로 있는 것이 이 쪽에는 동면 호촌리, 저 쪽에는 백전, 저 쪽에는 **, 그런데 그거는 올라가며는 옛날에 조수가 넘었던 말이 바다가 바닷물이 넘었다고 바다 조개 있지, 조개.}

@ 네{네}

그 조개가 이씨요, 조개가, 거게가면 {그 조개가 있어요, 조개가, 거기에 가면}

@ 그래요? {그래요?}

@ 조개 그 껍때기가 인... {조개 그 껍때기가 인...}

껍때 껍때기가. {껍때, 껍때기가}

우리 그 내가 가:가 인저 한 한 오십 세 되는데 저건 한 삼십년 다 되가는구만.{ 우리 그 내가 거기가 인제 한 오십 세 되는데, 저건 한 삼 십년 다 돼가는구만.}

시방 그 안 가조. {지금은 거기에 안 가조,}

그 저네 그, 그 나:물, 저 곤드레 딱 찌기 뜨뜨러 결:, 가 땡겨 까불 그런 게 이씨따고. { 그 전에 그 그 나물, 저 곤드레 딱지기 뜯으러 그결, 가 다녀 **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 간다, 거기 옴:나레 근너 글 여르메 거기가 옴:나레 아주 아:주 옴:나레 ***** 조소 조소가 너머가지고서는 거 조 조개 껍때기 따서 완청에 가면 저 껍때기 이씨따고 {그래 간다, 거기 옛날에 금년 * 여름에 거기가 옛날에 아주 아주 옛날에 ****조소, 조소가 넘어가지고서는 거 조 조개 껍때기 따서 완청에 가면 저 껍때기 있었다고.}

@ 그럼 그건 조개 껍때기가 이씨서 이제 고기 어짜는 알젠는데, 새 우 짜는 뭔가요?{그럼 그건 조개 껍때기가 있어서 이제 고기 어 자는 알겠는데, 새 우 자는 원가요?}

글썄 새우 짜는 몰라, 새우 짜는, 새우 짜 쓰는 거는 그건 인제 그 암녀커게 고 미테 그 피때 봉 밑 그 미테 어:우시란 데가 고:리 지퍼요. {글썄 새 우 자는 몰라, 새 우 자는, 새 우 자 쓰는 거는 그건 인제 그 **** 그 밑에 그 핏대 봉 밑 그 밑에 어우실이란 데가 골이 깊어요.

아이구 이 초목, 초모기 말: 시:마게 안 드러. {아이구 이 초목, 초목이 말 심하게 안 들어.}

옴:날 그 하메 시방 마트는 소를 마니 떼기, 옴:마게 키워서 소를 마니 떼기니까 어:우시리라고 해, 해짜네.{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를 많이 옴막에 키워서 소를 많이 먹이니까 어우실 이라고 해, 했잖아.}

그럼 그럭 해씨. {그럼 그렇게 했어.}

@ 그러머는 기둥지, 어:우실 또 {그러면 기둥지, 어우실, 또}

가둔지, 감:제 {가둔지, 감제}

@ 감:제는 또 뭔가요? {감제는 또 뭔가요?}

감:제란 애:긴 그건 잘 모르게썅니다, 감제 건 {감제란 얘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감제 그건}

왜 그건 건 요 태백 까는 꼴, 사목 까는 데, 음 거 지비 한 대:쩍 사란는데, 그 철걸 해씨요. {왜 그건 요 태백 가는 꼴, 사목 가는데, 음 거 집이 한 대 집 살았는데, 그 철거를 했어요.}

그 호:춘니 우리 지역, 우리 우리 과바리거든, 여 한 일키로 한 오:백 까머는 우카~외찰대로 폐:난데로 거기 지금또~ 거 집터도 지금 다 이씨요.{그 호춘리 우리 지역, 우리 관활이거든, 여기서 한 1키로 한 500 가머는 ***** **** 거기 지금 또 거기 집터도 지금 다 있어요.}

@ 아 지금 터도 이씨요? {아 지금 터도 있어요?}

@ 그 다음에 또 감:제하고 또 아까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또 감제하고 또 아까 하나 하나}

그 다:메 요 이 동목제,{ 그 다음에 요 이 동목제}

@ 아 동목제는 {아 동목제는}

동목제는 음 그기 목쌍도, 목쌍도, 어 목쌍도 짜 이꼬, 그 요 도 짜를 쓰는데 {동목제는 음 그 게 목상도, 목상도, 어 목상도 자 있고, 그 도 자를 쓰는데,}

@ 동 동모기머는 건 복썰아는 도 짜자나요. {동, 동목이면 그건 복숭아는 도 자 줘야요}

보썰 도짜 쓸리를 동목제로 보고 섬 도짜하고 목 짜를 나무 목 짜 {복숭 도 자 쓰기를 동목제로 보고, 섬 도 자 하고, 목 자를 나무 목 자}

@ 아...복썰아, 복썰아 도 짜에 나무 목짜요. {아 복숭아, 복숭아 도 자에 나무 목 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래는 그냥 동목제라, 그 옴:나레 그 머 그 참 복썰아가 마니 키:원나, 칼

마이 시면나 우리 그거만 알지 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래는 그냥 동목제라, 그 옛날에 그 뭐 그 참 복숭아를 많이 키웠나, 많이 심었나, 우리 그것만 알지 뭐.}

@ 그러며는 이 마을: 뽕드른 주로 어떤 이를 하면서 사라가십니까? {그러면 이 마을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뇨? 허내? 허내 나도 농사지요. {지금요? 현재? 현재 나도 농사지요.}

@ 어떤 농사를 지으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시방 그 지금 옰:날 이런 농사 하는 거 지쪼. {시방 그 지금 옛날 이런 농사 하는 것 쪼쪼.}

그 대:마는 인제 안 같고 대:마 삼, 그거는 인제 매 사다 틀며 쉬워, 고 다음 모 콩, 팥, 그 오:곡 다: 하지요. {그 대마는 인제 안 같고 대마 삼, 그거는 인제 * 사다 틀며 **, 고 다음 뭐 콩, 팥, 그 오피곡 다 하지요.}

요 옥썴수 안 캐요, 강냉이나 옥썴수 머 이런 거 쪼 대충하고, 고 다옰메 그 요썴 그...마이 하는 거는 야채 배추, 고랭지 배추를 마니 베퍼, 여게. {요 옥수수 안 캐요, 강냉이나 옥수수 뭐 이런 거 썴 대충하고, 그 다음에 그 요썴 그 많이 하는 거는 야채 배추, 고랭지 배추를 많이 베퍼, 여기에.}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옴, 그럼.{옴, 그럼.}

꼬추, 꼬추 잘 돼요.{고추, 고추 잘 돼요.}

고아주.{***}

@ 어르신 말해 주실 때, 그냥 이 쪼게서 쓰는 말, 인제 그 표준:말 말고 이 쪼게서 시 쓰시는 말, 그러케 그냥 해 주시면 돼요.{어르신 말해 주실 때, 그냥 이 쪼에서 쓰는 말, 인제 그 표준말 말고, 이 쪼에서 쓰시는 말, 그렇게 그냥 해 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 나 지금 여: 여:기 말 그대로 하는 거요. {그래 그래 나 지금 여, 여기 말 그대로 하는 거요.}

@ 네 네, 그대로 해 주시는 거 {네 네, 그대로 해 주시는 거.}

@ 그러며는 이 마옰리 가지고 인는 머 자랑꺼리가 이썴니까? {그러면 이 마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자랑꺼리가 있습니까?}

@ 이 마옰리 자랑 꺼리. {이 마옰리의 자랑 거리.}

자랑 꺼리는... 뭐 배꼐 배루 꺼버지버 인지니 인심 썴 조은 자랑꺼리 이쪼. {자랑꺼리는 뭐 ** ** **** *** 인심 썴 좋은 자랑거리 있쪼.}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예.}

인심은 조:쪼. {인심은 좋지요.}

왜냐며는 그 도시와 달라서 노 농촌뉘 그 농사는 잘 지며는 풍년 잘 지며는 서로 음식, 내가 썴 나뉘 머꼬, 서로 서로를 논: 머꼬 서로 그 제 지방 지방 찌리 이옴 이우찌리 서로가 우:애가 돈도카지요. {왜냐면 그 도시와 달라서 노 농촌도 그 농사는 잘 지며는 풍년 잘 지며는 서로 음식, 내가 썴 나뉘 먹고, 서로 서로를 나누어 먹고, 서로 그 제 지방 지방 끼리 이웃 이웃끼리 서로가 우애가 돈독하지요.}

서로 음식~아 입썴기 귀치니라구 뭐 사라미 머이들 멍는데:, 인제 인:정이 가고 가거드노. {서로 음식이 입속이 귀천이라고 뭐 사람이 무엇을 먹는데, 인제 인정이 가고 가거든요.}

이 멍는 모 음식글 썴 해가지고, 거리 논 거 머꾸 뜨거라. {이 먹는 뭐 음식을 썴 해가지고, 걸어 놓은 거 먹고 뜨거라.}

와선 마꺠리 한 잔 해 가지고서는 선는건목? 크:다고 예:따 음식 꺼뜰 해 두는 거 머:꼬, 제:사 지내문, 우리 지베 오시오, 저: 지베 오시오 해서, 가서 가치 노너 머꼬, 또 그 서로에 미를 농사

이레 좀 부조카며는 가치 이러케 거드려 주고 가치 거드려 주고, 그 하면 인심 조치요 모 그도.{
와서 막걸리 한 잔 해 가지고서는 **** 크다고, 옛다 음식 해 두는 거 먹고, 제사 지내면, 우리 집
에 오시오, 저의 집에 오시오 해서, 가서 같이 나누어 먹고, 또 그 서로의 밑을 농사 일에 콤 부
족하며는 같이 이렇게 거들어 주고, 같이 거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 인심 좋지요 뭐, 그도.

@ 음, 네 알게씀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 그러며는 그 {그러면 그}

응.{응.}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 하라번님 그 성하미 어떠케 되세요? {할아버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재식

@ 예

고재식(高在植). {고재식, 고재식.}

@ 네. {네.}

노플고짜이쓸재짜시물식짜. {높을 고 자에 있을 재 자, 심을 식 자.}

@ 아 노플 고짜에? {아 높을 고 자에?}

이쓸 재. {있을 재.}

@ 이쓸 재짜에. {있을 재 자에?}

시물 식. {심을 식.}

@ 시물 식짜요? 네. {심을 식 자요? 네.}

@ 어 하라번님 여기 그 장소는, 주소는 어떠케 되나요? 주소. {어 할아버님 여기 그 장소는, 주소
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

주소, 강원도 정 정선군 화암면 호:촌니 사:반 이구팔번지. {주소, 강원도 정 정선군 화암면 호
촌리 4반 298번지.}

@ 사척, 아 호촌니? {사척, 아 호천니?}

호:촌니 사:반 이구팔번지. {호천리 사반 이구팔번지.}

@ 이구팔번지요? 네. {이구팔번지요? 네.}

@ 그 다으메 그 어르신 그 연세는 어떠케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어르신 그 연세는 어떻게 됩
니까?}

갑술생. {갑술생.}

@ 예, 갑술생. {예, 갑술생.}

여덜, 칠썸여덜. {여덜, 칠십여덜.}

@ 아 네. {아 네.}

@ 그러면 어르신, 지금 여기가 호촌니자나요. {그러면 어르신, 지금 여기가 호촌리잖아요.}

@ 그 호촌닌데, 그니까 어르신네 어르신, 여기서 인제 어르신까지해서 한 며때썸 되세여? {그 호
촌린데, 그니까 어르신의 어르신, 여기서 인제 어르신까지해서 한 몇 대썸 되세요?}

여게::엔... 팔때. {여기에는 팔 대.}

@ 아, 팔 때요? {아, 팔 대요?}

@ 금 어르신... 그 아번니미나 하라버니른 그 호초네서 계속 사셔편 거? {그럼 어르신...그 아버님
이나 할아버님은 그 호촌에서 계속 사셨던 거예요?}

직찌니, 직전, 여:서 사키로, 여 산 우짜기로 직찌니라고, 여 여 이키로로 가면 오:리야. {직전리, 직전, 여기서 4Km, 산 위쪽으로 직전리라고, 여 여 2Km로 가면 오 리야.}

@ 아, 오 리정도에, 직전니에서 사시고, 어르시는 그럼 여기 호초는 언제 오셔쎄요? {아, 오 리 정도에, 직전리에서 사시고, 어르신은 그럼 여기 호촌은 언제 오셨어요?}

여게 온제가, 한 오:십년. {여기 온 지가, 한 오십 년.}

@ 아 그래요? 그럼 어르시네 아버님 하라버니든 어떤 이를 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어르신의 아버님, 할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아버님 하라버니든 그 농사 로 지꼬, 농사일 하셔쎄.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은 그 농사를 짓고, 농사일 하셨지.}

@ 아, 네. {아, 네.}

@ 그리고 어르시는 그럼 어떤 이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르신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내 일썬이요? {내 일생이요?}

@ 네 네. {네 네.}

나도 농사 지:쎄. {나도 농사 짓쎄.}

@ 아 어떤 농사 지으셔쎄여? {아 어떤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머이 거 농사도 막 여러가지 제:쎄요. {저는 뭐 거 농사도 막 여러가지 지었어요.}

처:메 하꼬 조리파고는 초등하꼬 조리파고는 그 농사좀 지:따가, 그 목쌍사어비라고 나무 나무 장사, 그거또 며태하고, 에 쏘끔 목 또 이러케 추라 자꼬글 봐:가지고 인제 교환하는 거 하고 ,사업계통으로 한 이:십년 하고 그 다:메 또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는,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그 농사 좀 짓다가, 그 목상 사업이라고 나무 나무 장사, 그것도 몇 해 하고, 에 조금 목 또 이렇게 출하 잡곡을 모아 가지고 인제 교환하는 거 하고, 사업계통으로 한 이십 년 하고 그 다음에 또}

@ 사어블 어턱 어디서 하셔쎄여? {사업을 어디서 하셨어요?}

여 여게서 해:쎄, 요 마으레서 {여 여기서 했쎄, 이 마을에서.}

@ 아, 이 마으레서. {아, 이 마을에서.}

@ 그럼 어르신 {그럼 어르신}

태백 태백 황지 광:산 그겐 그 탕:광 이 침: 개시될쎄게 그 갱:목 마:~이 하자내요. {태백 태백 황지 광산 거기에 그 탄광 이 처음 개시될 적에 그 갱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쎄게 요 개인산 사가주구서는 거 낙 가따 납품하고 {그럴 적에 이 개인 산 사 가지고서는 갖다 납품하고}

@ 아, 그런날 하선네요. {아, 그런 일 하셨네요.}

그런 그런 일 하시고, 또 요 작쎄 사가지구 저 제천 내보내 지무는 제천서 쌀 드러오고, 요 요 콩강내이 옥수수를 가따가 마커 교환해드리고 {그런 그런 일 하시고, 또 이 잡곡 사가지고 저 제천 내보내지머는 제천에서 쌀 들어오고, 요 콩강내이 옥수수를 갖다가 모두 교환해 들이고}

그런 사업 하다가 고다:메 또 한 이:십년 하다가는 또 농사 대드러서 농사는 처나지대보니라 농사를 제:보니 또떠나거든 사시른 {그런 사업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이십 년 하다가는 또 농사 대 들어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농사를 지어 보니 또 편하거든 사실은}

@ 아, 그래요? 농사를 어릴 때도 지꼬 잠깐 사어블 하다가 {아, 그래요? 농사를 어릴 때도 짓고 잠깐 사업을 하다가}

시방도 아이 시방도 좀 제:요. 시방도 꼬추 두:말 캐:고. {지금도 아니 지금도 좀 지어요. 지금도 고추 두 말 캐고.}

@ 아, 네. {아, 네.}

@ 그러머는 어르신, 그 객찌 생활은 어떠케 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르신, 그 객지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객찌 생화른 제가 그리 마니 아내찌요. {객찌 생활은 제가 그리 많이 안 했지요.}

그 일본시대 때 이:항년 하꼬 땡기다가 해방되고, 고 다:메 그 광:사니 저 삼척 도:계 광산도 그
 털찌게 그때는 우리가 살:기가 상다~이 곤:궁해가지고서는 내가 그 야:간중하꼬는 인제 땡게찌요.
 {그 일본시대 때 이 학년 학교 다니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 광산이 저 삼척 도계 광산도 그
 털 적에 그때는 우리가 살:기가 상당히 곤궁해 가지고서는 내가 그 야간 중학교 하는데 다녔어요.}

나즈른 심부름 하고 일하고 그날 바무로 좀 땡기고 그러케 일쪽 글쭙 배워가지고, 현재까지 내
 가 흙 글에 포구니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또 어떤 이러케 제:가 이러케 땡 땡기면서 조:혼 그
 이르 이 저 모래가 이씨머는 거기 안저서 소늘 문대가지고 거기 그를 이러케 소느로 쓰고, 그래
 한:문도 서당땡에 양가고 천자를 하루에 녀짜씩 내가 자동으로 해:서 배워 배워 가지고 현:재까지
 도 내가 그 그를 좀 쓰고 이썸:다. {낮엔 심부름 하고 일하고 그날 밤으로 좀 다니고 그렇게 일쪽
 글 쭙 배워가지고, 현재까지 내가 흙 글에 폭운이 저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또 어떤 이렇게 제
 가 이렇게 땡 다니면서 좋은 그 이 저 모래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손을 문대 가지고 거기 글을
 이렇게 손으로 쓰고, 그래 한문도 서당 방에 안 가고 천자를 하루에 녀 자씩 내가 자동으로 해서
 배워 배워 가지고 현재까지도 내가 글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저거 저거또 내가 제:가 쓰고 {쓰고 저거 저것도 내가, 제가 쓰고}

@ 네, 네 {네, 네}

그래 제 자 자동으로 해서 제날까지 내 그 개명 서:명 하구, 그 여러가지 그 지반 족뽕 가튼 거
 내가 존소글 으 지케 나가고 그러지. {그래 자동으로 해서 제 날까지 내 그 개명 서명 하고, 그
 여러가지 그 집안 족보 같은 거 내가 존속을 지켜 나가고 그러지.}

@ 그럼 어르신 항녀근 그러면 초등학교? {그럼 어르신 학력은 그러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예.}

@ 조리블 일 일 일본시대 때? {졸업을 일본시대 때?}

하고, 해방 해방 후:에 선동학교, 어 초등학교 유강년 조리파고. {하고, 해방 해방 후에 선동학
 교, 요 초등학교 육학년 졸업하고.}

@ 아, 그러셔찌요? {아, 그러셨어요?}

@ 그러머는 어르신, 고러케 객찌 생활한 게 아까 그러케 저기 도계 얼마나 생활하셔찌요? {그러
 면은 어르신, 그렇게 객찌 생활한 게 아까 그렇게 저기 도계 얼마나 생활하셨어요?}

거게 한 이:연 이씨찌요. {거기에 한 이 년 있었쥬.}

@ 이년 이꼬, 그 다오메 군생화른 안 하션나여? {이 년 있고, 그 다음에 군 생활은 안 하셨나요?}

구네는 양가쥬. {군에는 안 갔쥬.}

구네는 왜냐하므는 그때 그 우리는 그 소집 정:지베 걸레가지고 신체검사가 어 해써도 거 인제
 그 갑:쥬 울쥬 병쥬 이래 병쥬은 양:가꺼든뇨. {군에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우리는 그 소집 정집에
 걸려 가지고, 신체검사를 했어도 거 인제 그 갑쥬, 울쥬, 병쥬 이렇게 병쥬은 안 갔거든요.}

그 병쥬으로 안 따고서는 그양 요 민방위로 떠러지고 마라쥬. {그 병쥬을 안 따고서는 그양 요
 민방위로 떨어지고 말았쥬.}

@ 아 그러면 계속 여기 그냥 정선에서 {아 그러면 계속 여기 그냥 정선에서}

아, 정선 그래 정서니예요. 이 정선 하라버지, 그 강능서 올라오셴는데, 입썰 하라버지가 저한테
 그 입썰선 세:조, 고 하라버지가 십칠때 하라버지가 강능서 이 보따리 질머지고 정선에 와서 정차
 글 해:판 마리오. {아, 정선, 그래 정서그렇쥬, 정선이에요. 이 정선 할아버지, 그 강릉에서 올라오
 셴는데, 입썰선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입썰선 세조, 그 할아버지가 십칠 대 할아버지가 강릉에서
 이 보따리 짊어지고 정선에 와서 정차를 했단 말이요.}

@ 입썰 하라뻘니미 {입정 할아버님이}

정차글 해가지고, 거개 인제 일때버땡 현:재까지 이 제: 제한테는 칠십 어어 십칠때소느로 제가

지금 마꼬 이썸미다. {정착을 해 가지고, 거기 인제 일 대부터 현재까지 이 제, 저한테는 칠십 어
어 십칠 대 손으로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간두루 오:뽕 삼십년 우리 역싸지요. {그러니까 오백삼십 년 우리 역사지요.}

@ 와, 예 대단하시네요. {와,예 대단하시네요.}

@ 어르신 혹씨나 어르신 그...그 태어나신 고시 아까 얘기해뵈 {어르신 혹씨나 어르신 그 그 태어
나신 곳이 아까 얘기했던, }

직편니 {직전리}

@ 직편니자나요. {직전리잖아요.}

@ 거기서 인제 어르신 대:대로 쪽: 사라오셨...쨌?{거기서 인제 어르신 대대로 쪽 살아오셨저?}

예.{예.}

그 우리 파, 우리 증:조 하라버지가 팔:형제 나썸습니다.{그 우리 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팔
형제 났었습니다.}

@ 팔 형제요?{팔 형제요?}

우리 증:조 하라버지가 팔:형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팔 형제.}

우리 하라버지 형제가 오:형제.{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오 형제.}

그 팔 형제 소니 얼마나 마네요. {그 팔 형제 손이 얼마나 많아요.}

동거제 팔촌 함무리에 팔촌, 육촌 시베촌 나가는데 {동거제 팔촌, 한 무리에 팔촌, 육촌 십여
촌 나가는데}

@ 아...그러시구나. {아...그러시구나.}

정선서, 정선 알지? 정선. {정선에서, 정선 알지? 정선.}

정선 하라버지가 정선 오셔가지구, 거겐 그러니까 구: 대 마:네 구 대 손 손:, 상 짜 명 짜 하라
버지가 나한테 팔 때 하라버지가 보따리 걸머지고 삼** 정착글 해가지고, 거게서 인제 쫓 내려 오
서 가지고서, 삼: 대를 또 독씨늘 아들 요 아들 삼:대를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고조 하라버지가
팔 형제를 나:따, 팔 형제. {정선 할아버지가 정선 오셔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구 대 만에 구 대
손 손:, 상 자, 명 자 할아버지가 나한테 팔 대 할아버지가 보따리 걸머지고 삼** 정착을 해가지
고, 거기에서 인제 쪽 내려 오서 가지고서, 삼 대를 또 독신을 아들 요 아들 삼 대를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팔 형제를 났:다, 팔 형제.}

대 우리 팔, 팔 자손 형, 거 내가 고 인저 곧 고계 그 감:재 오:씨게 날 때, 내가 출생지 그거
래요. {대 우리 팔, 팔 자손 형, 거 내가 인제 거기에 그 감자, 옥수수 날 때, 내가 출생지 그거
래요.}

내가 내 그 호:가 옥쳐니미라구.{내가 내 그 호가 옥천임이라고.}

구슬 옥 짜 옥씨리라고, 또 고 여펜 새물추리라고 샘:난다고 새물추리, 그래서 내 요 요 이기
내 옥천*** 이리 여게. {구슬 옥 자, 옥실이라고, 또 거기 옆에 새물추리라고 샘 난다고 새물추리,
그래서 내 요 요 이게 내 옥천**** }

@ 옥천, 아 샘:물, 샘:무리 난다고요? {옥천, 아 샘물, 샘물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내 내 호:를 그러케 지어나썸요 내가. {그래서 그 내 내 호를 그렇게 지어뵈어요,
내가.}

@ 아, 네. {아, 네.}

@ 어르신는 여기서 그 지블 지블 제 보썸썸요, 집? {어르신는 여기서 그 집을 집을 지어 보썸어
요, 집?}

음음, 이거 여: 이짜내. {음음, 이거 여기 있잖아.}

@ 혼자 아니 그 옰나레 {혼자 아니 그 옛날에}

내소느로 {내 손으로}

@ 예, 소느로 지블 {예, 손으로 집을}

소느로 안 제바썰. {손으로 안 지어 봤어.}

@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럼}

@ 옌나레 여기는 그 절기에 따라서 세시풍속까튼 게 이썸짜나요? {옛날에 여기는 그 절기에 따라서 세시풍속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응~ {응}

@ 근데 보통 절기에 따라서 어떤니를 행는지를 좀 알고시폰데 응 정위레는 주로 뭘하면서 노라썸요, 정위레는 {그런데 보통 절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응, 정월에는 주로 뭘 하면서 놀았어요, 정월에는?}

농, 이, 농, 이런 농:초네는 머 겨우레 저월, 음녀썰~월 거진 놀:지, 저 그, 저 겨우레는 정월 딸저레는 시비될 시비될 드러가면 거 새끼, 장식썰끼 어제 바:짜내 저 근네 그 메주가주 끈능거 그느를 쳐서 꼬아가주고 방바~이 그때는 그 자리를 그 새끼자리를 매: 까라꺼든. {농, 이, 농, 이런 농촌에는 뭘 겨울에 정월, 음력 정월에 거의 놀지, 저, 그, 저, 겨울에는 정월 달 절에는 11월, 12월 들어가면 새끼, 장식 새끼 어제 봤잖아, 저 건네 그 메주 가지고 꼬는 것, 그놈을 쳐서 꼬아가지고 방방이 그때는 그 자리를 그 새끼 자리를 매어 깔았거든.}

@ 새끼자리를료? {새끼 자리를요?}

어, 그 꼬고 짜:가주고 자 자리매고 또 부두자리, 부두자리라능건 이 부들 이썸. {어, 그 꼬고 짜서 자리 매고 또 부드자리, 부드자리라는 건 이 부들 있어.}

구드리 노네선 농:까에선 그 크:는데, 크면 꼬걸 가주선 부터 잘 인제, 매:고.

거 이 또 하라버지 나마~이네 요 꼬:고 뭘,그 그르매:고, 아:처구로 이때 이 막 이 때면 가 소:주, 소주 끼리서 소굴썰, 여무리라고 , 여물.

소 주굴 여무리라 한다고, 여물.{소 죽을 여물이라 한다고, 여물.}

여물 이 퍼 매기고, 그 판새문 또 식썰하고, 고다:매 소 인젠 마 마:작, 마:우에 꼬는 마자기 바께내며는 걸 마자기라고 한다고.

마:장, 마:장, 마:장에 내 매:고, 또 올 겨우레는 해가 짜르거든.

시가니 업짜노.

그럼 또 나:제다 이 뭘 자리매 업꼬, 그 겨우레도 요 잘 이 장식짜리 뭘이 이 짜:매고 이러면 종쪽 , 요 또 꼬:다가 시름 고만 두고,또 꼬:고 매:고 인제 그기 장식짜리 하루씩 일 매 자면 일, 뭘 이:틀, 구든 사람 한 단, 안 대 여썰 이러케 매:고 이럴때며, 거기 인제 겨울 겨우레는 소 일꺼리지.

시방은 모 그렇 게 하나꺼두 업쓰니까, 나도 이리 안자 까기 저네 업쓰니까, 쉬지만 뭘 이게 썸모, 병위네 가서, 여기 고스뭇또 치고, 유:또 치고 시바는 그래 시골 보내조,

옌:나레는 그걸 가지고, 옌:나레는 그 화토라능 건 돈:따 머꼬 할 썸게, 그 투정이랑 게 이썸.

그 외:에는 업썸꺼든, 그룽기.

옌:날 안 조아.

@ 보통 이제 정위리 되며는, 정위레 인제 하루가 고로케 가자나요. {보통 이제 정월이 되면, 정월에 이제 하루가 그렇게 가잖아요.}

@ 그러며는 보통 메 썸, 옌나레는 메 썸 이러나썸니까, 보통? {그러면 보통 몇 썸, 옛날에는 몇 썸에 일어났습니까, 보통?}

옌나레도 이때 다 인나지.{옛날에도 이때가 되면 다 일어나지.}

일 때무네 일곱, 마냐게 뭘 그 전날 뭘 겨우레도 된:니를 해따던지, 또 술 천 마니 머거따던지, 그러면 뭘 아침 일고, 여덜 썸 때 인나든지, 그러치마는 보:통에 인제 보며는 여서 썸면 그 가정 농사 농가썸번 여서 썸면 다 인나가 소 죽, 소주 꼬려, 소는 그때 다: 이썸, 그 집썰따뭇. {일 때문

에 일곱, 만약에 뭐 그 전날 뭐 겨울이래도 된 일을 했든지, 또 술을 엄청 마니 먹었다든지, 그러면 뭐 아침 일곱, 여덟 씨 때 일어나든지, 그렇지마는 보통에 이제 보면 여섯 씨면 그 가정 농사 농가집은 여섯 씨면 다 일어나 소 죽, 소죽 끓여, 소는 그때 다 있어, 그 집집마다.}

다: 이꼬, 할머니 할머니네는 바메 물레 이 삼 삼짜내요, 요 대마.{다 있고, 할머니 할머니네는 밤에 물레 이 삼을 삼자네요, 이 대마.}

이거 인제 이케 삼:따가, 아이 열뚜씨 까지 사든 다 이꼬, 고 어데 고 다음 아 여덟, 열한 시까지 사들 때도 이꼬 뭐, 열 두 씨 반까지 사들 때 이꼬, 그램 주무시따가 또 이때 인나가지고 또 이래 상:꼬, 다: 사르문 이 물:레 저쳐네, 물레. {이거 이제 이렇게 삼다가, 아이 열두 시 까지 삼은 다 잇고, 그 어디 그 다음 아 여덟, 열한 시까지 심을 때도 잇고 뭐, 열두 시 반까지 삼을 때 잇고, 그럼 주무셨다가 또 이때 일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삼꼬, 다 삼으면 이 물레 저쳐네, 물레.}

그, 이 때 함 인나가지고, 물레 더렁더렁더렁딩 짜가지고, {그, 이때 한 번 일어나 가지고, 물레 더렁더렁더렁딩 짜가지고,}

@ 아치메 일찍 이러나씨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 그럼. {어, 그럼.}

@ 밥 해야 되자나? {밥을 해야 되잖아?}

어, 그래 이제 시방 이때 해 가주고 여섯 씨, 안 췌자네, 일곱 씨 되니 췌자네. {어, 그래 이제 지금 이때 해 가지고 여섯 시, 안 쇠잖아, 일곱 시 되니 쇠잖아.}

일곱 씨즈미요. {일곱 시 쯤이요.}

그래이머는 그 남자는 소주 끼리여, 호조글 먼저끼리 퍼주지. {그러면 그 남자는 소죽을 끓여서 호죽을 먼저끼리 퍼주지.}

@ 제:일 먼저 하능 게 그거네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네요?}

소주, 그래 고 다:메 인제, 소주 끄리고, 소주 끄리나 부어케 큰 부엌 가메 소테 무를 쳐서 양가메다가 가따 주며는, 거기에 불 너 가지고서는 인제, 거 조반, 조반 식싸하고 그래치. {소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소죽 끓이고, 소죽 끓이나 부엌에 큰 부엌 가마니 술에 물을 쳐서 안감에다가 갖다 주면 거기에 불을 넣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조반, 조반 식사하고 그렇지.}

@ 아, 그래요?{아, 그래요?}

그래니까 소가 마빠 춤따고. {그러니까 소가 ** 춤다고.}

이 짝주 뜨심 물 머저라. {이 직수 뜨신 물 먹어라.}

이런 이런 의미로 소주기 소죽 퍼서 소가 인제 머저씨, 시자캐 머그머는 사:라몬 인제 사:람 밥 쏘세 바블 진능거야, 진는다. {이런 이런 의미로 소죽이 소죽을 퍼서 소가 이제 먹어씨, 시작해 머그면 사람은 이제 사람 밥술에 밥을 짓는 거야, 짓는다.}

여따 바블 인제 하능 거이지, 바블 진는다 이래지. {여기에다 밥을 이제 하는 것이지, 밥을 짓는다 이러지.}

@ 네, 소죽 끄려서 인제 소죽 주고,{네, 소죽 끓여서 이제 소죽 주고,}

주고, 남잔 주고, 그 물로 그 부리 잉거리 부를 쳐서 소테다가 너어가주 소테 뿌를 그 타며는 그 아주머네가 소테다 밥싸를 이러 너어서 바블 시자칸다. {주고, 남자는 주고, 그 물로 그 불의 잉거리 불을 쳐서 술에다가 넣어 가지고, 술에 부를 그 타면 그 아저머니네가 술에다가 밥쌀을 일어 넣어서 밥을 시작한다.}

@ 음, 이러케 이제 바블 해, 하고 나며는, 바블 바블 할 뚱안 남자는 뭐하나요? {음, 이렇게 이제 바블 해 하고 나면 밥을, 밥을 할 동안 남자는 뭐하나요?}

남잔 또 이 뭐 저 바께 모 시켜네 가서 마리아 뭐 대게 춤찌 안하면 채리고 가서 또 나무 쪼개고, 또 드러와서 또 모짜리 줌 매고, 고담 필싸 도라오는 머네 식싸하능게 가:치면 여덟 씨 여덟 씨 반, 겨우레 느께 먹찌. {남자는 또 이 뭐 저 밖에 뭐 식전에 가서 말이야, 뭐 대게 춤찌 않으면

채리고 가서 또 나무 쪼개고, 또 들어와서 또 못자리 좀 매고, 그 다음 ** ***** ** 식사를 같이 하면, 8시, 8시 반, 겨울에 늦게 먹지.}

@ 인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겨우리 되면 그래도 좀 이제 해가 뜨자나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되면 그래도 좀 이제 해가 뜨잖아요?}

@ 그럼 그 다음에는 뭐하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나요?}

겨우레 그닥, 그에 뭐, 인제 그,{겨울에 그닥, 그에 뭐, 이제 그,}

@ 아까 얘기 해땡 거처럼 계속 자리 매고, {아까 얘기 했던 거 처럼 계속 자리 매고,}

매:고, 이제 그다 그거또 뭐, 언제 어제 뭐 정월 되면 하능 게 아니고, 하면 십이월 시비월 드러 가면 일찍 새끼 좀 매:가지고, 이월 딸 다 매:치우머는 고담 부터능 그냥 놀:지 모. {매고, 이제 그다 그것도 뭐 언제 어제 뭐 정월 되면 하는 게 아니고, 하면 11월, 12월 들어가면 일찍 새끼 좀 매가지고, 1월 달 다 매서 치우면 그담 부터는 그냥 놀지 뭐.}

@ 오저네는 오저네두, {오전에는 오전에도,}

오저니고 오후고, 그담 이우제 서로 놀러 가 가주고 이우지 가서 인제 옴:날 얘:기두 재무로 하고 나즈로도 뭐 서로 인제 사라간 얘:기도 하고, 그건 그러 놀다가 지부로 오구, {오전이고 오후고 그 다음 이웃에 서로 놀러 가 가지고, 이웃에 가서 이제 옛날 얘기도 재미로 하고, 낮에도 뭐 서로 이제 살아간 얘기도 하고, 그건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오고,}

또 거게 또 뭐 청구 지배 가땡, 지반 지배 가땡, 그럼 뭐 한테 전씨 뭐 어더 머꼬 경찰시 하면 또 어더머꼬, 서로 와따가따 그냥 그러거야. {또 거기에 또 뭐 친구 집에 갔던, 집안 집에 갔던, 그럼 뭐 한테 전씨 뭐 얻어 먹고, 경찰시 하면 또 얻어먹고, 서로 왔다 갔다 그냥 그러는 거야.}

겨우레 한창 인제 그러요, 노:지. {겨울에 한창 이제 그래요, 놀지.}

놀다가 보메 인지 그, 사월 십오일 경이며는 상:목, 상:모기린 상:목, 뭐 사네 가 인제 상:모카고 뭐, 고 다메 청명한시기 사:월, 오:이리 청명한시기 아니여. {놀다가 봄에 인제 그, 4월 15일 경이면 식목, 식목일인 식목, 뭐 산에 가 이제 식목하고 뭐, 그 담에 청명한식이 4월, 5일이 청명한식이 아니야.}

그래이며는 우리 조상드리 인는 묘, 산소, 어디 이장을 한다, 다시 딴 데 모신다, 그러면 그런 그날 가서 그거 하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있는 묘, 산소, 어디 이장을 한다, 다시 다른 데에 모신다, 그러면 그런 그날 가서 그거 하고,}

@ 왜 그날 모십니까? {왜 그날 모십니까?}

우리 인제 그, 가마써봐, 오일 라른 그 공명이리여. {우리 이제 그, 가만히 있어 봐, 5일 날은 그 공명일이요.}

공명이리 마는 일련 삼백 육십 오이레 최:고에 조은 나리다. {공명일이 많은 일년 365일에 최고의 좋은 날이다.}

응, 거 인제 조상에 빼고리라든지 이러케 이러케 이 모시고 땡겨도 무해무드미다. {응, 그 이제 조상에 빼골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 모시고 다녀도 무해무득이다.}

아 무해무등, 아무 지장이 업따. {아, 무해무득, 아무 지장이 없다.}

@ 예. {예.}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고,}

또 상:모기린 낭가라 신, 여게 가 싱꼬, 또 뭐 여러 째 그러케 하고, {또 식목일은 나무 가지고 가 신, 여기에 가서 심고, 또 뭐 여러 째 그렇게 하고,}

@ 어떤 낭구를 시먼나? {어떤 나무를 심었나?}

나무 모, 뭐 옴:나레도 그 뭐 조은 마래기는 모, 그 무궁화를 가따가 싱꾸, 어테에 가따 산소 까: 씬는 다든지, 매마다 가: 심는 다든지, 또 보자면 또 그, 조은 마리 모 째:나무 가통 거, 무:하능 거 땡 꾸루 가따가 일: 시꼬, 또, {나무 뭐 뭐 옛날에도 그 뭐 좋은 마래기는 뭐, 그 무궁화

를 갔다가 심고, 어디에 갔다 산소 가에다 심는 다든지, 매마다 가에 심는 다든지, 또 보자면 또 그 좋은 마리 뭐 잣나무 같은 거 뭐 하는 거 몇 구루 갔다가 이렇게 심고, 또,}

우리 지바니레 그릉 게 아니며는 또 한 지바네서, 의자관 애플, 그 잉여장사라 그러지, 잉여 장사 세:면, {우리 집안일의 그런 게 아니면 또 한 집안에서 의자관 애플, 그 잉여장사라 그러지, 잉여 장사 세면,}

@ 무슨 장사요? {무슨 장사요?}

잉여장사. {잉여장사.}

@ 아, 잉여장:사. {아, 잉여장사.}

요거를 다시 가따 앵겨 하능 거 잉여장사라고.{이거를 다시 갔다가 옮기는 거 잉여장사라고.}

@ 네. {네.}

그래노코 이거또 그 집, 그 집 까서 하루 가서 친정애를 가서 그럼 아주 귀쳐네 잉묘가 또 묘:로, 시방은 코푸레미 파지마는 사 사:라미 가서 호미, 광이로 사부로 전소가 이 이런 큰: 봉구늘 헤쳐가주 거 다: 이래가주 거게 또 거 빼고를 수지패가지고 그 다: 해서 인제 또 이쥌그로 와서 어 청:마리라 하지. {그렇게 놓고 이것도 그 집 그 집 가서 하루 가서 친정을 가서 그럼 아주 귀찮어, 잉묘가 또 묘로, 지금은 포크레인이 파지만 사 사람이 가서 호미, 광이로 삼으로 전소가 이 이런 큰 봉군을 헤쳐 가지고 그거 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또 그 빼골을 수집 해 가지고, 그 다 해서 이제 또 이쪽으로 와서 어 청말이라 하지.}

재워 논는데 청광을 해가조, 또 묘: 이쓰면 진저인제, 사:라미 요리 이쓰면 우리 동생 모여 가주고 그러케 하지 인제 그걸 잉여 장사를 치는 거지.{재워 논는데 청광을 해 가지고, 또 묘가 있으면 진저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동생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이제 그걸 잉여 장사를 치는 거지.}

@ 청명인은 ****안크러지. {청명 있는 ****안 그러지.}

그러케 인제 그, 때가 되면 인제 그러케 하고, 고 다:메 인지 이참, 한시게 지내며는 전소가 땅 이 다 노꼬, 고 다:메 인제 대:마, 삼, 음, 그거 인제 그래서 사물 파:중하지 시방. {그렇게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참, 한식에 지내며는 전소가 땅이 다 녹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마, 삼, 음, 그거 이제 그래서 삼을 파중하지, 시방.}

시방은 파:중 하능데 옴나른 사물 푼:다 그론다구. {지금은 파중을 하는데 옛날은 심을 푼다 그 런다고.}

그담 소를 가주 갈:고, {그 다음 소를 가지고 갈고,}

@ 삼을 푼다고요? {삼을 푼다고요?}

푼:다고.{푼다고.}

@ 그게 무슨 마리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파:중이 시방은 파:중한다.{그 파중이 시방은 파중한다.}

땅에 인능 걸 파:중한다 해, 옴:나렌 삼: 푼다 이래써요, 그걸. {땅에 있는 거를 파중한다 해, 옛날엔 삼 푼다 이랬어요, 그걸.}

@ 아, 삼, {아, 삼,}

사물 푼:다. {삼을 푼다.}

@ 아, 땅 파능 거를, {아, 땅 파는 거를,}

어, 사물 푼다 이래써요.{어, 삼을 푼다 이랬어요.}

@ 아, {아,}

옴:날 우리 그거 마른, 삼, 오늘 삼 푼:다.{옛날 우리 그거 말은, 삼, 오늘 삼푼다.}

@ 땅이 마니 노가 쓰니까 땅갱, 노, 노가쓰니까 땅을 함 번,{땅이 많이 녹아 쓰니까 **, 노,녹았으니까 땅을 한 번,}

가라 어퍼 가주고 인제 {갈아 얹어 가지고 인제,}

@ 가라 엄능 거네요? {갈아 얹는 거네요?}

그래, 가라, 어퍼 가주고 인제 씨:를, 파:중 하능 걸, 사물 푼:다 그래따고. {그래, 갈, 얹어 가지고 이제 씨를 파중 하는 걸, 삼을 푼다 그랬다고.}

가리하는 애:기까. {같이하는 애:기가.}

그거는 삼, 그거는 삼 대:마를 파:중, 그 고려 때 해면 실라 때 해면, 그때 그 풀면서, 파중을 하면서 시작 애:기가, 푼:다 이러케 내려옴 거요. {그거는 삼, 그거는 삼 대마를 파중, 그 고려 때 했던 신라 때 했던, 그때 그 풀면서 파중을 하면서 시작한 애:기가 푼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 네. {네.}

그러케 인제, 그러다 보머는 받: 꼬, 그거또 *** 하다 보머는 인제 또, 감자, 감자 또 싱꼬, 또 감자 시문 다오메는 또 봄:보리, 봄:보리 갈:고, 또 모 귀:리 갈:고, 고 담 옥썴수 갈고, 조이, 쿵, 당쿵, 당쿵이랑 게 이썴, 당쿵.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밭 그, 그것도 *** 하다 보면 이제 또 감자, 감자 또 심고, 또 감자 심은 다음에는 또 봄보리, 봄보리 갈고, 또 뭐 귀리 갈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갈고, 조, 쿵, 당쿵, 당쿵이란 것이 있어, 당쿵.}

뭐 적두, 팔:, 그렇거지. {뭐 적두, 팔, 그런거지.}

어이 가지 가지 수이, 연차저그로 쪽: 하며는 으, 최:고 느껴까지 하능 거시 망:중까지 해, 망:중.{이 가지 가지 수가 연차적으로 쪽 하면 최고 늦게 까지 하는 것이 망중까지 해, 망중.}

소:, 그 인제 입, 그 하고, 뭐야. {소, 그 인제 입, 그 하고 뭐야.}

저 한식, 고 다:메 이파, 소:만, 망중, 으 뭐 저로 완 버름 만큼 시골 막 들자네. {저 한식, 그 다음에 입하, 소만, 망중, 으 뭐 저로 * 벌은 만큼 시골로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개인저그로, 한 달반, 달반 또 한 두:어 달, 거이 뭘시끼라 하지. {그러면 개인 적으로 한 달 반, 달반 또 한 두어 달, 거의 뭇이라 하지.}

파:중을 하지. {파중을 하지.}

농사를. {농사를.}

끝나면 또, 하면 또, 먼저 가룽 건 사미 막 이만씩 올려 오자네요. {끝나면 또 하면 또 먼저 갈은 것은 삼이 막 이만큼씩 올라 오잖아요.}

대마가, 오라오면 또 함 마리 삼 매:야지. {대마가 올라오면 또 한 번 삼 매야지.}

또 그거 매:고 나면 좀 이쓰면 또 감잘 로이로. {또 그거 매고 나면 좀 있으면 또 감자 올라오지.}

감자 함 번 매:야지.{감자 한 번 매야지.}

또 고담 옥썴수 방 매:야지. {또 그 다음 옥수수 밭 매야지.}

조이 밤 매:야지. {조이 밭 매야지.}

군 밤 매:이지, 삼:춘 그 드레가 일 하능거지. {군 밭 매야지, 삼춘? 그 들에가 일 하는 거지.}

그래 가트면 갈:게 추수동장이 요 천자 이짜나, 천자.{그래 같으면 가을에 추수 동장이 이 천자에 있잖아, 천자.}

천자에, 추수 동장이요, 갈: 추 짜, 겨울 동 짜, 고씨글 거뒀 키우능 기 고씨글 다: 거뒀 드려 가주고, 마당에 타:추 짜 타, 떠:능 거 돌깨로 떠:능거.{천자에 추수 동장이요, 가을 추 자, 겨울 동자, 곡식을 걷어 키우는 게 곡식을 다 걷어 드려 가지고, 마당에 타추 짜 타, 떠는 거 돌깨로 떠는 거.}

시방 옌나렌 배:로 떠러짜네. {시방 옛날엔 벼로 떨었잖아.}

거따가 도르며는, 인제 이리 곧 끝나지. {거기에다가 돌리면 이제 일이 곧 끝나지.}

끝나면 함 버니나 남자들, 갈: 김장. {끝나면 한 번이나 남자들, 가을 김장.}

간 간 가 김장 하고, 배추 배추 짐장하고, 갈:게 마늘, 마늘 노코, 갈:보리 갈:고, 갈:보리, 갈:보

리 갈:고, 고 다:메는 다 끈나, 끈나면 저장해 노면 뭐하나? {갓 갓 갓 김장 하고, 배추 배추 김장 하고 가을에 마늘, 마늘 놓고, 가을보리 갈고, 갈보리, 갈보리 갈고, 그 다음에 다 끝나, 끝나면 저장해 놓으면 뭐하나?}

겨우레 연탄, 겨우레 나무, 낭갈, 눈: 올 때 까지 계:소카능기어. {겨울에 연탄, 겨울에 나무, 나무, 눈 올 때 까지 계속 하는 거야.}

@ 음, 눈 올 때 까지요? {음, 눈 올 때 까지요?}

바패 먹찌. {밥 해 먹찌.}

이 가매 소테 이거 소:죽 꼬리능 거는 그 무리 초롱으로 한 네:청씩 드러가요. {이 가마니 술에 이거 소죽 끓이는 거는 그 물이 초롱으로 한 4청씩 들어가요.}

그러면,{그러면}

@ 초롱은 어트케 생겨써요? {초롱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초롱 이짜네, 이 초롱, 뭐시 함청으로 된 게 초롱. {아, 초롱 있잖아, 이 초롱, 뭐 함청으로 된 게 초롱.}

@ 아, 네. {아, 네.}

거리 먼 사:라든 그걸 무지게라 그래써, 무지게. {거리 먼 사람은 그걸 물지게라 그랬어, 물지게.}

물 지고 땡기능 거. {물 지고 다니는 거.}

그걸 지:고 땡겨 가 가주고드로, 또 아주먼네는 동이, 동이. {그걸 지고 다녀 가지고 또 아주먼네는 동이, 동이.}

초롱이 업쓸 때~ 우리 저 옥똥이라 이써. {초롱이 없을 때는 우리 저 옥똥이라 있어.}

흘그로 맨드는 또 동이 이상한 거. {흙으로 만드는 또 동이 이상한 거.}

거기 보다감 거러체 어퍼지면 펍 깨지면 건 건 돼? {거기 보다가 걸려서 엎어지면 펍 깨지면 그게 돼?}

아니 그래니까 아:주 잘 조심히 땡겨야지 시골써 가주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잘 조심히 다녀야지, 시골에서 가지고.}

그 무리여, 무리 여드레기 뭐이 저 어떠카나, 그래가주고, 소죽 밥 해주구는 나주른 그럼 거기 이 장자기라 장작. {그럼 물이 물이 여드레기 뭐 저 어떻게 하나 그래 가지고 소죽 밥 해주고는 낮으로 그럼 거기 이 장작이라 장작.}

나무 장작. {나무 장작.}

그렇거는 그 근때만 하더라도 그러케 내 산 업씨머는 나메 막 모뻘자네. {그런 거는 그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내 산 없으면 남의 막 못 배잖아.}

우카네 가만 데도 비고 모 자여니 주면 또 비:고, 장작 해랑 건 건 비상용으로 해노코,

고 다메 이 뭐이야, 잡똥생이 나무. {그 다음에 이 뭐야, 잡똥사니 나무.}

송까락 이렇걸, 그 빈하니라 하지, {손가락 이렇걸, 그 빈한이라 하지.}

그렇걸 가따 한 빼개진, 칠십쯤 봐다가 하루 모 두: 짐도 하고 석 켜도 하고, 그래행 쟁:여 노코는 겨우레 그걸 장작 푸어케다가 가따 놔:서는 때면 하루 한 짐씩 드러, 한 짐씩. {그런 걸 갔다 한 ***, 칠십 짐 모아다가, 하루 뭐 2짐도 하고, 3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쟁여 놓고는 겨울에 그걸 장작 부엌에다가 갔다 놔서는 때면 하루에 한 십씩 들어, 한 짐씩.}

하루 한 지미면 석 파리머는 석팔 러문 아홉 찌미면 구십 찌물 해야 되자나. {하루 한 짐이면 석 달이면 석 달 넣으면 아홉 짐이면 구십 짐을 해야 되잖아. }

@ 보통 어, 얼마나 듬니까, 겨울래? {보통 어, 얼마나 듬니까 겨울날에?}

겨울 낭기 낭기 함 배기면 되지.{겨울 나무 나무 한 백이면 되지.}

백짐. {백 짐.}

그래 고걸, 그걸 보라고. {그래 그걸, 그걸 보라고.}

백:찌미면 하루 석 짐씩 세:면 얼마 돼? {백 짐이면 하루 석 짐씩 세면 얼마 돼?}

한: 다레 한: 다레 *** 한: 달. {한 달에 한 달에 *** 한 달.}

그거또 하나또 안 넌능가? {그것도 하나도 안 넣는가?}

그러케 그 겨울래내 그 할 때, 누:니 뿌익, 누:니 막 요 아페 사네 이러케 오면 묻 까자나 추와서.{그렇게 그 겨울래내 그 할 때, 눈이 뿌영게, 눈이 막 이 앞에 산에 이렇게 오면 못 가잖아, 추워서.}

그냥 보리쳐 엄마하머는 한다고 그러치 안음 운:다레 가면 해가 안 들자네. {그냥 *** ****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윤달에 가면 해가 안 들잖아.}

양:재 가면 사:라미 한 이 동네 사:시포가 살:머는 사:시비 나무꾸니라고. {양지에 가면 사람이 한 이 동네 40호가 살면 40이 나뭇꾼이라고.}

한 지베 둘:또 이꼬,. {한 집에 둘 도 있고.}

그럼 나무가 여기는 거의 업젠네요?{그럼 나무가 여기는 거의 없겠네요?}

시방은 연탄 때고 지름 때니까 좀 나그로 아이고 뭐 그 잡똥 잡똥하니 짹: 차찌. {지금은 연탄 때고, 지름 때니까 좀 나무가 아이고 뭐 그 잡똥 잡똥하니 짹: 찻지.}

그저네는 해:마다 들 비:지. {그전에는 해마다 다들 베지.}

올해 여거 비:무는 거기는 한 해 미뤄가지고 저: 비고, {올해 여기 베머는 거기는 한 해 미뤄가지고 저기에 가서 베고.}

내녀네 여: 비:고, 또 후녀네 저:가 비:고, 아 먼저 얘:기 해짜나, 정오년. {내년에 여기 베고, 또 후년에 저기가 베고, 아 먼저 얘기 했잖아, 정오년.}

내년 후머는 정오년*** {내년 후면 정오년 ***}

@ 이 근처 한 마니 *** 하는 사십 호 사라써요? {이 근처 한 많이 *** 하는 40호 살았어요?}

사:십 끄럼. (40, 그럼.)

@ 그러머는 그 정도 살머는 이 가까운 데 모타고 쪼끔 더 멀:리워서 나무 해 오고 그러젠네요? {그러면 그 정도 살면 이 가까운 데 못 하고 쪼끔 더 멀리워서 나무 해 오고 그러겠네요?}

요즘 가차운 놈 보다 먼저 하지, 가도 업:쓰니까. {요즘 가까운 놈 보다 먼저 하지, 가도 없으니까.}

나하고 가차운 데 내래도 할라고 욕셈차리고 가 하머는 업:씨면 자꾸 자꾸 멀리 가능기여. {나하고 가까운 데 나라도 할라고 욕셈차리고 가 하면 없으면 자꾸 자꾸 멀리 가는 거야.}

여:기여 그 이 키로면 오: 리요, 오: 리. {여기가 그 2키로면 5리야, 5리.}

이크로 바지 간다, 이 키로. {2키로 ** 간다, 2키로.}

이키로 까진 가서 해지, 왜. {2키로 까지는 가서 하지, 왜.}

해 지게로 질머지고 오능거여. {해서 지게로 짹머지고 오는 거야.}

옴:나렌 또 뭐 시:니 미투리 이짜나, 미투리, 미투리, 여 짹. {옛날에는 또 뭐 신발이 미투리 있잖아, 미투리, 미투리, 여 짹.}

신 미투리.{신, 미투리.}

@ 네, 네. {네, 네.}

뭐 여 뭐이 시방은 그거는 조:은 발, 뭐 시니써? {뭐 여기 뭐 시방은 그거는 좋은 발, 뭐 신 있어?}

시방은 또 옴:날 그러쿠 요즘 와서는 그 해방이후 후로 여기에서 사버니 쪼끄 나써, 농구화 뭐 운동화고 나오고, 털신 나오고 이래면 ****, 그저네는 미투리 그거, 이 감:발. {시방은 또 옛날 그렇고, 요즘 와서는 그 해방이후로 여기에서 사변이 조금 낫어, 농구화 뭐 운동화도 나오고, 털신 나오고 이러면 ****, 그전에는 미투리 그거, 이 감발.}

감:바리란 거 아라, 감:발? {감발이란 거 알아, 감발?}

@ 네, 네. {네, 네.}

@ 미테 쩌 나와쨌냐요, 여기 감발 나와쨌니다. {밑에 저기 나왔잖아요, 여기 감발 나왔습디다.}

음, 감:발, 감:발. {음, 감발, 감발.}

@ 그럼 그럼 걸 해 가지고, {그럼 그런 걸 해 가지고,}

그럼, 그 감:발하고, 미투리 신 썩고. {그럼, 그 감발하고, 미투리 신 신고.}

여게, 속 내:봉이 업써, 내:봉. {여기에 속 내복이 없어, 내복.}

그 옴:날 싸:라미 얼마나 가난하냐 이기야. {그 옛날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거야.}

@ 그쵸, 네. {그렇지요, 네.}

내:복 업꼬, 여기에 베:집, 어똥 거는 광:목, 명:, 홍명, 그럼 거 호겍때기썩 하나썩 해 입꼬, 사:진 여게, 절면, 절머썰 쩌 아:들, 청년씨나는 코트만 하나 썩 입꼬도, 사네 가서, 아 출꺼등, 그 래 여리 가라 그러지. {내복 없고, 여기에 벗죌, 어떤 거는 광목, 명, 홍명, 그런 거 훌겍대기썩 하나썩 해 입고, 사진 여기에, 젊은, 젊었을 적 아이들, 청년**는 코트만 하나 썩 입고도 산에 가서, 아 출꺼등, 그 래 이쪽으로 가라 그러지.}

어떤 데는 **** 미테 뿌라리 뿌라리 빠작 어러요. {어떤 데는 **** 밑에 불알이 불알이 바작 얼 어요.}

*** 추워서. {*** 추워서.}

@ 그러면 그 사네 가서 추우며는 어트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산에 가서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추워, 추워도 해야지, 추워도 뒷. {추워, 추워도 해야지, 추워도 뒷.}

그러 그러니까 여 여 장:갑또 아니야, 시방은 장:갑 찌자네요. {그러니까 이 이 장갑도 아니야, 지금은 장갑을 끼잖아요.}

@ 뒷 불평은? {뒷 불평은?}

만치모네, 장:갑 업썩매 맨:쌀 하면 여 여 까:시가 드러가 가지고, 그 래 찢리고 여 피가 나고, 나쳐 끌미 지고, 하이고. {많지모, 장갑 없으니까 맨살로 하면 여기 여기에 가시가 들어가 가지고, 그 래 찢리고 여기에서 피가 나고, ** 끝면서 지고, 하이고.}

얼마나 그 참 사능기 그 래:도 그기 옥썩수 바비나 실:퀸 머꼬, 응? {얼마나 그 참 사는 게, 그 래도 그게 옥썩수 밥이나 실퀸 먹고, 응?}

겨우레 숨:니부래 ,뜨꼬, 부드자리 깔:고, 자능 거또 큰: 행보기래 해따고. {겨울에 숨이불 뜯고, 부드자리 깔고 자는 것도 큰 행복이라 했다고.}

그, 그러게 사는 사람들도. {그,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그러게 모싸람도 꼭 차꼬.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많하고.}

나무는 보분 인는 사라문 보메 아쳐글 밥 머꼬, 저녁그론 죽 썩 먹 끄런데, 업는 사라문 아침 지어 오르면 주글 머거요. {나무는 보분 있는 사람은 봄에 아침으로 밥 먹고, 저녁으로는 죽을 썩 먹고 그런데, 업는 사람은 아침 지어 오르면 죽을 먹어요.}

그 싱냥이 흥녀니 지머는 싱냥이 겨울 머꼬 봄 까지 해꼬글, 헨 헨 꼬기 날 때 까지 먹찌 아느며는 이러까 옥썩수도 뎡 까마이, 감자도 뎡 까마이, 파또 뎡 까마 이써야 될 께 아니요? {그 식량이 흥년이 지면 식량이 겨울 먹고 봄 까지 햇곡을, 햇 햇 곡이 날 때 까지 먹지 않으면, 이렇게 옥썩수도 몇 가마니, 감자도 몇 가마니, 팔도 몇 가마니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레이머는 흥녀니 지머는 자 감자도 잘 안 돼찌, 보리도 안 돼찌, 청밀도 안 돼찌, 옥썩수도 안 돼지 하머는, 여 뎡 까마니 안 되머는 그 내녀네 새로 나온 곡써글 머기 위해서는 싱냥을 먹찌 하머는 바블 해 먹, 해 먹따 보머는 여르메 다 떠러지게꺼든. {그러면 흥년이 지면 자, 감자도 잘 안 됐지, 보리도 안 됐지, 청밀도 안 됐지, 옥썩수도 안 돼지 하면 이 몇 가마니 안 되면 그 내년에 새로 나온 곡식을 먹기 위해서는 식량을 먹자 하면 밥을 해 먹, 해 먹다 보면 여름에 다

떨어지겠거든.)

그러면 겨울부터 주굴 쭉구 주굴, 매똥로 가라 가주고, 콩조, 콩게랑 거, 그럼 건 무를 부:니깐 드로 바블 해서 한 때무니 이:머는 한 때, 주굴 쭉머는 이틀 머꺼든. {그러면 겨울부터 죽을 쭉고 죽을, 맷돌로 갈아 가지고, 콩조, 콩게라는 거, 그런 거는 물을 붓고 밥을 해서 한 끼를 때우면 한 때, 죽을 쭉면 이틀 먹거든.}

그러게 사لامي 매글 쓸 쭉 인나. {그러니까 사람이 맥을 쓸 수가 있나.}

사لامي 그 겨우레도 지룽끼가 업, 그럼 걸 몸 머꼬 이러니까 시방은 고기 머끼 위해서 *** 그래도 사:리 조쿠, 엔:나레는 노인들도 패:래꼬, 아:들또 성장유리 크지 모타고, 그런, 그러케 사능 거 이요. {사람이 그 겨울에도 기름기가 업, 그런 걸 못 먹고 이러니까 시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 그래도 살이 좋고, 옛날에는 노인들고 패렸고, 아이들도 성장율이 크지 못하고, 그런 그렇게 사는 거예요.}

@ 씨리 업쓰머는 주로 어트케 그러니까, {쌀이 없으며는 주로 어떻게 그러니까.}

주굴 주굴 마니 먹찌. {죽을 죽을 많이 먹지.}

@ 어떤 쌀, 주굴 머글 때 쌀하고 서꺼 먹짜나요. {어떤 쌀을, 죽을 먹을 때 쌀하고 섞어 먹잖아요.}

@ 쌀하고 뭐 주로, 뭐? {쌀하고 뭐 주로 뭐?}

그 강냉이 옥수수 같면 옥수수 주기여.{그 강냉이 옥수수 같면 옥수수 죽이여.}

파들 같면 판쭈기라고, 파까른 주기라고, 그 물 부우문 주기지. {팔을 같면 팔죽이라고, 팔 같은 죽이라고, 그 물을 부으면 죽이지.}

@ 그러면 옥수수 가튼 경우, 요즘 모 강냉이 이짜나요? {그러면 옥수수 같은 경우, 요즘 뭐 강냉이 있잖아요?}

@ 그게 이쓰머는 그걸 어트케 보과늘 합니까? {그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저 엔:나렌 그 두, 두:지랑 게 이써써, 낭갈 짜가주고. {저 옛날엔 그 두 두지라는 것이 있었어, 나무를 짜가지고.}

큰: 통낭 걸 아지 이러 캐 가주고 뚜껍끼 메:썸년 똥 거를 요러 짜:요, 요러케. {큰 통으로 난 거를 이렇게 캐 가지고 두껍게 몇 십년 된 거를 이렇게 짜요, 이렇게.}

@ 네. {네.}

짜:서 인제 그게, 옥수수 년: 카니 옥수수 다설 까만, 열 까마니, 여덟 까만 메물 르, 메물 두: 가마니 년는 데 뭐 이러케 해서, 거러 짜능가치. {짜서 이제 그게 옥수수를 넣은 칸이 옥수수 다섯 가마니, 열 가마니, 여덟 가마니 메물을 넣어, 메물 두 가마니 넣는 데 뭐 이렇게 해서, 걸어 짜는 거 같이.}

그런데 너코, 그 다음 단지, 동이 동이짜나, 동. {그런데 넣고, 그 다음 단지, 동이 동이 있잖아, 동.}

항 가마니 두 가마니 짜는 데 거 다 내 주반 안 드러가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짜는 데 거기에 내 주반 안 들어가지.}

엔:나레 쥐가 얼마나 만나? {옛날에는 쥐가 얼마나 많나?}

그 가마니대로 문 가마니다 그냥 바께 놔두머는 쥐가 구녕 다 똥차네. {그 가마니대로 문 가마니다 그냥 밖에 놔두면 쥐가 구녕 다 똥잖아.}

다 다: 먹짜네.{다 다 먹잖아.}

@ 아 그래서, 도기라 하던가. {아, 그래서 도기라 하던가.}

그리고, 그럼 도기라 하는데. {그리고,그럼 도기라 하는데.}

그뿐니요?{그뿐이요?}

요요요요, 엔:나레는 뭐 그런 쥐:약또 업꾸, 그타 보니깐 쥐가 엔:나렌 주 주:가 엔:나렌 주가 참

마니 깨서, 왜냐면. {요요요요, 옛날에는 뭐 그런 쥐약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쥐가 옛날엔 쥐가 옛날엔 쥐가 참 많이 깨서, 왜냐하면.}

저 이런 사랑뽕. {저, 이런 사랑방.}

인제 하라버지네 사고 할머니네 여페서 사는 방 자고 뭐이 그런데는 이 저 저 쥐가 구녕을 톨 쿠 무늘 톨쿠 방에 드러와 가주고, 저 미:리 다: 달자네요.{이제 할아버지네 사고, 할머니네 옆에서 사는 방 자고 뭐 그런데는 이 저 저 쥐가 구녕을 톨고 문을 톨고 방에 들어와 가지고, 저 밀이 다 달잖아요.}

그럼 메주꼴로 올라와 가주고 그 메주를 다 파 머그면, 바메 나 드러 불러내 잡꼬 마리아 {그럼 메주꼴로 올라와 가지고 그 메주를 다 파 먹으면, 밤에 나 더러 불러내 잡고 말이야.}

@ 아, 메주, 메주꼴로 올라 가능 게 뭐예요? {아, 메주, 메주꼴로 올라 가는 게 뭐예요?}

메주꼴대로 한다고, 메주, 메주 다롱 걸 메주꼴배라 한다고. {메주꼴대로 한다고, 메주, 메주 다른 걸 메주꼴배라 한다고.}

@ 아, 메주 당 거를? {아, 메주, 단 거를?}

메주꼴배. {메주꼴배.}

@ 방에 달면 메주꼴배, 우리 저 어제 단:게? {방에 달면 메주꼴배, 우리 저 어제 단게?}

메주꼴배, 그 끄럼 장개요, 메주꼴배가. {메주꼴배, 그 끄럼 장개요, 메주꼴배가.}

옴나레지, 이뿌로 그 침 침낭 그래해짜냐요? {옛날에지, 이불로 그 침 침낭 그렇게 했잖아요?}

바 바다게 이러케. {바 바닥에 이렇게.}

옴:나레는 저러케 짜, 저러케 단다고. 저거 저다가. {옛날에는 저렇게 짜, 저렇게 단다고, 저거 저다가.}

저다가 인제 쇠꾸래 내 꿩 거, 이 장때 내 끼워서는 거다 그 매써요. {저다가 이제 쇠꾸래 내 꿩 거, 이 장대를 내가 끼워서는 거기에다 그거를 땀어요.}

@ 다시 하면 달고, {다시 하면 달고,}

단다, 그 메주꼴배. {단다, 그 메주꼴배.}

@ 메주꼴배, 메주 다라꾸나. {메주꼴배, 메주를 달았구나.}

@ 아, 쥐가 쥐가 거:까지 드러오네요. {아, 쥐가 쥐가 거기까지 들어 오네요.}

끄럼. {끄럼.}

아이, 옴:나렌 쥐가 아이구 말또 마러. {아이, 옛날엔 쥐가 아이구 말도 말어.}

시방은 쥐야그로 마니 잡꼬, 으 저 사격쑈 잡꼬 해찌만, 옴:나렌 쥐 잡:는 고양이 배끼 더 이써, 뭐 고양이. {시방은 쥐약으로 많이 잡고. 으 저 사격수가 잡고 했지만, 옛날엔 쥐 잡는 고양이 밖에 더 있어, 뭐 고양이.}

고양이 집집마다 키운다, 그러면 고양이 다 못 짜바 먹짜네. {고양이 집집마다 키운다, 그러면 고양이 다 못 잡아 먹잖아.}

그 고양이 고양이가 뭐 쥐를 다: 자바명나. {그 고양이 고양이가 뭐 쥐를 다 잡아 먹나?}

@ 쥐가 하도 마나서.{쥐가 하도 많아서.}

끄럼. {끄럼.}

@ 그러쿠나, 네. {그렇구나, 네.}

@ 어르신, 여기 이짜나요, 예저네는, 그러며는 약초 가통 거나 그렇거 캐 보신 저기 {어르신, 여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약초 같은 거나 그런 거 캐 보신 저기.}

이찌.{있지.}

@ 여기선 약초는 {여기선 약초는,}

약초여, 캐능 게 뭐 사네 가면, {약초여, 캐는 게 뭐 산에 가면,}

@ 어떻 거 이써요? {어떤 거 있어요?}

저 씨호랑게 씨호. {저 씨호랑게 씨호.}

산시호.{산수유.}

@ 네. {네.}

산시호.{산수유.}

또 자약, 산짜약, 자약, 또 뭐 그런 그런거 인제. {또 자약, 산 자약, 자약 또 뭐 그런 그런 거
이제.}

산또라지, 산또라지 야기거든. {산도라지, 산도라지 약이거든.}

@ 네. {네.}

@ 시호, 자약.{시호, 자약.}

산또라지, {산도라지.}

@ 산또라지. {산도라지.}

그럼 그렇게 약초 캐지 뭐. {그럼 그런게 약초 캐지 뭐.}

캐:가지고 인제 {캐가지고 이제.}

@ 언제쯤 감니까? {언제쯤 감니까?}

봄:, 봄:부턴 가지 뭐. {봄, 봄 부터 가지 뭐.}

보메 가면 인제 {봄에 가면 이제.}

@ 혼자 가세요? 아니면 가치? {혼자 가세요? 아니면 같이?}

아니, 여러기도 가능데, 이 이 내 장년 싸기, 바짝 말라쉴 께 아니요. {아니, 여럿이도 가는데,
이 이 내 작년 싸이, 바짝 말랐을 거 아니요.}

그러면 거 싹 고령 걸, 대공복 캐고, 조금 인제 그러면 또 싸기 올라오자네, {그러면 그 싹 그
런 걸 대공복 캐고, 조금 이제 그러면 또 싹이 올라 오잖아.}

그 새, 새싹글 새로 나온 새싹 꼭 캐고, 아이 뭐 둘:도 가고 혼저도 가고, 뭐 세또 가고 뭐. {그
새, 새싹을 새로 나온 새싹 꼭 캐고, 아이 뭐 둘도 가고 혼자도 가고, 뭐 셋도 가고 뭐.}

궁데 우리 나는 마니 앙 캐봐쎄. {근데 우리 나는 마니 안 캐봤어.}

그런데 그 약쟁이랑 게 이쎄, 그 동네 또. {그런데 그 약쟁이라는 게 있어, 그 동네 또.}

야글 잘: 캐는 야글 사네 가서 잘 캐가지고 파는 사라미 이쎄. {약을 잘 캐는 약을 산에 가서
잘 캐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인제 해:서 말려노면 또 인제 산, 산 약, 약 쟁사가 오지, 사러. {그럼 이제 해서 말려 놓
으면 또 이제 산, 산약, 약 장사가 오지, 사러.}

그래 주로 나물 뜨더, 나물:.{그래 주로 나물 뜯어, 나물.}

@ 나물 중에는 어떤 나물? {나물 중에는 어떤 나물?}

곤두레, 곰추 사네,이 저 곤두레가 사네 곤두레 씨를 바다 가지고 지금 재:배하는 거이요.{곤드
레, 곰추 산에 이 저 곤드레가 사네 곤두레 씨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재배하는 거예요.}

아이 지베서 자:성해서 키웁 게 아니고, 사네서 씨를 바다 가지고서는 이러케 퍼져 퍼진다 그러
지, 여기 싸:람 농초네 싸:람드른. {아이 집에서 자성해서 키운 게 아니고, 산에서 씨를 받아 가지
고서는 이렇게 퍼져 퍼진다 그러지, 여기 사람 농촌에 사람들은 .}

저 장계에서 늘그니가 지금 이러케 화구살 재:배할 트들 같:지. {저 장계에서 늪은이가 지금 이
렇게 화구살 재배할 트들 같지.}

이 더덕또 더덕또. {이 더덕도 더덕도.}

더덕또 사네서 씨를 바다가지고, 그 씨가 자:꾸 번성해 가주고 이리 텅거야, 그거. {더덕또 산에
서 씨를 받아 가지고, 그 씨가 자꾸 번성해 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그거.}

어디 뭐 씨를 여: 어디쎄 뭐 이 농초니 맨든 줄 아리요? {어디 뭐 씨를 여기 어디서 뭐 이 농촌
이 만든 줄 알아요?}

곰추, 곤추, 곰추 씨도 그러코. 곰추. {곰추, 곰추 곰추 씨도 그렇고 곰추.}

곰추도 지금 사네 가면 사네가 뜨더 머거따고, 옴:나레는 사네. {곰추도 지금 산에 가면 산에가 뜰어 먹었다고, 옛날에는 산에.}

곰추 뭐 더덕, 쫄 서래가 캐고 도라지, 곤드레, 나물취, 취:, 이두압치, 산 언능 거또 마너. {곰추 뭐 더덕, 쫄 서래가 캐고 도라지, 곤드레, 나물취, 취, 이두압치, 산에는 얻는 것도 많아.}

@ 그다메 버섯 까통 거또 마너 해써...{그 답에 버섯 같은 것도 많이 했어...}

버섯, 쫄 사네 가면. {버섯, 저 산에 가면.}

그 자연버섯 이찌, 사네 가문. { 그 자연버섯 있지, 산에 가면.}

편낭게, 고모기 돼가 써거꺼 이래문 이러케 나능거. {편나무, 고목이 돼서 썩으면 이렇게 나는 거.}

고다메 땅: 위에 난는 그루쿠라 이찌, 그루쿠. {그 다음에 땅 위에 났는 그루쿠라 있어, 그루쿠.}

@ 그루쿠라는 그거또 버섯? {그루쿠라는 그것도 버섯?}

버서시지. {버섯이지.}

그 낭게 써거서, 요 개운 나무 거 이짜나, 개운 나무 거 가통 게 이찌. {그 나무 썩어서, 이 개운 나무 그거 있잖아, 개운 나무 그거 같은 게 있지.}ㅅ

써거서 이 자연히 죽, 주구문 낭게 주구문 땅에 따:저 가주고, 거서 인제 썩 짜네요. {썩어서 이 자연히 죽, 죽으면 나무 죽으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썩잖아요.}

거:서 곰팡이가 피문 또 올라지지, 이 버서시 그게 흘쿠래, 흘쿠.{거기서 곰팡이가 피면 또 올라오지. 이 버섯이 그게 흘쿠래, 흘쿠.}

@ 글쿠.{글쿠}

글쿠,{글쿠}

@ 그 다메 참낭게 인?{ 그 다음에 참나무 있는 건?}

참 버섯.{참 버섯.}

@ 참낭게 이는 버서슨 어떤 이르미 이썬니까?{참나무에 있는 버섯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 참, 참나무 버스게 참버습썬 이르게 해찌, 우리가. {그 참, 참나무 버스게, 참버습썬 이렇게 했지 우리가.}

참버습 따: 머꾸요. {참버습 따서 먹고요.}

@ 버서또 종류가 만차나요? {버섯도 종류가 많잖아요?}

만치마는, 여게:: 사네나능 건 시세가 뭐 잘모똥 거 안 따먹찌. {많지마는, 여기에 산에 나는 것은 시세가 뭐 잘못된 거는 안 따먹지.}

위험하다구. {위험하다고.}

@ 머글 수 이는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참나무 버서타고, 여기 그걸 땅 땅에 그, 그루쿠. {참, 참나무 버섯하고 여기 그것 땅 땅에 그, 그루쿠.}

@ 거 뭐 능이나 송이 가통 건 업썬나요? {거, 뭐 능이나 송이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 송이 이찌, 송이 이찌마는 여: 지금 강원도가 양:양에 젤: 만차나, 양:양. {아 송이 있지, 송이 있지만 여기 지금 강원도가 양양에 제일 많잖아, 양양.}

강원도는 양:양이 젤: 만타고 양:양. {강원도는 양양이 제일 많다고 양양.}

양:양 송이 축제하자네요, 송이는? {양양 송이 축제하잖아요, 송이는?}

시방 고렘. {지금 그림.}

@ 그러면 능:이버섯 까튼 거또 키워보써썬요? {그러면 능이버섯 같은 것도 키워보셨어요?}

능이버섯, 아니요. {능이버섯, 아니요.}

그 왜 송:이는, 송:이는 여게, 이 호:명 쪽: 까느네나머 그 송이 나는 바치 따로 사니 따로 이찌.

{그 왜 송이는, 송이는 여기에, 이 호명 쪽 가면 그 송이가 나는 발이 따로 산이 따로 이쨌.}

찌거 마너썩. {저거 만원 썩.}

그럼 우리 송이 따라 가지, 송이 따 봐썩, 마:니 따 봐썩. {그럼 우리 송이 따라 가지, 송이 따 봤어, 많이 따 봤지.}

@ 그러며는 어르신, 산삼도 캐보셔썩요?{그러면 어르신, 산삼도 캐보셨어요?}

산삼 양 캐 봐썩. {산삼 안 캐 봤어.}

@ 왜 산삼 캐러 사람드리 가고 막 그러자나요? {왜 산삼 캐러 사람들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 산삼 캐러 가는 사라드는, 산삼, 그 사네가 뭐 칠썩 드리고 캐 본 사라미 좀 캐지, 캐봐썩네 요. {아, 산삼 캐러 사람은 산삼, 그 산에가 뭐 칠성 드리고 캐 본 사람이 좀 캐지, 캐봤잖아요.}

자기 뭐 요 우 재수가 조아서, 그 조타 그러지 아네요. {자기 뭐 요 우 재수가 좋아서, 그 좋다 그렇지 않아요.}

캐 본 사라미 사네 그 덩기미 하다 보면 캐고, 거기 사드는 그 그러케 사:람마다 다: 안 때이고 흑:썩 끄게야 한 두 뿌리 그 사람 그 사라미 캐도 되지. {캐 본 사람이 선애 그 다니며 하다 보면 캐고, 그 삼은 그 그렇게 사람마다 다 안 띄이고 흑시 그게 한 두 뿌리, 그 사람 그 사람이 캐도 되지.}

@ 그럼 어르신 나무를 캐며는 주로 나물로 뭘 합니까? {그럼 어르신, 나물을 캐면 주로 나물로 뭘 합니까?}

나물 자주 와서는, 찰마 자주고서는 된장에 무쳐 자주구선 바파고 이르게 썰며 머꼬 그래썩, 근데 건 .{나물을 가져 와서는 삶아 가지고서는 된장에 무쳐 가지고선 밥하고 이르게 비벼 먹고 그랬지, 근데 그건.}

이 흥년네는 나무를 이 이 이 이 배:를 채운다고. {이 흥년에는 나무를 이 이 이 이 배를 채운다고.}

밥, 한 두 수가락 머거 자주 배 :부르게썩요? {밥, 한 두 수가락 먹어 가지고 배 부르겠어요?}

그 나물 늘 찰머 자주고 그 바블 거다가 그르세 비벼 자주고, 그래 머거, 머그면 이 속 소게 그게 아니지, 상호 ,고담 나물썩, 죽 썩가 나물 또 나물 썩글 너차네, 주게다가. {그 나물 늘 삶아 가지고 그 밥을 거기에다가 그릇에 비벼 가지고, 그래 먹어, 먹으면 이 속 속에 그게 아니지, ** 그 다음에 나물 죽, 죽 썩서 나물 또 나물 속을 넣잖아, 죽에다가.}

우동 나물썩기라 그기. {우동 나물썩이라 그게.}

@ 그럼 어르신, 그 야:그로 그 사용하능 경우는 업썩니까? 고거 약초 가통 거. {그럼 어르신, 그 약으로 그 사용하는 경우는 업썩니까? 고거 약초 같은 거.}

야그로. {약으로}

여게:선 그저 그러치 모. {여기에선 그저 그렇지 모.}

사네 이** 캐, 이렇게 캐오면 때려 멍는다고. {산에 이**를 캐, 이렇게 캐 오면 때려서 먹는다고.}

@ 뭘 때려 먹썩니까? {뭘 때려 먹썩니까?}

야글 때려 멍는다고 그런다고, 때려 멍는다고, 조걸 멍는 걸 때려 멍는다 그런다구. {약을 때려 먹는다고 그런다고, 때려 먹는다고, 저걸 먹는 걸 때려 먹는다 그런다고.}

@ 어떤 어떤 걸 주로 썩 거 먹썩니까? {어떤 어떤 거를 주로 썩 거 먹썩니까?}

@ 어려 멍는거는? {어려 먹는 거는?}

아이 아무것도, 이 약 탕광이라고 이짜나, 이러케. {아이 아무것도, 이 약탕광이라고 있잖아, 이렇게.}

그 탕광이라고, 물 한 되도 만치 아는데, 거기 토긴데 토긴데 거다가 너:어서 화:아레다 안 너 자주고, 시나:매, 시나, 이제 버글 버글 처매, 아이 끼려가주 고 다:매 거 노코 새나 썩구지, 그차

네요? {그 탕광이라고 물 한 되고 많지 않은데 그게 토기인데 토기인데 거기에다가 넣어서 화로에다가 안 넣어 가지고 시나메 시나 이제 버글 버글 처음에 .아이 끓여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놓고 새나 쫄구지, 그렇지 않아요?} ㄸㄸ

쫄구능 게 이제 그 때린다고 해따고, 때린다고, 약 때려. {조리는 거를 이제 그 때린다고 했다고, 때린다고, 약 때려.}

약제는 제 여러가지지. 그 여게 이런 초원네는 그 약, 야꾸기랑 게 이썬, 탕약. {약제는 제 여러가지지. 그 여기에 이런 초원에는 그 약, 약국이란 것이 있어, 탕약.}

탕약썬, 허가도 안 내고, 옴:날 그 은지 어른드리 한:문 마니 배운 분드른 거 약제방, 방버베 나오자네요, {탕약국, 허가도 안 내고, 옴날 그 언제 어른들이 한문 많이 배운 분들은 거 약제방, 방법에 나오잖아요.}

그레이면 뭐 자약, 황기, 당귀,이런 거는 어떤 다친 데 조타.{그러면 뭐 자약, 황기, 당위, 이런 거는 어떤 다친 데 좋다.}

또 어떤 여르메 그 더위에 머근데 배아래 조타. {또 어떤 여름에 그 더위에 먹은 데 배알른 데 좋다.}

또 뭐 어트게 아느면 그 사람 먼 이 이정배아리다. {또 뭐 어떻게 아는 그 사람이면 이 이정배아리다.}

그사람 또 어트다, 이 그 그부니, 이러케 짐매글 해 가주, 그부니 이게 화제를 내:서, 야글 제 줘요, {그 사람 또 어트다, 이 그 그분이 이렇게 짐매글 해 자기고, 그 분이 이게 화제를 내서 약을 지어 줘요.}

그럼 한 처베 뭐 마너니면 마넌.{그럼 한 첩에 뭐 만원이면 만원.}

다서 채면 오: 마넌 주고, 내가 인제 아푸면 사 가주 와 가주고, 지베 와 때려, 때려 가주고 먹찌. {다섯 채면 오 만원 주고 내가 이제 아푸면 사 가지고 와 가주고, 집에 와 때려, 때려 가지고 먹지.}

옴나레 옴나레 그런, 옴:나렌 그런 식 이찌. {옴날에 옴날에 그런, 옴날엔 그런 식 있지.}

뭐 사람마담 다 캐: 가주고 다 때려 멍는 건 업찌. {뭐 사람마다 다 캐어 가지고 다 때려 먹는 건 없지 }

@ 보보야그로 멍는 건 업꼬, 저런 {보 보약으로 먹는 건 없고, 저런.}

아품 먹찌, 옴나레 보약 업찌.{아푸면 먹지, 옴날엔 보약 없지.}

시방은 뭐 보약 이찌만, 보약 저기에는 그런 건 업썬. {지금은 뭐 보약 있지만 보약 저기에는 그런 거 없어.}

옴:나레는 옴:나레는, 옴:날또 아니지, 내 그레이머는 지금 말해지마는 유기오 사변 전까지만 해도 인제 한 오십 육십년 육십 오래 에 지금 연세라는데.{옴날에는 옴날에는 옴날도 아니지, 내 그러면 지금 말하지만 육이오 사변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오십 육십 년 육십 올해 에 지금 연세라는데.}

해방 된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드레 정치 하고, 삼십 년 해도 그건 우리 대한민구기 어디 전국썬그로 어디 다 그러치마는 그 압빠글 받꼬, 그래도 그 대도시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드레 공청을 하고, 백 백 까마니를 지어쓰면 삼 세 까마를 공초를 해도 나머지는 지가 실컨 머꼬, 파라서 용돈 쓰고 그러치마는 이런 시고레 이러케 사는 사람드레 아직 짐승만 모타지.{해방 된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정치하고, 삼십 년 해도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전국 적으로 어디 다 그렇지마는 그 압박을 받고, 그래도 그 대도시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청을 하고, 백 가마니를 지었으면 삼 세 가마를 공초를 해도 나머지는 자기가 실컨 먹고, 찰아서 용돈 쓰고, 그러치마는 이런 시골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 짐승만 못하지.}

시방, 시방 소, 옴, 소도 고썬 마:이 매기고, 이 개:도 지금 쌀밤만 매기자네요.{시방, 시방 소,

웅, 소도 곡식을 많이 먹이고, 이 개도 지금 쌀밥만 먹이잖아요.}

클 때는 옥수수 받, 개 가통 거 못 먹꼬, 개:는 똥을 머거, 똥: {클때는 옥수수 받, 개 가통 거 못 먹고, 개는 똥을 먹어, 똥.}

사람 똥 머꼬 산다고, 아:들 누운 똥: 똥. {사람 똥 먹고 산다고, 아이들이 누운 똥, 똥.}

그래서 그렇 거를 머끼 때미네 개, 개:고기를 이르게 응열, 사람 다친 데 개고기 야기라고 그래
 그래 웅 거이요, 그 야글.# {그래서 그런 거를 먹기 때문에 개, 개고기를 이렇게 응열, 사람 다친 데 개고기가 약이라고 그래, 그래 웅, 그 약을.}

그걸 머끼 때미네 그러니 사라미 사라문 멍는 거시 나물, 엄는 사람 나물 쪽: 이런 그 소나무 껍때기 빼게 머그면 송피라고 해, 송피. {그걸 먹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사람은 먹는 것이 나물, 없는 사람은 나물 죽, 이런 그 소나무 껍때기 버겨 먹으면 송피라고 해, 송피.}

그렇 걸 또 막 머꼬, 별 걸 다: 멍는 거요. {그런 걸 또 막 먹고, 별 걸 다 먹는 거요.}

웅, 그러니 사네 예를 드려서 도라지 나물 곰추, 더덕, 곤드레 그렇 걸 자생낭 그렇 걸 머그
 니까 시른 사람 사른 안 저도 소 야글 멍는 거이요. {웅, 그러니 산에 예를 들어서 도라지 나물, 곰추, 더덕, 곤드레, 그런 걸 자생낭 그런 걸 먹으니까 실은 사람 살은 안 찌도 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옛날 노인드리 병이 그런 병이 업써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옛날 노인들이 병이 그런 병이 없어요.}

그러게 사려, 그러게 사라따고. {그러게 살아, 그렇게 살았다고.}

사:람 사능 기 {사람 사는 것이.}

마니 배원는다, {많이 배웠는데,}

@ 네. {네.}

우:어실 요 쓰는 걸 못 뻑지만, 나는 내 자동 써 그래요. {우어실 이거 쓰는 거를 못 봤지만, 나는 내 자동으로 쓰고 그래요.}

이 저, {이 저,}

@ 어뜨게 배우셔써여?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이 내가 그 학 그, 천자를 호:동 파려~이 요 가검 써저레 그으레 끄지 지게하고 여덜 팔 고
 이 딱 바:민데, 그래 오:백짜를 내가 배우고, 나무 지르 그 자 자동으로 하구, 그래 인제 헨는데,
 전조가 난 자동으로 한거래요.

이 지여~으로 이리 배우짜네요. {이 ****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를 들서 뭐 한:문짜를 해머, {예를 들어서 뭐 한문자를 하면,}

@ 뭐: 가지고 배워, 천자만 가지고 배우? {뭐 가지고 배워, 천자만 가지고 배우나요?}

어, 천자만노. {어, 천자만요.}

예를 들어 껍짜네요. {예를 들어 껍 자네요.}

이 기연 기억짜에 오머:는 이케 아 이케 이케, 그럼 녀짜를 지어그로 주, 저쪽, {이 기연 기억
 자에 오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4자를 지역으로 주, **,}

@ 기르미 이길 아니고 이끼요? {기름이 이길 아니고 이끼요?}

아니 그래 그제 인제 학: 천자 이 끄트마리 짜리라고. {아니 그래 그제 이제 학 천자 이 끄트머리 자리라고.}

@ 네, 네, 그러쵸. {네, 네, 그렇지요.}

그래간드루 하늘 천 따 지 가물 현 누른 황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른 황 아니요?}

@ 네. {네.}

그래 그건 제, 부제 일그먼 천지현황이라, 이 천지현황. {그래 그건 이제 붙여 읽으면 천지현황

이라, 이 천지현황.}

@ 그러쵸. {그렇지요.}

우조홍황은 요런데, 그래 엔:날 그, 그 애:기 이짜뇨. {우주홍황은 이런데, 그래 옛날 그, 그 애
기 있잖아요.}

천지현황을 삼 년 도커니, 천지현황을 삼: 녀를 일그니, 언:제 황야라 할씨도 업꼬, 그래 재조가
하도 엉뚱하는 거태. {천지현황을 삼년 독 하니, 천지현황을 삼 년을 읽으니, 언제 황야라 할 수도
없고, 언제 황야라 할 수도 없고, 그래 재조가 하도 엉뚱한 거 같아.}

그니깐드루 천지현황이요, 우조홍황이라 하는데, 천지현황은 삼:년 독 하니, 천지현황을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른 황, 삼: 녀를 일, 일, 일거되. {그러니까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하는데,
천지현황은 삼 년 읽으니, 천지현황을 하늘 천, 땅 지, 겹을 현, 누른 황, 삼 년을 일, 일, 읽어되.

또 인제 호:야라 할 쑤도 이꼬, 이끼연 이끼제 오누이끼야, 그걸 언제 일르냐 이기여. {또 이제
호야라 할 수도 있고, 이끼연 이끼제 오누이끼야, 그럴 언제 읽느냐 이거야.}

저 그카네 머리가 둔해가지고, 그래 인지, 나는, 내가 그, 이, 농사 지꼬 내가 전소 아께에 해짜
나, 하:꼬도 내가 그 야:간 중하꼬 광선지대가서 그 심부를 하고, 경오나 좀 배우고 해따는 거슨,
참 그 기:가 매킨 이리예요. {저 그렇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그래 이제, 나는, 내가 그, 이, 농사 짓
고, 내가 전속 아까 했잖아, 학교도 내가 그 야간 중학교 광선지대 가서 그 심부를 하고, 경오나
좀 배우고 했다는 것은, 참 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그, 다, 그 시저레 이 고재시기란 인가니, 우리 오 사: 형제 켜는데, 내:만 하꼬를 땡견는데,
우리 아버님 시저레 아:무 가난하고 가난하고, 모: 싸라가주고, 내가 그런 그리 포:구니 저가주 그
러는데, 내 사실 자랑이 아니라 그 당씨에 내가여, 꺾, 뭐야, 궁민하꼬 그때 궁민하꼬 열: 딸 땡기
고 궁민하꼬 조립 행는데, 내 정선 농업 중하꼬만 내 조립해따 하더라도, 솔직한 애:기로 내 이
농사 안 썬습니다. {그, 그, 다, 그 시절에 이 고재식이란 인간이, 우리 4형제 컸는데, 나만 학교를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님 지절에 아, 뭐 가난하고 가난하고, 못 살아 가지고, 내가 그런 글이
폭운이 저가지고 그러는데, 내 사실 자랑이 아니라 그 당씨에 내:가요, 뭐야, 국민학교 그때 국민
학교 열 달 다니고 국민학교 졸업 했는데, 내 정선 농업 중학교만 내가 졸업했다 하더라도, 솔직
한 애:기로 내 이 농사 안 썬습니다.}

뭐 어데 머 시험 공부해 시험 쳐 가주고, 훨씬 뭘 해두 뭘 해두 머 벼루 내가 공직 공직 생활
하던지, 그래두 인데 그 그 그 당씨에 뭐 사는데 그 아네 그 어려우미 도넛 도넛해, 아주 이래서,
그래 인제 이르게 결혼씨글 딱 하면서, 농사를 지며 가마:니 생강니 그리 글 포:구니 드러따고 그
래꺼등, 새:서 {뭐 어디 뭐 시험 공부해 시험 쳐 가지고, 훨씬 뭘 해도 뭘 해도 뭐 별로 내가 공직
공직 생활 하던지, 그래도 인제 그 그 그 당씨에 뭐 사는데 그 안에 그 어려움이 ** **해, 아주 이
래서, 그래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딱 하면서, 농사를 지며 가만히 생각하니 글이 글 폭운이 들었
다고 그랬거든, 해서 }

@ 그리 포? {글이 포?}

포, 포:운 {포, 포운}

포운 이요? {포운이요?}

그리 그리 한, 하:니 매친다 애:기여. {글이 글이 한, 한이 맺힌다 얘기야.}

그 당씨에도 농사 지은지 내가 머 태가 뛴는지 지금 잠: 모리지먼뇨, 자뚜해 배워 가주고, 면:서
기 시험 치던지 뭘 좀 해야 되게따, 이런 생가기 이써따고. {그 당씨에도 농사 지은지 내가 몇 해
가 뛴는지 지금 지금은 모르지만요, *** 배워 가지고, 면서기 시험 치던지 뭘 좀 해야 되겠다, 이
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기 뭐냐하면 주색 잡끼라 이기여.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주색 잡끼라 이거야.}

주새기 이게 뭐냐하머는, 우선 장개를 가니까 우선 여자에 하문, 판씨미 바끼 아니요. {주색이

이게 뭐냐 하면, 우선 장가를 가니까 우선 여자에 하면 관심 밖이 아니요.}

돌:째는 두 수 술 배우자네요. {돌째는 수 술 배우잖아요.}

담뱃 배우자네요. {담배를 배우잖아요.}

또 어딜 모이면 화톳치고 놀자네요. {또 어디를 모이면 화톳치고 놀잖아요.}

그 취색 잡끼라는 기요. {그게 취색잡끼라는 거예요.}

@ 네. {네.}

그런 머리가 하나네 읍:씨야 그를 배우는데, 그램서도 인제 지부로 좀 신문도 좀 보고, 그래 머 언데 천자 한 줄 봐서 머 인제 하늘 천, 따 지, 가물 현, 누를 황, 또 일꼬도, 아 그다 보면 메뻬 늘 어려부니 지느러 자면서, 우리 생활하면 뭐 하늘 천 짜는 어터타, 뭐 따~지 짜는 딱 이 아자네요. {그런 머리가 하나도 없어야 글을 배우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집으로 좀 신문도 좀 보고, 그래 뭐 언제 천자 한 줄 봐서 뭐 이제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또 읽고도, 아 그러다 보면 몇 번을 어려우니까 *** 자면서, 우리 생활하면 뭐 하늘 천 자는 어떻다, 뭐 땅 지 자는 딱 이 알잖아요.}

그 사네 가서 바틀 간:다고, 서 가주고 갈:다가 쉬:거든. {그 산에 가서 밭을 간다고, 서 가지고 갈다가 쉬거든.}

찬:차레 한 한 삼십 뻔 갈다가 한 십뻔 쉼:야될 꺼 아니요, 저 사라미. {천천히 한, 한 삼십 뻔 갈다가 한 십 분 쉬어야 될 거 아니요, 저 사람이.}

그러면 가까에: 이런 돌:메~이, 돌:미~이, 돌:멩이라 하지, 돌:망구라 하기두 하구. {그러면 가까이 이런 돌멩이, 돌뭉이, 돌멩이라 하지, 돌망구라 하기도 하고.}

@ 돌망구요? {돌망구요?}

응. {응.}

고등 기 이씨, 그 그걸 딱 땅파네 노코, 언:찌네 배운 구상아로 배운 그걸 쓰는 거유. {곧은 게 있어, 그 그걸 딱 땅판에 놓고, 어제 저녁에 배운 ***로 배운 그걸 쓰는 거예요.}

@ 아, 네. {아, 네.}

이 이:찌게 돌미떡 떡 뜨구, 돌메~이 왜 돌미 씨궁차 재미나요. {이 이쪽에 돌멩이 떡 떡 뜨고, 돌멩이 왜 돌멩이 *** 재미나요.}

그러면 아, 이 따~이, 가물 현짜에 까물 까물해, 아 또 생가기 안나. {그러면 아, 이 땅이, 검을 현 자에 까물 까물해, 아 또 생각이 안나.}

그레이머는 언:찌배우고 아쳐게 생가카구 나:제 가서 저 일: 하이면서 쓰느~거는 건 그거는 하루는 녀 짜란 이 머리에 꼭 이짜나, 내일 가면. {그러면 어제 저녁에 배우고, 아침에 생각하고, 낮에 가서 저 일 하면서 쓰는 거는 건 그거는 하려는 녀 자는 이 머리에 꼭 있잖아, 내일 가면.}

체조는 그거또 하제노. {체조?는 그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배운거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 배우머는 고 다:메 글 진:능 거또 배워, 글 진:능 거또, 촌쭈에 따라서 그 자리가따 보태가 주 지:면 되는 거요. {그래 배우면 그 다음에 글 짓는 것도 배워, 글 짓는 것도 촌수에 따라서 그 자리갔다 보태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머까지 안해유. {몇 가지 안 해요.}

그래 가주고 그래다 보면 인제 그...여 수학 까튼 거는 뭐 이 뭐 짜룽 거 쪼까 알고, 나눌 썸 곱셈 아료, 그차네요. {그래 가지고 그래다 보면 이제 그 여 수학 같은 거는 뭐 이 뭐 자른 거 조금 알고, 나누기 곱셈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건제 으, 하면 대충 일하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잘던 시전 시저네는 요 언성이 가통 엄:청 시머요. {그거 거 인제 으, 하면 대충 일하고,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잘던 시전, 시전에는 이 언성이 가튼 거 엄청 심어요.}

한:문 좀 알구 알구, 요 얼마인 글씨만 지꺼려 버리문 그 면소에 드러 가거든. {한문 좀 알고 알고, 요 얼마 글씨만 짓거려 버리면 그 면소에 들어 가거든. }

그러는데 노:름 하다 보니 머 망해, 망하구 그래쥬. {그러는데 노름 하다 보니 뭐 망해, 망하고 그랬쥬.}

올:다가 행교에 끄래 머 저는 청년 시저레 이런 저런 이런 청년, 청년 회:장, 어, 청년 회:장을 그러저 마타 가주고, 또~ 내가 그 노:능 거 조아해유. {올다가 행교에 그래 뭐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저런 이런 청년, 청년 회장, 어, 청년 회장을 그러저 말아 가지고, 또 내가 그 노는 거 좋아해요.}

노:능 거 당:체 맨:드러, 이러케 뭐 당체 가주고 맨:드러 하능 거.{노는 거, 당체 만들어, 이렇게 뭐 당체 가지고 만들어 하는 거.}

그 전세 찌여게는 참 회:장을 부터 하다, 애:들 하교 드러가지 머 하교 동:년 위원하다가, 고 다:메 인제 하교 육생회 회:장, 체육 진흥 회:장, 시방 흘:레 짐미 육생회 회:장, 그: 부트문 초등학교 하고, 그 애:들 중하교 감 중하교 가도, 가서 또 그거또 회:장, 그럼 회:장만 삼:년 사:면노, 농초네 송아:지 함 마리씩 파라 머거야 돼요.{그 전세 지역에는 참 회창을 붙어 하다가 애들 학교 들어가 지 뭐 학교 동년 위원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육성회 회장, 체육 진흥 회장, 지금 흘레 진미 육성회 회장, 그 부터는 초등학교 하고, 그 애들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도, 가서 또 그것도 회장, 그럼 회장만 삼년 하면요, 농촌에 송아지 한 마리씩 팔아 먹어야 돼요.}

시방 톤 한 오거, 사: 오뱅만 내빠러야 돼요. {지금 돈 한 오거(다섯 개?), 4, 500만원 내버려야 돼요.}

왜냐, 그리고 회:장이 마리면 애:들 체육 때회 가머는 가서 점:시미나 한 근 사야지. {왜냐, 그리고 회장이면 애들 체육 대회 가면 가서 점심이나 한 근 사야지.}

한 도:처~이 해문, 가머는 후원회 회장이 교장하곤 가서 대도 뭘 경비 써야지, 그차네요? { 한 도청이 하면 가면 후원회 회장이 교장하고 가서 그래도 뭐 경비 써야지, 그러잖아요?}

또 우승해 가주 오머는, 또 회 학부형 대표 아니요, 오면 또 그놈들 치다꺼리 해야지. {또 우승해 가지고 오면, 또 학부형 대표 아니요, 오면 또 그놈들 치닥거리 해야지.}

그...또 고등학교 또 내가 까지, 거 이사꺼리 내가 청소 다 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저:가주고 다 떠러바쳐가 아들 문데고 술 이렇 거도, 어디 갈 때 마터, 이 조아하거든 내가. {그 또 고등학교 또 내가 가지, 거 이사꺼리 내가 청소 다 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어 가주고 다 떨어 바쳐서 아들 문데고, 술 이런 것도 어디 갈 때 말어, 이 좋아하거든 내가.}

그 중 이래 그래 가주 마:혼 내가 일꼬배 항교 장:에 해써요, 마혼 일꼬배. {그 중 이렇게 그래 가지고 마혼 내가 일곱에 항교 장에 했어요, 마혼 일곱에. }

@ 아, 일찍 하선네요. {아, 일찍 하셨네요.}

장:에 하고, 내가 밭구 기어드러써요, 요기요, 이게 나치래요. {장에 하고, 내가 밭구 기어 드렸어요, 요기 요, 이게 낫?이래요.}

오기워네 내가 이 년 때 이 년 저네 마꾸, 행교 싸움 또 드러와따고 드러가주 이래가지고, 내가 이, 그래간 마:혼 일고배 자~:에 하고, 육씨베 지금 또 지부장을 해따고, 지부장. {오기원에 내가 이 년 때 이 년 전에 말고, 행교? 싸움 또 들어왔다고,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그러니깐 마혼 일곱에 장에 하고, 육십에 지금 또 지부장을 했다고, 지부장.}

저, 정선 행교 지부장을 해따고. {저, 정선 행교 지부장을 했다고.}

지부장 하고 요즘 정교 하는데, 아이 인제는 기운도 업꼬 시방 하자면 정교 하자면 돈 천마 년 이써야 활터인데, 아이 그 그거 가주 천:마년 그리 내가 어데 요 불떡 해면 내가 또 차건지 그건 지 그 우러네 정교 허머는 하면 다 그게 외:지긴데, 저거 조치마는 내가 지, 군: 지부장 행거 매테 루 결구게는 지부장 차링 거 정교를 삼 년짜리 해따고, 삼문너네. {지부장 하고 요즘 정교 하는데,

아이 이제는 기운도 없고 지금 하자면 정교 하자면 돈 천만 원 있어야 할텐데, 아이 그 그거 가지고 천 만원 그걸 내가 어디 요 불덕?을 하면 내가 또 ***, 그건 지 그 우리네 정교 하면 하면 다 그게 외직인데, 저거 좋지만 내가 지, 군 지부장 한 것처럼 결국에는 지부장 차린 거 정교를 삼년짜리 해라고, ****}

돈 오백마년 등록금 내고, 금 자라래요.{돈 오백 만원 등록금 내고, 그럼 잘 하래요.}

하능 거 판교 감 서로 조아하고 그러지. {하는 거 판교 가면 서로 좋아하고 그러지.}

@ 근데 정교 할 타는데 인제 저님 하시는 부니 추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처림. {근교 정교 하는데 이제 전임 하시는 분이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아:니 그러니까 그 추천 아니 추처를 바더가주고, 바더가지고쓰리 불:러글 썩:가주고, 뭇: 썩글 지금 선걸 해야조. {아니 그러니까 그 추천 아니 추천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불럭?을 썩여가지고, 뭇 썩에는 지금 선거를 해야지요.}

@ 아, 성거를 하능 거, {아, 선거를 하는 거,}

아이메푸 그땅 거는 인제 달려 뿌른다 한 사라미면 낙 출말 하니까, 달리 부르건 이트로 당선 되지마는 마낙 두 사람에문 선걸 해서 득점, 득점자가 정교허지요, 그전 그러케 해라고요. {아이메푸 그땅 거는 이제

@ 아, 그러셔구나.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구 그리키 해서 이 저 사나다 썩게 장 그런 걸 마트머는 돈 쓰러 되는 이리 사회 다 지나면 돈 쓰기 임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저 산에다 지게 장 그런 걸 말으면 돈 쓰러 되는 일이 사회 다 지나면 돈 쓰기 임니다.}

그 동:면 구아:미랑기 엔나레 이썩는데, {그 동면 구암이란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 동가간? {동가간?}

응, 동:면 구, 구:아미. {응, 동면 구, 구암이.}

거북 구 짜, 바우 암 짜, 구아미란 사단치를 그런 며 뭇시 링계를 따가주고, 이르를 부쳐가주 했는데, 그기 지금 한 사: 십년 역싸래요. {거북 구 자, 바위 암 자, 구암이란 사단치를 그런 뭇 링계를 따가지고, 이름을 부쳐가지고 했는데, 그제 지금 한 사 십년 역사래요.}

@ 건 어떤 이:를 하는 건가요?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건 인제 구:아미라는 거는 인제 그, {그건 이제 구암이란 거는 이제 그,}

@ 구암회. {구암회}

구암: 회, 구암회,{구암회, 구암회.}

그래 이 면:년 면:장이나 지소장, 고담 하교장 마튼 바가 오:머는, 그 오:면 썩 꺼 그 구암회 인적 두 군데 이씨요. {그래 이 면 년 면장이나 지소장, 그 다음 학교장 맡은 바가 오면, 그 오면, 썩 그 구암회 인적 두 군데 있어요.}

그리 귀향을 맨드러 가주고, {그렇게 귀향을 만들어 가지고,}

@ 아, 면장이나 지회장 가튼 분드리 오면? {아, 면장이나 지회장 같은 분들이 오면?}

응 응, 오면 그럼. {응 응, 오면 그럼.}

그 지방 유:지드리 모여가주고 그래 인제 하는데, 그 역싸가 지퍼요. {그 지방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데, 그 역사가 깊어요.}

지방도 거 해요. {지금도 그걸 해요.}

내가 거게도 한 이십칠런 하고, 그 면:회:장, 구암 회:장 하고 나와썩요, 내가. {내가 거기에서도 한 27년 하고, 그 면회장, 구암회장 하고 나왔어요, 내가.}

그래자녀 거 돈 좀 내버렸을 꺼 아니요. {그래서 거 돈 좀 내버렸을 거 아니요.}

그러다가 뭇 교:장들하고 식싸를 한 번 하자면 다음 씨방도 돈 한 이삼십마년 썩야지, 어데 {그러다가 뭇 교장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하자면 다음 지금도 돈 한 이 삼십만원 썩야지, 어디}

안 갈려면 또 뜯: 시변 내놔야지. {안 갈려면 또 돈 십 만원 내놔야지.}

차 한 대 불러가 땡기야지. {차 한 대 불러 다녀야지.}

그러지, 또 정선 우리 대종회, 우리 십칠 때 대종회, 우리 친구가 거 먼저 회:장을, 먼저 회장을, 내가 또 삼 년 해 가주고, 정서는 입정선 하라버지 신:도비, 신도비 천만 개를 가주고, 하난 해 걸립 해 세:워꼬, {그러지, 또 정선 우리 대종회, 우리 십칠 때 대종회, 우리 친구가 그거 먼저 회장을, 먼저 회장을, 내가 또 삼 년 해 가지고, 정선은 입정선 할아버지 신도비, 신도비 천만 개를 가지고, 하나를 해 걸립 해 세웠고.}

@ 예, 뭐 사회 활동을 또 마니 하선네요. {예, 뭐 사회 활동을 또 많이 하셨네요.}

내 노요, 정선 우리 메사도니 거또 여든 해꼬, 그래 군데 군데 거 그래 가주 인제 대:한노인회, 어, 동면호, 부녀장을 내 장녀네 해 놔써요. {내 **, 정선 우리 메사돈?이 그것도 여든 했고, 그래 군데 군데 거 그래 가지고 이제 대한노인회, 어, 동면호, 부녀장을 내가 작년에 해 났어요.}

그래 요 이: 미테 품 저근 디 그 미술관 하:꼬 아페 그 우:에 이:친데, 우엔 마을 회관이고, 미테 아래층에는 거 사:십 평인데, 거 경로당 내가 초대 회:장으로 내가 그 그 노인회를 육십오 세 이상, 우리 정회원 육십 쉼 이상은 준회원 맨드러서, 칠십 명을 아래똥에 맨드러 가주고 내 초대 회:장을 해서, 그게 군:수한테 내가 졸라 가주고, 경로당 하나 한 이력, 이력 어더 가주고, 거다 딱 제: 노코 나와 나와써요. {그래 여기 이 밑에 품 적은 데 그 미술관 학교 앞에 그 위에 이층인데, 위에는 마을 회관이고, 밑에 아래층에는 거기가 사십 평인데, 거기 경로당 내가 초대 회장으로 내가 그 그 노인회를 육십오 세 이상, 우리 정회원 육십 세 이상은 준회원 만들어서, 칠십 명을 아래똥에 만들어 가지고 내 초대 회장을 해서, 그게 군수한테 내가 졸라 가지고, 경로당 하나를 하 일억, 일억 얻어 가지고, 거기에다 딱 지어 놓고, 나와 나왔어요.}

거가메 초대 내 회장 사 사진도 걸려있쥬. {거기 가면 초대 내 회장 사 사진도 걸려있쥬.}

그래고 여기는 여이 분:교라고, 그래도 이거 동리불 시켜따고 또.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분교라고, 그래도 이거 동립을 시켰다고 또.}

동리불 시켜 가주 요 요 따: 따룬 걸:해 가주구, 사, 이 이: 키로 한 오백 띄거든노.{독립을 시켜 가지고 요 요 따로 그걸 해 가지고, 4, 2, 2키로 한 오백 되거든요.}

거:레가 머:니까 모까꼬, 요, {거리가 머니까 못 가고, 여기.}

분교를 뒤 따러서는, 또 군수한테 모 이리케 졸라 가시거난 동:리불 시켜서, {분교를 뒤 따라서는, 또 군수한테 뭐 이리케 졸라 가지고는 독립을 시켜서.}

참, 거레 가면 또 제: 놔짜나. {참, 거기에 가면 또 지어 났잖아.}

@ 그럼 예저네 땅은 어트케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전에 땅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건 금 모 동네 도느로 사짜 뭐.{그건 그 뭐 동네 돈으로 샀지 뭐.}

@ 아, 동네 도느로 사서, 그럼 진능 거는 어디에? {아, 동네 돈으로 사서, 그럼 짓는 거는 어디에?}

켜능 거는 거주쿠 그래 가주 이력, 저 사먹 드러써, 사먹. {짓는 거는 *** 그래 가지고 일억, 저 삼억 드렸어, 삼억.}

군:, 구:네, 구:네서 제:따가 이제 구:네서 구... {군, 군에, 군에서 지었다가 이제 군에서 구...}

@ 지원해 주나요? {지원해 주나요?}

지원해, 끄럼. {지원해, 그럼.}

일판 우린 모 궁미네 세:그므로 써. {일단 우리는 뭐 국민에 세금으로 써.}

그러케, 그럼 그 그러케 하고 인제, 면회:장을 이 년 마저 마치고, 이제는 이제는 한 땡 이젠 아유 고드라고, 아푸로 내 여생에 인제 오늘가치루 해가주 이기 뭐, 시방 이젠 얼마에 마냥 고기들 마해 된다해도, 아 그 그 양반 아국싸란 안 할끼 아니요. {그렇게 그럼 그 그렇게 하고 이제, 면회

장을 이 년 마저 마치고, 이제는 이제는 한 때는 이제는 아유 고드라고, 앞으로 내 여생에 이제 오늘가치 해 가지고 이게 뭐, 시방 이제 얼마에 만약 ***** 된다고 해고, 아 그 그 양반 아국싸란 안 할 꺼 아니요.}

아, 그 양반 뭐 그래도 단단하구만, 어제 그제 그 껄껄한데 도라가서따 이러지.{아, 그 양반 뭐 그래도 단단하구만, 어제 그제 그 껄껄한데 돌아가셨다 이러지.}

아, 고재시기 나:꿈서글 안는다고. {아, 고재식이 **** 안 한다고.}

그래 인제는, 옴:나레는 육씨비면 다: 이 씨는다구, 칠십까지가 어려워. {그래 인제는, 옛날에는 육십이면 다 이 윈다고, 칠십까지가 어려워.}

너무 오래 살때메 고려, 고려장이 이씨꼬, 고려 해:라 해따고.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고려, 고려장이 있었고, 고려 하라고 했다고.}

그래 인제는, 그래서 내 몸 팔리만 하구 사는데 까진 인제 뭐 아:들 여워되고, 그래 인제 이 정도면 군:제에서만 감사를, 감사를 하라 구래찌, {그래 인제는 그래서 내 몸 관리만 하고 사는데 까진 이제 뭐 아이들 여의었고, 그래 이제 이 정도면 군제에서만 감사를, 감사를 하라 그랬지.}

인처네 군:제, 채기미 감사, 채기미 감사라고 이제 그 그:건 가뚜이치. {인처네? 군제, 책임이 감사, 책임이 감사라고 이제 그 그건 ****.}

그거또 인제 내 이르른 끈나, 끈나쁜 제 내 그 삭 롤래 롤래 면:회장도 해꼬, 뭐이 내 내 소느로 다:해서, 올해 하면 십, 그 진:자게 십, 올해 시비 년 켜테요. {그것도 이제 내 이름은 끝나, 끝나면 제 내 그 삭 롤래 롤래 면 회장도 했고, 뭐 내 내 손으로 다 해서, 올해 하면 십, 그 진작에 십, 올해 십이 년 켜인테요.}

내가 이 집, 이 집 진:는데 도니 시쪼, 저기 저기 저기 이층인도 내 제:짜네요. {내가 이 집, 이 집 짓는데 돈이 **, 저기 저기 저기 이층도 내가 지었잖아요.}

거 고아미 절 이쪼? {거 고아미 절 있지요?}

저, 그 그 내가 저, 집 지꼬 저거 선:사 바든긴데, {저, 그 그 내가 저, 집 짓고 저거 선사 받은 건데,}

@ 그래서 지가 깨꼬타네요, 시꾸가 ** 엄는데, {그래서 집이 깨끗하네요, 식구가 *** 없는데,}

아 일:도 쪼, 이거 쪼거 뭐야, 농:업 주택글 켜:는데, 이거 이거 서울 싸라미 와 제:썩요. {아 일:도 쪼, 이거 쪼거 뭐야, 농업 주택을 지었는데, 이거 이거 서울 사람이 와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전소가, 이 전숙, 뭐이 머 이:층 먼때 저 {그래서 이 전소가, 이 전숙, 뭐 이층 먼저 지어.}

웅:벽, 웅:벽 치:구, 웅:벼글 하구서는 님각썩 뭐이 머 쪼 해와, 벽돌 행거요.{웅벽, 웅벽 치고, 웅벽을 하고서는 님각썩? 뭐 뭐 쪼 해와, 벽돌 한거요.}

그때 마쳐 싱냥, 시비 년 저네 연시 이뿔 뜨러와썩, 이력.{그때 맞혀 싱냥, 십이 년 전에 연시 일월 드러왔어, 일억.}

@ 오, 오, 단단하게 잘 지어썩요.{오, 오, 단단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 제:가, 자:수성가~게, 자:수. {그래서 그래서 나 제가 자수성가야, 자수.}

스스로 여 짜, 성수 짜 성, 스스로 소늘 파: 가주, 그래 그래 가주 내가 그:, 어:려서 내가 수물 셀:, 결혼 시글 수물 서:에 해 가주고, 저 스물 넷, 다섯세 딸 하나 나코, {스스로 여 자, 성수 자 성, 스스로 손을 모아 가지고, 그래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어려서 내가 스물 셋, 결혼식을 스물 셋에 해 가지고, 저 스물 넷, 다섯세 딸 하나 넣고,}

구 년 전, {구 년 전,}

@ 그 그 당시에는 쪼끔 느즈션네요? {그 그 당시에는 조금 늦으셨네요?}

느저 느저찌, 그럼 우리 나:크 모 그때는 열:아흙, 열려덜, 이:십 쓰기면 다 장:가가고 시집 깬는 데, 그래 난 그때 마니 느저찌. {늦어 늦었지, 그럼 우리 나 크, 뭐 그때는 열아흙, 열여덜, 이십

씩이면 다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그래 난 그때 마니 늦었지.}

@ 어르시는 그 형, 그 어르시네 형제는 어르게 되세요? {어르시는 그 형, 그 어르신인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사:형제. {사형제.}

@ 그중에 며:째세요? {그중에 몇째세요?}

내가 둘:째. {내가 둘째.}

@ 아, 근데 이케 느껴 가신 가싱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늦게 가신 가싱 거예요?}

끄림. {그림.}

그래머는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두 내 수물 아호베 난는데 뭐요. {그러면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도 내가 스물 아홉에 낳았는데 뭐요.}

올: 오:시비면 그차네요. {올해 오십이면 그렇잖아요.}

수물 여덜, 그 카먼 마짜네요. {스물 여덜, 그렇게 하면 맞잖아요.}

칠십 여덜. {칠십 여덜.}

지금 이래:: 생가카머는, 메태 저네는 야, 열살 머거 학교 땡길 시절 뭐 어데 뭐 하튼 저레 무네 가져 가무 가무는 환::하께 어제 그제 거튼데, 요새 생가카니까 또 아주 가:메. {지금 이렇게 생각 하머는, 몇 해 전에는 야 열살 먹어 학교 다닐 시절 뭐 어디 뭐 하튼 절에 문에 가져 가면 환하게 어제 그제 같은데, 요새 생각하니까 또 아주 까매.}

요새 생가카머는, 엔나레 학교 땡기고 뭘: 하고 뭘: 하고 청년 시더~이, 아:주 아:주, 아 그게 꾸민지:, 어트~칠 내 이런 생각해. {요새 생각하머는 옛날에 학교 다니고 뭘 하고 뭘 하고 청년 시절이 아주 아주 아, 그게 꿈인지, *** 내 이런 생각해.}

한 십:년, 십:년 저네 한 십 정도 돼:쓸 찌는, 칠십 저네는, 내가 열두 살 머거선 뭘:해따, {한 십년, 십 년 전에 한 십 정도 났을 적에는 칠십 전에는, 내가 열두 살 먹어서는 뭘 했다.}

열 따선 쓰머는 뭘: 해따, 뭘: 해따 그게 아줌 이상하게 머리 떠 오르고 막 어제 그제 행 거테 이래~게, 인제는 그걸 생강, 야 내가 그건 헐:는지 안 헐:는지 생활이씨? 그래~ 그래. {열 다섯 이면 뭘 했다, 뭘 했다 그게 아주 이상하게 머리에 떠 오르고 막 어제 그제 한 것처럼 이렇게 한게, 인제는 그걸 생강, 야 내가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 **** 그래, 그래.}

@ 아 그러케 ***** {아 그렇게 *****}

그니까 오래 사라탄 얘기야, 하먼.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얘기야, 하먼.}

@ 그래도 뭘 정정하신펬요. {그래도 뭘 정정하신펬요.}

보먼 보먼 탕:제 거기가, 하먼 팔, 칠십 한 팔러늘 사라따고 봐서는, {보먼 보먼 탕제 거기가 하먼 팔, 칠십 한 팔 년을 살았다고 봐서는,}

@ 네, 근데 어르시는 그러머는 거기서 인제 둘째로 태어나서짜나요. {네, 근데 어르신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둘째로 태어나셨잖아요.}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 그러머는 태어나서서 어르게 결혼 하싱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서 어떻게 결혼 하신 거예요?}

조선 엔:나레는 그거지 모, 중매 결혼하지, 중:매. {조선 옛날에는 그거지 뭐, 중매 결혼하지, 중매.}

@ 누가 중매를 서썬요? {누가 중매를 썬어요?}

아 그새 그러다보먼 저, 시방:은 자기네찌리 현재 어데 회사가통 거 처녀 하 그래 총가카 그르

지, 자기네끼리 모 서로가 뭐시 보고 하지만, 우리 우리 시저레는 그때만 해도 외: 청신 애비라고 또 중신애비.{아, 그새 그러다보면 저 시방은 자기네끼리 현재 어디 회사같은 거 처녀하고 그래 총각하고 그러지, 자기네끼리 뭐 서로가 뭐를 보고 하지만, 우리 우리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외, 청신 애비라고 또 중신 애비.}

새:서 인제 양쫄글 인제 해 주르메 저 실랑 찌비 중신애비가 저쪽 색:씨가 이쓰니까두루 색:씨가 실랑짜리가 이쓰니까 또 당신 딸: 그중에 줄라나 뿌리 자꾸 땡기미 열라캐서 준당 거, 학 허라기요, 허락, 허락. {사이에서 이제 양쪽을 이제 해 주면 저 신랑 집이 중신애비가 저쪽 색:씨가 있으니까 색:씨한테도 신랑자리가 있으니까 또 당신 딸 그중에 줄러나 둘이서 자꾸 다니며 연락해서 준다는 거, 허락이요, 허락, 허락.}

허락 허락 뻘어짜나요 뭐. {허락 허락 받았잖아요 뭐.}

@ 아, 그 그런 사라마 따로 이씨요, 중신애비가? {아 그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중신애비가?}

그럼 이씨, 따로 이찌. {그럼 있어, 따로 있지.}

그럼 중신애비 뭐 친구:를 친구 찌비, 아치 뭐 이 사라마, 우리 아들 장개 보내게 기준네 따네 그 지바네 그 머 베춘 딸 이찌 안는가, 그거 전 그거 저쪽 찌비서 이씨쫄, 그래면 가 중신 해 주구, 그래구 그 또 뭐 고 고모 고모, 누:나, 매형, 뭐 그이 그런 그럼 또 이러케 줄래줄래 해서 가고, 그래 줄래 줄매기라구, 주래 줄매기라구 해짜나, 중매. {그럼 중신애비 뭐 친구를 친구 집이, 아침? 뭐 이 사람아, 우리 아들 장가 보내게 기준네 ** 그 집안에 그 뭐 몇촌 딸 있지 않은가, 그거 전 그거 저쪽 집에서 있었쫄, 그러면 가서 중신 해 주고, 그리고 그 또 뭐 고 고모 고모, 누나, 매형, 뭐 그런 그럼 또 이렇게 줄래줄래 해서 가고, 그래 줄래 줄매기라고, 주래 줄매기라고 했잖아, 중매.}

그래 요 메천 석, 엔:나레 쌀 그르주. {그래 이 몇천 석, 옛나레는 쌀을 그렇게 줘.}

엔나레는 처녀가 실랑 어데 보고 가씨요? {옛날에는 처녀가 신랑 어디에 보고 갔어요?}

지끄 행녀체, 행녀 처에, 처래에 나가쫄 찌게, {지끄 행례체, 행례 처에, 처래에 나갔을 적에.}

@ 행녀초래요? {행례초래요?}

응, 잉여들미 상녕쓰구, 고 행네, 행네라구, 행네. {응, 잉여들고 상녕?쓰고, 그 행례, 행례라고, 행례.}

실랑이 그 각씨 찌불 가, 가자네, 각씨 찌불. {신랑이 그 각기 집을 가, 가잖아, 각시 집을.}

거 가 가주고, 그 각씨가 나와 가주고, 사모판대 그 난 난 간 거서 거서 용:네를 하자네요. {거기 가 가지고, 그 각씨가 나와 가지고, 사모판대 그 난 난 간 거기서 거기서 용례를 하잖아요.}

흘기 부리면서 그래서 저거 부부가 되는 거지 모. {흘기 부르면서, 그래서 저거 부부가 되는 거지 뭐.}

엔나레는 그런 모까.{옛날에는 그런 못 가.}

그래 서울 갈 켜 인제 아라리가, 시집 가고 장개 가는 데 흘기는 왜 불러. {그래 서울 갈 적에 이제 아리랑이,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그게 흘게가 이꺼든. {거기에 흘게가 있거든.}

@ 흘게요? {흘게요?}

흘기 부르는, 이짜네요, 흘기. {흘기 부르는, 있잖아요, 흘기.}

@ 흘기 부리 뭐예요? {흘기 부리 뭐예요?}

흘:기라는 건 말하자면 저 그, 어디 제 저 제사 켜 뭐라만 뭐 절 해라, 향 피우란 시그루, 흘:기라능 기 그 가며는 그 짐:명이라능 게 이씨, 짐:뵈. {흘기라는 거는 말하자면 저 그, 어디 제 저 제사 켜, 뭐라고 하면 뭐 절 해라, 향 피우란 식으로, 흘기라는 게 그 가며는 그 짐명이라는 게 있어, 짐뵈.}

그게 인제 진: 사라마, 그, 시 실랑 입짱 씨겨 가주고, 고 담 천선 계배, 나와가지구 인제 실랑

이 항네 아페 인제 손 씨꼬, 제:배, 저를 두 번 한단 말 인제 여게, {그게 이제 지은 사람이, 그 시
신랑 입장 시켜 가지고, 그 다음 천선 계배, 나와 가지고 이제 신랑이 항례 앞에 이제 손 씻고,
제배, 저를 두 번 한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

서로 저 나와서 예를 바칩니다, 두 번 하고 도로 서 가주고, 또 인제 한 번 하면 신부가 또 함
번 하고, 고 다멘 또 만 마절 하구, 고 다:메 또 뭐:시 하구, 고 다:메 서로 담 담례라고 서로 이쪼
게 시 신부가따 뷔:주면 실랑이 머꼬, 또 실랑이 퍼지래면 요 벨: 머꼬, 그래 율례라고 저를 여서
뻔 한단 얘:기여. {서로 저 나와서 예를 바칩니다, 두 번 하고 도로 서 가지고, 또 이제 한 번 하
면 신부가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만 만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담 담례하고 서로 이쪽에 시 신부갔다 부어 주면 신랑이 먹고, 또 신랑이 퍼주면 이 벨 먹고, 그
래 율례라고 절을 여섯 한단 얘기야.}

@ 네. {네}

그래 시집 시집 소리가 이짜내 노래가, 시집까고 장:개 갈 찌게 흘기는 왜 왜 불려. {그래 시집
시집, 소리가 있잖아 노래가. 시집가고 정가갈 적에 흘기(笏記)는 왜 왜 불려.}

@예. {예}

마:메 이꼬 뜬:만 이썬면 뱅 년 아느로 살:지. {맘에 있고 뜻만 있으면 뱅 년 안으로 살:지.}

그래간두루 흘기를 안: 불려도 뱅, 마:메 마:음만 이썬 사:는데, 흘기 부른다고 마:메 엄는 살겐
느냐. {그러니까 흘기를 안 불려도 뱅, 마음에 마음만 있으면 사:는데, 흘기 부른다고 마음에 없는
데 살겠느냐.}

연:날 그러케 지은 노래가 이따고. {옛날에 그렇게 지은 노래가 있다고.}

그 정선 하라버지가 행기 켈: 나지. {그 정선 할아버지가 지어 놓은 것이 제일 낫지.}

@ 네, 정선 아라리 노래 다 아세요? {네, 정선 아리랑 노래 다 아세요?}

아, 알:고말고 자라지. {아, 알고 말고 잘하지.}

@ 그거 한번 {그거 한 번}

얘:기는 내이거 하능 불라우? {얘:기는 내 이거 하는 것 보려우?}

@ 예, 예, 한 번. {예, 예, 한 번.}

♪ [정선아리랑] 시집 가고 장개 가는 데, 흘기는 왜 불려 어어어어, 마메 이꼬, 뜬만 이따며는
뱅년해로 사알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흘기는 왜 불려, 마음에 있고, 뜻만 있다며는 뱅년해로
(百年偕老) 살지.}

이거 꼭따마 가시오, 이거 가주 오데 가 {이게 꼭 담아 가시오, 이거 가지고 어디 가}

@ 아 예,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아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강원도 아라리. {강원도 아라리.}

이 말:고 또 정선아라리 참 머시능게 이따고. {이거 말고 또 정선아라리 멋있는 게 있다고.}

@ 또 어떻게 이썬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아, 꼭차쪼 할라문. {아, 꼭 찻지요, 하려면}

@ 아, 쫌 한번 해주, 해주시조, 네. {아, 쫌 한 번 해 주, 해 주시조, 네.}

♪ [정선아리랑] 정선 읍내 일백 오시포 한자미 드러 준다며는 공지갈보를, 연녀페 찌구 성마
려를 늑짜. {정선 읍내 일백오십 호 한 잠이 들어 준다면 공지갈보를 연 옆에 끼고서 성마름을
넘자.}

@ 그, 그 뜨시 머니까, 그곤? {그, 그 뜻이 뭘니까, 그건?}

그기 정선 으비 시방은, 그 이쪽 저쪼그로, 이, 서, 이 역전 아푸로 전수가, 아 지비 수는 최고
아니요, 그초? {그게 정선 읍이 시방은, 그 이쪽 저쪽으로, 이, 서, 이 역전 앞으로 전부가 아, 집
수가 최고가 아니요, 그렇지요?}

그래 그저네는 정선 으:비 정성군 소:재지가 뱅 오:시포요. {그래 그전에는 정선 읍이, 정성군

소재지가 150호요.}

@ 네, 네 {네, 네}

지비 백 오:시보. {집이 150호.}

이로 이오 그래자내요, 메토이래자내요. {1호, 2호 이러잖아요, 몇 호 이러잖아요.}

백 오:시포라고. {150호라고.}

@ 네. {네.}

그래~이 거 거게 인제 자:미 그, 그 인구가: 한잠 폭짜자내 이 전체가. {그러니 거, 거기 인제 잠이, 그 그 인구가 한 잠을 폭 자잖아, 이 전체가.}

@ 한참 자물때, {한참 잠 올 때,}

그럼 그러차너, 잠들면 콩:지갈보라 이찌, 콩지갈보~이렇거 이쥌. {그럼 그렇잖아, 잠들면 콩지 갈보하고 있지, 콩지갈보란 게 있지요.}

@ 콩지갈보요? {콩지갈보요?}

콩지갈보란 얘:기는 색:씨라 색:씨. {콩지갈보란 얘:기는 색시라 색시.}

색:씨 이 머리 머리 땀: 색:씨가 이 뒤 콩 콩지를 느러 땀:기자내요. {색시, 이 머리 머리 땀은 색시가 이 뒤 콩, 콩지를 내려 다니잖아요.}

거기 총가기 그거 인제 데리구는, 도마~을 간다이, 도마~을. {거기 총각이 그거 인제 데리고는 도망을 간다니, 도망을.}

모:부턴 싸람처럼 가만 가마니 가니까 가만:히 자미 고요은 뭐 자니까, {뭐가 붙은 사람처럼 가만 가만히 가니까, 가만히 잠이 고요히 뭐 자니까,}

그래 성:말 에미라고, 평창 땀:기는 정선서 평창 절로 해서 저 흥성으로해서 쭉: 서울로 가자내요. {그래 성말어미라고, 평창 다니는 정선에서 평창 저리로 해서 저 횡성으로 해서 쭉 서울로 가잖아요.}

@ 네. {네.}

그 성막, 그그 재가 성말고개유. {그 성막, 그그 재가 성말고개예요.}

@ 성? {성?}

성:마렴. {성마렴.}

@ 성마렴 고개.{성마렴 고개.}

성:마렴 그럼, 시방도 성마려미썩요. {성마렴 그럼, 지금도 성마렴 있어요.}

@ 성마렴, 네. {성마렴, 네.}

그래 옴:나레 그 건다리 노래요, 그게. {그래 옛날에 그 건달 노래예요, 그게.}

그래서 거치, 여 한치 여 저저 그그 정:서네 거치런, 그 노래도 이썩유. {그래서 거칠[현], 여기 한치(화암면 한치리) 여기 저저 그그 정선에 거칠현, 그 노래도 있어요.}

나 하능거 블라우? {내 하는 거 블래요?}

@ 네 네.{네, 네.}

거칠혀~이 치러~인데 {거칠현이 칠현인데}

@ 아, 거칠현, 네, 알조, 네, 정선 들어와썩 때 옴날, {아, 거칠현, 네, 알지요, 네, 정선 들어왔을 때 옛날,}

어~, 거거 거치런 거거거 거개 피란하민서 곤드레딱쭈기 썩, {응, 거거 거칠현 거기 피란함녀서 곤드레딱쭈기 삶[아 먹으면서]}

@ 곤드레 딱쭈기. {곤드레 딱쭈기.}

땅땡어리 내 그 내 하느라.{땅땡어리 내가 그렇게 내가 하느라.}

거 거 한치가 동면 한치가 남현 한치라 거 이썩요, 거게. {거기 거 한치가 동면 한치가 남현 한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고:리 바루, 거 칠허니 우:에 고:리, 한치라고, 한치.{그 꼴이 바로, 거칠현이 위에 꼴이 한치라고, 한치.}

@ 네.{네.}

♪ [정선아리랑] 한치 뒤싸네 곧드레딱쪼기가 나지미 만남거따며는, 그건만 뜨떠 머거도 보문 사러 나네. {한치 뒷산에 곧드레 딱쪼기가 나지미 만남 같다면, 그것만 뜯어 먹어도 봄은 살아나네.}

그 칠허니 양반드리 아무도 업짜네요, 썰랑 업쓰니까. {그 칠현이 양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신랑 없으니까.}

그래가서 곧드레 그 딱쪼기 뜨떠 가주고, 동:에 그 무쳐가주 사나, 그 노래 그래해따는기여. {그래서 곧드레 그 딱쪼기 뜯어 가지고, 겨울에 그 무쳐 가지고 사나, 그 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지미, 나지미 만남거떠~ 얘:기는, 나지미는 여자라고 하는 얘:기요. {그 나지미, 나짐지 만남 같다는 얘:기는, 나지미는 여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 색:씨들, 정말 그 꼬 까튼 마으미 아니요. {여기 색:시들 정말 그 꽃 같은 마음이 아니요.}

@ 네. {네.}

응, 그 곧드레 딱쪼기가 마시 그, 그런 마시라 이기여. {응, 그 곧드레 딱쪼기가 맛이 그, 그런 맛이라는 거야.}

@ 나지미? {나지미?}

나지미, 나지미. {나지미, 나지미.}

나지미 마마~ , 자기 그 그 아내,그 처:녀를 두고 하는 얘:기래요. {나지미 마마, 자기 그 그 아내, 그 처: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 아, 나지미.{아, 나지미.}

응. {응.}

@ 나지미 맘마, {나지미 맘마,}

거 가따며는, {그것과 같다면,}

@ 가따며는, 예. {같다면, 예.}

봄 사러 난다고. {봄 살아 난다고.}

@ 봄 사러 난다. {봄 살아 난다.}

@ 아, 보미 사라 난다구요? {아, 봄이 살아 난다고요?}

@ 아, 어 그렇게 마:니 이젠네요? 그런 노래가? {아, 어 그렇게 많이 있겠네요? 그런 노래가?}

아, 그건뇨, 마:니 하조, 여게는 ,그래서 그 노래 마:니 하지, 그, 하기 돌쇠가 왜 딱쪼기 그 칠현, 칠현 칠허니 고개 인는 그래 그거칠허니, 요 일곱 냥바니 그 거게 거 걸:쳐 가따고, 그, 이, 그래서 갈 꺼 짜에, 거:칠허니가. {아, 그건요, 많이 하지요, 여기는, 그래서 그 노래 많이 하지, 그 하기 돌쇠가 왜 딱쪼기 그 칠현, 칠현 칠현이 고개 있는 그래 그 거칠현이, 여기 일곱 양반이 그 거기에 거 걸쳐 갔다고, 그, 이, 그래서 갈 거 자에, 거칠현이가.}

@ 네:..{네.}

갈: 꺼,거칠현. {갈 거, 거칠현.}

칠현, 칠허니. {칠현, 칠현이.}

@ 네네, 칠허니쵸. {네네, 칠현이쵸.}

그런데 요기 모 또 요기 정선 아라리~ 이 쥐문 짝 차도 아라리고 또 요 요 요 이쵸, 대가집, 요기 정서네 그, 그 노래가 정서네게두 기픈 노래고, 고 담 누:니 오느나 비가 오나 그에 가면 또 그거 하고, 고 다:메 저, 저 아우라지 배싸공, {그런데 여기 뭐 또 여기 정선 아라리 이걸 쥐면 짝 차도 아라리고, 또 요 요 요 있지, 대가집, 여기 정선에 그, 그 노래가 정서네게도 깊은 노래고,

그 다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 가면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 저 아우라지 뱃사공,}

@ 예, 그 노래 한 번 예 아가지구, {예, 그 노래 한 번, 예, 아우라지.}

거:러선,{걸어선,}

@ 네. {네.}

아우라:지 뱃사공 아저씨이 뱃머리 돌려 주세요 오오, 사리 꼬:레 올 동바리 다 떠러어 지네에.
{아우라지 뱃사공 아저씨, 뱃머리 돌려 주세요, 사리 끝에 올 동발이 다 떨어 지네.}

아하, 처녀가 겨:우네 기종 그래, 그 처:녀 동산 해 봐짜네요. {아하, 처녀가 겨우 ** 그래, 그 처녀 동산 해 봤잖아요.}

@ 네네, 고 어 고 마:를 말: 뜨슬 다시 함 번만 쫘 해주십, {네네, 그 어 그 말을, 말 뜻을 다시 한 번만 쫘 해주세요.}

@ 네, 아우라지. {네, 아우라지.}

그 뜨시, 왜냐면 그 처:녀가 그, 싸리꼴:, 거 꼬:리 싸리꼴 이꺼든. {그 뜻이, 왜냐면 그 처녀가 그 사리꼴 거기 꼴이 사리꼴 있거든.}

@ 싸리꼴?: {사리꼴?}

동, 동:박 이써 동:박. {동, 동박(동백?) 있어, 동박.}

동:박 그 글 따:가주고, 지름 짜면 머리에 연:나레는 이 머리에 이래 발라따고, 머리 머리에 동박 짜름. {동박, 그 그걸 따 가지고, 기름 짜면 머리에 옛날에는 이 머리에 이렇게 발랐다고, 머리 머리에 동박 기름.}

참: 비~: 잘 나써, 여기에. {참 빛 잘 났어, 여기에.}

냄:새 조코 이래 바르는데, 거 동:막 따러 갈라니까두루, {냄새 좋고 이렇게 바르는데, 거기 동막 따러 가려니까,}

무를 올:차내야돼, 건너 가야 되자네요.{물을 올차내야돼, 건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건너가니까두루, 배를 띄, 이, 저 짜가 이쓰니까두루, 배에 건너 가지지 아네요. {그러니 건너가니까, 배를 띄, 이, 저쪽에 있으니까, 배에 건너 가지지 않아요.}

건너가야 처: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동바글 다러 가주 가지유. {건너가야 처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동박을 따서 가지고 가지요.}

@ 네. {네.}

그래 동:막 따러 가야 되는데, 배를 안 보내주구, 가서 동바글 짜이꼴로 안 따면 그 동바기 그 몸께 부:서지고 말자나, 따~에. {그래 동막 따러 가야 되는데, 배를 안 보내주고, 가서 동박을 ***로 안 따면 그 동박이 그몸께 부서지고 말잖아, 땅에.}

그게 인제 어느 정도 여:슬레 따가 따야마이 지르미 나오는데, 고만 그거 하루 하루 이틀 사 다 썰 여썰 가면 고 푸더비 썬제지면 지름 안 나짜네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여슬레 따가, 따야만 기름이 나오는데, 그만 그거 하루 하루 이틀 사, 닳새, 엿새 가면 그 푸더비 **** 기름이 안 나잖아요.}

그래 그거 처:녀가 말한 거기라고 지금. {그래 그거 처녀가 말한 거기라고 지금.}

배 뱃사공 아저씨, 배 좀 뱃머리 돌리게, 뱃머리 빨कु네 오라 이기여. {배, 뱃사공 아저씨, 배 좀 뱃머리 돌리게, 뱃머리 빨리 오라 이거야.}

싸리, 싸리꼴: 올랑방이 다: 떠러지네.{사리, 사리꼴, 올랑방이가 다 떨어지네.}

@ 아, 네. {아, 네.}

@ 아, 거기 또 마디, 고거 말고도 또 이편데, {아, 거기에 또 말이, 그거 말고도 또 있던데,}

아, 또 누:니 올라나 비가 올라, 그 이져. {아, 또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그거 있지.}

누니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쭈 장마니 한 번 널컹 쫄탈 언제, 만수산:천 거문 구루문 왜 모여 어 드나아.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가 한 번 텨컹 질 날이 언제, 만수산천 검은 구름

이 왜 모여 드냐.}

그기 세: 가지가 자랑이지, 그 우리, 그, 정선 하라버지에게두 본 본터에 노래조. {그 세 가지가 자랑이지, 그 우리, 그 정선 할아버지에게도 본 본터에 노래지요.}

@ 아 고거는 어떤 뜨세 누니 오나, 그 뜨슨뇨? {아, 그거는 어떤 뜻에 눈이 오나, 그 뜻은요?}

그 누:니 요 그리 왜냐 오머는, 이거 다 거칠허니 그 하는 그, 이 엔:날 마:리라고. {그 눈이 여기에 그렇게 왜 오냐면, 이거 다 거칠현이 그 하는 그, 이 옛날 말이라고.}

한 이틀 싸라미 한다고, 그 칭구 마나따나 시:커먼 구루미 모여 들기를 칭송은 나메거이 되거든. {한 이틀 사람이 한다고, 그 친구 말따라 시커먼 구름이 모여 들기를 칭송은 남의 것이 되거든?}

@ 어떤 구루미요? {어떤 구름이요?}

시커먼 구루미, 비구름, 눈구름, 망 모여 들더니, 그 참 비가 올라나 누:니 올라나, 구름도 너무 모여 드니까, 만수산천 응? 거문 구루미 왜 모여 드니 이기여. {시커먼 구름이, 비구름, 눈구름, 막 모여 들더니, 그 참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구름도 너무 모여 드니까, 만수산천 응? 검은 구름이 왜 모여 드냐 이거야.}

@ 네,네. {네, 네.}

그 번개 구름도 하:두 마:니 모여 들고, 뭐 비도 마:니 오고 인제, 그러되니까두루 하:두 일기가 그러니, 진: 노래가 응 그래 누:니 올라나 비가 올라나, 꼬차네요? {그 번개 구름도 하도 많이 모여 들고, 뭐 비도 많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도 일기가 그러니까 지은 노래가 응, 그래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그렇잖아요?}

옥썴 장마~이 처야, 모여드능 거 보니까는 탁 날리가 나께께거든. {옥수 장마가 처야, 모여드는 거 보니까 탁 난리가 나겠거든.}

@ 네. {네.}

그래 옥썴 옥썴, 여: 보면 옥썴장마, 무리 마:니 움 옥썴라 그러지, 옥썴루 오더냐, 옥썴장마~이 지누나. {그래 옥수 옥수, 여기 보면 옥수장마, 물이 많이 오면 옥수라 그러지, 옥수로 온다냐, 옥수장마가 지는구나.}

만수산 꼭대기에 거:노문, 만:수사니라고 저 저 사는, 상 꼬때기 상 꼬때기 그름 이름 구름 머리땡 보이자네요. {만수산 꼭대기에 거기에 **, 만수산이라고 저, 저 산은, 산 꼭대기, 산 꼭대기, 그, 이, 구름 머리땡 보이잖아요.}

어트케 왜 모여 드냐, 왜 그러케 모여들구 캄캄한 버드매기여. {어떻게 왜 모여 드냐, 왜 그렇게 모여들고 캄캄한 *****.}

@ 네. {네.}

그런 그기다 그이, 그 칠현 칠허네 하는 소리야. {그런 그게다 그 이, 그 칠현, 칠현에 하는 소리야.}

@ 아, 그럼 이, 우리 그 정선 아라리가 만:차나요. {아, 그럼 이, 우리 그 정선 아라리가 많잖아요.}

만:치 아이구이, 전 정선 아라리는 전 짹: 치잉거래요, 짹: {많지, 아이구, 저 정선 아라리는 전부 짹: 치인거래요, 짹:}

우언 여적 하는 지꺼리 {원 여적 하는 짓거리.}

@ 동네마다 지기도 하고 그러겐네요? {동네마다 짓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 뭐 뭐 뭐 뭐 막 찌끄럼. {그러면 그 뭐 뭐 뭐 뭐 뭐 막 짓지 그럼.}

@ 그럼 인제 제일 유명한게 그, 아 아까 얘:기요, 싸리꼐 올동마기, {그럼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아 아까 얘:기요, 사리꼐 올동막이.}

응 응 그 해요. {응, 응, 그 해요.}

@ 그 까마지 백사공 노래 하나, 그 다음 인제 누:니 올라나 비가 올라나. {그 까마지 백사공 노래 하나, 그 다음 이제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한치 뒤 상끼스게서 공덕 딱찌기. {한치 뒤 산기슭에서 공덕 딱찌기.}

@ 예, 한치 뒤산 곤덜 딱찌기, 고 고게 인제 세: 개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예, 한치 뒷산 곤덜 딱찌기, 그 그게 이제 세 개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아, 유명하죠, 아주 그럼. {아, 유명하지요, 아주 그럼.}

그거또 이미 이짜네요. {그것도 의미 있잖아요.}

거기 아니 이래 건 한치 뒤산 곤덜 딱찌기가 칠현 양바니 뜨더 머글 시저레 그 양반니 그 그 피, 말한 피라미 피라미, 그 피라노면 피라미면 그 서~인 드리 정서네 서~인드리 그 정차글 하미 해따는 노래가 그기 그 노래고, {거기 아니 이래 거 한치 뒷산 곤덜 딱찌기가 그 칠현 양반이 뜯어 먹을 시절에 그 양반이 그 그 피, 말한 피라미, 파라미 그 파라노면 피라미면 그 성인들이 정선에 성인들이 그 정차를 하며 했다는 노래가 그게 그 노래고,}

또 여 아우라지 백사, 고거는 처:녀가 그 동막 따 따서, 지름 머리에 바르는 그 역사를 가진 그 함: 오래되찌, 수심미 수 수처니라 할 쑈 이쪼. {또, 이 아우라지 백사, 그거는 처녀가 그 동막 따 따서, 기름 머리에 바르는 그 역사를 가진지 그 함 오래 됐지, 수심이 수 수천이라 할 수 있지요. }

거:서 제:나온 노래구, 쯔 그 누:니 오나 비가 올라나 하며 곤덜 딱찌기 따:면 들구 땡기면서 하: 두 워낙 그 기 병: 이꺼든 머꾸, 머꾸루미 막 모여드니까, 머꾸미랜 시커면 먹꾸루미라 그리구, 그 래간두루 그래 노래가 하며 제:저쪼. {거기에서 지어 나온 노래고, 그 그 눈이 오나 비가 올라나 하며 곤덜 딱찌기 따면 들고 다니면서 하도 워낙 그 기 병 있거든 먹고, 먹구름이 막 모여드니까, 먹구름이란 시커면 먹구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노래가 하며 지어 졌지요.}

@ 고 세:개가 인제 대표저그로 마니 불러? {그 세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불러?}

그럼, 대표저기쪼, 그러면,{그럼 대표적이이지요, 그러면,}

땅거래는 막 끌구, 땅거래는 아께 여 저 저 저 머야, 정선어매 여내하고 시포, 건: 건달들 노래고. {땅거래는 막 끌고, 땅거래는 아까 여 저 저 저 뭐야, 정선어미 연애하고 싶어, 그건 건달들 노래고.}

건달, 건달. {건달, 건달.}

@ 아 예.{아, 예.}

건달, 이 술 먹 김사까시 건다래. 김사깁, 얘:기 드려 봐씨요? {건달, 이 술 먹고 김삿갓이 건달 이야, 김삿갓, 얘기 들어 봤어요?}

김삿, 김사깁 왜 요건 김사까로 치키. {김삿, 김삿갓 왜 이건 김삿갓으로 **.}

네 이당게 여 절 절 글 지꼬,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자까들 노래지 뭐. {네 이렇게 여 저 저 글 짓고,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작가들 노래지 뭐.}

그 만:치 모. {그 많지 뭐.}

@ 월래 그: 말코 또 또 노래 이씨요? {원래 그거 말고 또 또 노래 있어요?}

아 짹 차찌, 아이 그래간두루. {아, 짹 찻지, 아이 그러니까,}

@ 쪼금만 더 불러주세요, 머께 머까지만 더 그 설명도 좀 해주시구, 재밌는데요? 네. {쪼금만 더 불러주세요, 몇 개 몇 가지만 더 그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재밌는데요? 네.}

@ 그 굉장히 그거 중요한 그 자론데요, 보존자료로. {그 굉장히 그거 중요한 그 자료인데요, 보존 자료로.}

@ 아시는 거 쪼 다 해주시 주시쪼, 네. {아시는 것 쪼 다 해주시,주시쪼, 네.}

@ 고건만 쪼 정:말 보고인데,{그건만 쪼 정말 보고인데.}

아, 그런데 세:가지 이거는 참 상당히 괜차는거라. {아, 그런데 세 가지 이거는 참 상당히 괜찮은 거라.}

@ 또 어떤, {또 어떤,}

아까 그 장개가고 시집가는 그거또요. {아까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것도요.}

그거또 그 그 이:미가 인능거래요. {그것도 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 어 어떤, {어 어떤,}

장개가고 시집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 아 고거 다시 함 범만, 한 번.{아 그거 다시 한 번만, 한 번.}

장:개가고 시집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마:메 이꼬, 평만 이씨먼 뽕녀늘 살자능교. {마음에 있고, 떡만 있으면 백년을 살자는 거예요.}

흘기를 안 불러도만, 백싸리 마:메 이꼬 평만 세는데, 흘기 부른다 해서, 마:메 업:는 걸 살겐 느냐. {흘기를 안 불러도 백살이 맘에 있고, 떡만 세는데, 흘기 부른다 해서, 마음에 없는 걸 살 겠느냐.}

그런 그 노래라 그거는.{그런 그 노래라 그거는.}

그차네요.{그러잖아요.}

내가 예로소, 처녀다. {내가 예로서 처녀다.}

그럼 김교수가, 저 뭐시기 뭐야, 초 총가기다.{그럼 김교수가 저 뭐 뭐야, 초 총각이다.}

나 결혼식 하던 해, 정철습찌 찌이 그, 서로 서로 채: 가서 흘기 부리며 행렬하자나요. {나 결혼 식 하던 해에, **** 그, 서로 서로 채 가서 흘기 부리며 행렬하잖아요.}

@ 행? {행?}

행꺼, 행:게라고 한, 행:네 {행거, 행게라고 한, 행례.}

@ 행:네. {행례.}

#행:네. {행례.}

행:네하는데 , 거: 암 부러 암 부럴도 그냥 해:도, 나하구 마:메 이쓰먼 사는데, 저걸 흘기를 부 부 불러도 내가 천눈데, 하이고 너는 어쩍 생 생김새도 뭐여 췌가 여자가끼 안 생겨, 이래면 마: 미 업짜네요. {행례하는데, 그거 안 불러 안 불러도 그냥 해도 나하고 마음에 있으면 사는데, 저걸 흘기를 부, 부, 불러도 내가 첫눈에, 하이고, 너는 어떻게 생 생김새도 뭐야, 제가 여자같이 안 생 겨, 이러면 맘이 없잖아요.}

그럼 요 네 요 납짜~요 소곰 하나이, 두:리 마:미 마 마지먼 뽕녀네 산:단 얘:기가 땅 마찌, 하 나 이래도 시른 시른 데는 살:기가 상당히 거부카자네요. {그럼 이 네 이 납짝 소곰 하나, 둘이 마 음이 마 맞으면 백년을 산단 얘기가 딱 맞지, 하나라도 싫은 싫은 데는 살기가 상당히 거부하잖 아요.}

그래 그 노래 췌: 거시, 바로 그 처녀가 췌: 거시 그 읍:녀니 지응 거, 거기라고. {그래 그 노래 지은 것이 바로 그 처녀가 지은 것이 그 육년이 지은 거, 거기라고.}

시집까고 장개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시잡가고 장가 가는데, 흘기는 왜 불러.}

마:메 이꼬, 평만 이씨머는 뽕녀늘 하면서 사는데. {마음에 있고, 떡만 있으면 백년을 하면서 사 는데.}

@ 근데 그 흘기른 마지: 그 그 한, 우리 마링가, 흘:기라능게 그 한짱가요? {근데 그 흘기란 말이 그 그 한, 우리 말인가, 흘기라는 게 그 한짱가요?}

예, 흘기.{예, 흘기.}

어떠케 쓰나요, 흘기가? {어떻게 쓰나요, 흘기가?}

@ 어떤, {어떤,}

#흘기랑게 저, {흘기라는 게 저,}

@ 혼짜 혼 짜를 쓰나요? {혼자 혼 자를 쓰나요?}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저 저 아 건 내 아 아따가 드리께요. {저 저 아, 그건 내 이 이따가 드릴께요.}

요 내가 이저 빠런데. {이거 내가 잊어 버렸는데,}

그 뜨시 무슨 뜨시예요? 홀 짜가?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홀 자가?}

기 짜는 이 기 짜.{기 자는 이 기 자.}

@ 아, 그건 그건 기로칼 기 짜네요? {아, 그건 그건 기록할 기 자네요?}

@ 아, 네.{아, 네.}

@ 홀 짜는 무슨 뜨신가요? {홀 자는 무슨 뜻인가요?}

홀게, 홀끼라니 머는, {홀게, 홀기라는 뭐는,}

@ 아 근데 홀기, 제가 정확칸 으미를 제가 아직 파아기 안 돼서, {아 근데 홀기, 제가 정확한 으미를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아, 아니 아니 저 저 저게 이씨요, 저게 저 저 채게 저 이따고, 홀기라고. {아, 아니 아니 저 저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저 저 책에 저기에 있다고, 홀기라고.}

그에 정선 하라비가 고:거 인제 건:제 내 췌::가지, 세:가지 뿔르구, 그 누:니 오나 비가 올라나, 그 또 그 다옥: 그거또 한 칠 때이써, 쏜데떡찌기 하구, 마우라지 배싸공하, 고거는 그, 하두 엔:날 씨기로 유명해, 그 참 하여튼 뜨:끼 이꼬, 또 칠현 칠현, 거는 성인드리 불런 아라리 제는 기, 직접 곤드레 딱찌기 따 머기면서, 켄: 그런 노래고, 그러코 고 다:메 미역 꼬 보토~이로 막 떠드롱 거는, 그럼 자까드리 우리 그냥 건달드리 막 그렇거야, 근 저 저, 드러보면 머 노래 그 정선 아라리, 참 가간 쪼자너시.{그게 정선 할아버지가 그거 이제 그거 제, 내가 세 가지, 세 가지 부르고, 그 눈이 오나 비가 올라나, 그 또 그 **, 그것도 한 칠 대 있어, 곤데 떡찌기하고, 아우라지 뱃사공 하, 그거는 그, 하도 옛날식으로 유명해, 그 참 하여튼 뜻이 이꼬, 또 칠현 칠현, 그거는 성인들이 불런 아라리 지은 것이, 직접 곤드레 딱찌기 따 먹이면서 지은 그런 노래고, 그렇고 그 다음에 *** **** 막 떠드는 것은, 그럼 작가들이 우리 그냥 건달들이 막 그런거야, 근데 저 들어보면 뭐 노래, 그 정선 아라리, 참 그건 좋잖아.}

@ 뭐 어르시니 알고 인능 거 또 어떻 게 이쓰세요?{뭐 어르신이 알고 있는 거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내 절머서 술 머꼬 땡기며 노래 부름 짝 차찌. {내 췌어서 술 먹고 다니며 노래 부름 짝 차찌.}

색:씨들 저 처:너들 색, 술찌베 새버기 파는 씨따 안저노코 함마디 함 짝 차찌. {색시들 저 처너들 색, 술집에 *** 파는 ** 앉아 놓고 한 마디 하면 짝 차찌.}

@ 건전한 거는 업 업씨요? {건전한 거는 없 없어요?}

알지, 이찌. {알지, 있지. }

@ 어떻 게 또 이씨요? {어떤 게 또 있어요?}

그냥 당구 구래, 그 대:가 이꼬 대:가 인는데, 인제 엔:나레 인제 그 마게 어:른드리 그래 우리 나기 저네 인제 우리 하라버지 씨드른 애:기 가운데, 이 삼처게 강능에 소금 지러가지, 소금. {그냥 당구 그래, 그 대가 있고 대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마을에 어른들이 그래 우리 나기 전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 애기 가운데, 이 삼척에 강능에 소금 지러자기, 소금.}

엔:나레 소금, 이 지게루 지게 저다 명는다구, 저다가. {옛날에 소금, 이 지게로 지게 저다 먹는다고, 저다가.}

저다 명는데, 소금 지러 가머는 가따오다가 인제 중가네 인제 쉬:거든. {저다 먹는데, 소금 지러 가면 갔다오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쉬거든.}

인제 올라 가 가주구 인제 거가, 거:레가 물:문 자고, 소구물 인제 사고지곤, 지게 질머지고 저:: 백뽕녕, 미테서 오능 거는 백뽕녕, 삭빠느는 강능짜네 요. {이제 올라 가 가지고, 이제 거기가 거리가 멀면 자고, 소금을 이제 사고 지고는, 지게에 질머지고 저 백뽕녕 밑에서 오는 거는 백뽕녕, ***강릉 있잖아요.}

거 이제 여: 오다 중멸 하다보면 이제, 주막찌비 이써, 주막찌비. {거 이제 여기에 오다 ** 하다 보면 이제 주막집이 있어, 주막집이.}

마걸리 아페 요 탁쭈가 파는 지비 거 이제 노카~ 제 한 잔 제 거 어른드리 한 제 미테서 머꼬, 이제 돈 주고 사:머꼬, 이제 한 시간 전:시도 머꼬 이제 술 사머꼬 이제 그러 한 시간 두어 시간 제:가줘 이제 도라 온다고. {막걸리, 앞에 요 탁쭈가 파는 집이 거기에 이제 노코, 제 한 잔 게 거 어른들이 한 제 밑에서 먹고, 이제 돈 주고 사 먹고, 이제 한 시간 전시도 먹고, 이제 술 사먹고,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보내고 이제 돌아 온다고.}

도라오면 그거 하는 노래, 고러케 이따고 지끔.{돌아오면 그거 하는 노래, 그렇게 있다고 지금.}

하하 그럼, 그럼, 응 ,그 이제 음 언제 그 이제 켜 제 나중위가 술짱, 그 이제 술짱사라지. {하하 그럼, 그럼, 응, 그 이제 음 언제 그 이제 지은 제 나중이 술장, 그 이제 술장사라고 하지.}

주모 주모 주모:이 주모 술 파는 주모라 구래써, 주모. {주모, 주모, 주모. 이 주모 술 파는 주모라 그랬어, 주모.}

여 건:제 건:제 떠나가는 이제 노래 또 하는기 뭐냐면 그니까 걸 걸 거리에 인는 거리를 인:는 노래라 그래써. {여 거 이제 거 이제 떠나가는 이제 노래 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 거 거리에 잇는 거리를 잇는 노래라 그랬어.}

갈라느네 갈지 짜 한 자는 당시니 가지구 가더라도 오실 라아는 올 래짜 한 자는 날 주고 가시오. {갈라는 갈지 자 한 자는 당신이 가지고 가더라도 오신다는 올 래 자 한 자는 나를 주고 가시오.}

그제 이제, 저 이써 가지고 갈 찌게는 당신 가, 가더라도 그 자: 가져가때루 내녀네 올, 올라는 올 래 짜 한 자는 놔:두고 가르능기여. {그제 이제 저 있어 가지고 갈 적에는 당신 가, 가더라도 그 자 가져가 내년에 올, 온다는 올 래 자 한 자는 놔두고 가라는 거야.}

그래니까두루 그 쓰리써 놔두구 가능기 아니라, 마으므로 꼭: 온다는 걸, 응, 온다는 걸, 온:다능 걸 맘 쏘기로 세기고 가거라,그 아랄 한 번 해따고. {그러니까 그 쓰고서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꼭 온다는 걸, 응, 온다는 걸, 온다는 걸, 맘 속으로 세기고 가거라, 그 ** 한 번 했다고.}

그래 하머는, 메 건 하자네. {그래 하면 몇 건 하잖아.}

그 이 주모 가따 하면 인제는 그인 일부러 이제 남자드리 인능 거이 다써씨요 소음. {그 이 주모한테 갔다 하면 이제는 그 일부러 이제 남자들이 있는 거 다 췌어요, 소금.}

소금 좀 아랄 기어오름 이카 머꼬 이제 또 놀파니다. {소금 좀 ** **** 이렇게 먹고, 이제 또 놀판이다.}

그 다:비 내 인경어미 그러 해씨유 쪽, 인자 그 남자 다:비, {그 답이 내 인경어미 그렇게 했어요, 쪽, 이제 그 남자 답이.}

내 떠나 간 뒤에야 도랑무리 뿔꺼든, 당시널 놔두구 가느냐구 우루 간 줄만 아러라. {내가 떠나 간 뒤에야 도랑물이 불거든, 당신을 놔두고 가느냐고 올면서 간 줄만 알아라.}

이래 그 대:가 되거든. {이렇게 그 대가 되거든.}

그래 이제 그럼 이제 나가서 자기가 쉬워, 핵: 베끼나 보자고. {그래 이제 그럼 이제 나가서 자기가 쉬워, 확 벗겨 보자고.}

그래 노래 이제 그거, 그 나 지:는 노래요. {그래 노래 이제 그거, 그 내가 지은 노래요.}

그래도 고 고 담: 또 또 건다래 하나 또 아주모 하고 노랜 또 머라 하능 기거든. {그래도 그 그 다음 또 또 건달이 하나 또 아주* 하고, 노래는 또 뭐라 하는 거거든.}

한 잔 두 잔 바더다 파는 술, 무슨 이무니 이께쏘, 제나 저무니 아리 빠라비 목또~이 드크 드르가네. {한 잔, 두 잔, 받아다 파는 술, 무슨 이윤이 있겠소, ** *** ** *** 목돈이 덜컥 들어가네.}

그제 뭔지 아러? {그제 뭔지 알아?}

수를 수를 그 해야지, 지베 꼭 강니~이 살라내이, 누를 살라내 사다 파는 거 그 가따 저:하구,

한 되, 술 한 되.;응, 삼 처년 이처년 바다 크니문 업짜네. {술을 술을 그 해야지, 집에 꼭 강냉이
살라면, 누름 살라면, 사다 파는 거 그거 가져다 제하고, 한 되, 술 한 되, 응, 삼천 원, 이천 원
받아 큰 이윤이 없잖아.}

그러니 인제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걸 한 냄비단 바다다 타면서 무슨 이루니 이젠나, 무슨
소:드기 인젠나,그 얘:기여.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걸 한 냄비에다 받아다 타면
서 무슨 이윤이 있겠나, 무슨 소득이 있겠나, 그 얘:기야.}

나:키나, 저 나주어머니 아라리 빠라메 저 나주어머니 노래 잘:하거든. {***, 저 나주어머니 아라
리 바람에 저 나주어머니 노래 잘 하거든.}

한 번 썰자능 거, 훌쩍 반:한다 이기여. {한 번 썰자는 거, 훌쩍 반한다 이거야.}

그럼 노래 빠람 노래 안 들면 도:늘 허또는 주물러 준다구. {그럼 노래 바람 노래 안 들면 돈을
헛돈은 주물러 준다고.}

그때 아주메 그걸 그 그 건달 로래라고.{끄때 아주머니 그걸 그 그 건달 노래라고.}

@ 그 뭐 동모 동:노래 자버서, 동막 준다구요? {그 뭐 동모, 동, 노래 잡아서, 동막 준다고요?}

@ 아유, 마지막에 허리춤에 인는, {아유, 마지막에 허리춤에 있는,}

목똥, 목또니 돈, 목, {목돈, 목돈이 돈, 목,}

도니 목또니라능 거는 한꺼버네 탁 트러 간다 이기여어. {돈이 목돈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탁
드러 간다 이거야.}

수른 한 잔 두 잔 한 대면 한 대깡, 두 대면 두 대깡 이래 주지마는, 노래 한 번 하곤 마리오,
거 춤, 아주머니가 노래 하능 거 보니깐 참 잘 하고, 뭐 술 파라 팔 쿵기 업꺼든.{술은 한 잔 두
잔 한 대면 한 대 값, 두 대면 두 대 값, 이렇게 주지만, 노래 한 번 하고는 말이요, 거 춤, 아주
머니가 노래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고, 뭐 술 팔아 팔, 큰 게 없거든.}

그래니깐두루 인제 내가 노래 하면서 주는 도니 그러케 한 움큼 콧 찌르는 목또니 드러간다능
기야, 이거 목똥. {그러니깐 이제 내가 노래 하면서 주는 돈이 그렇게 한 움큼 콧 찌르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목돈.}

@ 아, 목또니 드러간다, 예. {아, 목돈이 들어간다, 예.}

@ 다들 그 설명이 이꼬 재미가 인네, 다 어떤 그 유래가 다들 인네요, 네, 아. {다들 그 설명이 있
고, 재미가 있네, 다 어떤 그 유래가 다들 있네요, 네, 아.}

@ 그론, 아우 그런 그런 거 그런 거만 모아두 정말 으미가 이젠는데요. {그런, 아우 그런 그런 거,
그런 거만 모아두 정말 의미가 있겠는데요.}

나는 뭐 요 요꺼 바러리 가태, 아 진제나단 사타 한 다레 뭐 다 하지, 짹 차쓰, 꺼. {나는 뭐 이
이거 *** 같아, 아 **** ** 한 달이면 뭐 다 하지, 짹 찻어, 그진.}

@ 아, 쫌 더 해주세요. {아, 쫌 더 해주세요.}

아, 인제 모 태, 거 네 거. {아, 이제 못 해, 거 네 거.}

돼써요~, 돼써.{됐어요, 됐어.}

@ 요런 노래도, {이런 노래도,}

바께 노래, 노래 세:가지 노래 그거만, 가따가 어데가서 트러나도 내 음성이 예 이제 늘거서 난
거 향갑때 이거 이러서 악 납치가 돼가지구, 요 싹 해 새로 너씨요, {밤에 노래, 노래 세 가지 노
래 그것만, 갔다가 어디에 가서 틀어 놓아도 내 음성이 예, 이제 늙어서, 나는 그 환갑 때 이거
일어서 악 납치가 되어 가지고, 요 싹 해서 새로 넣었어.}

그런데 우리 절머서는 이 노랴 이 정선 아리랑 말을, 마를 잘 해따고요, 오디가 하머는. {그런
데 우리 젊어서는 이 노래를 이 정선 아리랑 말을, 말을 잘 했다고요, 어디에 가서 하면.}

야, 우리 절머 이 친구드리, 야 너 재:시기 한 이 친구 한 번 파해랴. {야, 우리 젊어서 이 친구
들이, 야 너 재식이 한 이 친구 한 번 파해라.}

이쳐먹찌기 가튼 앤데, 인제는 늘거서리 이후 모기 가라앙꼬, 모기 재들 가:수들 봐요. {이쳐먹서기 같은 앤데, 이제는 늘어서 이후 목이 가라았고, 목이 재들 가수들 봐요.}

가:수드리 어디 얼구리 얼구리 잘 나서 가:수합니까? {가수들이 어디 얼굴이 얼굴이 잘 나서 가수합니까?}

가:수드리 보통 애:기하고, 노래 부를 켜 노래 인저, 턱 여 터져 나온, 달려 나오자네 조케끔. {가수들이 보통 애기하고, 노래 부를 적에 노래 이제, 턱 이 터져 나온, 달려 나오잖아, 좋게끔.}

근데 우리도 이 말할 켜 보덤 이찌만 이 아라레 하고 한참 이럴 켜는 상당이 그리고 양산도니 미라니 한디 이: 참 조용기 이씨요. {근데 우리도 이 말할적 보다는 있지만 이 아라리 하고 한참 이럴 적에는 상당히 그리고 양산돈이 미라니 한디, 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여 이 저 청춘금 뭐이 뭐 머시기라. {여 이 저 청춘금 뭐 뭐 뭐더라.}

@ 양산도니 뭘니까? {양산돈이 뭘니까?}

양산도두기 저기 여:이 이이 이거는 정선 아라리고, 아늘 청춘가, 그 위네, 위노네 이렇 거 이짜 네요, 이로카 하늘거. {양산도둑이 저기 여 이 이 이 이거는 정선 아라리고, 하늘 청춘가, 그 ** *** 이런 거 있잖아요, *** 하는 거.}

그런 거거 약 두 양산도 함 이꼬, 여러가지가 만치요.{그런 거 약 두 양산도 하면 있고, 여러가지가 많지요.}

곡쪼가 얼마 요내기가 하나, 하나래 요건 항끼 송끼송꾸웁, 한 번 해 가주고 가야 조:치. {곡쪼가 얼마 요 내기가 하나, 하나야, 이진 한 개 *****, 한 번 해 가지고 가야 좋지.}

@예, 양산? {예, 양산?}

아:니, 저 인저 뭘시 청춘 청춘가 청춘가라 아니요, {아니, 저 이제 뭘 청춘 청춘가, 청춘가라 안 해요.}

@ 청춘가, 네 네. {청춘가, 네 네.}

에헤 압 똥사네는 봄 춘 짜 하 하니, 똥사네는 푸를 청 짜, 가지 가지 끝 까 짜 하:니, 구비 구비는 내 천 짜라, 영위라, 술 한잔 부어라, 마실 흙 짜가 말구 안주라. {에헤 앞 동산에는 봄 춘 자 하 하니, 똥동산에는 푸를 청 자, 가지 가지 꽃 가 자 하니, 굽이 굽이는 내 천 자라, 영월아, 술 한 잔 부어라, 마실 흙 자가 말고 안주라.}

조치오? {좋지요?}

@ 음, 네, 아유 조썌니다. {음, 네, 아유 좋습니다.}

압 똥산 봄 춘 짜, 똥산 푸를 청 짜, 가지 가지 끝 까 짜, 그지? {앞 동산 봄 춘 자,똥 동산 푸를 청 자, 가지 가지 꽃 가 자, 그렇지?}

구비 구비 내 천 짜, 내까미 준장 명보라, 명월 이쪼, 명이렐. {굽이 굽이 내 천 자, 내 ** 준장 명보라, 명월 있지요, 명일월.}

명위라, 술 한 잔 부:여라. {명월아, 술 한 잔 부어라.}

마실 흙 짜가 가지 가지라, 마실 흙 짜 그짜뇨.{마실 흙 자가 가지 가지라, 마실 흙 자 그렇잖아요.}

저 머네는 술 알며 흙 하는 흙, 그 뭘 산 뭘이 얼마 존냐, 그게 그 글짜가 만:주라, 관:주, 알관:주, 알관:주 짜르지. {저 면에는 술 알며 흙 하는 흙, 그 뭘 산 뭘이 얼마나 좋으나, 그게 그 글자가 만주라, 관주, 알관주, 알관주 자르지.}

@ 알관주가 뭘쪼? {알관주가 뭘지요?}

관:주라는 글짜, 내가 그저 이, 첩비드리 가서 글 쉼래머는 관지 씨자나 관직, 관직 맨처메 주능거. {관주라는 글자, 내가 그저 이, 첩비들이 가서 글 새울려면 관직 쓰잖아, 관직, 관직 맨 처음에 주는 거.}

황토를 가지고 빨꺼케 관:주해따능거, 응, 관:주. {황토를 가지고 빨갛게 관주했다는 거, 응, 관주.}

@ 아, 관주, 네 네.{아, 관주, 네 네.}

그래 그 가지구 {그래 그 가지고.}

@ 그 알관주, 아른 거기서 무슨 뜨시어요? {그 알관주, 알은 거기서 무슨 뜻이에요?}

알릴 안 짜지, 알 지짜, 알관:주, 알, 알려준다는 광:이야, 관:주, {알릴 안 자지, 알 지 자, 알관 주, 알, 알려준다는 광이야, 관주.}

그런 하늘 천 짜, 따 지 짜.{그런 하늘 천 자, 땅 지 자.}

그 다음 또 이써, 내 세: 가지 할게요. {그 다음 또 있어, 네 세 가지 할게요.}

인제 내 그 내가 , 에헤 처:멘 인제 그 소리가 이러케 난다고, 그다간, {이제 내 그 내가, 에헤 처음에 이제 그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그러다가,}

에헤 하늘 천 짜 따 지 짜, 땅이 지부 짜루만, 지불 지꼬, 나릴 짜 다될 짜, 영창무네다, 바미 되며는 별 쩌 잘 쑈, 마라 마라 너 그리들 마라, 본처 팔세를 그리 마라야. {에헤 하늘 천 자, 땅 지 자, 땅이 집 우, 자로만 집을 짓고, 날 일 자, 달 월 자, 영창문예다 밤이 되면 별 쩌 잘 수, 마라 마라 ,너 그렇게들 마라, 본처 팔세를 그렇게 마라.}

@ 음, 아, 네네. {음, 아, 네 네.}

@ 거기 설명을 함 번 또 해 주세요. {거기 설명을 한 번 또 해 주세요.}

아니 그래 그 이짜네요, 하늘 천 짜, 따 지 짜, 하늘 하느리 생긴 따~이 생긴 어데가, 지 부 짜, 천, 지 부 짜, 지 부,이짜네요. {아니 그래 그 있잖아요, 하늘 천 자, 땅 지 자, 하늘 하늘이 생긴 땅이 생긴 어디가, 집 우 자, 천, 집 우 자, 집 우, 있잖아요.}

거다 지불 지꼬, 날 릴 짜, 다 뵈, 방문 다리 다리 나 쯔 해 이 행아교. {거기에다 집을 짓고, 날 일 자, 달 월 자, 방문 달이 달이 나 쯔 해, 이 행아교.}

그 비춘데다가 고 다메 빌: 쩌 자수, 그, 이 가다를 쯔:다 이기야. {그 비춘 데다가 그 다음에 별 쩌 잘 수, 그, 이 가다를 쯔다 이거야.}

가달 빌 쩌 자수, {가다를 별 쩌, 잘 수.}

@ 가달진다구요? {가달진다고요?}

가다, 가다, 가다 외이라거드거든, 저 사람 쯔 상옥하나 그럼, 가다 쯔:다고 그럼. {가다,가다, 가다, 외이라고 하거든, 저 사람 쯔 상옥하나 그럼, 가다 쯔다고 그럼.}

@ 아, 포물 이러케 폼: 재는 거. {아, 폼을 이렇게 폼 재는 거.}

그래 그래 하는데, 그러케 하는데 마라 마라, 내 그르 마라, {그래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마라 마라, 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케 하는데 어데 그 짜그만한 드룽거 침명이 한 거래, 옴:나레 그초? {그렇게 하는데 어디에 그 조그마한 드룽 거 *** 한 거래, 옛날에 그치요?}

자근 마누레, 본 마누라 놔:두고 저건만 보고 가: 재자네요. {작은 마누라, 본 마누라 놔두고 저 것만 보고 가 재잖아요.}

가다루 쯔:다구 {가다루 쯔다고.}

@ 아, 가다 쯔:다구요? 네 네. {아, 가다 쯔:다고요? 네, 네.}

가다 쯔:다구 옴:나레 그러니까, 결론저그로 마라 마라 내 그리 마라구, 본처 팔씨 그러지 마라 이기여. {가다 쯔: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라 마라 내 그러지 말라고, 본처 팔세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 가:다를 재:더, 가:다를 재:더라도 본처마는 팔세하지 마라 이기여, {그런 가다를 재더라도, 가다를 재더라도 본처만은 팔세하지 마라 이거야.}

본처가, 옴, 내려가친.{본처가, 옴, ****}

@ 예예, 존내요, 쯔, 본처를 팔세 마라. {예예, 좋으네요, 본처를 팔세 마라.}

@ 예. {예.}

@ 방금 노래는 뭔가요? 청춘 거 말고 이거 방금 본처 팔세 마라 해명거. {방금 노래는 뭔가요? 청춘 그거 말고 이거 방금 본처 팔세 마라 했던 거.}

다 가 그 한 가지지. {다 그게 그 한 가지지.}

@ 아 청춘가제. {아, 청춘가제.}

가라기 고러케 두 가라기 인나요? {가라기 그렇게 두 가라기 있나요?}

아니 여러걸 찌 여러, 내 하는 다 금?가라가지.{아니 여러개 있지, 여러, 내가 하는 게 다 금? 가라이지.}

항 곡 끄림 한 공요. { 한 곡 그림 한 곡요.}

양산둥 다르지, 양산두는 또 금 또 다르지 또, {양산두는 다르지, 양산드는 또 그건 또 다르지 또,}

그 예:리야준제 {그 *****}

@예? {예?}

건: 또 다르다고, 양산두는. {그건 또 다르다고, 양산두는.}

@ 근데 청춘가는 이쪽 동네에서 마니 불렀나요? {근데 청춘가는 이쪽 동네에서 많이 불렀나요?}

노인 이거는 옛:날 어른 옛:날 어른드른 다 부러쪼. {노인 이거는 옛날 어른 옛날 어른들은 다 불렀지요.}

옛날 옛:날 어른드른 다 부러쪼. {옛날, 옛날 어른들은 다 부러지요.}

우리 우리 우리 뭐 한 백 쌀 이백 싸른 도라가신 분들 다 이거 다 부러쪼. {우리 우리 우리 뭐 한 백 쌀, 이백 쌀 돌아가신 분들 다 이거 다 불렀지 뭐.}

거 나도 우리도 우리 건:게 아니라 내려오는 이기 노래, 옛날 내려오는 우리 다 노래 노래를 부른다구. {그거 나도 우리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내려오는 이 노래, 옛날 내려오는 우리 다 노래 노래를 부른다고.}

이 모양을 절:로 난 거또 어디 어데 뭐 궁가, 어디 뭐 이:십년 저네 낭간 백 뽕 년 전 낭 거 아니요. {이 모양을 절로 난 것도 어디 어디 뭐 그런가, 어디 뭐 이십 년 전에 ** 백 백 년 전 난 거 아니요.}

거칠현한 그 분드리 이거 그런 데가 한 뽕 뽕너니요. {거칠현한 그 분들이 이거 그런 데가 한 뽕 백 년이요.}

건 한 오백 년 역싼데.{그건 한 오백 년 역사인데.}

@ 어르신, 그 정선아라리 노래 또 탄 거 쯤 아시는 거 쯤썸만 더 해 주세요. {어르신, 그 정선 아라리 노래 또 다른 거 쯤 아시는 거 쯤썸만 더 해 주세요.}

@ 아, 너무 조은데요. {아, 너무 좋은데요.}

하하하하 아유, 저기 뭐이 조은거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아유, 저기 뭐 이 좋은 거 해야 되는데.}

거기야 나쁜 걸 빼치워요, 세: 가지 부릉 거 하느, 어떠카나. {거기야 나쁜 거를 빼제워요, 세 가지 부른 거 하느, 어떻게 하나.}

@ 예, 제가 조은 거 골라서 나중에 그 얘기 하도록 하게썸니다. {예, 제가 좋은 거를 골라서 나중에 그 얘기 하도록 하겠썸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노래 이 세:가지 해쓰며는 이기 나중에, 내가 사라서 여기 한 번 이기 이거 노인회든 이래서 불른 거 봐:야 그 그 양반 언제 마리아 저 그래 어디 어느 어느 분: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래 노래하문 그래야 되는데, 원치근. {그런데 이걸 내가 노래 이 세 가지 했으면 이거 나중에, 내가 살아서 여기 한 번 이거 이거 노인회든 이래서 부른 거를 봐야, 그 그 양반 언제 말이야 저 그래 어디 어느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노래하면 그래야 되는데, 원칙은.}

@ 이게 아마 제가 나중에 꼭 채그로라도 이걸 좀 해쓰면 조켄네. {이게 아마 제가 나중에 꼭 채으로라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네.}

@ 어르신, 요 나온 이 해신 거. {어르신, 여기 나온 이 하신 거.}

#그게 언청 유:해 뵈요.{그게 엄청 유:해 뵈요.}

요 조은 열 까지를 해따 하더라도 조은 곡쫓만 빼:가지구 마닐 삼쳐기면 삼척, 이 정서니면 정선 이래가지고 교수님미 아푸로 이러케 요 한 오륙년 후에 예, 우리 가튼 사람들 직접 불러편 사람들 주끼 저네 마닐 하면 가주구선 한 일쭉마리아 이런 경로당에 이기 겨우레 눈: 마니 올 찌게 한 번 내가 열면 또 저와 와서 여기 와서 이래 취재 했는데, 이 양반 목소리를 한 번 드러보시오, 여러분들 보시오, 내가 이러케 해서 하면 시방 학생드른 그럼 아 그 뭐 강원도 머러 그 목 그 하라버지 요 헨는 거를 그치마는 , 시방 예를 드러서 한 칠십 칠십때 이른 내 노인 남자 노회원드리 동면똥거 이러케 들고 다매, 야 겸상 돌려노کم 다: 인는데, 뭐 다:는 몰라도 동:면 한 삼군, 서너컬리 가지만 뭐 서울재리 하고 이른 내 거 사:네 인는 동:면드리 올, 하구 회:유하는 말로 내 가 왜 주꼬 엇따 하더라도 그러코 다 살다 다 드를꼬. {이 좋은 열 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좋은 곡조만 빼 가지고, 만일 삼척이면 삼척, 이 정선이면 정선 이래가지고 교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이 한 오, 오 육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 직접 불렀던 사람들 죽기 전에 만일 하면 가지고선, 한 일주일 말이야, 이런 경로당에 이 겨울에 눈 많이 올 적에 한 번 내가 열면, 또 전화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취재 했는데, 이 양반 목소리를 한 번 드러보시오, 여러분들 보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학생들은 그럼 아, 그 뭐 강원도 뭐 그 목 그 할아버지 이 한 거를 그렇지만, 시방 예를 들어서 한 칠십, 칠십 때 이런 내 노인 남자 노회원들이 동면똥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며, 야 겸상 돌려노کم 다 있는데, 뭐 다는 몰라도 몽면 한 삼군, 서너컬리 가지만 뭐 서울자리 하고 이런 내 거 산에 있는 동면들이 올 하고, 회유하는 말로 내가 왜 죽고 없다 하더라도 그렇고 다 살다 다 드를거예요.}

하유 그 언제 아무 하라버지는 언:제 낄 여게 취재를 해서 노구물 해가지구, 뭐 그 교수 양반 하자는데 마라 그때 그때 노래 잘 불러쨌, 마리 잘못 뜨른게지뵈, 아니 언제 그래쑈 내가. {하유, 그 언제 아무 할아버지는 언제 거 여기에 취재를 해서 녹음을 해 가지고, 뭐 그 교수 양반 하자는데 말이야, 그때 그때 노래 잘 불렀어, 말이 잘못 드른 게지 뵈, 아니 언제 그랬소, 내가.}

나 시치미 뚝 떼고 그래는데 귀:거러 드께쨌요? {나 시치미 뚝 떼고, 그랬는데 귀 걸어 듣겠어요?}

@ 그게 제가 마냐게 요걸 노그물 해서 나중에 인제 궁뎡꾸거워네 주머는 그게 인제 모:든 국민들한테 드를 쑈 이께끔 하는데, 제가 꼭 부타글 해서 하라버지 해편 저 노래,가사, 가사 의미 요런 거뜨를 반드시 거 꼭 올려나서 모든 사라미 드를 쑈 이또록 하라고 제가 꼭 부타글 해 두게쑈니다. {그게 제가 만역에 이걸 녹음을 해서 나중에 이제 국립국어원에 주면 그게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꼭 부탁을 해서 할아버지 했던 저 노래, 가사, 가사 의미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기에 꼭 올려 놓아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꼭 부탁을 해 두겠습니다.}

고마워요.{고마워요.}

@네네. {네 네.}

@ 아 하튼 이거는 귀중한 노래고 이런 거뜨리 가락또 이쨌야 되고 또 가사, 이게 노래 가사도 굉장히 다들 으미가 으미가 인네요. {아, 하튼 이거는 귀중한 노래고, 이런 것들이 가락도 있어야 되고, 또 가사, 이게 노래 가사도 굉장히 다들 의미가 의미가 있네요.}

이거 세:, 아께 그 세: 가지 마:리 이게 으:미 인는 마리에요. {이게 세, 아까 그 세 가지 말이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니 머, 요 내 아께 술쨌 가따 오는 애:기 이거는, 소굼 집 가따오는 애:기도 그거또요, 그 게

차능 게 그거요. {아니 뭐, 요 내 아까 술집 갔다 오는 애기 이거는 소금 집 갔다 오는 애기도 그것도요, 그 *** 게 그거요.}

@ 그건 토 뭐 이케 이케 이 주고 받는 뭐 아주 안 조은 게 아닌데요. {그건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주고 받는 뭐 아주 안 좋은 게 아닌데요.}

@ 아까 그런 거는 재민는데. {아까 그런 거는 재밌는데.}

갈:라는 갈찌, 갈 찌짜가 이짜네, 갈 찌 짜. {갈라는 갈지, 갈 지 자가 있잖아, 갈 지 자.}

가주 가구 오는 올 래 짜는 날주고 가라구.{가지고 가고 오는 올 래 자는 나를 주고 가라고.}

그 이름 이짜나, 그거. {그 이름 있잖아, 그거.}

@ 고런 주고 받는 노래 그런 거 말고 또 뭐 업나요? {그런 주고 받는 노래 그런 거 말고 또 뭐 업나요?}

끝네 떠나간 뒤에 도라와 물 주꼰데. {끝네 떠나간 뒤에 돌아와 물 줄건데.}

@ 한 곡 좀 해 주시죠, 그런 거. {한 곡 좀 해 주시지요, 그런 거.}

그거또 해 달라고? {그것도 해 달라고?}

@ 네. {네.}

@ 아이 그 또 또 딴 노래 이쓰며는 해... {아이, 그 또 또 다른 노래 있으면 해...}

@ 예,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요런 거뜨리 노래드리 만:치 아나요? {예,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이런 것들이 노래들이 많지 않아요?}

응, 자로,{응, 자로,}

올 하점 장터이썬요. {요기 하점 장터 있어요.}

요 아주머니 노래 잘:하는 아주머니를 하나 데:와가주고 아께 그 노래 나:중에 한 마디 해 준다 구. {요 아주머니 노래 잘 하는 아주머니를 하나 데려와 가지고 아까 그 노래 나중에 한 마디 해 준다고.}

갈라는 갈 지짜는 당시니 가져가고, 올 래는 찌나주고 썬래문 또 내가, 응, 으, 내 떠나 간 뒤에 도랑무리 뿔커든 당시늘 당시늘 놔두고 갈라고 울고 간 주 아라라. {갈라는 갈 지 자는 당신이 가져 가고, 올 래는 저 나 주고, *** 또 내가, 응, 으 내 떠나 간 뒤에 도랑물이 불커든 당신을 당신을 놔 두고 가느라고 울고 간 줄 알아라.}

그 다불 그래 헐는데, 나는 내 마리래며는 항중 해니까두루. {그 답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 말이라면 항상 하니까.}

@ 흥이 안 나게쥬? {흥이 안 나겠쥬?}

@ 아 그래두 그 그런 거뜨를 머 아무나 할 썬 인는 아 어떤 아주머니가 그 또 무조건 다 할 썬 이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도 그 그런 것들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아 어떤 아주머니가 그 또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옐:나레 여니 여니 현 이르른 우리 진: 마리오, 다: 옐:나레 옐:나렌 그 다: 그 불 불르는 노래가 계::속 내려오는 드꼬 드꼬 그래썬, 이래 드꼬 들커등. {옛날에 이 이 현 이름은 우리 지은 말이 요, 다 옛날에 옛날에 그 다 그 불 불른 노래가 계속 내려오는 듣고 듣고 그랬어, 이렇게 듣고 듣거든.}

노래 쥬:거또 메께 이 이찌마는, 전소글, 흘려 내려오는 노래가 만 만:치, 망키는. {노래 지은 것도 몇 개 이 있지만, 전속을 흘려 내려오는 노래가 만 많지, 많기는.}

@ 진:노래, 쥬:노래는 어떤 게 또 이썬요? {지은 노래, 지은 노래는 어떤 것이 또 있어요?}

쥬:거는 뭐 그이 뭐 막 쥬러. {지은 거는 뭐 그 뭐 막 쥬러.}

꺾 차썬 뭐. {꺾 찻지 뭐.}

@ 쥬:노래 중에서 흑썬 썬 아시능 게 이썬면 썬 해주시쥬. {지은 노래 중에서 흑시 썬 아시는 거 있으면 썬 해주시지요.}

@ 고런 거 인제 착 고런 거 인제 어르시네 창자기니까 고런 거뚜 나중에는 시가니 지나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 거 이제 착 그런 거 이제 어르신의 창작이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 어떤 게 또 이쥘까? {어떤 게 또 있을까?}

@ 아 잘 생각해 안 나세, 세요? {아, 잘 생각이 안 나세, 세요?}

짹 찻는데 마:는데, 그 쓸때 업는 거 할 피로 읊:꼬. {짹 찻는데, 많은 데, 그 쓸데 없는 거 할 필요 없고.}

@ 아 그 쓸때 업는 거또 상관 업써요, 제가 아라서, {아, 그 쓸데 없는 것도 상관 없어요, 제가 알아서,}

@ 고거는 인제 조은 거는 일파는 올려 노코, 안 조은 거또 그거는 귀중한 자료니까 고런 거뜨른 나중에 제가 다 편지불 할게요. {그거는 이제 좋은 거는 일단은 올려 놓고, 안 좋은 것도 그거는 귀중한 자료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 편집을 할게요.}

그럼 하지 머. {그럼 하지 뭐.}

이번 재파를 몬 니기고서, 고등 재파를 갈 썬게는, 당신드리야아 말 하 마데만 잘 해주신다며는 나는 득썬해요. {이번 재판을 못 이기고서, 고등 재판을 갈 적에는 당신들이 말 한 마디만 잘 해 주신다면 나는 득썬해요.}

그 재판 노래요, 재판. {그 재판 노래요, 재판.}

@ 그래요? 그 어떤 노래, {그래요? 그 어떤 노래,}

아 그러니까, 그거 또까짜네요 . {아 그러니까 그거 똑같잖아요.}

이건 저 재, 재판, 재판 인제 저 뭐:실 한다고. {이건 저 재, 재판, 재판 이제 저 무엇을 한다고.}

재판, 재판 인제 응, 예를 드려 부산, 으, 지거메 가서는 재판하자네요. {재판, 재판 이제 응, 예를 들어 부산, 지점에 가서 재판하잖아요.}

재판 져따고. {재판 졌다고.}

내, 으, 그거심 하고 그래두 교수님 하나를 재 재판 뒤실 해 가주구 내 저꺼든. {내, 으, 그거심 하고, 그래도 교수님 하나를 재 재판 무엇을 해 가지고, 내가 졌거든.}

전는데 그담 고등 재판, 고등 재파를 간다고. {졌는데 그 다음 고등 재판, 고등 재판을 간다고.}

고등 재파를 가 간는데 저테: 저테 인는 사라미, 응, 으, 썬 마천는지 정이니 여테 인는 사라미, 말 한 마데만 잘 해주머는 그차뇨. {고등 재판을 가 갔는데 곁에 곁에 있는 사람이, 응, 으, 저 마쳤는지 정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 한 마디만 잘 해주면 그렇잖아요.}

내가 안 그런걸 그러타 이 해씨니까두루 그 사라미 안 그러타, 금 그런 허썬 현 썬 썬, 현 썬다, 이런 고, 내가 이버네 득썬을 하자네요. {내가 안 그런걸 그렇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안 그렇다, 그럼 그런 헛된, 지 헛 ***, 이런 거, 내가 이번에 득썬을 하잖아요.}

@ 덕썬? {덕썬?}

득썬, 득썬. {득썬, 득썬.}

득썬, 그 득썬이라한다 예그래는? {득썬, 그 득썬이라한다.****}

@득썬? {득썬?}

득썬, 그럼 교수님미 도료 또 내한테 지고 내가 득썬하자네요.{득썬, 그럼 교수님이 도리어 또 내한테 지고 내가 득썬하잖아요.}

그래 그 노:래 옴:나레, 그 옴:, 옴:나레 그 이거또 이 한 건다리가 그, 술 한 잔 머꼬, 그 고소가 돼 가주고, 하는 걸 그래 한테 똥기여. {그래 그 노래 옛날에 그 옛, 옛날에 그 이것도 이 한 건달이 그 술 한 잔 먹고 그 고소가 돼 가지고 하는 걸 그렇게 하는데 되는 거야.}

그저 재파를 몬:니기구, 다시 또 몬 몬 니겨짜네요. {그저 재판을 못 이기고, 다시 또 못 못 이겼잖아요.}

몬 니기고 고등재파를 갈 찌게, 모통이 갈 찌게, 당신드리, 당신들 중:에 만나, 말 한 마디만 얼마도 피롭찌 아네요. {못 이기고, 고등재판을 갈 적에 모통이 갈 적에 당신들이 당신들 중에 만나, 말 한 마디만 얼마도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 여래 하네 함 마디만 씹 하면 열 마디 아니요. {거기에 열에 하나 한 마디만씹 하면 열 마디 아니요.}

당신드리 말 함 마테만 잘 해주면, 나는 득송가리라. {당신들이 말 한 마디만 잘 해주면 나는 득송가리라.}

@ 아...득송 가리라. {아, 득송 가리라.}

그 그런데, 그 저넌, 내 뭐지 내 이르플 대:따고, 내 이름 대이며 해따고, 내 또 가도 볼래요? {그 그런데 그 전에는 내 뭐지 내 이름을 댔다고, 내 이름 대며 했다고, 내 또 하는 거 볼래요?}

이번 재파를 몬 니기구서 고등재파를 갈 찌게에, 당신드리 말 한 마테만 잘 해주신다며는 고재 시기는 득송 하리라. {이번 재판을 못 이기고서 고등재판을 갈 적에 당신들이 말 한 마디만 잘 해주신다면 고재식은 득송하리라.}

@ 아, 고러케 인제 자기 이르플 너어서 그런식 인네요. 아하. {아, 그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런식 있네요, 아하.}

@ 고런 거슬 사:연드를 다: 인제 다 인는데. {그런 것을 사연들을 다 이제 다 있는데.}

그럼 그럼 아리라~기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이, 이기 이룩 내가 빨리하는데 원체 느림미다. {그럼 그럼 아리랑이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이 이거 이렇게 내가 빨리 하는데 원체 느립니다.}

노래 아 슬 슬퍼,슬, 슬푸구 우네요. {노래 아, 슬 슬퍼, 슬, 슬프게 우네요.}

아니 엔:나렌 그, 아 슬픈 고글 해야 된다고. {아니 옛날엔 그, 아 슬픈 곡을 해야 된다고.}

그러치만 요, 지금도 그 좀 빨리힐 찌게는 아리라~ 상:당히, 슬픈 고글 해야 인저 그기, 보통사람드른 그, 좀 서:루메 보인 든, 서:루메 바친 거는 거 아리랑을 드르면, 자:연히 눈시우리 나온다구, 눈시우리. {그렇지만 요 지금도 그 좀 빨리할 적에는 아리랑이 상당히 슬픈 곡을 해야 이제 그게 보통사람들은 그 좀 설움에 보딘 듯, 설움에 바친 거는 거 아리랑을 들으면, 자연히 눈시울이 나온다고, 눈시울이.}

근데 뭐 하...에,참, 상고제래는 곡조는 고걸 벅차 끝른다. {근데 뭐 하...에, 참, 상고제레라는 곡조는 그걸 벅차 끊른다.}

@ 아 그거또 좀 해주시죠, 네.{아, 그것도 좀 해주시죠, 네.}

하하, 삼모제비 미물 국주가 어골 납작 곁르는데, 간나니 아버지는 어들루 가실라구 심발 단속만 하나야.{하하, 삼모제비 메밀 국주가 어골 납작 곁르는데, 갓난이 아버지는 어딜 가실라고 신발 단속만 하나.}

그 뭐야, 미물 알지 , 미물, 미릴 {그 뭐야, 미물 알지, 미물, 미릴.}

@ 밀물 {밀물.}

엔나레 미물쌀 이씨요, 미물쌀. {옛날에 미물쌀 있어요, 미물쌀.}

@ 네, 밀물쌀. {네, 밀물쌀.}

건제 실랑, 대이팔라고 화:노 그 끼리구 막 끄릴 꺼 아니요? 복짝복짝 {그걸 신랑, ***** 화루에 그걸 끓이고 막 끓일 거 아니요? 복짝복짝.}

@ 어디 해 노코요? {어디에 해 놓고요?}

화:루에. {화로에.}

@ 아 화:루에. {아, 화로에.}

인제 부레 꺼니민 대주파러하면, {이제 불에 *** 대주팔어하면,}

그, 실랑이 그진, 미물오쫂글 끄러 머거야 되는데, 저거도 갈라구선 심:발르다구. {그 신랑이 그건 미물오쫂글 끓어 먹어야 되는데 저거도 갈라고 신발을 신는다고.}

거기 뭐냐면 저, 저 어데, 딴 색:씨 찌부로 올라 간다고. {그게 뭐냐면 저 저 어디에 딴 색시 집으로 올라 간다고.}

그러니까 삼모제비 미물 오찌기 올: 바짝 끄러대는데 당신 할라고, {그러니까 삼모제비 미물 오찌기 오래 바짝 끓는데 당신 할라고,}

@ 상무? {상무?}

상몬제비. {상몬제비.}

@ 상무제비? {상무제비?}

미물, 미무리 사, 모:이 세:개래요. {미물, 미물이 사, 세 개래요.}

미물싸리 모 빠찌? {미물쌀 못 봤어?}

@ 아, 예, 봐습니다. 아 고게 세 세, {아, 예, 봤습니다, 아 그게 세 세,}

삼모 마찌요? {삼모 맞지요?}

거 삼모제비 미물국쭈, {그 삼모제비 미물국쭈(메밀국수?)}

@ 아, 삼모제비 미물국쭈 {아, 삼모제비 미물국쭈.}

거 그게 저, 끄래면 명국쭈기라 한다고. {거 그게 저 끓으면 명국죽이라 한다고.}

음시글, 주글 명국쭈, 정말 오골박작 끝는데,{음식을 죽을 명국쭈, 정말 오골박작 끓는데,}

@예? {예?}

오골박작, {오골박작}

바글바글 끝차네. {바글바글 끓잖아.}

@ 아 오골박작 끝는데, {아, 오골박작 끓는데,}

끝는데, {끓는데,}

간나니 아버지는, 간나닌 자기 남편 조건 이기야. {갓난이 아버지는 갓난이는 자기 남편 조건 이거야.}

어디를 갈라고 신발 단속 하시오? {어디를 가려고 신발 단속 하시오?}

@ 아...예. {아...예.}

@ 그니까 나랑 여기 지배 이찌, 딴 데 가지 마라.{그러니까 나랑 여기 집에 있지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럼. {그럼.}

함께에 술잔 어네넌 은가씨가 떠떠니, 이버네 술잔 아네는, 동구기 동동 뜨네. {함께에 술잔 어네 넣은 은가시가 떴더니 이번에 술잔 안에는 동국이 동동 뜨네.}

이건 수리 먼저 이래 부어주든 수른 무쩍 뼈떠거두 개:고, 뭐:시 업따고. {이건 술이 먼저 이렇게 부어주던 술은 ** **** **, 무엇이 없다고.}

@ 마시 업따고요? {맛이 없다고요?}

응, 마시 읍:꼬, 뭐 이제, 이래니까, 그런 저 응가시가 떠따고. {응, 맛이 없고, 뭐 이제 이렇니까 그런 저 은가시가 떴다고.}

응가, 응가시, 응가시라는 건 그냥 가시라고 그러지만, 응가시 응가시도 괜차나, 으 으 으니니까 은. {은가, 은가시, 은가시르는 거는 그냥 가시라고 그러지만, 은가시 은가시도 괜찮아, 으 으 은이니까 은.}

으 응가시가 떠러, {으 은가시가 떨어,}

@ 가시는 뭔가요? {가시는 뭔가요?}

아, 가:시, 찢르는 가:시이짜나요, 찢르는 가:시. {아, 가시, 찢르는 가시 있잖아요, 찢르는 가시.}

가:시가 떼:는데, 그건 인제 으느로 헐 가:시치, 은 거튼 가시가 머그며 떠깽떠깽 그런데 쭈리. {가시가 떼는데 그건 이제 은으로 한 가시지, 은 같은 가시가 먹으면 떠깽따건 그런데 술이.}

@ 참:, 처음 마시는 수른 그러타. {처음 처음 마시는 술은 그렇다.}

그래이.{그래.}

이 양반 부어 주는 수른, 지 그러코 마시 그러코, 이 또 아가씨가 부어주는 수른, 이버네 술잔, 아께 술짜네는 응가시가 떠꼬, 이번 술짜네는 보니까 봉:노기 떠떠네 그리. {이 양반 부어 주는 술은 전부 그렇고 맛이 그렇고, 이 또 아가씨가 부어주는 술은 이번에 술잔 아까 술잔에는 은가시가 떠고, 이번 술잔에는 보니까 복녹이 떴네 그리.}

보는데, 왜 비가 오문, 저 바께 봉오리가 저 안쫐. {보는데 왜 비가 오면 저 밖에 봉오리가 저 앉지요.}

물뽕우리가, 게 수를 보니까 거기 동동 떠또라 이짜네. {물방울이가, 그 술을 보니까 그게 동동 떠돌아 있잖아.}

그래 봉노기 동동 떠따. {그래 복녹이 동동 떴다.}

@ 아, 그걸 봉로기라고 한다고요? {아, 그걸 복록이라고 한다고요?}

봉록, 보, 복 복짜, 봉녹. {복록, 보, 복 복 자, 복녹.}

거 조:탄 얘기여.{그거 좋다는 얘기야.}

술 복씨 조타, 그거조. {술 복이 좋다, 그거지요.}

그 인제 갈 거 갈 거 둘: 들고, 한 잔 머꼬 난 인제 갈 터야, 갈보데가 한 노래라구 이기. {그 이제 갈 거 갈 거 둘 들고, 한 잔 먹고 난 이제 갈테애, 갈보데가 한 노래라고 이계.}

@ 아, 그래 이 노래한테, 여자가 부어주는 수리 더 조타는 그런 뜨시네요. {아, 그래 이 노래한테 여자가 부어주는 술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네요.}

@ 이제 한 꼭쫐만 더 하하하하. {이제 한 꼭조만 더 하하하하.}

@ 아, 그 그 그거만 거 참 재:민는 노래드리 만:네요. {아, 그 그 그거만 거 참 재밌는 노래들이 많네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리 서방니미 삼베 주적쌈 입꼬, 고등어 질머지고 삼처게 소곰 지러 가는데 배뽕녕 구비 구비 잘 다녀 오시오. {우리 서방님이 삼베 주적삼 입고 고등어 짹머지고 삼척에 소곰 지러 가는데 백 봉령 구비 구비 잘 다녀 오시오.}

애쓰지 마시오, 염녀 마시오, 아주 근심 마라요, 돌개바람만 불지 아니하면 무사이 다녀 오리라. {애쓰지 마시오, 염려 마시오, 아주 근심 마라요, 돌개바람만 불지 않으면 무사히 다녀 오리라.}

이기 엔:나레 이제, 내가 아페 그 메 깨는 뭐 저는 뭐 개:똥, 꿈꿈떠기며 청남 옥찌기 내빠라는 어디에요, 그 말하는데, 그 엔나레 인제 그 삼:처게 소곰 지러 간거요, 다 단지, 이 단지라 해찌. {이게 옛날에 이제, 내가 앞에 그 몇 개는 뭐 저는 뭐 개똥 꿈 꿈떡이며 청남 옥찌기 내빠라는 어디에요, 그 말하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삼척에 소곰 지러 간거요, 다 단지, 이 단지라 했지.}

빈 단지 지: 가주, 거다 소고물 파가주고, 질머지거 인제 요 이틀 마꼬 오자네, 소곰 저도 마꼬, 아께 내 그 술장사 뵈:면, {빈 단지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소금을 파가지고 짹머지고 이제 요 이틀 말고 오잖아, 소곰 저도 말고, 아까 내 그 술장사 보이면,}

그래 인제 동네 박전재, 뭐 한 사십때든 여기 어른드리 인제 다서, 여서시 소곰 지러 제: 간다 이기여. {그래 이제 동네 박전재? 뭐 한 사십 대든 여기 여기 어른들이 이제 다섯 여섯이 소곰 지러 제 간다 이거야.}

그 침 가미, 엽전 성냥 깔무지버가 소곰지버. {그 처음 가니까 엽전 석 냥 가지고 가 소금을 집어.}

@ 성냥한뇨? {석 냥한뇨?}

#응? {응?}

@엽전하고,{엽전하고,}

저 머시 고등어, 고등어 해: 질머지고, 으 인제 그래칸드루, 엔:나렌 돈 이찌 그 소곰 까부러 가

저가지, 모:타면 쟈:노래 가당 이 꾸 꾸 꿀 평망을 맨드러 가주고 가.{저 뭐 고등어, 고등어 해 쥔 어지고, 으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돈 있지 그 소금 까붙어 가져가지, 못 하면 쟈 노래 가당 이 꾸 꾸 꿀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

@ 뭘 만드려요? {뭘 만드려요?}

꿈떡, 꿈떡. {꿈떡, 꿈떡.}

@ 꿈떡 ? {꿈떡?}

꿈떡.{꿈떡.}

@ 꿈떠기 뭐죠? {꿈떡이 뭐지요?}

꿈:떡 요, 귀:리하고 저 청밀하 고래, 가라 가주구서는, 이게 주물러 가지구 이래 꼬:가주고 하 능 거. {꿈떡 이 귀리하고 저 청밀하고 갈아 가지고서는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짜서 하 는 거.}

@ 그걸 꿈, 꿈떠기라구.{그걸 꿈, 꿈떡이라고.}

그런데 삼척, 갈탈 가는데, 그 배뽕녕이 구비구비가 그 요즘 의 저 찰분 뭐야, 저 강 나는데, {그런데 삼척 ** 가는데, 그 백봉령이 굽이 굽이가 그 요즘의 저 짧은 뭐야, 저 강 나는데,}

@ 삼뎡용. {삼뎡용.}

거: 아홉구비야, 아홉 아홉구비. {거기가 아홉 굽이야, 아홉, 아홉 굽이.}

삼뎡용도 아홉 꾸비고, 백뽕녕도 그이 구비가 한 그 연, 연:꾸비여. {삼뎡용도 아홉 굽이고 백봉 령도 그게 굽이가 한 그 연 연굽이야.}

그래 구비구비 잘 드러오라고, 그차네요.{그래 굽이 굽이 잘 들어오라고, 그렇잖아요.}

@ 잘 다녀오라고? {잘 다녀오라고?}

다고라고 인제.{다녀오라고 이제.}

그래 인제 아내가 소릴 하며는 그때 실랑이 이따가, 염녀마시오, 염녀말고 애쓰지 마시오. {그 래 이제 아내가 소리를 하면 그때 신랑이 있다가, 염려마시오, 염려 말고 애쓰지 마시오.}

돌개바람만 불지 안 하면 무사히 흘러. {돌개바람만 불지 않으면 무사히 흘러.}

단지래 질머지고 오자네요.{단지 쥔어지고 오잖아요.}

올때 바람, 돌개바람 학: 뿌러서 하면, 올 칠짜베요. {올 때 바람, 돌개바람, 학 붙어서 하면, 치 잼아요.}

이런 소금 가마니 이거는, 마:달 포대 포대는 어퍼지면 다시 그럭 이러거 지며 되자네. {이런 소금 가마니 이거는 마달 포대 포대는 얹어지면 다시 그렇게 이렇게 지면 되잖아.}

그래 웅기는 저런 웅기는 딱 탁 깨지면 퍼석 깨지자나 고마. {그래 웅기는 저런 웅기는 딱 탁 깨지면 퍼석 깨지잖아 그만.}

그래니까두루 애쓰지 마시오, 몸 달구지 마시오, 너무 염녀하지 마시오, 돌개바람만 불지 안 하 먼 무사히 오리라. {그러니까 애쓰지 마시오, 몸 달구지 마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돌개바람 만 불지 않으면 무사히 오리라.}

고 아비 다비라고 뭘 다비라고. {그 아비 답이라고 뭘 답이라고.}

@ 근데 그 연:나레는 그 단지에다가 헨나?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단지에다가 헨나?}

@ 그냥 어 뭐 가마니 이런데다 해도 되자나요, 소금 가튼 거.{그냥 어 뭐 가마니 이런데다 해도 되지 않아요, 소금 가튼 거.}

아 그래 연:날 가마니도, 요 아주 귀해꼬, 또 가마니 보덤 단지또 마시 요 굉장해따고, 연나레. {아 그래 옛날 가마니도 요 아주 귀했고, 또 가마니 보다 단지도 맛이 이게 굉장했다고, 옛날에.}

단지로 단지 판지다 새 새차물 지고 마리 내따고. {단시로 단지 단지에다 새 새참을 지고 마을 에 냈다고.}

@ 여자 아까 그 여자가 해뎀 그 가사는 어르게 되죠? {여자 아까 그 여자가 헨던 그 가사는 어떻

게 되지요?}

@ 여자가 남편 갈 때 해편 불러면. {여자가 남편 갈 때 했던 불렀던.}

불러?, 아까 그거 아니요. {불러? 아까 그거 아니요.}

@ 다시 한 번 고 설명만 해 주시면,{다시 한 번 그 설명만 해 주시면,}

아 그리 여자가, 인제 인제 고 새버게 인제 강기, 강기 아측 새버게, 요 다서씨구 인제 가니까 네, 진 꿈떡 해가주고, 엽전 성 냥, 엽전 성냥은 지금 삼쳐 년이라 해찌. {아 그래 여자가 이제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가니까, 가니까 아침 새벽에 이 다섯 시고 이제 가니까, 지 꿈떡 해 가지고 엽전 석 냥, 엽전 석냥은 지금 삼천 원이라고 했지.}

성 냥 걸머지고,{석 냥 걸머지고.}

@ 걸머지고, {걸머지고,}

걸머지고, 거 인제 세:뿌리다 걸머지구서는 떠나가따 이기여. {걸머지고, 그 이제 세 뿌리에다 걸머지고서는 떠나갔다 이거야.}

@ 세 뿌레요? {세 뿌레요?}

지게 세:뿌리.{지게 세 뿌리.}

참나무 옥찌게, 이러게 이썬 삼, {참나무 옥지게, 이런 게 있어, 삼,}

참나무 옥찌게 엽전 석 전, 성 냥 걸머지고 삼쳐게 소곰 지러 가는데, 응? {참나무 옥지게 엽전 석 전, 석 냥 걸머지고 삼쳐에 소곰 지러 가는데, 응?}

구비 구비 삼짱녕 구비구비, 부:디 잘 다녀오시오. {굽이 굽이 삼짱령 굽이 굽이, 부디 잘 다녀오시오.}

@ 삼짱녕 구비구비. {삼담령 굽이 굽이.}

근데 삼짱녕은 저기 강릉쪼긴데요? {근데 삼담령은 저기 강릉 쪽인데요?}

아니, 저 저 백짱녕. {아니, 저 저 백봉령.}

@ 아 백짱녕, 네네네. {아 백봉령, 네 네 네.}

구비구비 잘 다녀오시오.{굽이 굽이 잘 다녀오시오.}

그러게, 야갈 손 한 번 해따. {그러게 ** 손 한 번 했다.}

그러니까 인제 떠나가는 남편니, 애쓰지 마시오, 몸 달구지 마시오, 너무 염녀하지 마시오, 돌개바람만 불지 안 하머는 무사히 오리라.{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남편이, 애쓰지 마시오, 몸 달구지 마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돌개바람만 불지 않으면 무사히 오리라.}

돌개바람만 안 불문 어굴질 일 업짜네, 올 새도, 매 때릴 일 업짜네. {돌개바람만 안 불면 어굴질 일 없잖아, 올 **, 매 때릴 일 없잖아.}

그러케 이 다불 연:나레는, 그러케 그기에는 그 그거 거럼 연:나레 하비 뭐 그게 머 뱅 녀니든 이 뱅 녀니든 삼 뱅명이든, 연:날 성:질 때 여기 어른드른 그 해편 노래라고, 우리 할머니 해편 노래고. {그렇게 이 답을 옛날에는 그렇게 거기에는 그 그거 그럼 옛날에 합이 뭐 그게 뭐 백 년이든 이 백 년이든 삼 백명이든, 옛날 성질 때 여기 어른들은 그 했던 노래라고, 우리 할머니 했던 노래고.}

@ 금 어르신, 그 그러케 인제 남편 이러케 이:를 가따 오머는 이러케 막 잘 가따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인제 저 서로 조아하는 노래도 하기도 했는데, 바테 일 가는 이러케 할 때, 힘드러서 불러편 노래 가튼 거또 이젠네요? {그럼 어르신, 그 그렇게 이제 남편 이렇게 일을 갔다 오면 이렇게 막 잘 갔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좋아하는 노래도 하기도 했는데, 밭에 일 가는 이렇게 할 때, 힘들어서 불렀던 노래 가튼 거것도 있겠네요?}

@ 내 신세가 막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농사 짓는 게 막 힘들어서 불렀던 노래들도 있겠네요? {내 신세가 막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농사 짓는 게 막 힘들어서 불렀던 노래들도 있겠네요?}

더러 이찌, 받 까는 노래도 이꼬.{더러 있지, 받 가는 노래도 있고.}

@ 아 어떤 거요? 받 까는 노래는? {아, 어떤 거요? 받 가는 노래는?}

음, 내레 생각또 안나네, 지금.{음, 내가 생각도 않나네, 지금.}

이제 빠리따고.{잊어 버렸다고.}

갠:니리 이떡 할 찌근 한 잔 머꼬 해야 된다고. { *** 할 적에는 한 잔 먹고 해야 된다고.}

@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가마니, 그 교수님 가만 이씨봐. {가만히, 그 교수님 가만 있어봐.}

우리 시꾸 왜 안 오나, 저 지 막걸리 하나를 까. {우리 식구 왜 안 오나, 저 지 막걸리 하나를 까.}

@ 제가, {제가}

차 때무네? {차 때문에?}

@ 예, 차가 이씨가지고 제가 , 저, 가마씨봐,저, 제가 좀 이따가, {예,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가만 있어봐, 저, 제가 좀 있다가,}

아니 안 막걸리 저 이씨.{아니, 안에 막걸리 저기에 있어.}

저 저 저 막걸리, 저 저 제순덕 막걸리 어제부터 사봐, 사봐 봐따가 나중에 내 한 잔씩 명는다 고.{저 저 저 막걸리, 저 저 제순덕 막걸리 어제부터 사봐, 사봐 봤다가 나중에 내 한 잔씩 먹는다 고.}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당신네는 쇠가 췌? {당신네는 소주가 좋아?}

@ 예예예,{예예예.}

좀 쇠가 조쓰까, 좀 시간 줘야지, 공부도 마리 좀 {좀 소주가 좋습니까(?) 좀 시간을 주어야지, 공부도 말아야 좀.}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 그 그러며는 어르신 그 옛날에 농사 지으써짜나요? {그 그러면 어르신, 그 옛날에 농사 지으셨 잤아요?}

@ 어떤 농사를 마니 지으써췌요? {어떤 농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저... 농사 지을 찌기 뭐인 {저 농사 지을 찌에는 뭐}

@ 논 농사도 지었나요? {논 농사도 지었나요?}

논 농사를 지어췌, 노니 업는 찌기 이 요 풍촌이짜나요, 풍촌.{논 농사를 지었지요, 논이 없는 찌에 요 풍촌있잖아요, 풍촌.}

거게 논 내가 서: 마지기 온 언니데~, 여:서 사는 우리 마을 분드리 노나 한 열 찌비가 부쳐췌 요, 열찌비.{거기에 논 내가 세 마지기 여기에 얻는데, 여기에서 사는 우리 마을 분들이 나누어서 한 열 집이가 부쳤어요, 열 집이.}

서: 마지기 단 마지기 이르케 여 여 분드른 글 땅을 사가지고 저구. {세 마지기 단 마지기 이렇 게 여 여기 분들은 그 땅을 사가지고 지고.}

@ 아 그래요? 그러며는 여기는 노니 한 마지긴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며는 여기는 논이 한 마지기는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게는 백 오십평. {여기는 백 오십평.}

@ 아 백 오십 평 정도요 되고, 뭐 어르시는 어 논 농사 한 서 서:마지기 {아 백 오십 평 정도요

되고, 뭐 어르신은 어 논 농사 한 세 세 마지기}

서 마지기. {서 마지기.}

그거또 우리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동 동네 서낭님 서낭당 이 터래, 이 터. {그것도 우리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동 동네 서낭님, 서낭당 이 터래, 이 터.}

이 터 그거 부치고 내가 제사 채내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 그래 부치고, 그래 그 부치고 음서 그 하고 모 요 보미 피:머는 감:재, 옥썴수 뭐 근 콩:, 파: 모 마냐~ 마니 해쥌. {이 터 그거 부치고 내가 제사 지내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래 그래 부치고, 그래 그 부치고 음식 그 하고 뭐 요 봄에 매머는 감자, 옥수수, 뭐 그 콩, 파, 뭐 마냥 많이 했쥌.}

귀:리, 귀:리 아뇨? 귀:리 {귀리, 귀리 알아요?}

@ 예, 예 {예, 예}

귀:리, 청밀, 호밀 {귀리, 청밀, 호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밀: 보리 {밀, 보리}

@ 머 마니 하쥌네요? {뭐 많이 하쥌네요?}

아 가지각색 다 하쥌요: {아 가지각색 다 하쥌요.}

@ 아...{아...}

@예. {예}

마 녀평 부치는데 마 녀평. {만 여평 부치는데 만 여평.}

@ 아, 마 녀평을 받, 그 바치 이쥌니까? 그계? {아, 만 여평을 받, 그 받이 있쥌니까? 그계?}

바:치 인제 그 내 해:고 모자래머는 그 여 여 여너 분들 이 터 어짜네요. {받이 인제 그 내 하고 모자래머는 그 여 여 여너 분들 이 터 얻쥌아요.}

또 이 또 부치고 제사 채리고, 그러고 또 한 한 머 팔백 평, 구백 평 저거도 부치구, 부쳐. {또 이 또 부치고 제사 차리고, 그러고 또 한 한 뭐 팔백 평, 구백 평 적어도 부치고, 부쳐.}

@ 아...{아...}

@ 아이구 두 부니서 하시기 힘드쥌건네요? {아이구 두 분이서 하시기 힘드쥌건네요?}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일람 삼녀래요.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일람 삼녀래요.}

내 아: 인제 따리 마지가 인제 오 오십 두리고, 야: 고 담 아드른 지금 안산 가 이쥌요. {내 아 이 인제 딸이 맞이가 인제 오 오십 둘이고, 이 아이 그 담 아들은 지금 안산 가 있어요.}

@ 네. {네.}

요 아드리 요거또 오시비고, 또 고 다음 음... 우리 마:흔 여덜 머근 우리 따리 저 저저 안산 가 이쥌, 저 망내가 망내~이 호래 오 오레 사:시비지. {이 아들이 이것도 오십이고, 또 그 다음 음... 우리 마흔 여덜 먹은 우리 딸이 저 저저 안산 가 있고, 저 막내가 막내 이 올 해에 오 올 해 사 십이지.}

그래 저 태백 까이쥌요. {그래 저 태백 가 있고요.}

@ 아 망내 뿌니 저랑 나이가 비스타겐는데요. {아 막내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쥌는데요.}

그 여계 머 그래도 소: 키 보고, 얼릉 또 인제 거 야:채 묵 묵:썴고 이런 거 해 가지고 팔 바빠 로 팔로미래 그래서 그래가주 애:들 고등하쥌 다 썴:고, 우리 내 자스근, 저 그 당시만 하더래도 대하:쥌 묻 가쥌요, 모두. {그 여기에 뭐 그래도 소 키워보고, 얼른 또 인제 거 야채 묵 묵 썴고 이런거 해 가지고, 바빠게 팔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애들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우리 내 자식은 , 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교 못 갔어요, 모두.}

영주 전문 대학, 우리 아들 나와쥌. {영주 전문 대학, 우리 아들 나왔지.}

@ 근데 옴나레는 그 그러쥌 뭐, 여기서 여기서 가는 게 썴쥌 아나쥌꺼야. {근데 옛날에는 그 그러 쥌 뭐, 여기서 여기서 가는 게 썴지는 았았을꺼야.}

여게 그때 우리 여기 영주 전문 대학 땡길 찌게, 아 그 아무께나 이런 거 아 이 아무께 그 아저씨 아드른 으 여 여 대하꼬 땡긴다고 그랜 그래써, 그래해따고요. {여기에 그때 우리 여기 영주 전문대학 다닐 적에, 아 그 아무께나 이런 거 아 이 아무께 그 아저씨 아들은 여 여 대학교 다닌다고 그래 그랬어, 그렇게 했다고요.}

요새 머 요 경기에서 서울 고려대고 뭐 강원대고 근데 그른 데는 생각찌도 모타고 그럼.{요새 뭐 요 경기에서 서울, 고려대고 뭐 강원대고 근데 그런 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럼.}

@ 그래도 그거 시키는데 힘드셔께써요? {그래도 그거 시키는데 힘드셨겠어요?}

@ 이게 농사지어가 {이게 농사지으며 }

암: 그럼 고아쫘, 그럼 그 인 그 하는 기: 이 고등하꼬도 정선 유학씨자네요. {암 그럼 힘들었지, 그럼 그 이 그 하는 것이 이 고등학교도 정선 유학 가잖아요.}

요 화동 중하꼬만 요기 땡기면 거러 땡기고, 고 다음 우리 망내 딸 땡길 찌게 빠:스로 타고 땡겨찌만, 우리 애비는 여 거러서 이 이시비면 이십미를 {여기 화동 중학교만 여기 다니면 거러 다니고, 그 다음 우리 막내 딸 다닐 적에 버스로 타고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는 여기 걸어서 이 이십이면 이십 리를 }

@ 이십미를 한 팔 키로를 아이고 {이십 리를 한 팔 키로를 아이고}

팔 키로를 어떻게 거러 거러 땡겨따고요. {팔 키로를 어떻게 걸어 걸어 다녔다고요.}

밥, 감자 밥, 쌀밥또 아니고 인 옥수수 밥, 보리밥 싸가 땡기고 그 아페 빼운 아드리래요. {밥, 감자 밥, 쌀밥도 아니고 이 옥수수 밥, 보리밥 싸가지고 다니고 그 앞에 배운 아들이래요.}

@ 그 어르신, 그럼 인제 그 농사와 팔런텐 거를 먼저 쯤 여쭙 보고 시픈데, 여기에는 인제 벼가 잉:는 시기에 따라 벼 품종이 이짜나요. {그 어르신, 그럼 인제 그 농사와 관련된 거를 먼저 쯤 여쭙 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인제 벼가 익는 시기에 따라 벼 품종이 있잖아요.}

@ 품종이 어떤 게 이썸니까? {품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엔:날 품종으론 인젠 다 치 지우고 시방 개:량종이쫘. {옛날 품종은 인제 다 치우고 시방 개량종 있지요.}

개량종 인제 그 모야, 저...모시 지도서 요 보그패 주는데, 이 지려근 그니깐드루 화:암 미트로는 면: 소재지 미트로는 화:암 이:리 삼 니 소꼬간 그건 그 노늘 부쳐요. {개량종 인제 그 뭐야, 저... 뭐서 지도에서 보급해 주는데, 이 지역은 그러니까 화암 밑으로는 면 소재지 밑으로는 화암 이리, 삼 리 *** 그건 그 논을 부쳐요.}

@ 화암 이:리 삼니 {화암 이 리, 삼 리}

응, 화암 이:리, 화:암 이:리 저창서 내려오는 쫘기래요.{응, 화암 이 리, 화암 이 리, **서 내려오는 쫘기래요.}

그런 부치면 요 모룬니, 또 요 풍춘면, 하난 이 몬 나난제가 하고 하고 오르는데요. {그렇게 부치면 여기 모룬 리, 또 요 풍춘면, 하는 이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내 노 논 농사를 하니까, 수확 만치게 거다 꼬:추하고 {내 노 논 농사를 하니까, 수확 많지, 거기에다 꼬추하고}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꼬추 꼬추 거다 꼬추하고, 고담 도마도 하우스가 자고, 야는 저 그래요, 시방 시방 저 그 취배추, 모야 종모근 모르지요모. {응, 꼬추 꼬추 거기에다 꼬추하고, 고 다음 토마토 하우스에다 하고, 여기는 저 그래요, 시방 시방 저 그 배추, 뭐야 종목은 모르지요모.}

@ 예, 아란는데 엔:나레는 어떤 게 이써써요?{예, 알았는데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엔:나레는 이지베라~ 내가 그 이르미 뭐 인는지 뭐 거, {옛날에는 잊어버려서 내가 그 이름이 뭐 있는지 뭐 거.}

@ 요즈메는 저 쪼게 가니까 오대쌀 오대쌀 {요즘에는 저 쪽에 가니까 오대쌀 오대쌀}

오대쌀? {오대쌀?}

@ 마니 하던데 옛날에는 머 저기 그 벼 품종 가튼게 업썌나요? {많이 하던데 옛날에는 뭐 저기 그 벼 품종 같은 게 없었나요?}

이썌썌만 건 기어근 안 나요. {있었지만 그건 기억은 안 나요.}

@ 아 그래요?{아 그래요?}

예, 그럼, 어릴 때 머이 하기는 했는데 그 머 {예, 그럼, 어릴 때 뭐 하기는 했는데 그 뭐}

@ 그건 잘 모르시고요?{그건 잘 모르시고요?}

#어. {어}

@ 그러머는 그럼 어르신, 그 옛날에 그 논농사를 지 진는 과정이, 농사를 어트게 진는지 처음에 진는 과정을 쫓 알 썌 이썌까요? {그러머는 그럼 어르신, 그 옛날에 그 논 농사를 짓는 과정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처음에 짓는 과정을 쫓 알 수 있썌까요?}

예.{예.}

@ 그 먼저 봄, 보미 되머는, 어떠케 해야 되나, 봄 인제 질:려머는? {그 먼저 봄, 봄이 되머는 , 어떻게 해야 되나, 봄 인제 지을려머는?}

질 먼저 질 {질 먼저 질}

그래간드루 인제 봄 에...여기에 사:월 오:이리 아직 처리 안 돼꼬 언제든지 {그러니까 인제 봄 에....여기에 사월 오일이 아직 철이 안 됐고 언제든지}

@네네 {네네}

고 인제 그때 마낙 외 음 음지 그 누:니 쓸꼬, 인제 그 개:화가 되자네요. {그 인제 그때 만약 음 음지 그 눈이 녹고, 인제 그 개화가 되썌아요.}

꼬치 삭: 아이 피고 풀 피고 이때머는 그 사월 오우리 한 오이리치, {꽃이 삭 다 피고, 풀 피고, 이때머는 그 사월 오일이 한 오일이지,}

@ 음녀, 음녀그로 치는 건가요? {음력, 음력으로 치는 건가요?}

요 음녀그로, 아니 양녀 사월 오일, 양녀 사:월 오이리 오일 이 심:는 나리 아님니까? {여기 음력으로, 아니 4월 5일, 양력 4월 5일이, 5일 이 심는 날이 아님니까?}

@ 예? {예?}

상:목, 싱모기린데 그때 청명한 시기라고. {심목, 심목일인데 그때 청명한 시기라고.}

@네 {네}

#물, 청명한싱만 지내머는 인제 그 농사질 준비 하썌. {물, 청명한 시기만 지내머는 인제 그 농사 지을 준비를 하썌.}

농사질 준비 허는데 청명한싱만 지내:머는, 한 여를 후에 대:마 래 대:마, 대:마, 삼, 사물 인제 갈:지오.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데 청명한 시기만 지내머는 한 열흘 후에 대마래, 대마, 대마, 삼, 삼을 인제 갈지오.}

시방 시룽코 바테 나가 갈:고, 고 다오메 인제 {시방 심어 놓고 밭에 나가 갈고, 그 다음에 인제 }

@ 농사, 이게 벼 벼농사 지을 때요? {농사, 이게 벼 벼농사 지을 때요?}

아 베느노, 베 농사 질 썌른 벼농사 질 썌도 그기 사:물 음녀 사털 사월 사위리지. {이 베는요, 베 농사 질 때는 벼농사 질 때도 그게 삼을 음력 3월, 4월, 4월이지.}

사:월 삼시빌 경에 가서 그 벼를 가따 으~아리 가따 씨아시 부썌. {4월 30일 경에 가서 그 벼를 가져다 웅아리 갔다 씨앗을 붓썌.}

@ 아 그러머는 먼저 벼씨, 머 씨를 고르자나요, 변 씨를{아 그러머는 먼저 벼씨, 뭐 씨를 고르썌 아요, 벼 씨를}

벼씨를 고르니 아니고, 우리는 떠를 벼를 갈:겐 타 치데가지고 떠러가지~고다~ 그 벼씨를 내일
 농사질 벼씨 두 두:마리면 두:말 서:말 서:말 씨아시 나투~요. {벼씨를 고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벼를 가을에 타 치데가지고, 떨어가지고 그 다음 그 벼씨를 내일 농사 지을 벼씨 두 두 말이면
 두 말, 서 말, 서 말 씨앗이를 놔둬요.}

나 도:따가 그 개령, 시바누 전 개룽중 다시도 하고 바꾸 이찌마는 그때는 이르게 떠나가지고
 서는 그 방아까네 가서 머글 켄 찌꼬 나문 씨를 보관해 두:따가 고다메 풍낭 사월 {와 뒀다가 그
 개랑, 시방은 전부 개랑중 다시도 하고, 받고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떠나가지고서는 그 방앗간에
 가서 먹을 건 쥘고, 남은 씨를 보관해 뒀다가 그 담에 풍낭 4월}

@ 고 씨를 뭐라고 합니까? {그 씨를 뭐라고 합니까?}

벼씨 벼씨 벼씨 {벼씨, 벼씨 벼씨}

그인 그거 그거 지버가지고 무레 가서 노:네 가서 모:씨를 맨드러 가지고, {그거 그거 집어가지
 고 물에 가서, 논에 가서 모씨를 만들어 가지고,}

@ 아 그럼 인제 제가 인제 저 제가 인제 여쭙볼게요? {아 그럼 인제 제가 인제 저 제가 인제 여
 쭙볼게요?}

@ 벼:씨가 인제 거 보관해 와:따가 보관해 노코 이제 그 다메 노:늘 먼저 가라야 되게쥬. {벼씨가
 인제 그거 보관해 뒀다가 보관해 놓고, 이제 그 담에 논을 먼저 갈아야 되겠쥬.}

그럼 거 거 거르쥬.{그럼 거 거 갈았쥬.}

@ 언제쥬 부터 노늘 감니까? {언제쥬 부터 논을 감니까?}

그 오...사월 한 그름 쪼게 저거 같지요. {그 오...사월 한 그름 쪼에 저거 같지요.}

@ 예, 고럼 인제 그 한 노 논 가능 거요. {예. 그럼 인제 그 한 노 논 가는 거요.}

네, 가능 거 그러니까드루 한 ...그이...{네, 가는 거 그러니까 한....그이....}

@ 언제쥬? {언제쥬?}

사:월 한 시빌 경인가 그먼 쪼끔 갈:조. {사월 한 십일 경인가, 그러면 조금 같지요.}

@ 아, 그 어트게 감:니까? {아, 그 어떻게 감:니까?}

@무어스로?{무엇으로?}

소, 소로 갈조, 소로.{소, 소로 같지요, 소로.}

소로 가능 거, 그 농사로 {소로 가는 거, 그 농사로}

@ 소로 뭘 어 어떤 도구로 하나요? {소로 뭘 어 어떤 도구로 하나요?}

보구레. {보구레.}

@ 예 {예}

보구레 아라요? 보구레? {보구레 알아요? 보구레?}

@네, 네.{네, 네.}

보 보구레 가지고 같지요~모.{보 보구레 가지고 같지요 뭐.}

@ 근데 소를 함마리? {근데 소를 한 마리?}

아니 그러니까두루 인제 집쪼마다 소는 다: 이썬니까 자기 자기 논 자기가 가지고 가:능거지. {아
 니 그러니까 인제 집쪼마다 소는 다 이썬니까, 자기 자기 논 자기가 가지고 가는거지.}

@ 갈 때, 인제 소를 한: 마리 가지고 같기도 하고 두 마리 가지고, {갈 때, 인제 소를 한 마리 가
 지고 같기도 하고 두 마리 가지고,}

두 마리 고 저리, 그 저리 {두 마리 그 **, 그 **}

저리 저리 저 옆 이 우리 바튼: 저나주 같고 노:네는 노니 뭐 저 아주 이러케 뭐 평수가 만:코
 여러 바치기면 저 논 먼저 여게 논 서: 마지 같면 너:마지기 한 다래~이, 그를 때는 저 소:를 가꼬
 같지. {저리 저리 저 옆 이 우리 밭은 저건 아주 같고, 논에는 논이 뭐 저 아주 이렇게 뭐 평수가
 많고, 여러 바치기면 저 논 먼저 여기에 논 서 마지 같면 너 마지기 한 다고, 그릴 때는 저 소를

갖고 갈지.

소 가지고 갈:고, 고 다:메 인제 그 모 모:를 가따가 인제 그래가 물: 대가지고 물:, 말:기를 맨들
자나, 말:기. {소 가지고 갈고, 그 담에 인제 그 모 모를 갖다가 인제 그래 가서 물을 대가지고 물,
말기를 만들잖아, 말기.

말:기를 저 인 한: 마자기 씨불만치~, 다서 평이면 다서 평, 이러케 응? 갈:그~ 두고 그래 씨를
와 뿌레. {말기를 저 이 한 마자기 심을만큼 다섯 평이면 다섯 평, 이렇게 응? 갈아 두고, 그래 씨
를 와서 뿌려.}

@ 아 그 아니 고걸 쪼끔만 더 자세히, 요 바틀 인제 이게 쪽: 갈:자나요. {아 그 아니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이 밭을 인제 이렇게 쪽 갈잖아요.}

@ 소를 가지고 이케,{소를 가지고 이렇게,}

갈:구는 물: 대:가지고 {갈고는 물 대가지고,}

@ 아 바틀 갈:고, 그 다:메 인제{이 밭을 갈고, 그 담에}

물 대:고, {물 대고,}

@ 그 다:메 인제 무를 {그 다음에 인제 물을 }

#대:고, 고 다음 쓰 쓰:레로 찌푸림 찔:머요. {대고, 고 다음 쓰 쓰:레로 찌푸리면 삶어요.}

@ 아 씨:래로...{아 씨래로}

어, 그러길래 내 본테 찔:머가지고, {어, 그러길래 내 본테 삶어가지고,}

@ 그럼 언 {그럼 언}

그이 사:월 금적끼쫌 한다고. {그걸 사월 금적끼쫌 한다고.}

@ 사월 그믐께쫌메요? {사월 그믐께쫌메요?}

그래 그래가지고 인제 막 양쫌게 이르키 무:를 대고 무:리 몬 빠져나가두룩 말:게를 딱 맨든다
고. {그래 그래가지고, 인제 막 양쫌게 이렇게 물을 대고, 물이 못 빠져 나가도록 말:게를 딱 만든
다고.}

@ 말:게 {말:게}

응, 말:게, 흥 말:게를 맨든다고. {응, 말:게, 흥 말:게를 만든다고.}

@ 아, 흥 말:게를 요로케 맨드러서 무리 몬 빠져 나가게요? {아, 흥 말:게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못 빠져 나가게요?}

그러치. {그렇지.}

@ 예.{예.}

그래구 인제 그 씨를 지베 딱 인제 오른 쫌~ 그 뿌리고 대~기머는, 한 상면쫌 무레 다:머. {그
러고 인제 그 씨를 집에 딱 인제 오른 쪽 그 뿌리고 다니머는 한 상면쫌 물에 담어.}

그러문 씨 뿌릴 께 아니요. {그러면 쇠 뿌릴 거 아니요.}

@ 네, 네. {네, 네.}

곡서기 무레 드러가따 견저 늪: 뿔:른다구. {곡식이 물에 들어갔다 견저 놓으면 불른다고.}

@ 네, 네.{네, 네}

그럼 그걸 가지구 가 떠:레요.{그럼 그걸 가지고 가 떨어요.}

@ 근데 그러케 하기, 그러케 하기 저네 인제 모짜리를 만들지 안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 그렇게
하기 전에 인제 못자리를 만들지 않나요?}

그래 그게 모:자리라꼬. {그래 그게 못자리라고.}

@ 네네네.{네네네.}

그걸 모짜리라 한다고. {그걸 못자리라 한다고.}

그래 인제 모자리 가따 뿌:리고, 그 저네는 인제 비니루 업써찌만 일모 업써찌만 시방 비니루가
어떠케 비니루가 가따 어트케 말:겔해, 말:게를. {그래 인제 못자리 갔다 뿌리고, 그 전에는 인제

비닐 없었지만 뭐 없었지만, 시방 비닐이 어떻게 비닐을 갖다 어떻게 말게를 해, 말게를.)

이러케 해서 하고, 활때를 가따가 이러 꼬:꾸, 대:를 델 하나 꼬:꾸서는 {이렇게 해서 하고, 활대를 갖다가 이렇게 쫓고, 대를, 델 하나 쫓고서는,}

@ 모자리는 한 어느 정도 중 합니까? {못자리는 한 어느 정도 쫓 합니까?}

그거는 인제 서:마지기 불:라무는 메: 평, 두 마직 두: 말 불:라면 메:평, 단마지기 메:평, 그 아푸로 그 마지가 백 오십평이라 양 그래요? {그거는 인제 세 마지기 불려면 몇 평, 두 마지기 두 말 불려면 몇 평, 단 마지기 몇 평, 그 앞으로 그 마지가 백 오십 평이라 안 그래요?}

그 예산 내:서 인제 만들지. {그 예산 내서 인제 만들지.}

@ 모짜리를 어느 정돈 만드는 거조? {못자리를 어느 정도는 만드는 거조?}

그러치, 그러치. {그렇지, 그렇지.}

다선 마지기 모짜리는 더 크:고, 녁:마지기는 저글꼬, 그러차네요? 다섯 마지기 못자리는 더 크고, 녁 마지기는 적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주 인제 활때를 돌려 쫓:꼬, 비니루 씨워. {그래가지고 인제 활대를 돌려 쫓고, 비질을 씨워.}

씨워서 인제 그 태:양이 미리 조으니까드루 무리 뜨거워요 자라자네요. {씨워서 인제 그 태양이 미리 좋으니까 물이 뜨거워야 자라 잦아요.}

베가 자라서 인제 쌀 저 인저 무 물까 인는데로 가:카다 올라오며는 그먼 비느를 끌라도 탄다고, 도늘 또: {벼가 자라서 인제 쌀 저 인제 물 물가 있는데로 가깝게 올라오며는 그러면 비닐을 끌어 놔도 탄다고, 돈을 또.}

베를 거뒤노면 짐 일취월장으로 푸로푸로 올라 가며는 요: 오:월 다노, 다노 알지요, 다노? {벼를 거뒤 놓으면 일취월장으로 푸로푸로 올라 가며는 요 오월 단오, 단오 알지요, 단오?}

다노 머리에 심:, 시:머요. {단오 무렵에 심, 심어요.}

@ 다노, 다노 무려베,{단오, 단오 무렵에}

응, 무려베.{응, 무렵에.}

@ 인저 곧 모자리, 모자리에 인는 거뜨른 이제 다: 뽏봐야 되자나요. {인제 못자리, 못자리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뽏아야 되잖아요.}

뽏버지 그럼, {뽏아야지 그럼}

@ 뽏바서 이제 {뽏아서 이제,}

또 저쪽 인제 큰 노네 가서 그 그거또 인제 그 서로 가려서 미리 다 안 가려 노:초. {또 저쪽 인제 큰 논에 가서 그 그것도 인제 그 서로 갈아서 미리 다 안을 갈아 놓지요.}

가려 무를 대 놔따가 인제 {갈아 물을 대 뵈다가 인제}

@ 무를 갈고 그때 가리질 {물을 갈고 그때 가리질}

또 아니 그래곤 쫓:쫓. {또 아니 그러고 삶지요.}

소를 가지고 씨:래 이:씨 그래. {소를 가지고 씨래 있어 그래.}

씨:라래 봐씨요?{씨라래 뵈지요?}

저 술: 가면 소나 쌀:머선 그 말하자면 그 흥:무를 흘글 쫓:는 거유. {저 소를 샀던 소나 삶아선 그 말하자면 그 흙물을 흙을 쌓는 거예요.}

@ 흥:무를 쫓는거조? {흙물을 삶는 거조?}

그러초, 그래야 인지 딱 꼬:꺼덩, 그럼 인제 아쳐게 그 모퉁에 가서 한: 마지기, 두, 서이 먼 센, 여섯 여섯 오늘 다습 마지기 심:다 하머는 사람 여를 구해요. {그렇쥬, 그래야 인제 딱 쫓거든, 그럼 인제 아침에 그 목공에 가서 한 마지기, 두, 셋이면 셋, 여섯 여섯, 오늘 다섯 마지기 심는다 하면은 사람 열을 구해요.}

서로 *** ,그러나 지금 물: 지머는 씨:래꾼 이씨, 씨:래 이씨, 씨:래꾸니라고. {서로 ***, 그러나 지

금 모를 지며는 씨래꾼 있어, 씨래 있어, 씨래꾼이라고
서 서 서 성골루 소:를 아피 세우누꾸 씨:그래 끌초.{서 서 성한 소를 앞에 세워 놓고 씨그래 끌치요.}
돌 췌는 거요.{돌 췌는 거요.}
그래머는 놔:따가 갈머는 다: 씨꾸 나머는 인제 글 물: 시머. {그러면 왔다가 갈머는 다 췌고 나면 인제 그 모를 심어.}
@ 아 씨~꾸나문 그날 바로 심는 {이, 삶고 나면 그날 바로 심는 }
시머야지, 그기 안 씨 그 전날 췌머노:먼 다: 가라 안짜네요, 흘기.{심어야지, 그게 안 씨, 그 전날 삶아노면 다 가라 앓아네요, 흠이.
그래 그러키하 그래 인제 벼농사는 그래 진는거:유.{그래 그렇게 그래 인제 벼농사는 그렇게 짓는 거요.}
@ 그럼 그러케 무를 씨:래질 하고 그 다메 번 이겐 {그럼 그렇게 물을 씨래질 하고, 그 담에 번이게}
번:지 치고 그럼 그 다 치요, 번지.{번지 치고, 그럼 그 다 치요, 번지.}
#번지 치고 심는 거요.{번지 치고 심는 거예요.}
@ 처:메는 인제 노를 갈:고, 그 다으메 물 대:고, {처음에는 인제 논을 갈고, 그 다음에 물 대고,}
그 다음 모 모 무:꼬, 저기 모시 모 모짜리 해서 씨아시 부:꼬, 그런데 지 그작 클:키고, 고 다:메 또 시물 췌게는 큰 큰 노네, 시물 노네 아라뚜 췌 가라~이따 물 대:가지고, 씨:래 도 씨:래 돌 돌리면서 돌리면서 {그 다음 모, 모를 물고, 저기 모시 못자리 해서 씨앗을 붓고, 그런데 지 그 잘 클거고, 그 담에 또 심을 적에는 큰 큰 논에, 심을 논에 아래에 췌 가랑이에다가 물을 대 가지고, 씨래도 씨래 돌리면서, 돌리면서 }
@ 한 번, 며 뻔 돌리나요?{한 번, 몇 번 돌리나요?}
그거는 이 도로 아래요. {그거는 이 도로 아래요.}
저췌게 가서, 확: 둘러다 보면 무리 저쪽 마니 가자네요? {저쪽에 가서, 확 둘러다 보면 물이 저쪽 많이 가잖아요?}
@네 .{네.}
무리, 거 나저.{물이, 거기는 낮어.}
그럼 이쪽 이췌글 좀 더 이래 미러서, 저췌글 가면 무리 무리 또:까치 가자네요,{그럼 이쪽 이쪽을 좀 더 이렇게 밀어서, 저쪽을 가면 물이 물이 똑같이 가잖아요.}
무리 또:까치 가:머는 머 두: 번 쌀물 때도 이꼬, 또 노푼 데가 더 이러타고, 그래 인제 어~마하먼 번:지 이췌, 번:지. {물이 똑같이 가면 뭐 두 번 삶을 때도 있고, 또 높은 데가 더 이렇다고, 그래 인제 영마하먼 번지 있지요, 번지.
가 번:지 납때카는 거 하나 탁 때:서는 짹:: 내면, 그래무쿰 심:는 심:는 노니 다 되지. {가서 번지 납작한 거 하나 탁 대서는 짹 내면, 그렇게 하면 심는 심는 논이 다 되지.}
그래고는 인제 심:는 데는 짹: 서가지고, 노:니 머 수:마지기다 이러머는 가:리가 멀자네요. {그러고는 인제 심는 데는 짹 서가지고, 논이 뭐 수 마지지다 이러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 이 줄 줄 띄우는 거 알지, 줄 띄우는 거.{그래 이 줄 줄 띄우는 거 알지, 줄 띄우는 거.}
저짜게 야 꼬꼬짜거나 인제 그 줄 저 일 모타는 하라버지 가튼 분드레 가선 주레나~ 다: 사:무머이 이 췌췌 어: 이러면, 저 췌:서 어: 가치 들고, 뜨레 향 개만 쳐띠쳐 시~꼬, 또 또 어: 이래하먼 가치 이래 싱꼬, {저쪽에 야 꼭 잡어라, 이제 그 줄 저 일 못 하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가서 줄에 놔 다 심으면 이쪽에서 어 이러면, 저쪽에서 어 같이 들고, 뜰에 한 개만 척 척 심고, 또 또 어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심고,
@ 네 {네.}

그래요. {그래요.}

@ 그러케 인제 모:는 또 어트게 찢는 건가요? {그렇게 인제 모는 또 어떻게 찢는 건가요?}

모:는 소금 바치조.{모는 소금을 바치조.}

시방 자천 시바~은 저거 기:게로 하고, 기:게로 다 심짜네요. {시방 ** 시방은 저거 기:게로 하고, 기:게로 다 심잖아요. }

옴:나레 소느로 소느로 요로케 오:쿰 요로 쪽쪽쪽 뽀버서 이 가르 가를 썸, 그래 욱땡이가 인제 {옛날에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오쿰? 이렇게 쪽쪽쪽 뽀아서 이 가를 썸, 그래 옆애가 인제}

@ 한 오~쿰을 쥐는거야? {한 옴쿰을 쥐는거야?}

그러치, 요레 요레 오:쿰물 요레 재:서, 한 꺼버네 각: 쥐는 거 아니고, 이 가를 썸 이르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옴쿰을 이렇게 재서, 한 꺼번에 각 쥐는 것이 아니고, 이 가를 썸, 이렇게.}

@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 이 강:제 이래 가지고 이랜 그래 그르메 그래컨 이 미테는 흑 흑 덩어리지, 너비를 그쵸. {이 이 강제로 이래 가지고 이런 그래 그러며 그래 이 밑에는 흑 흑 덩어리지, 너비를 그쵸.

왜 베 베찌풀 가지고 확: 꺼려서 매:, 이러케. {왜 벼 벼짚을 가지고 확 걸어서 매, 이렇게.}

@ 아 베찌푸로 맨다고요?{아 벼짚으로 맨다고요?}

응, 한 다느로 요:카조. {응, 한 단으로 이렇게 하죠.}

건 노:네다가 확: 확 쥐꼬 노치. {그건 논에다가 확 확 쥐고 놓지.}

그럼 인제 {그럼 인제}

@ 노네다가 인제 툭 툭 던져 논는거죠? {논에다가 인제 툭툭 던져 놓는 거죠?}

그러치, 그 던져나야 지지. {그렇지, 그 던져 놔야 지지.}

그 그 모꼬~이 이썸, 또. {그 그 목공이 있어, 또.}

일꾼 두야해.{일꾼을 뒤편해.}

그럼 그걸 심는 사라미 딱 이리 쥐머는 이 찜: 배울 찌젠 안 되요. {그럼 그걸 심는 사람이 딱 이리 쥐면 이 처음 배울 적에는 안 돼요.}

이거 이 소니 드러가 갈러 가지고 ,이리 이런데 내: 존 이 이썸케 지머는 이썸케 지머는, 이 소는 이 소니 가리킨다. {이거 이 손이 들어가 갈라 가지고, 이리 이런데 내 조금 익숙해 지머는 익숙해 지머는, 이 손은 이 손이 가리킨다.}

이 소는 여다 딱: 이래 하면, 학 여: 이러면, 왼손 이러서가지고 뭇 탁 쥐어가서 탁 쥐아져, 이따가 어: 하면, 전주가 탁 뻘:머는 이게 이 송꼬라기 이 이 미러내요, 요러케. {이 손은 여기에다 딱 이렇게 하면, 어 이러면, 왼손 일어서 가지고 뭇 탁 쥐어가서 탁 쥐어야지, 이따가 어 하면 전주가 탁 뻘:머는 이게 이 손꼬락이 이 이 밀어내요, 이렇게.}

이 쪼글 이 미러내면 열로, 이 연신 {이 쪽을 이 밀어내면 여기로, 이 연신 }

@ 고걸 인제 말로 이케 설명을 해 줘야지, 예, 이러케 하면 인제 이게 노금이 되니까, 무슨 마린지 모르니까 말로 쫌 소늘 어떻게 한다고 구체저그로 말씀해 주시게써요? {그걸 인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예, 이렇게 하면 인제 이게 녹음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로 쫌 손을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엄지가라글, 딱 이랜 이썸 왼소네따가 오른 나 그 오른 손 채비니까 이 썸 딱 썸:다구. {이 엄지가라글. 딱 이렇게 이썸 왼손에다가 오른, 나 오른손 잡이니까 이썸에 딱 썸:다고.}

모물 저 머 머이 저 한쭈~ 와씨머는 얼른 걸러가지고, 가 가르질 재:쓰니까 딱 항 가루썸만 딱 갈라가지고서는 딱 요레 쥐:고, 요 엄지가라글 이르 스스 내미러요. {몸을 저 뭇 뭇 저 한 쭈 왔으면 얼른 걸러가지고 가 가르질 썸으니까 딱 한 가루썸만 딱 갈라가지고 딱 이렇게 쥐고, 이 엄지가라글을 이렇게 스스 내밀어요.}

@ 내미러요?{내밀어요?}

응 내미, 그러치 요 내미, 미테 꺼는 두: 개는 요레 꼭 짹꼬 짜니요, 요놈 내:밀르이 요 갈:키꺼 아니요. {응 내밀어, 그러지 이 내밀어, 밑에 거는 두 개는 이렇게 꼭 잡고 있잖아요, 이걸 내밀어, 이놈 내 밀면 이 값히 거 아니요.}

그 갈리치:머는 오른 손 이기: 이기 미테 두 개는 피로써. {그 갈리치면 오른 손 여기 여기 밑에 두 개는 필요없어.}

이 세: 개여, 고담 장:가락 엄지가락 세:개 간 네 개 까지고 이래 때:구래. {이 세 개야,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 엄지가락, 세 개, 네 개 까지고 이렇게 때고 그래.}

이 탁 때면서 요러게 탁 때면서 때면서 손 꼭 쥐:고 이럼 꼭 꼭 꼭 쥐: 아네요. {이 탁 때면서 이렇게 탁 때면서 손을 꼭 쥐고 이러면 꼭 꼭 꼭 쥐지 않아요.}

탁 쥐면서 탁 쥐머는 이, 그, 대:공이 나요, 처 이래머는 내려가주 손꾸락 이럴 이럴 탁 이러 무레 주너. {탁 쥐면서 탁 쥐면 이, 그, 대공이 나요, 처서 이러면 내려가지고 손고락을 이렇게 탁 이렇게 ** **}

쏘쑈 이래 쏘:는 때공이거드뇨. {** 이래 **대공이거든요.}

@ 소늘 똑 지버 넌는다고요? {손을 똑 집어 넣는다고요?}

요 그래 콧: 꼬찌면 댐:비래 이제 그래야 쉽찌, 이걸 {이걸 그래 콧:꽃으면 단번에 이제 그래야 쉽찌, 이걸 }

@ 자부머는 안 되젠네요? {잡으면 안 되겠네요?}

꼬틀 응 꼬틀 이래 꼬클 이래 쥐:고 이래면 또 이 소늘 가 때:, 이래면 마니 다서 베기 꼬질 췌한 패기 베기 못 꼬찌.{끝을 응 끝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쥐고, 이러면 또 이 손을 가 때, 이러면 많이 다섯 베기 꽃을 때 한 베기 밖에 못 꽃아.}

@ 한 빼기 바껴요? {한 베기 밖예요?}

응, 이작 소늘 이 내미려요, 기계 기계가 내밀드시 {응, 이쪽 손을 이 내밀어요, 기계 기계가 내밀듯이 }

@ 아, 소늘 내밀면서 그냥 {아, 손을 내밀면서 그냥}

응, 가 턱 쥐:면서 {응, 가 턱 쥐면서}

@ 쥐:면 그냥 또 바:꼬 바로 쑈네요. {쥐면 그냥 또 받고 바로 쑈네요.}

그냥 응, 그레이머는 저:서 내다보면 머이 손꼬테 무리 좀 이리 이따~ 내자네요. {그냥 응, 그러면 저기서 내려다보면 뭐 손끝에 물이 좀 이렇게 이따가 내잖아요.}

내가 뭐 서 따루 심니, 뭐 그냥 하머는 일: 때:가지고, {내가 뭐 서서 따로 심으면, 뭐 그냥 하머는 이렇게 때어 가지고,}

@ 꼬즈면 는:네요.{꽃으면 늣네요.}

안재료 이미 내려 행교, 요 소늘 소늘요. {***, 이미 내가 한 거예요, 이 손을 손을요.}

@ 아, 네, 착 착 착 착 네, 네. {아, 네, 착 착 착 착 네, 네.}

왕열 때: 이거 때: 놔:쓰니까 쥐:미, 쥐:미 매빠꾸 꼬자뇨, 요 요.{** 때어 이거 때어 났으니까 쥐면서, 쥐면서 몇 바퀴 쑈잖아요, 요 요}

@ 쥐:면서 그냥 반네요? {쥐면서 그냥 반네요?}

그럼 그 항 개이 탕 그게 이차 그 머태 배워야 돼요. {그럼 그 한 개, 그게 ** 그 몇 해 배워야 돼요.}

처:매 가면, 우 절문 소인 시저레 가머는 이 모췌해, 모췌. {처음에 가면 젊은 소인 시절에 가면 이 모췌해, 모췌.}

모췌을 움지기구 쌀문 그긴 모 뜨는 거, 또 모 실:른 거, 요 자세히 보고, 자기가 시:방 메 일하문, 어:른들한테 쿠사리 쿠사리라고 그래써, 서:름 받는다구, 서:름. {모췌을 움직이고 삶은 그거, 모 뜨는 거, 또 모 실:른 거, 이거 자세히 보고, 자기가 시방 이렇게 일하면, 어른들한테 쿠사리 쿠

사리라고 그랬어, 설움 받는다고, 설움.}

하 아 그따위로 심:니기, 하면 또또기 배우래면, 미테 배워야 매:드른 시:미나요, 매드른, 잘 심: 사는 잘 심:는 사라문, 한 해에 한 마지기 시머요, 하루, {하, 아 그따위로 심냐, 하면 똑똑히 배우라고 하면, 몇 해 배워야 매는 힘이나요, 매는, 잘 심사는 잘 심는 사람은, 한 해에 한 마지기 심어요, 하루.}

우리두 우리집 그전 대돈 노를 마니 안 부쳐도 뽐 뽐퍼 땡겨따구. {우리도 우리집 그전 논을 많이 안 부쳐도 뽐혀 다녔다고.}

잘 심는다고.{잘 심는다고.}

까지는 거 탁: 쳐서 마리 이럼 탁 이래, 이리 착 갇겨. {까지는 거 탁 쳐서 말이야 이러면 탁 이래, 이리 착 감겨.}

글교 {그러는 거예요.}

@ 네,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 그러케 인제 모를 이게 심:네요, 이게 쪼끔, {그러게 인제 모를 심네요, 이게 조금}

@ 그러케 모를 이제 심:짜나요, 이제 다: 식물 꺼 아니예요? {그러게 모를 이제 심잖아요, 이제 다 심을 거 아니예요?}

@ 싱꼬나면 그 다:매 {심고나면 그 답에 }

매:지요.{매:지요.}

@ 팔리를 이제 해야쥬. {팔리를 이제 해야지요.}

응, 노를 가 노를 가 이제 매:야쥬. {응, 논을 가서 논을 가서 이제 매야지요.}

논 이쪼게 그 모사리라능 게 이짜나, 모사리. {논 이쪽에 그 모서리라는 것이 있잖아, 모서리.}

인제 아니 인제 시:머 노:머는, 그게 뿌리를 매:가지고 다시 가따 시:무니까, 그게 아쳐네요. {이제 아니 이제 심어 놓으면, 그게 뿌리를 때어 가지고 다시 가져다 심으니까, 그게 ****.}

사라미 사람 마나~커드~ 병 병드러 가지고 안 시기래요, 싱물도. {사람이 사람 마냥 병 병들어 가지고, 안 **래요, 식물도.}

그러니까 인제 그제 인제 한 이:시빌, 시보일 그쵸? 그제 인제 요런건 오:창 시머 노면 노:라치. {그러니까 인제 그제 인제 한 이십 일, 십오 일 그렇지요? 그제 인제 이런 것은 ** 심어 놓으면 노랗지.}

고다으매 인제 그기 무사랑 까무 우:에 팔구래: 하게 내려 잔:차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 ** 위에 팔구래 하게 내려 앉잖아요.}

그러면 그 인제 소느로 소:로 매 그 노를 소~쿰 삼백 평, 두: 마지기면 삼백 평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손으로 소로 매, 그 논을 ** 삼백 평, 두 마지기면 삼백 평이 아닙니까?}

@ 그럼 이제 한 이주 후에 하나요? {그럼 이제 한 이주 후에 하나요?}

어, 이주 후에.{어, 이주 후에.}

이주 후에는 뭐 한 이시비이리나 되머는, 가서 소느로 이 소:느로 직접 마리아, 그 포:하, 여 줄:, 줄: 하고 포기하고 사이 사애가 이 단 메씨짚드루 자네요, 요러케. {이주 후에는 뭐 한 20일이 나 되면, 가서 손으로 이 손으로 직접 말이야, 그 ** , 이 줄 줄하고 포기하고 사이 사이가 이 단 ***** 잼아요, 이렇게.}

그럼 고 사이 이 손: 하나 드러갈 정도가 시꾸든뇨. {그럼 고 사이에 이 손 하나 들어갈 정도가 ****.}

그러면 고 포김 저탱이가 손 이래거드뇨, 소니. {그러면 그 포** 젓탱이가 손 이렇게든요, 손이.}

이렇게 맨:다고. {이렇게 맨다고.}

호:미로 매:는 거 아니고, 고거는 후 흥:무를 이래죽 이래죽 걸러주능교.{호미로 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후 흙물을 이래죽 이래죽 걸러주는 거예요.}

@ 아, 벼에 벼 인는 고... 서인은 서 세운데다가 소느로 이러케 {아, 벼에 벼 있는 거기 서있는 서 세운데다가 손으로 이렇게 }

응, 소느로 {응, 손으로 }

@ 쓰다듬어주는 거네요? {쓰다듬어주는 거네요?}

고 고 모시기 이짜네요? {고 고 뭐 있잖아요?}

골: 이지, 골:. {고랑 이지, 고랑.}

@ 네, 골: {네, 고랑.}

골:, 고:레가 이, 벼:인은 골:또 이찌마는 허고란테 이짜네요. {고랑, 고랑에 이, 벼가 있는 고랑도 있지만 헛고랑인 데가 있잖아요.}

거게 거겔 감 베루 베를 센:, 이래머는 {거기에 거길 가면 베로 베를 세워, 이러면}

흥:무를 내:서, 벼:를 이룩 만드려주면 벼가 훨씬 나꺼든노. {흙물을 내서, 벼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벼가 훨씬 낫거든요.}

고 다음두~ 풀 {그 다음 *}

@ 그걸 모자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못자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글 그래, 그래 매구, 그랜 아:이 도 아:이 한 번 매:고, 두 번 매:면 다 끝나. {그래 그거 그래, 그래 매고, 그래 아이도 아이 한 번 매고, 두 번 매면 다 끝나. }

@ 아, 모사리도요? {아, 못자리도요?}

아니지, 그건 짐:, 그 논 맨:다 하지. {아니지, 그건 짐, 그 논 맨다 하지.}

@ 모짜리 끝나고 나면 인제 봐두면 인제 모가 자라지요. {못자리 끝나고 나면 이제 봐두면 이제 모가 자라지요.}

@ 자라고 나머는 {자라고 나머는}

고 다:메 인제 {그 다음에 인제 }

@ 계속 무른 계속 댐: 상태조? {계속 물은 계속 댐 상태조?}

아이 무리견 봐:야조. {아이 물 이견 봐야조.}

물또 모사리 하주 언쩡 나머는, 마냥 무레 이찌 아니조, 고 다음 또 무를 떼:요. {물도 못사리 하고 ** 나면, 마냥 물에 있는 게 아니조, 그 다음 또 물을 떼요.}

그건 노니 드러가머는 무를 따돌린다고. {그건 논이 들어가면 물을 따돌린다고.}

그러면 그 논: 무리 자글 자글 끄러서, 오래 따 보면 인제, 그 무리 자리 메갑짜노. {그러면 그 논 물이 자글 자글 끌어서, 오래 있다 보면 인제 그 물이 자리를 메우잖아요.}

그러면 바다게 요 바싹 말래요, 줌. {그러면 바닥에 바싹 말려요, 줌.}

@ 네. {네.}

조금 말려따가 물:드려.{조금 말렸다가 물을 들여.}

사라미 모기 한: 처베 마를 찌게 물 항 곰 조 조치요? {사람이 목이 엄청 마를 적에 물 한 모금 조 좋지요?}

몽 마를찌게, 꺼시거든. {몽 마를 적에, 그것이지거든.}

@ 아 그럼 물 말려따가 다시 무를 던는거죠.{아 그럼 물을 말렸다가 다시 물을 넣는 거지요.}

아 그러쵸, 그럼 그 그래 연속 {아 그렇지요, 그럼 그 그래 연속}

@ 아까 계속 너:따 빼따 요러케 해쵸.{아까 계속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쵸.}

응 그럼, 그르게 끄내야두. {응 그럼, 그렇게 꺼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저 거 피:지, 피:..{그래가지고 인제 그거 피지, 피.}

@ 그먼 인제 {그러면 인제}

피: 뽀바 또 내:든지 해. {피 뽑아 또 내던지 해.}

벼: 말:고도 피: 가 라는 게 이쵸, 피:가. {벼 말고 피라는 게 있어, 피가.}

@ 네 네.{네 네.}

그 노:네는 피:라는 게 또 베:처럼 올라나요, 따로.{그 논에는 피:라는 게 또 벼처럼 올라와요, 따로.}

게 고거는 인제 베:가 한 자 되머는 피:는 한 한 한 씹지어 더 노피 올라와. {그래 그거는 이제 벼가 한 자 되면 치는 한 한 한 씹지어 더 높이 올라와.}

그럼 새: 또 나가미 그 그거 땡깁 뽕꼬, 그거또 갈:게 가서 고마, 베 피:서 까라나:따가 {그럼 사이에 또 나가며 그 그거 다니며 뽕고, 그것도 가을에 가서 벼 피서 낱아 났다가}

@ 아, 그러면 인제 고 고 상태에서 인제 그 피도 뽕꼬, 그 다으메 그 풀 가튼 거, 김 짐:매자나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피고 뽕고, 그 다음에 그 풀 같은 거 김, 김매자나요.}

그래 아까 그 그게 김:매:는 거요, 아께 그 내~기. {그래 아까 그 그게 김매는 거예요, 아까 그 맨게.}

@ 아, 그럼 김, 여긴 김:맨다라고 합니까, 짐:맨다고 합니까? {아, 그럼 김, 여긴 김맨다라고 합니까, 짐맨다고 합니까?}

김:, 김. {김, 김.}

@ 김:? {김?}

김:, 기:미라고도 지:미라 구래, 여: 마른 짐:맨:다, 김:맨:다 이래. {짐, 김이라고도 짐이라 그래 여기 마른 짐맨다, 김맨다 이래.}

@ 엔:나렌 어떤 마를 {옛날엔 어떤 마를}

엔:나레 지:미라고 해찌, 거기 짐:. {옛날에 짐이라고 했지, 거기 짐.}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 짐:매:자나요, 보통 며뻔 땡니까? {김매잖아요, 보통 몇 번 땡니까?}

그래 건 두:네, 한 두: 번 매:지. {그래 그건 두 번, 한 두 번 매지.}

아께 내 얘기 하자뇨, 그럼 물 흐 흐리고 {아까 내가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물 흐 흐리고,}

@ 아 그럼 침: 땡 때를 그걸 땡 맨다고 합니까? 처음{아 그럼 처음 땡 때 그걸 땡 맨다고 합니까? 처음.}

처:매는 아:이 매:구, 아:이, 두 두 별, 두: 번 매면 두: 별, 세: 번 매면 세: 별. {처음에는 아이 매구, 아이, 두 두 별, 두 번 매면 두 별, 세번 매면 세 별.}

@ 세, 아 그면 아이 매:고, {세, 아 그러면 아이 매고,}

두: 별. {두 별.}

두: 별 매는 건 두: 번 {두 별 매는 건 두 번.}

@ 그럼 아이매고 나:서, 언제 이따가 두 별 땡니까? {그럼 아이매고 나서, 언제 있다가 두 별 땡니까?}

그거또 한 이시빌 이따 매지. {그것도 한 20일 있다 매지.}

@ 아 이시빌 이따가 인제 그 두 번째 매는 거를? 땡: 맨:다고? {아 이십일 있다가 이제 그 두 번째 매는 거를? 땡 맨다고?}

두 두 두: 번 맨:다 그러지, 두: 번. {두 두 두 번 맨다고 그러지, 두 번.}

아:이 매고, 두:별 매고.{아이 매고, 두별 매고.}

두:별. {두 별.}

@ 네, 두: 별 매고 나서 {네, 두 별 매고 나서}

이제 안 베:지, 땡 그럼. {이제 안 베지, 땡 그럼.}

그럼 피: 뽕벼. {그럼 피 뽕아.}

아 마자, 건 야:께만치 장:하자나, 이러케 한 자 자 판쪽 모는, 한 그 베:도 이 저 머야 꼬치 저 저 짹 씹아씨 씹아씨가 올라올 정도면 망니피 나오고 말자네요. {아 맞아, 그건 아까처럼 장하잖아, 이렇게 한 자 자 판쪽 모는, 한 그 벼도 이 저 뭐야 끝이 저 저 짹 씹아씨 씹아씨가 올라올

정도면 막없이 나오고 말잖아요.}

그래잔 그 피:라는 기 판 머 그런 잡똥새기 이썬요. {그래 그 피:라는 거 다른 뭐 그런 잡똥새기가 있어요.}

그건 베:보다 더 더: 노:문 그 인제 베: 저 태글 뽀버 치:워야 된다고. {그건 벼보다 더 더 올라오면? 그 인제 벼, 저 ** 뽀아 치워야 된다고.}

@ 그럼 두 벌 매고 나서, 이제 그 다:메 세 버튼 안 매고, {그럼 두 벌 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벌은 안 매고,}

안 매:조, 안 매:조. {안 매:조, 안 매:조.}

@ 그때 세: 번째는 피가, 피만 이러케 뽀꼬 {그때 세 번째는 피가, 피만 이러케 뽀꼬,}

피:만 뽀꼬, 고렘.{피만 뽀꼬, 고렘.}

@ 뽀꼬 그러네요. {뽀꼬 그러네요.}

그러면 자연:으로 그만 여무는거지 뭐. {그러면 자연:으로 그만 여무는거지 뭐.}

벼:씨만 잘: 됬 뭐, {벼:씨만 잘 되면 뭐,}

@ 그럼 인제 짐: 매고 나면 그 다:메 인제, 그 자라면 인제 베:야 되자나요? {그럼 이제 짐을 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라면 이제 베야 되잖아요?}

@ 언제쯤 뽀니까? {언제쯤 뽀니까?}

여게:가 그기:: 터를 쳐서 기 음:넉, 가만 이썬봐, 음:넉 시월, 시월 딸 비:지. {여기가 그게 터를 쳐서 그 음력, 가만 있어봐, 음력 10월, 10월 딸 비지.}

여젠 시월. {여기엔 10월.}

@ 시월 딸 정도요? {10월 딸 정도요?}

시월, 시월 초승 초승쫘 뽀. {10월, 10월 초승 초승쫘 딸 베.}

중순경, 그럼 물도 물로 비:는 거 물르 드른 까:래나따 물른 마르먼 오늘 타 타:천는데 뭐. {중순경, 그럼 물도 물로 베는 거 물로 들은 깔아놔다? 물은 마르먼 오늘 타 타쳤는데 뭐.}

@ 타:춘다구? {타춘다고?}

타:출하지, 타:추. {타출하지, 타추.}

@ 아, 타:초한다구요? {아, 타작한다고요?}

갈: 갈: 춘짜, 타 타:작 타:자칸다 하기도 하고 타:조한다고. {가을 가을 춘 자, 타 타작 타작한다 하기도 하고 타조한다고.}

또 어느 거는 타:자기라고, 타:작. {또 어느 거는 타작이라고, 타작.}

@ 그러면 인제 베를 베:서, {그러면 이제 벼를 베서,}

쪽 까리요, 옴:나레는. {쪽 깔아요, 옛날에는.}

@ 베고 나서 모로 뽀니까? {베고 나서 뭐로 뽀니까?}

나즈로 베:지.{낮으로 베지.}

@ 아, 나즈로요? {아, 낮으로요?}

@ 나즈로 베는데, 나즈로 베서 그냥 그냥 나:두쫘, 이러케. {낮으로 베는데, 낮으로 베서 그냥 그 녀 뽀두쫘, 이러케.}

그러치, 이러케 하날 베:가지고, 맨 뒤 뒤짜락 쪽 까라. {그렇지, 이러케 하나를 베가지고, 맨 뒤 뒤자락에 쪽 깔아.}

@ 거 노네다가 {그거 논에다가}

쫘:네 까라나, 도:따가 {쪽 깔아놔, 뒀다가}

@ 한 얼마나 {한 얼마나}

날 날씨가 한 일쭈일 켜나 켜 그럼 마르자네요. {날 날씨가 한 일 주일 켜나 켜면 그럼 마르잖아요.}

@ 네.{네}

그 마르면 가 무:꺼요.{그 마르면 가서 묵어요.}

담 요러케 테두리라고, 요러케. {다음 이렇게 테두리라고, 이렇게.}

@ 어느 정도 묵습니까? {어느 정도 묵습니까?}

하여튼 머 대이꼬쩍 안 하고 이러게 마:쨌서 마:쨌서 더 더 크 크:게 {하여튼 뭐 **** 안 하고 이렇게 맞춰어서 맞춰어서 더 더 크 크:게}

@ 아, 마쨌서 더 크:게, 네 네. {아, 맞춰어서 더 크:게, 네 네.}

그러게 인제 에 {그러게 인제 에}

@ 고러케 다는 고런 다는 먼 무슨 다니라고 하나요? {그렇게 단은 그런 단은 뭘 무슨 단이라고 하나요?}

폐:판 {벧단}

@ 그러면 이게 쯔 단:도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쯔 단도 크기에 따라서}

크 크: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건 큰:다니라 하지.{크 그: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건 큰 단이라 하지.}

@ 아, 큰 단. {아, 큰 단}

뭐 요 테판, 그래 인제 요러케 해가지곤, {뭐 이 벧단,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 그럼 요게 테:파니고, 요정도 마:쨌거 보다 쯔쨌 더 크면 제일 큼거는? {그럼 이게 벧단이고, 이 정도 맞쨌거 보다 쯔쨌 더 크면 제일 큼거는?}

큼거는 폐:판.{큼거는 벧단.}

@ 중간정도는 하나요? {중간정도는 하나요?}

저건 건 건 중간타~이라 하지. {저건 건 건 중간탄이라 하지.}

예저네 그러거 안 해요.{ 예전에 그런거 안 해요.}

그저네 벧 떠는 기계가 와:루~와:루~ 달릴 때, 아 그 이 알쨌? {그전에 벧 떠는 기계가 와룽와룽 달릴 때, 아 그 이거 알쨌?}

@ 네네네.{네네네.}

발루 발뭇 그에 전수, 도시물로 우리가 동리 마드룬 여기 가:그넨 존소글 이거 인게두 엔:날 발로 다 이래는 거요. {발로 밟으면 그에 전수, 도시물로 우리가 동네 *** 여기 *** 존속을 이거 이렇게 해도, 옛날 발로 다 이렇는 거요.}

@ 전수가 뭔가요? {전수가 뭔가요?}

전수, 전 전수라~ 통계를 애기는 통:계.{전수, 전 전수란 통계를 매기는 통계.}

@ 아, {아,}

전체를, 전체를 {전체를, 전체를}

@ 아, 전수를 {아, 전수를}

그래~ 그래 까라나:따가, 그 일 거 건는다고 이제 벧:, 벧 벧을 거드니까 거뒀서 매:가지고서는, {그래 그렇게 깔아 뉘다가 그 이 거 건는다고 이제 벧, 벧을 걸으니까 거뒀서 매가지고서는,}

고 다:매 {그 다음에}

@ 다늘 다늘 인제 묵짜나요.{단을 단을 이제 묵잖아요.}

무꺼가지고 {묵어가지고}

@ 보통 이 테:판하고 큰 단, 둘: 두 가지만 쓰나요? 중간 다는 업꼬요? {보통 이 벧단하고 큰 단, 둘 두 가지만 쓰나요? 중간 단은 없고요?}

업꼬 업찌. {없고 없지.}

큰 단 쓰는 거는 {큰 단 쓰는 거는}

@ 왜 쓰나요? {왜 쓰나요?}

큰 다는 모냐머는 이래 크:게 인제 무:꺼 가지고 와 가지고, 지베 가지고 와서 뜰: 찌게 그 모야, 그 거들 찌게 나문 걸 고생스러우니까 크게 묵찌마는 대:랑 이 요런 테:판 마이 해요. {큰 단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이제 묵어 가지고 와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들 적에 그 뭐야, 그 걸을 적에 남은 걸 고생스러우니까 크게 묵지마는 대략 이 이런 테단?(벧단?)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드렌 찌게로만 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들엔 지게로만 지다가}

@ 그게 언 까라 나따가 테따늘 묵짜나요. {그게 깔아 뉘다가 벧단을 묵잖아요.}

@ 무꺼서 언제, 그 계속 놔두나요? {묵어서 언제, 그 계속 놔두나요?}

아니지, 그래 그래 가존 지 그 단 말리게 아니요. {아니지, 그래 그래 가지고 그 단 말린 게 아니요.}

그램 그 다음 무네다 가래요. {그럼 그 다음 문에다 갈아요.}

@ 네.{네.}

도라간디~이? {돌아간데?}

@네. {네.}

두렁가려 딱: 사네가서 요 푸떠부론 벼 아무나 안 질게 아니요. {**** 딱 산에가서 이 **** 벼 아무나 안 질게 아니요.}

@ 가래 노쳐. {가래를 놓치요.}

응, 그 가래노코, {응, 그 가래 놓고,}

또 그르치 안 허머는 모탄 떠른 저다가 미리 저다가 집 오래떠래다가 지베다 말:까다 아: 그 가따놔요. {또 그렇지 안 하머는 못한 떨은 저다가 미리 저다가 쥘? ***** 쥘에다 *** 아 그 갔다 놔요.}

@ 가래 나요? {가래 놔요?}

응. {응.}

그러구 인제 그 기계가 그 터는 베 끼게가 집집마다 다 업꺼든뇨.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그 터는 벼 기계가 집집마다 다 없거든요.}

그거뚜 인제 {그것도 이제}

@ 엔나레는 그런 기계 말고, {옛날에는 그런 기계 말고,}

다서 쩌 여서 쩌 어 어울러 서:요. {다섯 쩌 여섯 쩌 어 어울러 서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가 인제 마냐게 {그게 이제 만약에}

@ 고 기계 이르미 모나~가요? {그 기계 이름이 뭔가요?}

그게 베 베떠는 기계지뵈, 베떠는 {그게 벼 벼 터는 기계지뵈, 베 터는}

와루~ 와루~ 하는 고, 발로 발부면 막 또라가자네, 이러케 그 와룽와룽. {와룽와룽 하는 거, 발로 밟으면 막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 와룽와룽.}

@ 이르미 이썸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바두~이, 베 따는 와룽기계, 와룽기계. {바둥이? 벼 터는 와룽기계, 와룽기계.}

@ 와룽기계요? 예 예. {와룽기계요? 예 예.}

그 인제 두:리 뜨자뇨, 두:리.{그 이제 둘이 털잖아요, 둘이.}

서서마리 두:리 인제 그래 뜰: 찌는 오늘 이 집 함 뜰자네요. {서 서 말이 둘이 인제 그래 털쩍에는 오늘 이 집 한 번 털잖아요.}

하루머이 멀 가마니 까~ 뜰머는 고 이튼날 저 지베 가 뜨는데 뜨 도라가면서 이 뜰:고, 그래머는 모: 그 모:를 부친 지비 한 동네 마냐 이십 쩌 하머는 다섯 쩌 올라가지고 하나씩 사:나요, 그걸. [하루면 뭘 가마니 까서 털머는 그 이튼날 저 집에 가 터는데 돌아가면서 이 털고, 그러면 모, 그 모를 부친 집이 한 동네 만약 20 집 하면 다섯 쩌 올라가지고 하나씩 사 놔요, 그걸.]

혼자 혼자 사놀 피료 업짜네요, 여러 여러찌비 사서 가 사무 사서 공동구녕 사거라, 그래 하는 거요. {혼자 혼자 사 놓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 여러 집이 사서 가 **사서 공동으로 사거라, 그래 하는 거예요.}

@ 금 엔나레는 와룽기제 하기 저네 이러케 막 이러케 {그럼 옛날에는 와룽기제 하기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이거 이거 거 그거지. {그럼 이거 이거 거 그거지.}

@ 그 그 뭐라고 고런 걸 뭐라고? {그 그 뭐라고 그런 걸 뭐라고?}

그거는 흘치기 {그거는 흘치기.}

@ 아, 네.{아, 네.}

흘치기요 흘치기, 이 낭그리대짜네요 문디요, 턱 때가지고 짜르륵 그 짜르륵 흘투니까 {흘치기 요 흘치기, 이 나무로 땀잖아요 ***, 턱 때가지고 짜르륵 그 짜르륵 흘으니까.}

@ 흘치기에 하주 흘치기 엔나레 하다 그 다:메 와룽기젠가요? {흘치기에 하쥌, 흘치기 옛날에 하다 그 다음에 와룽기젠가요?}

와룽기제요, 우리 우리는 우리 흘치기는 우린 안 해쓰요. {와룽기제요, 우리 우리는 우리 흘치기는 우린 안 했어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우로 아주 머이서 으른드리 해찌. {우리 위로 아주 먼 어른들이 했지.}

@ 그럼 흘치기 인제 그러케 하고 나서, 그 다:메 인제 고거를 지베 와서 인제 어 그 노네 말린 거는 그 미리 미리 오랍뜨레 가따논는 거또 인제 노네서 말린 한 어느 정도 말려따가 지부로 가져 오나요? {그럼 흘치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집에 와서 이제 어 그 논에 말린 거는 그 미리 미리 뜰에 갔다 놓는 것도 이제 논에서 말린 한 어느 정도 말렸다가 집으로 가져 오나요?}

집 거...그래니깐 베:서 베: 노코는 한 잘 마른 건 해싸리 잘 나가면 일쭈이리 마르고 그 자~똥 열흘 마르자네요. {집 거 그러니깐 베서 베 놓고는 한 잘 마른 거는 햇살이 잘 나면 일주일에 마르고, 그 ** 열흘 마르잖아요.}

그래 그 말려 논는 때도 비가 온다 이기여. {그래 그 말려 논는 때도 비가 온다 이거야.}

그래면 또 또 {그러면 또 또}

@ 더 놔두고 {더 놔두고}

또 또 나거이자네요. {또 또 나뉘야 되잖아요.}

**** 자주 오머는 거게서 베가 짜기나. {자주 오면 거기서 벼가 싹이나.}

그래니깐두루 인제 그 애:를 먹쥌.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먹지요.}

그래니깐드루 날씨만 잘 하머는 한 열흘 돼:서 거더가지고, 고다~ 그 문가에다 해가지고, 어 두 사람 개: 가지고 그 자리 땡 그 사네 떠네 가주 그초? {그러니까 날씨만 잘 하면 한 열흘 돼서 걷어가지고, 그 다음 그 문가에다 해 가지고, 어 두 사람 개 가지고 그 자리 그 산에 털어 가지고 그렇지요?}

떠나가주구는 거:서 질머 지구 지부루 가져가고, 요즘 와서는 경웅기 경웅게다 실코 가고, 또 지베 저 저대난상 지베 뜰고 그짜그로 가두고는 그래도 들먹 들말려짜네요.{털어 가지고는 거기서 쪼어 지고 집으로 가져갔고, 요즘 와서는 경웅기 경웅기에다 싹고 가고, 또 집에 저 **** 집에 털고 그쪽으로 가두고는 그래도 덜 말랐잖아요.}

들 마르면 명:석이쥌, 명:석, 명:서기라는 거? {덜 마르면 명석있지요, 명석, 명석이라는 거?}

마당에 짹 깔고는 베:를 가따 쏘늘 거어서 떠논 물 태양에 하루 이틀 말래. {마당에 짹 깔고는 벼를 갔다 손을 *** 떠놓은 * 태양에 하루 이틀 말려.}

말래가지고 방:까네 가서 찌에가 쌀로 팔고, 시방 모시도 매:서는 마당 치무 매상 그러케 땡기

먼요 매상 요 한 임대도 할끼 임대도, 존속 웅게고, {말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찌어서 쌀로 팔고, 시방 모서리도 매서는 마당 치며 매상 그렇게 다니면요, 매상 이거 한 임대도 할거야 임대도, 존속을 옮기고

@ 매상서 {매상서}

매상. {매상.}

@ 매산 {매산}

매사~ 매상 {매상, 매상.}

@ 예 예, 매상, 거 노네 바더 매상하는거. {예예,매상, 그거 눈에 받아 매상하는 거.}

@ 네네, 매상. {네네, 매상.}

팔: 매 짜. {팔 매 자.}

@ 네, 그러며는 그 이거 말리자나요. {네, 그러며는 그 이거 말리잖아요.}

말리며는 이게 그 이제 그 타저글 하면 베를 떠러낼라며는, 그게 어느 정도 되야 베가 떠러내는지 어떠케 알 쭈 인나요, 그게? {말리면은 이게 그 이제 그 타작을 하면 벼를 떨어낼라면, 그게 어느 정도 되야 벼가 떨어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게?}

@ 어떤 {어떤}

타:작 {타작}

@ 아니 이제 베가 이게 아 아를 그 떠러내자나요. {아니 이제 벼가 이게 아 알을 그 떨어내잖아요.}

@ 아를 이제 타자게서 이제 베를 떠러 내며는 떠러내서 이제 거 찌어야 되자나요. {알을 이제 타작에서 이제 벼를 떨어내며는 떨어내서 이제 거 쪼어야 되잖아요.}

@ 고 고 과정은 어떠케 되나요? 베를 떠러내고나서 그 다:멘뇨? {그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벼를 떨어내고 나서 그 다음엔요?}

타:작하고 하고는 그 베:를 베:를 어트게 하느냐? {타작하고 하고는 그 벼를 벼를 어떻게 하느냐?}

@ 네네. {네네.}

그래 내 아까 얘기하자네요.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감:투 그 태양에 건조를 해서 떠러따하더라도 또 자연히 좀 눅짜네요. {감투 그 태양에 건조를 해서 떨어다 하더라도 또 자연히 좀 눅잖아요.}

방아 방아까네 가서 쪼라하며는 고기 쪼 마르기를 정상으로 말려야지, 너무 바:썩 마르면 빠해 지구유.{방아 방앗간에 가서 쪼라하며는 그게 쪼 마르기를 정상으로 말려야지, 너무 바썩 마르면 뿌서지고요.}

@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말라따는 걸{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말랐다는 걸}

그래 그거 알:지요, 베로 양꺼 한:** 간다구요.{그래 그거 알:지요, 벼로 ** ** 간다고요.}

@ 감가그로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웅, 그러초.{웅, 그렇지요.}

그래 이제 덜 말라씨니 망서근 망서글 펴고 말려가지고 가고, 왜 저걸 봐요, 우선 베:나 콩, 옥수수, 우리가 매사거드뇨, 무여베. {그래 이제 덜 말랐으니까 망석은 망석을 펴고 말려가지고 가고, 왜 저걸봐요(?)} 우선 벼나 콩, 옥수수, 우리가 매사거드요, 무렵에.}

매상하면 그 사람들 책 책정되어 이썬요. {매상하면 그 사람들 책 책정되어 있어요.}

가따 봐:머는 이십 오도면 정상이다. {갔다 보여주면 25도면 정상이다.}

이십 오도로 내려가며는 눅따. {25도로 내려가면 눅다.}

@ 엔:나레는 어떠케 해썬니까, 엔:나레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엔:나레는 깨:미러서.{옛날에는 깨물어서.}

@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엔:나레는 콩강냉이를 깨:미러요, 깨:미러 {옛날에는 콩강냉이를 깨물어요, 깨물어.}

깨:미러 딱: 소리나면 옥수수:, 콩, {깨물어 딱 소리나면 옥수수, 콩,}

@ 쌀 가튼 거는요? {쌀 같은 거는요?}

쌀또 업찌.{쌀도 없지.}

쌀도 잘 말르머는 좀 들 말르거는 이리 깨:미머는 이 부시지 안코 눅씨하자뇨. {쌀도 잘 마르면 좀 덜 말르거는 이렇게 깨물면 이 부서지지 않고 눅눅하잖아요.}

그런데 말른 거는 딱 깨밀머는 딱 깨지자나, 쌀 알 아리.{그런데 마른 거는 딱 깨물면 딱 깨지잖아, 쌀 알 알이.}

그래면 말 {그래면 말}

@ 아, 말라따. {아, 말랐다.}

마 깨지지무 {막 깨지지 뭐.}

@ 아...{아...}

내가 망뎡이란 얘기 하는 거 망때~이, 망때~인 잘 대판 얘기로. {내가 망뎡이란 얘기 하는 거, 망뎡이, 망뎡이는 잘 댘단 얘기로.}

@ 아 망... {아 망...}

이러면 망뎡이, 이제 좀 망때~이다. {이러면 망뎡이, 이제 좀 망뎡이다.}

@ 네, 그럼 잘 대따, 고러케 잘 되머는 이제 고거를 이제 방앗까네 가져와서 찢는다.{네, 그럼 잘 댘다, 그렇게 잘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방앗간에 가져와서 찢는다.}

그럼 그럼 전소기 {그럼 그럼 전속이.}

그래가면 돼요, 엔:나레 즉전 업쓸 찢게는 엔:나레 어른 어른드리 전수가 이부루 이부루 음식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즉전 없을 적에는 옛날에 어른 어른들이 전수가 입으로 입으로 음식한다.}

@ 네네, 아 그러쿠나, 예.{네네, 아 그렇구나, 예.}

1.3.2. 밭농사

@ 예, 그 간따니 가께요. {예, 그 간단히 갈게요.}

@ 음, 어르신, 여기 인제 노네서 논농사도 지으셔꼬, 밭농사도 마니 지으셔따고 해짜나요. {음, 어르신, 여기 이제 논에서 논농사도 지으셨고, 밭농사도 많이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 그 어떤 거뜨를 지으셔써요, 주로? {그 어떤 것들을 지으셨어요, 주로?}

@ 밭농사 중에서느뇨? {밭농사 중에서는요?}

마:이 지웅거? {많이 지은 거?}

@ 네.{네.}

마이 지웅 거는 그제 연년니 다르지. {많이 지은 거는 그제 연년이 다르지.}

왜냐하머는 인제 철, 어떤 해:는 옥수수가 젤: 마니 하는 때가 이꼬, 또 그 이듬해 가서는 또 콩을 도 하는 데도 이꼬, 요 이러니까두로 평수를 봐서는 비즌 비즌 한 거또 이꼬, 요래 요러치 이러치. {왜냐면 이제 첫, 어떤 해는 옥수수가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있고, 또 그 이듬해 가서는 또 콩을 또 하는 데도 있고, 이 이러니까 평수를 봐서는 비슷 비슷 한 것도 있고, 이래 이렇지.}

@네. {네.}

@ 그러머는 그 중 어떻 거또 콩도 하시고, {그러면 그 중 어떤 것도 콩도 하시고,}

콩 , 보리, 조이, 모 밀, 저 밀:, 미물, 뭐 거 정보레 거 호메기는 호몹. {콩, 보리, 조, 뭐 밀, 저 밀, 메밀, 뭐 그 정보리, 그 호메기는 호몹.}

@ 거 호몹? {그 호몹?}

응, 판:. {응, 판.}

고담 당콩이랑 거 이썬, 당콩. {그 다음 당콩(강낭콩)이란 거 있어.}

@ 네. {네.}

당콩이라는 게 또 이러케 납작 납작 항게 이따고, 그거또 하고, {당콩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납적 납적 한 게 있다고, 그것도 하고.}

@ 네. {네.}

@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예:저네는 마니 하셔땡 건 어떻거세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예전에는 많이 하셔땡 건 어떻거세요?}

예:저네 여기 우리 고장에서? {예전에 여기 우리 고장에서?}

@ 네. {네.}

마:이 해뜬, 마:이 해뜬 거시 콩:, 옥수수, 엔나레 강냉이라 하지. {많이 했던, 많이 했던 것이 콩, 옥수수, 옛날에 강냉이라 하지.}

고담 메:밀, 조:. {그 다음 메밀, 조.}

@ 그니까 엔, 어르신, 그 말씀하실 땐 인제 엔:날 말 가튼 거뜰. {그러니까 어르신, 그 말씀하실 땐 이제 옛날 말 같은 것들.}

글썬: 그 엔:날말 그래 하제. {글썬, 그 옛날 말 그래 했어.}

조, 조 , 콩, 고담 강냉:이. {조, 조, 콩, 그 다음 강냉이.}

@ 네, 아 그렇거. {네, 아 그런 거.}

강내~이, 감자, 감자 또 하고, 감자. {강냉이, 감자, 감자도 하고, 감자.}

@ 네. {네.}

감자도 여러지, 뭐 돼:지 감자랑 거또 코리부리항 거또 이꼬, 양:감자, 노:랑거 타고, 무:마 푸:우 마니 나능 거, 그 여러 지리라니까 농사 제:면. {감자도 여러가지지, 뭐 돼지 감자라는 것도 코가 부리한 것도 있고, 양감자, 노란 것 하고, **, ** 많이 나는 거, 그 여러 가지라니까 농사 지으면.}

@ 그림 보며 쯤 이따 구체저그로 여쭙보고, 근데 이제 보통 시저레 그 그래따가 반농사를 진는 절차가 인는데, 젤: 먼저 인제 하는 거시 밭, 반농사를 지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림 보며 쯤 이따가 구체적으로 여쭙보고, 근데 이제 보통 시절에 그 그랬다가 밭농사를 짓는 절차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밭, 밭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일 먼저 진진 보메 젤: 먼저 진능 거시, 파:종하능 거시 대:마. {제일 먼저 봄에 제일 먼저 짓는 것이, 파종하는 것이 대마.}

삼:베, 베 짱거, 꺾떼기 빼, 베:짜 말지요? 삼:베. {삼베, 베 짠 거, 꺾대기를 벗겨, 베자 말지요? 삼베.}

@ 근데 파종을 하기 저네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파종을 하기 전에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종이 가마니 그냥 바테 이썬. {파종이 가마니 그냥 밭에 있지.}

올해는 금녀네는 저 바텐 콩 심는다, 저 바테는 옥수수 심는다, 저 바테는 감자 심는다, 다 이, 이겨든. {올해는 금년에는 저 밭엔 콩 심는다, 저 밭에는 옥수수 심는다, 저 밭에는 감자 심는다, 다 이런 게 있거든.}

@ 네. {네.}

그림 장녀네 감재 시:문 데는, 또 그 다음 옥수수 싱꾸, 옥수수 시:문 데는 콩 심꾸, 콩 시문데

강냉이 심꾸 이러케, 연녀니 이러케 그 종자를 바꿔서 바출 시무무는 그 곡씨기 잘: 되지. {그럼 작년에 감자 심은 데는 또 그 다음 옥수수 심고, 옥수수 심은 데는 콩 심고, 콩 심은데는 강냉이 심고 이렇게 연년이 이러케 그 종자를 바꿔서 밭을 심으면 그 곡식이 잘 되지.}

@ 아, 네. {아, 네.}

그건 그러케 해, 끄림.{그건 그렇게 해, 그럼.}

@ 아, 주로 그러케 심는데, 먼저 인제 씨를 뿌리기 저네 바틀 이제 갈자나요. {아, 주로 그렇게 심는데 먼저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이제 갈잖아요.}

@ 뭘로 어트게 감니까? 바틀, {무엇으로 어떻게 감니까?}

바틀 하지, 여게는 아주 옛:나레는 잘 모르게찌마는 우리 중녀네 와서, 정서네 우리 마으레 보며는 한 뱃년 전부터 저리 소 두: 말해. {밭을 하지, 여기에는 아주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년에 와서, 정선에 우리 마을에 보면 한 백년 전부터 저 소 두 말을 해.}

두: 번, 모, 모:에가 이 이 아:흙 짜, 아:흙짜를 맨드레서 양쪼게 소가 이 땅 미, 이어, 소 모 모게다 미:고, 소가 두 마리가 갈:지. {두 번, 모, 모가 이 이 아흙 자, 아흙 자를 만들어서 양쪽에 소가 이 딱 매, 이어, 소 뭐 목에다 매고, 소가 두 마리가 갈지.}

그럼 저리 저리 보고, 보고래라능 거는 호리 보구래 보다는 쯤 커:요. {그럼 저리 저리 보고, 보구래 보구래라는 거는 호리 보구래 보다는 조금 커요.}

커:야만 튼튼해야만 가자네.{커야만 튼튼해야만 가잖아.}

그럼 머~에가 아:흙 짜, 이 돈 이 저, 소:리라능 거 아페, 중 매:는 거, 수리 아흙 짜, 그래 가주고 인제 그 보습, 호미 가능 거 보다 보스비 크:지. {그럼 멩에가 아흙 자, 이 돈 이, 저, 소리라는 거 앞에, 죽 매는 거, ** 아흙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보습, 호미 가는 거 보다 보습이 크지.}

그래 그걸 가따 내다 간:다고, 그런,{그래 그걸 갔다 내가 다 간다고, 그런}

윈, 오른 짜게 인는 소, 소 하고, 윈짜게 인는 소 하고는 멀 오른 짜게 매:, 소를 가따가 요 매:운 소는 오른짜, 윈짜근 윈짜때로 그래가따가 소를 가따 매:워야만 소가 잘 가지. {윈, 오른 쪽에 있는 소, 소 하고, 윈쪽에 있는 소 하고는 뭘을 오른쪽에 매, 소를 갔다가 이 맨 소는 오른쪽, 윈쪽은 윈쪽대로 그렇게 갔다가 소를 갔다 매야만 소가 잘 가지.}

함 이쪼게 윈짜게 함 소가 이러케 지리 들자네요? {하면 이쪽에 윈쪽해 하면 소가 이렇게 길이 들잖아요?}

연습 해짜네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게 윈:짜 가따 매:면 틀리자네. {그렇게 윈쪽 갔다 매면 틀리잖아.}

#그래간 자기 인는 위치에다가 소가다 매:고, 나가문, 인제 내 가:는 데는 보스비 크:니깐, 호리소 보스 뽀다도 소 보스뽀 제일 뽀스 크니까, 땅을 더 지피 가러 티아머꼬, 또 엽 여피, 이 광이 또 널리 갈리기 때미네 허리 대머는 허리 하루가리가 켈:류 바면 한 마지 가리. {그러니깐 자기 있는 위치에다가 소를 갔다 매고, 나가면 이제 내가 가는 데는 보습이 크니깐 호리소 보습 보다도 소 보습이 제일 보습이 크니까, 땅을 더 깊이 갈어 ****, 또 옆 옆에 이 광이 또 넓게 갈리기 때문에 허리 대면 허리 하루갈이가 제일 많이 하면 한 마지를 갈아.}

이틀가러 호리 이틀 가리이머는 제 하루에 다 간다. {이틀을 갈아 호리 이틀을 갈리면 제 하루에 다 간다.}

@ 예.{예.}

매, 그러치.{매, 그렇지.}

그래 고 고 다메 호:레 하나는 뒤에서 골: 캐. {그래 그 그 다음에 호리에 하나는 뒤에서 골을 캐.}

골: 캐 씨아시, 이 채는 골:, {골을 캐야 씨앗이 이 채는 골.}

@ 아 그러머는 제리 저리가 먼저, {아, 그러면 미리 저리가 먼저.}

아이 아이 갈:고, 건 아이 인지피라고 갈:고, 또 뒤 뒤:에는 그 호 호:리라능 게 이썸. {아이, 아이 갈고, 그건 아이 ***라고 갈고, 또 뒤 뒤:에는 그 호 호:리라는 게 있어.}

소 하나 가지고 가능 거 호:리로 한다고.{소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거 호:리로 한다고.}

@ 네. {네.}

그럼 그거 인저게 내다 골: 타면 고:리 먹쫄치면 되자네요. {그럼 그거 진작에 내가 골을 타면 골에 먹쫄치면 되잖아요.}

@ 고를 탄다고요? {골을 탄다고요?}

골: 타고 고 다음 인제 으 분재를 노코, 그 다음 감자면 감자, 옥수수면 옥수수, 콩 콩 가따 시머요. {골 타고, 그 다음 이제 분재를 놓고, 그 다음 감자면 감자, 옥수수면 옥수수, 콩, 콩 잼다 심어요.}

그래야만 아푸로 그 골: 매:자네.{그래야만 앞으로 그 골을 매잖아.}

짐: 매지 쉽꾸. {짐 매기 쉽고.}

@ 그러며는 어르신, 요걸 다시 말씀 하 하며는, 먼저 씨를 뿌리기 저네 아이 먼저, {그러면 어르신, 이걸 다시 말씀 하 하면,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아이 먼저,}

#갈:고, {갈고,}

@ 갈:고, 그 다:메, {갈고, 그 다음에,}

#골: 캐고, {골을 캐고,}

@ 고를 캐:고, {골을 캐고,}

고거 그 담 씨, 감자 씨던 {그거 그 다음 씨, 감자 씨든지 }

@ 그 다음 인젠 호:리, 호:리로 하면 또 고:를 { 그 다음 이제 호리, 호리로 하면 또 골을 }

캐:고, {캐고,}

호를 호를 가지고 고:를 캐:네요? {호를 호를 가지고 골을 캐네요?}

캐고, 고 다:메는 감자를 심든 모 옥수수를 심든 콩을 심든 다: 심꼬는 호미, 호미로 심는 거는 여자드리 심꼬, {캐고, 그 다음에는 감자를 심든 뭐 옥수수를 심든 콩을 심든 다 심고는 호미, 호미로 심는 거는 여자들이 심고,}

@ 여기는 호미라고 하나, 호모? {여기는 호미라고 하나, 호모?}

아, 호미, 호미.{아, 호미, 호미.}

호모라 하기두 하구 호미라 허기두 해.{호모라 하기도 하고 호미라 하기도 해.}

그래 가지구마 얘:기 할 타씨여. {그래 가지고 얘기 할 탓이야.}

저 흙 호:미 가지구 와 이러케따, 호미. {저 흙 호미 가지고 와 이렇게 했다 호미.}

호미 가져와 이:러기도 하고, 호미 가져와 이:러기도 한다고, 그 두: 가지 말 한다구. {호미 가져와 이:러기도 하고, 호미 가져와 이:러기도 한다고, 그 두 가지 말을 한다고.}

그래가주구 그 아주 모네 상:꾸, 그럼 광:이, 이 광이 알조? {그래 가지고 그 아주 논에 심고, 그럼 팽이, 이 팽이 알지요?}

꼬깁이 이꼬 저 꼬깁이, 그럼 인저 광:이 나 담배떠리지. {곡팽이 있고, 저 곡팽이, 그럼 이제 팽이나 *****.}

씨아시 무씨를 어트게 보기 보도, 그 보두라 구래, 보두. {씨앗이 묻는 거를 어떻게 보기 보도, 그 보두라 구래, 보두.}

문:능 걸 보:두라구 한다고, 옴:나레. {묻는 거를 보두라고 한다고, 옛날에.}

@ 보돌한다. {보돌한다.}

보:두. {보두}

@ 보두하구요? {보두하고요?}

@ 그러면 인제 {그러면 이제}

그래가 그래 노:면 인제, 응 그래 노:면 인제, 응 그래 노:면, 인제 옥썴수 오:고기 자기 그 일기에 마쳐서 올라 올라와 성장하능 거여. {그래서 그래 놓으면 이제, 응 그래 놓으면 이제 응 그래 놓으면 이제 옥썴수 오곡이 자기 그 일가에 맞혀서 올라 올라와서 성장하는 거야.}

그래이머는 올라 오면 전속 호미를 가 썩 매:능거요. {그러면 올라 오면 전속 호미를 가지고 썩 매는 거예요.}

이만치만 오늘 오머는, 응 예를 드려서, 옥썴수가 메 썩치 올라와따. {이만큼만 오늘 오면 응, 예를 들어서 옥썴수가 몇 썩치 올라왔다.}

그럼 품떡, 또 올라 올 꺼 아녀, 푸리. {그럼 품떡, 또 올라 올 거 아니야, 풀이.}

게 풀, 풀, 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미를 매:는 거요. {그 풀, 풀,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미를 매는 거예요.}

그래 아 아:무 옥썴수도 함 다내 썩 매거는 두:버네 가서는 그게 두:번 헨다 두:번, 그 두:번. {그래 아 아무 옥썴수도 한 번 다 내가 썩 매며는 두 번에 가서는 그게 두 번 헨다 두 번, 그 두 번.}

@ 그거또 두: 번? {그것도 두 번?}

거게는 그래 두: 번 해면 호미래 안 매:고, 이 호:리 솔로 가지고 소를 드리 세워 가지고, 그 보스피 가 썩:마~한 보스불 이 저 보구래 끼워 가주고, 내가 그 솔: 대서 타: {거기에는 그래 두 번 하면 호미로 안 매고, 이 호리 솔을 가지고, 솔을 드리 세워 가지고, 그 보습이 그 썩그만한 보습을 이 저 보구래(쟁기)에 끼워 가지고, 내가 그 솔을 대서 타. {거기에는 그렇게 두 번 하면 호미로 안 매고, 이 호리 솔을 가지고 소를 들이 세워 가지고, 그 보습이 썩금한 보습을 이 저 보구래에 끼워 가지고, 내가 그 솔을 대서 타.}

골: 내가 타면 흘 양쪽 부트머는, 그, 아이에 아이 맬 썩게 남자 여자 푸미 열 개 드러 갈 꺼 가트머는 호:미로 내따 두: 번 하머는 다서시 하찰 꺾 업써. {골을 내가 타면 흘이 양쪽으로 부트면, 그, 아이에 아이 맬 썩에 남자 여자 품이 열 개 들어갈 거 같으면 호미로 냅다 두 번 하면 다섯이 할 것 없어.}

그래 그러케 하면서 갠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갠다고.}

@ 아, 그러머는 그 썩그마지만 풀 가통 거도 그냥 한 번 썩 그 호리로 함 번 가:네요. {아, 그러면 그 썩그만 풀 같은 것도 그냥 한 번 썩 그 호리로 한 번 썩 그 호리로 한 번 가:네요.}

@ 이러케 썩: {이렇게 썩.}

그럼 그러케 하지, 그럼.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럼.}

@ 그러면 인제 북돋 끼도 하나요? 부굴. {그러면 이제 북돋기도 하나요? 부굴.}

그럼 이, 저, 푸코? {그럼 이, 저, 푸코?}

그 거기 그래간 보구래, 그 흘래가트네도 고 허꼬:른 곡썩 엄능 걸 내 타자네요. {그 거기 그러니까 보구래, 그 흘래 같아도 그 헛골은 곡식이 없는 걸 내가 타잖아요.}

곡썩 인:는 걸 따내, 그러니까두루 양:짜게 푸코허찌, 이러케 흘기 싸이지. {곡식 있는 걸 따내, 그러니까 양쪽에 푸코하지, 이렇게 흘이 쌓이지.}

@ 음, 그걸 뭘 썩는다고 합니까? {음, 그거를 뭘 썩는다고 합니까?}

그 푸꼬, 푸꼬 주르니야. {그 부꼬, 부꼬 ****}

@ 아, 부꼬준다. {아, 부꼬준다.}

응 두: 벌 부꼬 주는 거지요. {응, 두 벌 부꼬 주는 거지요.}

@ 아, 부꼬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 부꼬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 그러면 그러케 부꼬를 줘서 인제 그냥 나두면 인제 자라자나요. {그러면 그렇게 부꼬를 줘서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요, 그럼 자라지, 그럼. {자라요, 그럼 자라지, 그럼.}

그 저네는 이 시바는 비:료가 이쓰니까 아이, 아이 매:고, 뭐 이렇게 옥썴수 뭐 매:거능 거따 비:료를 주능 거요. {그 전에는 이 지금은 비료가 있으니까 아이, 아이 매고, 뭐 이렇게 옥수수 뭐 매면 거기에다 비료를 주는 거예요.}

요서는 주구 또, 또 두: 버레 주고, 뭐, 뭐, 이 또 이 채서자 그러치마는, 엔:나레는 비:료가 업쓰니 아이 호미나줘 매:고 두: 버레 푸코 주머는, 일기만 잘: 하머는 그대로 크는 거요. {여기에서는 주고 또, 또, 두 벌에 주고, 뭐 뭐 이 또 이 *** 그렇지만 옛날에는 비료가 없으니까 아이 호미 가지고 매고, 두 벌에 푸코 주면 일기만 잘 하면 그대로 크는 거예요.}

음, 베:도 그냥 그냥 크능 거요. {음, 벼도 그냥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무려 이 가무니까 거 씨 씨드러서 앙 커. {그러면 너무 가물어 이 가무니까, 그게 시 시들어서 안 커.}

장마가 지머는 너무 또 물커 가주고 야물지 모 터자네요, 응? {장마가 지면 너무 또 물커 가지고 야무지지 못하잖아요, 응?}

@ 야무진 게 업따고요? {야무진 것이 없다고요?}

@ 응, 업세요, 그러니까, {응, 없어요, 그러니까,}

수와니라 수완, 어른드리 엔:날 어른들 말:쓰미 농사가 풍:너니 지려면 수와를 잘 마쳐야 된다고, 수와니랑 건 비가 비가 알:마께 와야 된다. {수완이라 수완,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 말씀이 농사가 풍년이 지려면 수완을 잘 맞춰야 된다고, 수완이라는 것은 비가 비가 알맞게 와야 된다.}

수와니랑 거 수완.{수완이란 거 수완.}

비가 알:마께, 아이고 요번 비가 와씨면, 애:가 저줄, 모쓰물 찌게 아주 저건 그거 어쉴 찌 저줄 가따 물려안 애가, 아기가 저줄 달게 먹짜네요. {비가 알맞게, 아이고 이번에 비가 왔으면, 애가 젖을, 목 마를 때, 아주 저거 그거 먹고 싶을 때 젖을 갖다 물려야지만 애가, 아기가 젖을 달게 먹잖아요.}

금방 저줄 머근데다가 가따 저줄 저쪽찌를 물리면 어드르게 주문 시러할게 아니요. {금방 젖을 먹은데다가 갖다 젖을, 젖꼭지를 물리면 얼어서 주면 싫어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 저지 목쉴 찌가 엄마가 저줄 가따 물리며는 마시게 면는데, 곡썩또 고썩또 실무런데 그거또 비가 오:늘 와따 이기여. {그러니까 아기도 그 젖이 먹고 싶을 때 엄마가 젖을 갖다 물리면 맛있게 먹는데, 곡식도 곡식도 식물인데 그것도 비가 오늘 왔다 이거야.}

그러면 내일모:레 해가 나오는 뭐가 나:씨니까두로 빔, 빔무리 머거쓰니 잘 크자뇨. {그러면 내일모레 해가 나오는 뭐가 나왔으니까 빗, 빗물을 먹었으니까 잘 크잖아요.}

근데 크나들? 비가 또: 온다 이기여. {근데 *** 비가 또 온다 이거야.}

또 그러면 크:다발키로 여 배 안 부리자, 여피.{또 그러면 ***** 이 배가 ****, **}

한 번 저 올라가고 안 되고, 또 이번 그래 와씨머는 이 부 일쭈이리나 가서, 어느 정도 둥버기 마르고 이럴 찌게 다시 비가 한 번 더 내려 주머는, 또 그때가선 저 고 고 곡썩기 또, 또 더 크며 버리자네요.{한 번 올라가고 안 되고, 또 이번에 그렇게 왔으면 이 일쭈일이나 가서, 어느 정도 둥벽이 마르고 이럴 적에 다시 비가 한 번 더 내려 주면 또 그때 가서 저 고 고 곡식이 또, 또 더 커 버리잖아요.}

비가 안 오고 그냥 일쭈일 마네 와야 되는데 열흘가도 안, 아놔. {비가 안 오고, 그냥 일 쭈일 만에 와야 되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안 와.}

버론 이:쭈일간 아놔. {심지어 이 쭈일 동안 안 와.}

또 담 삼:쭈 삼 치일 이시빌 아놔 하머는 곡썩기 요건 크:지도 모타고, 뻬:배 꼬여 이따 보머는 엽또 모뽕고, 고레 씨드러서 사:라마고 가트면 병:이 드러따 이기여. {또 다음 삼 쭈, 삼 칠에 이십 일 동안 안 오면 곡식이 이건 크지도 못 하고, 뻬뻬 꼬여 있다 보면 엽또 ***, 그대로 시들어서, 사람하고 같으면 병이 들었다 이거야.}

@네.{네.}

병이 드니까 예:정에 이시빌 이구 한 다레 어 왜 비가 온들, 그때 암 씨드러서 주 주 주서기자 너, 그때가서 전소글 모 커 하니까, 클: 세 업짜노. {병이 드니까 예전에 이십일 이고 한 달 동안 비가 오더라도 그때는 시들어서 *****, 그때 가서 전속을 못 크니까, 클 새가 없잖아요.}

그러면 갈:하면 이 저루가 하 뭐 뭐 뱅:거 뱅노니 할 노니 저래가며 그 저네 항 거 이기 뭐 이 꼬치 피어서 망 열매가 달리고 이래 이견는데, 그러케 수와늘 어데 뭐 수와늘 안 마쳐 주며는, 흥:너니 든다, 흥:년. {그러면 갈면 이 저루가 하 뭐 뭐 뱅 거, 뱅 논이 할 논이 저렇게 그 전에 한 게 이게 뭐 이 꽃이 피어서 막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익었는데, 그렇게 수완을 어디에 뭐 수완을 안 맞쳐 주면, 흥년이 든다, 흥년.}

수와늘 잘 마쳐주며는 때를 잘 만지면, 풍녀니 풍녀니 진다 이기여. {수완을 잘 맞쳐 주면 때를 잘 만지면, 풍년이 풍년이 진다 이거야.}

그리고 그 일기가 어떠냐, 이기 엔:날 어른들 말쓰미 일쁘기도 일, 유 유거리 한 처리라고, {그리고 그 일기가 어따냐, 이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일찍이 일, 육 월이 한 철이라고.}

농사꾼도 철:쭈가 이짜네요, 다~. {농사꾼도 철쭈?가 있잖아요.}

곰파~이 사:처레 인는데, 씨아시 뿌려야지 김:매, 타:추해, 응, 타:자캐, 시간 인는데 그 시간 다 노치며는 안 되자네요. {곰팡이는 사철에 있는데, 씨앗 뿌려야지, 김 매, 타추 해, 응, 타작 해, 시간 있는데 그 시간 다 놓지면 안 되잖아요.}

꼬치 필 때 꼬치 폐야조.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야지요.}

응, 이결 때 이거야지.{응, 익을 때 익어야지.}

이, 거, 사:사 아 뭐시기로 안:대 쓴다 이기여. {이, 거, 사 사, 아 뭐 안대 쓴다 이거야.}

그랜, 그런 저그로 요 옥썴수가 메: 쉼치가 될 꺼또 저:거서 메씨리 되고, 메물 콩이 아리 오:시 바리야, 열매가 달리기며는, 그 이러케 키 아뽐씨네가지고 삼십 아리 안 되니까, 그래도 갈:게 가서는 창고에 열: 까마니가 드러 가야 겨우레 머꼬 사는데, 다섯 까마니가 안 되니까두루 겨우레 봄 까지 머그라니 헐 꼭씨기 날 때까지 머글라니깐두루 그 싱냥을 줄 거 논다고. {그런 그런 적으로 이 옥썴수가 몇 쉼치가 될 것도 작아서 메씨리 되고, 메밀 콩이, 알이, 오십 알이야, 열매가 달리면 그 이렇게 키로 까불러 삼십 알이 안 되니까, 그래도 가을에 가서는 창고에 열 가마니가 들어 가야 겨우레 먹고 사는데, 다섯 가마니가 안 되니까 겨우레 봄까지 먹으라니 헐 꼭식이 날 때까지 먹으려니까 그 식량을 줄 거 논다고.}

바불 모:태 머꼬, 메또레 가라서 주 죽, 물 뷔 가주 중:물, 응, 머꼬 이래 이러케 엔:날 사러 사러 와따고. {밥을 못 해 먹고, 멧돌에 갈아서 주 죽, 물을 부어 가지고 죽물, 응, 먹고 이래 이렇게 옛날 살아 살아 왔다고.}

그게 그기 그 내 시저레 내가 시저레 왜 내가 한 삼십 시절까지 그 저까 나오고 삼십 내 삼십 유꾸러 봐:선 인제 보리꼬개가 너머가고, 박정희 양바니 정치를 이러케 으, 그 생활 사어불 해 가주고 그래 가주고 지금 이 싱냥이 전소가 제 도라가고 이래따고. {그게 그게 그 내 시절에 내가 시절에 왜 내가 한 삼십 시절까지 그 ** 나오고, 삼십 내가 삼십 **러 봐서는 이제 보릿고개가 넘어가고, 박정희 양반이 정치를 이렇게 으, 그 생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식량이 전소가 잘 돌아가고 이랬다고.}

비:료가 나오고, 비:료를 들추니까 그까지 모 옥썴수가 마리오.{비료가 나오고, 비료를 들추니까 모, 옥썴수가 말ियो.}

이러케 턱, 뭐야, 덩치도 굴:꼬, 알뚜 마니 드러가져씨우. {이렇게 턱 뭐야, 덩치도 굵고, 알도 많이 들어 가 있어요.}

오:고기 다: 전수가, 비:료 때미네 지금 농사를 지능 거요, 저 배추 모 탄거. {오곡이 다 전수가 비료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 배추 못 한 거.}

그래서 이러케 농초니, 농초니 뭐 모싸라 모싸라 하지마는 사:실 에 모 싸는 게 아닙니다, 농촌도 잘 사래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이, 농촌이 뭐 못 살아 못 살아 하지만 사실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도 잘 살아요.}

지금 요 나두 이런 지불 젼:는데, 나두 요 배:추, 배:청 모: 쓰머 이러거 해서 일 녀네 한 삼천마넌, 이천마너는 다: 애:들 교육글 소 키워 가주, 이러 거 그전 모태, 농초네 대:하꼬를 갈치구 여여 이력, 이력짜리 지불 지꾸 이래. {지금 이 나두 이런 집을 지었는데, 나도 이 배추, 배청 모 심어 이런 거 해서 일 년에 삼천만 원, 이천 만 원은 다 애들 교육을 소 키워 가지고 이런 거 그전에는 못 해, 농촌에 대학교를 가르치고, 이 이 일억, 일억짜리 집을 짓고 이래.}

그 그래가 지 이 지내간 역싸가 멀:지 아나따구요. {그 그러니까 이 지나간 역사가 멀지 않았다고요.}

인제 한, 한 사, 사: 오:십년, 저네는 여기 그, 저 싱냥이 업는 사람 배: 꼬러따, 인저 배:고러따고. {이제 한, 한, 사, 사 오십 년 전에는 여기 그 저 식량이 없는 사람 배 골았다, 배를 골았다고.}

아, 그집 배고러따고. {아, 그집 배 골았다고.}

@ 어르신, 그 옰:나레 보리 농사도 제:셔짜나요? {어르신, 그 옛날에 보리 농사도 지셨잖아요?}

제:쪼 그림. {지었지요, 그림.}

@ 어, 보리 농사를 질 질:때, 보리 종류가 이썸니까? {어, 보리 농사를 질, 지을 때, 보리 종류가 있습니까?}

보리 종류가 갈:보리, 봄 보리 이져. {보리 종류가 가을보리, 봄보리 있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갈:게 가:러, 갈:게 인제 이 인즈, 시방 인제 한참 보리 가러요, 지금. {가을에 가러, 가을에 이제 이, 시방 이제 한참 보리 갈아요, 지금.}

이때 보리 간:다고, 이때. {이때 보리 간다고, 이때.}

이때 보리 갈:른 보리가 어 이:시비리먼 탁: 올라 오자네요. {이때 보리 가는 보리가 어, 이십일이면 탁 올라 오잖아요.}

코:레 누러. {** 노래.}

거 보리가 겨우레 지내가주고, 그 갈:보리요. {그 보리가 겨울을 지나 가지고 그 가을보리요.}

그래 보메, 그 오궐 따레는 보리 비:자네요. {그래 봄에 그 오월 달에는 보리 베잖아요.}

비:고, 봄:보리는 또 보:메 가:러, 보:메.{베고, 봄보리는 또 봄에 갈어, 봄에.}

보:메 인제 사월 오일 지내머는, 인저 보 가 가러서, 거 되면 갈:보리 댐 쪼끔 느께 머거. {그게 되면 가을 보리 보다 조금 늦게 먹어.}

그 보리도 그 그렇거요.{그 보리도 그 그런 거요.}

@ 아, 봄보리는 이제 보메, {아, 봄보리는 이제 봄에.}

가러 그림, 여 밀:, 밀:, 밀:, 청밀:, 현미, 보리는 갈:게 간다고. {갈어 그림, 이 밀, 밀, 밀, 청밀, 현미, 보리는 가을에 간다고.}

봄보리만 보메 갈:지. {봄보리만 봄에 갈지.}

@ 그 여기 쌀보리도 인나요? {그 여기 쌀보리도 있나요?}

쌀보린 업써. {쌀보리는 없어.}

@ 쌀보리...{쌀보리.}

여기 쌀보리 업써. {여기 쌀보리 없어.}

껌떼기 버리지, 그렇 건 안 해 봐따고. {껌대기 버리지, 그런 건 안 해 봤다고.}

@ 아, 건데 여기는, {아, 근데 여기는.}

미만 싸리지, 미만 싸리지. {미만 쌀이지, 미만 쌀이지.}

@ 쌀, 쌀보리는 안 해 보셨어요? {쌀, 쌀보리는 안 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ㄷ

@ 금 여기는 인제 보리농사는 어터케 진:능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보리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보리 농사 아계 애:기 해짜너, 갈:게. {보리 농사 아까 애기 했잖아, 가을에.}

갈:게, 시방 인제 한참 간:다고요, 인제 왜냐면 어 감자, 감자 보메 탁 캐짜네요. {가을에, 시방 이제 한참 간다고요, 이제 왜냐하면 어 감자, 감자 봄에 딱 캐잖아요.}

그럼 인제 그 감자 바테도 이러케 뭐 깨:도 갈:고 뭐 거 두문 두문 그 옥수수, 시먼는데 건 암 빠러서 천, 아, 제:치고 다 제:고, 요새 좀 보리 가:라요, 요새 좀 간:다고. {그럼 이제 그 감자 밭에도 이렇게 뭐 깨도 갈고 뭐 그 두문 두문 그 옥수수, 심었는데 그건 **** 천, 아, 제 치고, 다 짓고, 요새 좀 보리 갈아요, 요새 좀 간다고.}

요새 인제 보리, 한참 갈: 때라고. {요새 이제 보리, 한참 갈 때라고.}

@ 인저 보리, 보리, 콩 또까치 인제 보니까 바틀 가라서, {이제 보리, 보리, 콩 똑같이 이제 보리카 밭을 갈아서,}

@ 아계 그럼 뭐 지근 또까치 가는, 또까치 뭐. {아까 그럼 뭐 ** 똑같이 가는, 똑같지 뭐.}

요 재:래두 재:래들 갈:도록 까러. {이 재래도 재래들 *** 갈아.}

흘:켜 그 다:메 보리, {흘켜 그 다음에 보리.}

@ 제 절, 제라라고 하나요, 저리라고, 저리라고 하나요? {이제 절, 제라라고 하나요, 저리라고, 저리라고 하나요?}

소 두: 마리, 저리소, 저리.{소 두 마리, 저리소, 저리.}

찌리, 저리, 저리라고. {저리, 저리, 저리라고.}

호:리, 하나 하나 가는 건 호:리쑈, 호:리 호:리 보구래, 호:리 간다고. {호리, 하나 하나 가는 건 호리소, 호리 호리 보구래, 호리 간다고.}

두: 개 가는 저:리, 저:리쑈라 그러지. {두 개 가는 저리, 저리소라 그러지.}

저:리 보구래.{저리 보구래.}

@ 예.{예.}

@ 그러케 해서 인제 갈:고, 요 보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갈고, 이 보리는...}

갈:게, 그래 이때 간:다고 이때. {가을에, 그래 이때 간다고 이때.}

@ 이때 가라서 이제 {이때 갈아서 이제,}

보:메 보메, {봄에, 봄에,}

@ 보메 인제 수확글 하자나요? {봄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 근데 이제 보리를 밟기, 보리 밟기도 하나요 여기? {근데 이제 보리를 밟기, 보리 밟기도 하나요, 여기?}

여:는 거 안 해요. {여기는 그거 안 해요.}

압때이는 그 노네 보리, 밟:또 마치 안치만, 연: 보리 밟분제 업씨요. {앞**는 그 논에 보리 밟도 많지 않지만, 여기는 보리 밟는 거 없어요.}

@ 왜 보리를 밟... {왜 보리를 밟...}

아 그래간 보리 밟:능 거는 압때~이모냥 그 저 노래 부르고, 패:라 그런 땅이 드찌 아네요, 드끼 이러케예? {아 그러니까 보리 밟는 거는 앞댕이 처럼 그 저 노래 부르고, 패라, 그럼 땅이 듣지 않아요, 듣기 이렇게?}

대다분 그 돌뿌리가 읍:자네요. {대답은 그 돌뿌리가 읍잖아요.}

그러니깐 그 단단하랴 밟버 주능 거요. {그러니까 그 단단하라고 밟아 주는 거예요.}

그 여게는 우리 시고른 딱 그 땅이 강하자네요. {그 여기는 우리 시골은 딱 그 땅이 강하잖아요.}

@ 강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응, 땅이 이제 말하면, 그, 저 진:흙, 매질, 숙써, 칼질, 매질이라면 아:유 매질 매질 숙써. {응, 땅이 이제 말하면, 그 저 진흙, 매질, 숙써, 칼질, 매질이라면 아유, 매질 매질 숙써.}

그 다:매 뭐 황토, 그래 여러 가지가 이끼 때무네 이러거 갈:쳐젠 탁: 뜨 심: 드러 가지만, 갈:면 물물하지. {그 다음에 뭐 황토, 그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갈 적엔 탁 뜨면 힘 들어 가지만, 갈면 물물하지.}

그럼 씨아시가 드러가 씨아시가 올라 오머는 한 비만 오면 탁, 다진 키가 만:타고. {그럼 씨앗 이 들어가 씨앗이 올라 오면 한 번 비만 오면 탁, 다진 키가 많다고.}

그럼 딱, 땅이 다져, 다져 노니까 발볼 피로 업찌. {그럼 딱, 땅이 다져, 다져 놓으니까 밟을 필요 없지.}

압땡이 간:다고, 압땡이. {앞땡이 간다고, 앞땡이.}

압땡 멀구레 그런데 하지, 그룽거는. {앞에 멀구레 그런데 하지, 그룽거는.}

@ 아, 여긴 그냥 땅이 조끼 때무네 밭구리 안 하네요? {아, 여긴 그냥 땅이 좋기 때문에 밭굴이 안 하네요?}

@ 그럼 그러~, 어떤 행사 가튼 거또 그렁 거 잘 안 해꾸요? {그럼, 어떤 행사 같은 것도 그런 거 잘 안 했고요?}

저:너 불, 보리 밤:는데 뭐 거 노래 부르고 이 그 요리는 뭐 찰:명어거리 여깁 거 업씨요. {저기는 보리, 보리 밟는데 뭐 그 노래 부르고, 이 그 요리는 뭐 ***** 여기는 그런거 없어요.}

그냥 농사 그냥 진능 거요 그대로. {그냥 농사 그냥 짓는 거예요, 그대로.}

@ 아, 반농사 가튼 거, 짐:매기를 한 며 뻔 정도 하나요? {아, 밭농사 가튼 거, 김매기를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다 두: 버리지, 두:벌 매지. {다 두 벌이지, 두 벌 매지.}

엔:날 두: 벌, 시방은 머 시방은 전수 콩가까라지양 그런 곡씨기야 끄름. {옛날 두 벌, 지금은 뭐 지금은 전수 콩 같은 그런 곡식이야 그럼.}

봄부기 지고서는 탁탁탁 이러게 시방은 지금 전소가 이러게 그 경운기 노타 탁 치문 그럼 이 이 뭐 백 평이고, 천 평이고 팽 탁 치머는 그렁 꺼 지지지지 기계이씨요. {봄부기 지고서는 툭툭 툭 이렇게 시방은 지금 전소가 이렇게 그 경운기 모타 탁 치면 그럼 이 이 뭐 백 평이고, 천 평이고 팽 탁 치면 그런 그 지지지지 기계있어요.}

콩 심는 기계. {콩 심는 기계.}

콩 거따가 한: 한: 말 너 가주고, 메 짝 그게 이:만한 콩이, 기계 도라간 세: 개 네: 개 딱 뛰따가 시면 캐:요. {콩을 거기에다 한, 한 말 넣어 가지고, 몇 짝 그게 이만한 콩이 기계 돌아간 세 개, 네 개 딱 두었다가 ** 캐요.}

저 저 저 압땡 논: 마리지, 이 이양기 이씨요. {저 저 저 앞에 논 말이지, 이 이양기 있어요.}

이양기 시면서 여: 그르카이 지끔. {이양기 쓰면서 여기는 그렇게 해요, 지금.}

엔:나렌 저 호미로 시머따,요 호미로. {옛날엔 저 호미로 심었다, 이 호미로.}

호미로 요러케, 파울 딱 딱 옥썬수고 뛰이고 다 그레 싱꼬 그레따고. {호미로 이렇게, 파 딱 딱 옥썬수고 뛰든지 다 그렇게 심고 그랬다고.}

그레 가지고 이제 이 팽:이는 모두 모두 아너주고, 노 올라 올라 오머는, 아이 쌍 내, 아이 아이 사:람, 그레 그 제초제 약뚜 업찌 아무도 업짜네요. {그래서 이제 이 팽이는 모두 ** ****, 올라 올라 오면, 아이 쌍 매, 아이 아이 사람, 그레 그 제초제 약도 없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레니까누 남자 여자나 자기 만: 퍼는 퍼 저 여 부치던, 오천 평을 부치더라도 우리 그 자기 부부, 부부, 부부, 또 고 다:매 지배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자기네 시꾸 뭐 이래 마흔 다:서씨면 그 다 다: 매:능 거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나 자기 만 평을 부치던, 오천 평을 부치더라도 우리

그 자기 부부, 부부, 부부 또 그 답에 집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자기네 식구 뭐 이렇게 마흔다섯이면 그 다 다 매는 거예요.}

그걸 호미로 가따 땅을 다 다: 해, 한 번 짹: 씨꺼 캐베링거예요, 그 곡씨글. {그걸 호미로 가져다 땅을 다 다 해, 한 번 짹 캐버리는 거예요, 그 곡씨글.}

그 땅 캐비거는 두: 버레 가서는 아께 말처럼 소:, 소로 이러 타서, 그래 옴:나레는 소 아니면 농사 못 쪼요. {그 땅 캐고는 두 벌에 가서는 아까 말처럼 소, 소로 일고 타서, 그래 옛날에는 소 아니면 농사 못 지어요.}

소:농사 잘 치, 옴:나레는 그래 **** {소 농사 잘 쳐, 옛날에는 그래 ****.}

@ 아 그러머는, 그 김 매:기를 할 때, 이제 소느로 한 번 매:고, {아, 그러면 그 김 매:기를 할 때, 이제 손으로 한 번 매고,}

@그 다:매 두 번 땀 때는 보통 소를 타네요. {그 다음에 두 번 땀 때는 보통 소를 타네요.}

소로 소로 타조, 다: 타면 소 소 소로 다 끄러. {소로 소로 타지요, 다 타면 소 소 소로 다 끌어.}

그럼 끄내고 갈:지. {그럼 꺼내고 갈:지.}

@ 그 어르신, 그럼 여기서 인제 옴:나레도 서리 가툼 게 이짜나, 서리 해 먹짜나요. {그 어르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도 서리 같은 거 있잖아, 서리 해 먹잖아요.}

서리 해 먹쪼. {서리 해 먹지요.}

@ 어떻 걸 서리 주로 헨나요, 옴:나렌? {어떤 거를 서리 주로 헨나요, 옛날엔?}

여: 서리는 옴:나레, 거 감자 서래, 옥썴수 서리. {여기 서리는 옛날에, 그 감자 서리, 옥썴수 서리.}

서래:를 우리 우리 아:치, 아:들까지 헨나? {서리를 우리 우리 아이, 아이들까지 헨나?}

우리 아:들까점 헨거테. {우리 아이들까지 한 거 같아.}

이 저 저저 요리 이: 거 도랑가 가면 이 저 모래부레든지 월래는 떡밥 트근 바까래 라든지 옴: 깎 바까야 돼. {이 저 저 저 요리, 이 거기 도랑가 가면 이 저 모래부레라든지 원래는 떡밥 ** 바까래라든지 ** 바꿔야 돼.}

저 따~을 파능기여. {저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고, 고 다:매 이짜게 이러케 돌:밍이 가따가서 이 미테 불루 마: 해노코 그 도 우에 이썸 먼 돌: 매:다러.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돌맹이 갖고 가서 이 밑에 불로 마: 해 놓고, 그 도 위에 있으면 돌 매달아.}

@ 네. {네.}

파로 다 켜:머, {파로 다 **}

여:다가 삼: 삼:하는 시그로, 민 처서 모 모태를 노코, 그러구 옥썴수 감자를 다: 끄자, 요리케 착 연차게 노코는, 우에다가 저 여 썸:, 저, 풀, 푸를 가따가 베:다 폭: 덩꼬는 시방은 뭐 비니루가 저꺼든, 하구 업쓰니까 그래구 흘글 가따 미겨, 흘글. {여기에다가 삼, 삼 하는 식으로 밑을 쳐서 모 모태를 놓고, 그리고 옥썴수 감자를 다 꺼내 이렇게 착 연착에 놓고는, 위에다가 저 여 썸, 저 풀, 풀을 갔다가 베서 폭 덮고는 시방은 뭐 비닐이 적었거든, 하고 없으니까 그러고 흙을 갔다가 매꿔, 흙을.}

흘글 폭: 더퍼 노코, 내가 인제 호, 이, 화:지비라 구래, 화:집. {흙을 폭 덮어 놓고, 내가 이제 호, 이, 화집이라 그래, 화집.}

불: 화 짜, 지비라고. {불 화 자, 집이라고.}

탕썸, 걸: 인제 호를 끄러 무더꺼느~. {탕썸, 그걸 이제 흙을 끌러 묻었거든.}

그럼 이기 곧 드러가는 무:니 이썸요. {그럼 여기에 곧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구멍을 서, 서 너 개 놔도. {구멍을 서, 서 너 개 놔도.}

@ 성가게 놔둔다고요? {성각에 놔둔다고요?}

거게 왜냐하머는 뭐요, 옥수수랑 감자를 이러케 서래해 놔:쓰니까 요다가 구녕이 이씨야만 짐: 올라가자네. {거기에 왜냐면 뭐요, 옥수수랑 감자를 이렇게 서리해 놔:쓰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만 김이 올라 가잖아.}

@ 네 네.{네 네.}

그래 이 거 뭐, 무를 인제 뭐 서: 이고 너 이고 인제, 절문 두애지.{그래 이, 거, 뭐, 물을 이제 뭐, 셋 이고, 넷 이고 이제, 절문 두어야지.}

가따 그 다 총각 씨절 하지.{갓다 그 다 총각 시절하지.}

퍼다가따가 그, 그 다:메 구녕을 조금 우로 이래 주머는, 돌:미~이다 무를 주면 그 지:미 인날짜 아니요. {퍼서 가져다가 그, 그 다음에 구멍을 조금 위로 이렇게 주면, 돌맹이에 물을 주면 그 김이 일어날 게 아니요.}

그 지:미 우:에다 싸발라쓰니 갈 때 업짜나, 그럼. { 그 김이 위애가 막혔으니 나갈 때 없잖아, 그럼.}

구녕으로 가, 구녕으로. {구멍으로 가, 구멍으로.}

올라 가 가주 아네 또 짐: 올라와, 짐: 나갈 때 업짜네. {올라 가 가지고 안에 또 김이 올라 와, 김이 나갈 때가 없잖아.}

지:무리 준다, 지:무로. {지물이 준다, 지물로.}

그래 한: 번 주곤 좀 이따가, 한 이십 뿌니나 좀 쉼:가지고, 다시 인제 또 도리 도주:, 도준.{그래 한 번 주고는 좀 있다가 한 이십 분이나 좀 쉬어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돌이 도주, 도준.}

또 쉼: 해서, 어데 그래가주고 삭 대:마도 옴:나래 그러케 한다고. {또 쉼: 해서 어디에 그래 가지고 대마도 옛날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주고 인제 애 좀 꺼내보면 감자, 그 옥수수가 이러고, 광:, 고담 쿵:, 광:재~이 광:재~이라고 이찌, 광쟁이.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꺼내 보면 감자, 그 옥수수가 이렇고, 광, 그 다음 쿵, 광쟁이, 광쟁이라고 있지, 광쟁이.}

그거또 조나 끄내면 다: 다, 이:, 거 아네 꺼 다 인능거요.{그것도 같이 꺼내면 다, 다, 이, 이거 안에 거 다 익는 거예요.}

거: 드러감 고진 안 이거. {거기에 드러가면 고기는 안 익어.}

그래서 성애 부꼬, {그래서 성애를 붓고,}

그러치 아느머는 이러케 저 노래라능 기 돌:맹~이 이쓰면 쉼: 큰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 ** 라는 것이 돌맹이 있으면 제일 큰 거.}

에 저 시 번 쪼가리 가통 거, 고거면 도레 그걸 가따 가서는 노코는, 흘글 강애 감 이 저 두치 처너머네? 짜:올래. {이 저 십 원 쪼가리 같은 거, 그거면 돌에 가져 가서 놓고는, 흙을 강애 가서 이 저 두치 **** 짜올려.}

맹:거::를, 맹:거를 짜:올래 걸.{맨 거를 맨 거를 짜올려, 그걸.}

이래 짜:우리고, 그 새 미테다 모태를 노코는 거:다가 인제 감재, 깡냉이를 또 서래고는, 미테 부를 너:.{이렇게 짜올리고, 그 사이에 밑에다 모태를 놓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감자, 깡냉이를 또 서리하고는 밑에 불을 넣어.}

부를 너: 그 돌매~이가 다라. {불을 넣서 그 돌맹이가 달아.}

달문 제 여기 뒤에다 물 주는 구녀~이 이씨요. {달아 오르면 이제 여기 뒤에다가 물을 주는 구멍이 있어요.}

거다 무를 주머는 미테 돌매~이 다라쓰니까두루 적: 짐: 오르 오자네. {거기에다 물을 주면 밑에 돌맹이가 달았으니까 김이 올라 오잖아.}

그래 가지구 끄내 머거, 서리 그게 서리라고. {그래 가지고 꺼내 먹어, 서리, 그게 서리라고.}

그 감재 설래, 강냉이 설래, 옴:말. {그 감자 서리, 강냉이 서리, 옴:말.}

@ 아, 그럼 걸 하셔쨌요? {아, 그런 걸 하셔쨌어요?}

@ 옴:나레는 그 보리짚, 이게 지:퍼라튼 게 마니 이짜나요. {옛날에는 그 보리짚, 이게 짚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 지푸로 어떠케 해요, 뭘 만드런나요? {짚으로 어떻게 해요, 뭘 만들었나요?}

@ 집 가지고?{짚 가지고?}

보리집 이거는 아니 저 저 전서 보리채 이렇걸 저 썩:게서 바트로 나 나가고, 여게 저, 뭉시기 청머리, 내, 저, 호 호 시방 호:미라구 이찌, 호:밀. {보리짚 이거는 아니 저 저 전속을 보리채 이런 걸 저 썩혀서 밭으로 가지고 나가고, 여기에 저, 뭉 청머리, 내, 저 시방 호밀이라고 있지, 호밀.}

호:밀, 청머리 점부 키 커요. {호밀, 청머리, 전부 키가 커요.}

키가 마흔 네:자, 돼:쓰니까 건두 그 대고~이 빠빠태. {키가 마흔 네 자가 됐으니까 그것도 그 대공이 뽐뽐해.}

그거 인제 떠러서, 그, 곡씨근 인제 가라 가주고 뭉 이 칼국태 해 머꼬, 그러치마는 그 지푼 여 폐 이르기 여:꺼 가주고, 집, 고담 원, 원, 집 말:고도, 인저 화장실 이짜네, 바께.{그거 이제 떨어 가지고, 그 곡식은 이제 갈아 가지고 뭉 이 칼국수 해 먹고, 그렇지만 그 짚은 옆에 이렇게 엮어 가지고, 집 그 다음 원, 원, 집 말고도 화장실 있잖아, 밖에.}

화장실, 방아간, 방아 찼능 거, 거: 이튼 거: 쓰지, 지푸로 가주고. {화장실, 방앗간, 방아 찼는 거, 거기에서 ** 거기에서 쓰지, 짚을 가지고.}

그게 이:영, 거 이:영라 하더, 이:영. {그게 이영, 그거를 이영이라 해, 이영.}

지금 이:영이라 그터. {지금 이영이라고 그래.}

그래면 이:영, 지붕, 지푸로 그래서 그래 존:짚 이러고, 모 수수 더 이찌, 옥수수, 여: 전소가 쏘:를 소: 다 미기지, 콩깍찌 가튼 거는. {그러면 이영, 지붕, 짚으로 그래서 그래 좋은 짚 이러고, 뭉 수수 더 있지, 옥수수, 여기 전소가 쏘를 소 다 먹이지, 콩깍찌 같은 거는.}

어, 소: 꺼 소: 함 번 머켜보래. {어, 소한테 그걸 한 번 먹여봐.}

그 저 저 그 쏘:를 가주고 이 작두에 이르 쏘:를 가주고 시반 뭉시기 막 쏘가져간. {그 저 저 그 쏘를 가지고 이 작두에 이렇게 쏘를 가지고 시방 뭉 막 ****.}

시방 싸람드른 해요? {시방 사람들은 해요?}

옴:나레는 짐, 이 지게를 질머져, 저 저:런 저 상:꼭띠기라 해 상꼭, 건 상꼬때기라는 그때는 쟈 말라요, 쟈말랑. {옛날에는 짐, 이 지게를 짊어져, 저 저런 저 산꼭대기라 해, 산꼭, 그건 산꼭대기라는 그때는 쟈말라요, 쟈말랑.}

우리 쟈말랑이 거게 여:서 봄:, 일 키로 오:백, 한 저 일 키로는 지 질머지고, 그 퇴:비를 해. {우리 쟈말랑이 거기에 여기에서 보면 일 키로 오백, 한 저 일 키로는 지 짊어지고 그 퇴비를 해. }

질머지고 거러가능 거야, 매부리 지고요.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야, 매부리 지고요.}

저 재:를 보고 해찌면 실감 마름 모르고, 저 인저 실:, 옴:나레 미트리 아러요? {저 재를 보고 했지만 **** 모르고, 저 이제 신 육날 미투리 알아요?}

재:시기라고.{재식이라고.}

집썩.{짚신.}

@ 아, 옴:날 미트리요? {아, 육날 미투리요?}

집썩.{짚신.}

네, 네.{네, 네.}

그거 상:꼬, 뭉 그 뭉 어데 운동화 이꼬 어때똥 뭉, 고무신 이찌? {그거 신고 뭉 그 뭉 어디 운동화 있고, 어쨌든 뭉 고무신 있어?}

그거 상:꼬, 오늘 시느문 그 이튼날 가서 자몬, 돌:맹이 그럼 이:틀도 양 가 퍼져. {그거 신고,

오늘 신으면 그 이틀날 가서 자못, 돌맹이 그러면 이틀도 안 가서 퍼져.)

맨발두 마니 땡기구 아이구 ,그이 그때는 시방 그, 우리 손녀, 손자들, 손녀들 시방 그 학생드리나 지금 후:세 시방 아:들 애:길 하면, 시: 뭘: 하라버지네 그래쓸까, 시방 이 이 애:들 클면뇨, 이 크닐 나썸. {맨달로도 많이 다니고 아이고, 그 그때는 시방 그, 우리 손녀 손자들, 손녀들 시방 그 학생들이나 지금 후세 시방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시, 뭘 할아버지네 그랬을까, 시방 이 이 애들이 크면요, 이 큰일 났어.}

고:생이랑 거 모르고 점차 거:. {고생이란 거를 모르고 점차 거.}

우리, 우리 요 저 내 딸, 딸또 올:해 사:십 머근 내 딸도 딸뚜 다: 아려요, 딸뚜. {우리 우리 이저 내 딸, 딸도 올해 사십 먹은 내 딸도 딸도 다 알아요, 딸도.}

그래 요, 그래니깐 이거 짜금 농:사가 이러게 변:동 뵤 기 며 태 안 된다이~. {그래 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농사가 이렇게 변동 된 게 몇 해 안 된다고.}

뭘 애:를 하:꼬 뭘 열아홉 썰 땡길 찌거는 전소그로 내 사:네 가서 일 하면, 그 까, 사:네가 꼬:치도 가치 판 아:드리고, 짐: 땡:찌도 가치 이꼬, 거: 와서 겨테 안저서, 엄마 짐: 매:면 다: 보고, 그 심:부름 다 해따고요. {뭘 애들 학교 뭘 열 아홉 살 다닐 적에는 전속으로 내 산에 가서 일 하면, 그 산애가 고추도 같이 판 아이들이고, 김 땡 때에도 같이 있거, 거기에 와서 곁에 앉아서 엄마가 짐 매면 다 보고, 그 심부름 다 했다고요.}

그래 인저 매틀께, 지금뇨, 인제 한 삼십 년 좌우간 여기 농초니 아래찌분 전소가 패:허가 나오고, 이래 개바리 돼 가주고 천채근 주~이래, 그래써 옴:나레는 이 어두운 시, 정치고, 어두운 시대고, 그만침 옴, 능녀근 이썸도, 모듬 게 안디가 아:푸로 봐 아푸로 이 비행기가 땡기매 약 다치 치자네요.{그래 이제 ***, 지금요, 이제 한 삼십 년 좌우간 여기 농촌이 아래집은 전소가 패허가 나오고, 이렇게 계발이 돼 가지고 천책은 중이래, 그랫어 옛날에는 이 어두운 시, 정치고, 어두운 시대고, 그만큼 옴,능력은 있어도 모든 게 안 되고, 앞으로 봐, 앞으로 이 비행기가 다니며 약 다치잖아요.}

지금 약 다: 치고, 다 하나까두루 가 인제 가마 안:저서 남:뚜루해주께이지. {지금 약 다 치고, 다 하나까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

그래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

@ 예. {예.}

그냥 탄능한 한 애:가 선는데, 여젠 홀: 이, 끄건, 조강꺼보다 뭘 그 천재 영어, 정치는 뭘 췌 외계찌마는, 날라리 가터 애:기여. {그냥 탄능한 한 애가 서 있는데, 이제 *이 그건 *** 보다 뭘 그 천재 영어, 정치는 뭘 췌 외겠지만, 날라리 같아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그, 당군 시대부터 내려 오능 기 매천 년 내려온 식 이고, 글다보니까 각성만지가 생기고, 요:케 김씨굴 제자꿀 고가분지 췌 해서 이: 되는데, 현:재 와서 세: 개, 세:개의 문화를 바다 드려 가지고, 세:개의 어깨를 저울로 하나까두루 영어도 해야 돼, 그러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군 시대부터 내려 오는 것이 몇천 년 내려온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성만지가 생기고, 이렇게 김씨굴, 제자꿀 고가분지 췌 해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와서 세 개, 세 개의 문화를 받아 들여 가지고, 세 개의 어깨를 저울로 하나까 영어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칠천 그 구나라에 가서 뭇 교 그날 그 하고 결혼도 해 가지구 대통령 와따 가따 하고, 정치를 좀 하는데, 건 잘 되는데, {칠천 그 구나라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날 그 하고 결혼도 해 가지고,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정치를 좀 하는데, 그건 잘 되는데,}

그건 조은데, 외:서 대추낭개 대추 요래 들고, 임그왕이 잉그메 임 이러면 되는데, 왜 대추낭개 에다가 임금 임금 나무하고 거다 부쳐 가주고서는 대:추도 안 이진는데 문다 가만드리냐. {그건 좋은데 ** 대추 나무에 대추 이렇게 들고, 임금왕이 임금의 임 이러면 되는데, 왜 대추 나무에다가 임금 임금 나무하고 거기에다 붙여 가지고서는 대추도 안 익었는데 문다 가만들이냐.}

@ 영, 영정이, 영정이 뭐예요? {영, 영정이, 영정이 뭐예요?}

능:금.{능금.}

능금낭기 이써야 되능 거 몰라요? {능금나무 있어야 되는 거 몰라요?}

@ 아 능, 아 능금, 네.{아 능, 아 능금, 네.}

마:실,{마실}

네, 네.{네, 네.}

그게 뭐냐유, 매석 지금 아프로요, 지금 아:드리 지금 뭇: 머꼬 사리 켜, 너무 커.{그게 뭐예요, 매석 지금 앞으로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뭇을 먹고 살이 켜, 너무 커.}

우유 먹쪼? {우유 먹지요?}

@ 네. {네.}

우유. {우유.}

@ 네.{네.}

그래 우유를 도 그냥 두우, 요 요 요 두유 이르지만, 요새는 뭇 밀까루 가지고 맨들던지 뭇 어떤걸 맨드러서 부뉴는데, 공장을 뭇 판: 걸 맨드러서, 야글 너서 부뉴 하지만, 되래 보면 우:유라 구래, 우:유. {그래 우유를 또 그냥 두우, 요 요 요 두유 이르지만, 요새는 뭇 밀가루 가지고 맨들든지 뭇 어떤 걸 만들어서 분유 하는데, 공장을 뭇 다른 거를 만들어서 약을 넣어서 분유 하지만, 되려 보면 우유라고 그래, 우유.}

우유 부뉴. {우유 분유.}

@ 네. {네.}

그래 애:들 엄마가 소라고.{그래 아이들 엄마가 소라고.}

@ 아, 하하하하하.{아, 하하하하하}

오느리, 그런데, 교수님, 그 옴:나레 그 애:기가 아, 하,아:들한테 뭇 아:무 애:기 하다 자꾸 애:길 해, 부타글 하고, 또 뭇이 이러 가르치기도 안 드짜네요. {오늘이 그런데 교수님, 그 옛날에 그 애:기가 아, 하, 아이들한테 뭇 아무 애:기 하다가 자꾸 애:기를 해, 부탁을 하고, 또 뭇 이렇게 가르쳐도 안 듣잖아요.}

그래 뭇라 함니까? {그래 뭇라고 함니까?}

저 자식, 소: 귀에 소:경이 정일 일구만. {저 자식, 소 귀에 소:경이 정일이구만.}

소론 아:무리 애:기 한 드 들기만 하지 마른 모터자네요. {소는 아무리 애:기 한 들 들기만 하지, 말은 못 하잖아요.}

그 소:귀 존 귀여. {그 소귀, 좋은 귀예요.}

거 소 소 소: 정시니라 인는데, {그 소 소 소정신이라 있는데.}

거 지금 애:드리 엄마에 한테 우유는 소: 절 우유를 머그니, 아부진은 남자라 하 할찌라도, 엄마에 유:모에 저를 안 머꼬, 소: 저를 머그니깐두루 그 정시니 소: 정시니라이. {그 지금 아이들이 엄마 한테 우유는 소젖 우유를 먹으니, 아버지는 남자라고 하 할찌라도, 엄마의 유모의 젖을 안 먹고, 소 젖을 먹으니까 그 정신이 소정신이라.}

그 되게썩요? {그 되겠어요?}

뭇써 자기 난:, 아, 나:치 마:라고, 아주 안 나:면 조차네요. {왜 자기가 낳은 아, 낳지를 마라고, 아주 안 낳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난: 아들, 아들 파리머는 귀천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아들 딸이면 귀천해요.}

내 혈쪼 피에 나쓰니까, 두 부부에 겨라베 그저 나:썩머는 내 유:모를 매겨 크머는 그거시 바로 내 자 자식을 가르칭건데, 나:키는 자기 나:파고, 자기 배 아네 커서만 나:썩. {내 혈소 피에 났으니까, 두 부부의 결합에 그 저 낳았으면 내 유모를 먹여서 크면 그것이 바로 내 자 자식을 가르친 건데, 낳기는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배 안에서 커서 낳았어.}

나:와 가지구 바론 공장:을 가따 주고서 공:장을 , 공:장에 누가 키워서 이러면 또, 우유 우유 소 우유를 사다가, 매기고, 자기 편할라고. {나와 가지고 바로 공장에 갔다 주고서 공장을, 공장에서 누가 키워서 이러면 또, 우유 우유 소 우유를 사다가 먹이고, 자기가 편할라고.}

그럼 그기 그 애:가 커선 뭐, 뭐: 되능겨. {그럼 그제 그 애:가 커서 뭐, 뭐:가 되는 거야.}

아무 때거나 공:부 짤 하게찌마는 그기 올리 도지니 답 치능겨요. {아무 때나 공부는 잘 하겠지 만 그제 ** *** 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 아버지한테 돈 안 준다구 아버지 꽤 잡꼬, 얼마하면 지지바지를 가서 마:메 안 든다 이혼하고, 그 그 그 그 지: 정시니 아니지, 그 소, 소 정시니란 애:기요. {그래서 지금 응, 아버지한테 돈 안 준다고 아버지 꽤 잡고, 얼마 있으면 지지바지를 가서 맘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그 그 그 그 제정신이 아니지, 그 소 소정신이라는 애:기요.}

그 내 아주 아주 이런 아이구.{그 내 아주 아주 이런 아이구.}

@ 내 마:미 꼬리야, 엄마 저를 마니 머겨야 되는데 그러케 잘 안 할라구 그러지요. {내 마음이 끓 어야, 엄마 젖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질 안 할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 늑:도 그래서 그 무 무:더러 내 그리 아이구 참두 그제 뭐 그저네 요 그래 소 우유 를 머꾸 나:니깐 저 그 성:냥유리 머리에 소:정시니 드러가 이따고, 소:정시니. {그러니까 내 늑:도 그래서 그 뭐 뭐하러 내 그렇니, 아이고 참두 그제 뭐 그전에 이 그래 소우유를 먹고 나니깐 저 그 ****머리에 소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소정신이.}

그럼 뭐 처:메 이 저 노무새끼, 개:정신 소주도 모타는 거시 이러자네요. {그럼 뭐 처음에 이 저 늑:의 새끼, 개정신 소주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참 그래문, {애:가 참 그렇게 하면,}

@ 예. {예.}

아유, 그러니 내가 이 애:기를 하다 하다 이런데, 이런데 지그미 조:은 세:워리 다 완는데, 왜:서 마으른 요건 아니야. {아유, 그러니 내가 이 애:기를 하다 하다 이러는데, 이러는데 지금 좋은 세월 이 다 왔는데, 왜 어떻게 해서 마음은 이건 아니야.}

그리고 우:유는 소:우유를 먹던, 돼:지 이거를 먹던 뭐 흘글 푸머도 그 짜는건 안 돼:, 우리가 사 시른 흘:게 나, 흘:게 같꼬, 다 흘:게 나, 우리가 탄생한 사라민데, 그래 부모인데, 응, 엄마하문 응 하는 거지. {그리고 우유는 소우유를 먹던, 돼지 이거를 먹던 뭐 흙을 품어도 그 짜는 거는 안 돼, 우리가 사실은 흙에 나, 흙에 가고, 다 흙에 나 우리가 탄생한 사람인데 그래 부모인데 응, 엄마 하면 응 하는 거지.}

얼추는 이어 대창 아버지 해 봐. {얼추는 이어 대창 아버지 해 봐.}

돈: 때미네 아버지 살해해따.{돈 때문에 아버지 살해했다.}

응? 뭐 어때, 아버지 뭐 엄마하고 그래따. {응? 뭐 어때, 아버지 뭐 엄마하고 그랬다.}

이기 아버지가 아들, 아들 살해한 거는 업써, 아들 뭐 미리 사랑인데 마:를 안 드르니까드루, 이 늑:하고 때려주구, 겨:웁 이체를 헨 업하게 하다 보니 그르치. {이게 아버지가 아들, 아들 살해 하는 거는 없어, 아들 뭐 밀어 사랑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하고 때려주고, 겨우 *** 한 것이 업 하게 하다 보니 그렇지.}

하는데 아들려머는 효:자는 모 탈 망정 응, 또 불효를 불효를 모 탈 망정, 그 부모를 살해 하지 마라야지. {하는데 아들은 효자는 못 할 망정, 응, 또 불효를 불효를 못 할 망정, 그 부모를 살해 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 그 개:정시니깐드루 사:라물 부모가 아버지가 사:라무로 안 보이니까드루 아버지 살해 하능 거요. {그래 이 그 개정신이니까 사람을 부모가 아버지가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아버지 살해 하는 거예요.}

그랜 구까에서 이걸 신경을 안 써요, 이걸. {그래 국가에서 이거를 신경을 안 써요, 이걸.}

아:구 클라따, 이 이 우리나라 이 클라따, 스: 이 어특 하면 되나 하구 생가글 하나, 안 다치 뭘. {아구 큰일났다, 이 이 우리나라 이 큰일났다,스, 이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생각을 하나, 안 당지 뭘.}

이 교수님한테 말 하지만 안 돼:. {이 교수님한테 말 하지만 안 돼.}

정치인들도 그러쥬, 정치인 요 여 국회의원들또요, 그 건드른 왜냐머느뇨, 지금 자기들 정: 어 들라고 여성을 마:니 키우자네요. {정치인들도 그렇지요, 정치인 이 여 국회의원들도요, 그 분들은 왜냐면요, 지금 자기들 정 얻으라고 여성을 많이 키우잖아요.}

여성부 장관니 뭘 하능 게 이썬, 여성부 장관니. {여성부 장관이 뭘 하는 게 있어, 여성부 장관이.}

여성부, 여성부 장관니 이썬면 남성, 남성부 장관도 하나 맨드러 봐야 될 거 아니요. {여성부, 여성부 장관이 있으면 남성, 남성부 장관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요.}

여성부 장관하면 여성부 장관해서 그 사람 월그비 얼마짜니요? {여성부 장관하면 여성부 장관해서 그 사람 월급이 얼마짜리요?}

장:관, 장:관해 하고 우리두 부:수들 한 구까에 한 일력 부를 맨드러썬면 그 미테 내려온 그 거 게 뜨더 머글 사라미 얼마냐고. {장관, 장관들 하고 우리도 **들 한 국가에 한 인력 부를 만들었으면 그 밑에 내려온 그 거기에 뜯어 먹을 사람이 얼마냐고.}

@ 제가 이게 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가능하면 저 엄마 엄마 전 마니 머기라고, 제가 꼭 애:길하고 교육글 제, 저의 가튼 사라미 교육글 잘 시키도록 하게썬니다. {제가 이게 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가능하면 저 엄마 엄마 젓 많이 먹이라고, 제가 꼭 애:기를 하고 교육글 제, 저의 같은 사람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썬니다.}

나는 뭇인지 모르지만 그이 참 교수님 꼭 그래 주시오, 거. {나는 뭇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 교수님 꼭 그래 주시오, 거.}

@ 네, 알게썬니다. {네, 알겠썬니다.}

어떤 하라버지가 그랜다고 그래요, 어떤 하라버지 가고, 하튼 뭇시 가니까 하라버지가 탁 그래 애:기 한테, 교수님, 내 마리 마즈머는 그 말썬하고, 마찌 아느면 아이 그냥 저 그 인간 재미, 그 쓰 쓸떼업썬 정신들 식소성이라 아우 회소시기라 아무 회소시기래두 틀리지. {어떤 할아버지가 그 랐다고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 가고, 하튼 어디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탁 그래 애:기 한테, 교수님, 내 말이 맞으면 그 말썬하고, 맞지 않으면 아이, 그냥 저 그 인간 재미, 그 쓰 쓸떼없이 정신들 회소성이라, 아우 회소식이라 아무 회소식이라든 틀리지.}

@ 제가 꼭 학생들한테 그러케 가르치도록 하게썬니다. {제가 꼭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썬니다.}

예. {예.}

@ 예. {예.}

@ 요 어르신, 저 말썬 제가 잘 명심하고요, 예, 꼭 학생들한테 그러케 가르치게썬니다. {어르신, 저 말썬 제가 잘 명심하고요, 예, 꼭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겠썬니다.}

@ 다시 도라 와 가지고요. {다시 돌아 와 가지고요.}

@ 요 어르신, 금 옴:나레 이제 고러케 다: 거뭇 드리머는 가으레 갈:거지 하고, 겨울 사리도 하자 나요. {요 어르신, 그럼 옛날에 이제 그렇게 다 걸어 들이면 가을에 가을 걷이 하고, 겨울 살이도 하잖아요.}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 근데 예저네는 탈곡 하는 걸 어떻게 헨나요? {근데 예전에는 탈곡하는 걸 어떻게 헨나요?}

@ 예를 인제, {예를 이제,}

돌, 돌:게래다 다 해찌. {돌, 돌:게에다 다 했지.}

@ 그니까 베:를 마나게 벼 가통 거를, {그러니까 벼를 만약에 벼 같은 거를,}

베:를 아께 그러자네요, 그거. {벼를 아까 그러잖아요, 그거.}

거 발로 하능 거, 와룽. {그 발로 하는 거, 와룽.}

@ 묘를 베고 나며는 그 답 어터게 하나요, 벼를 베서? {묘를 베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벼를 베서?}

벼를 베:가주고 쪽 까러 깔고, 까라 놔따가 한 이, 시보일 일대로 바싹 마르며는 다시 거더. {벼를 베 가지고 쪽 깔아 깔고, 깔아 놔다가 한 이, 십오 일 일대로 바싹 바르면 다시 걷어.}

거더서 이렇게 탄:, 단: 무꺼, 맨드러 가주고, 맨드러 놔따 어따, 갈: 떠, 이러 가려 놔:따가, 갈러 따 고 답 지베 와 뜰 무네 가 뜰 도라 가주고, 들 말러 씨면 염:차게 마르고, 이러 안 말라씨면 들 뭐야, 제동기, 도약 우:에 가서, 진는 거지. {걷어서 이렇게 탄, 단 묶어,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놔다가 어디에다 **, 이렇게 갈아 놔다가, 갈아 놔다가 그 다음 집에 와서 뜰 문에 가 뜰 돌아 가지고, 덜 말랐으면 염차에다가 말리고, 이렇게 안 말랐으면 들 뭐야, 제동기, 도약 위에 가서 짓는 거지.}

싸를 찢는거지, 찌:가주고, 내머너 쥐 머꼬, 엔:나레는 시방은 저 전소 밭 그 자:두 엔:나렌 노니 막 그 노니 여러 마지기래두 이 가온달 정성거튼 잘 안 되쎄요. {쌀을 찢는 거지, 찢어 가지고, 내 놓으면 쥐 먹고, 옛날에는 시방은 저 전소 밭 그 ** 옛날엔 논이 막 그 논이 여러 마지기라 하더라도 이 *** ****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해 가지고는 쌀 해 가지고는 쌀로 파능기요. {안 되니까 해 가지고는 쌀 해 가지고는 쌀로 파는 거예요.}

인제 이러케 부자집 인제 머 명는 사람 사러 움 산 주고, 끌러 가주고 또 노네 우리가 싸른 한 말 가따 머거찌, 야 일리 두 개 해조. {이제 이렇게 부자집 이제 뭐 먹는 사람 사러 오면 사러 온 사람한테 주고, 끌어 가지고 또 논에 우리가 쌀은 한 말 갔다 먹었지, 야 일리 두 개 해 줘.}

인는 사라문 그러게, 엔:나레 엔:나레도 부익뿌가 이쎄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 옛날에 옛날에도 부익부가 있어요.}

비니뻔 이꼬, 업는 사람 남 일하다 멍능 거요. {빈익빈 있고, 없는 사람은 남 일하다 먹는 거예요.}

그 지베 종 노르타다가. {그 집에 종 노릇하다가.}

@ 그러며는 타:자글 할 때, 타자글 하고 나서, 이제 베를 후터내자나요, 그러며는 그러케 타자글 할 때, 그: 아까 고 와룽와룽 기계가튼 거또 이꼬, 풍:군 풍, {그러면 타작을 할 때, 타작을 하고 나서, 이제 벼를 훑어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타작을 할 때, 그 아까 그 와룽와룽 기계 같은 것도 있고, 풍군 풍.}

풍채. {풍채.}

@ 풍채는 언제 언제 쓰나요? {풍채는 언제 언제 쓰나요?}

돌리능 거요. {돌리는 거요.}

풍채는 저 난제가 얼마 안 돼요, 요게. {풍채는 저 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요기에.}

@ 예, 아유 그때는 엔나레는 안 써꾸요?{예, 아유 그때는 옛날에는 안 썼고요?}

어. {어.}

요 칠: 까부러, 치:..{이 치를 까붙어, 치.}

@ 아, 치:로 까불린, {아, 치로 까불린,}

** 치로. {** 치로.}

아, 그 할머니 저 아주머니 애 먹쪼. {아, 그 할머니 저 아주머니 애 먹지요.}

@ 치로 까불며는 거기 뭐가 이러케 막 생기능 거, {치로 까불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막 생기능 거,}

아, 그래 까부능 거는 그 치는 나 나러 나가고, 치에 나가고, 고 다:메 그 아른 전소가, 치: 아 내, 치:,{아, 그래 까부는 거는 그 치는 나 날러 나가고, 치에 날러 나가고, 그 답에 그 알은 전소가 치 안 해, 치.

그래 이리 까:, 이러 까:불면 여 아네 고, 온 싸른 이제 견저 이래 이러쨌, 그거요? {그래 이렇게 까, 이렇게 까불면 이 안에 고 온쌀은 이제 견저서 이렇게 이렇게 쨌, 그거요?}

그 뿌난 메:밀, 콩:, 강내~이, 그 전소가 치:로 전소가 다 까부능거요, 엔:나레. {그뿐 아니라 메 밀, 콩, 강냉이, 그 전소가 치로 전소가 다 까부리는 거예요, 옛날에.}

@ 뭘로 까분다고요? {뭘로 까분다고요?}

치:, 치:. {치, 치.}

@ 아, 치로? {아, 치로?}

치:로 해썬, 치:. {치로 했어, 치.}

부들, 부들 가주고 맨드능 거. {부들, 부들 가지고 만드능 거.}

부들, 저 저 저 물가에 부두가 치면뇨, 치: 다 이썬요. {부들, 저 저 저 물가에 부두에가 치면요, 치 다 있어요.}

@ 네, 네.{네, 네.}

치: 모 뻘썬요? {치 못 뵈어요?}

@ 네, 봐썬요, 네. {네. 뵈어요, 네.}

@ 부들 가지고 만드능 거. {부들 가지고 만드능 거.}

응, 그래 요롱 기로 만드는데, 건:, 그건 그 치:로 다: 까거든 왜그놓. {응, 그래 이런 기로 만드는데, 그건 그건 그 치로 다 까거든, 왜 그러지요?}

시바니 시방은 뭐 뭐 모이 딸랑 그거는 풍채 가주고 막 까니 막 부부시 돌리면 뭐 새:파러 나:고~ 이거 우코 도라시면 마니요. {시방은 뭐 뭐 뭐 이 딸랑 그거는 풍채 가지고 막 까니까 막 부부시 돌리면 뭐 새파란 것이 나고, 이거 ** **** 많아요.}

@예? 할머니가요? 네. {예? 할머니가요? 네.}

@ 그 그 콩이나 팔 가튼 거도 다 마찬가지로가요? {그 그 콩이나 팔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가요?}

다: 또까쪼. {다 똑같지요.}

응, 그 도리깨로 찌거, 이 도리깨 이썬, 거:기. {응, 그 도리깨로 찌어, 이 도리깨 있어, 거기.}

날개로 돌리자녀.{날개로 돌리잖아.}

@ 네, 네. 그건 좀 이따 여쭙보고요. {네, 네. 그건 좀 이따 여쭙보고요.}

@ 여기 방아, 여긴 방아도 종류가 이썬쪼, 어떤 방아? {여기 방아, 여기엔 방아도 종류가 있었지요? 어떤 방아?}

이 지티딜 뺑아. {이 지티딜 방아.}

@ 예? {예?}

발로 딛능 거.{발로 딛는 거.}

@ 네. {네.}

이 방아 이짜네요, 아께 이 방아 이땡 거, 이 나무 낭그로 가주고 가 가 가까운 베:가 두: 개 이썬 되짜네요. {이 방아 있잖아요, 아까 이 방아 있던 거, 이 나무 나무 가지고 가 , 가 가까운 벼가 두 개 있어 뵈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저 사:람 두:리서 가따 베. {그럼 가서 이제 저 사람 둘이서 갔다 베.}

이 디딜 방아 쿵:더 쿵:더 찌능 교.{이 디딜 방아 쿵덕 쿵덕 찌는 거예요.}

@ 가달 팽이로요? {가달 팽이로요?}

응, 그 디딜 빠~아. {응, 그 디딜방아.}

고담 고담 물레, 물레방아. {그 다음 그 다음 물레, 물레방아.}

물, 물 물싸랑고 툐라 가능거. {물, 물 물살로 돌아 가는 거.}

골러 두 개가 골러 되는데, 이래 이꼬. {골러 두 개가 골러 되는데, 이렇게 있고.}

고 다:메 이제 그 요:즘 요:즘 방아간, 방아간 이짜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요즘 방앗간, 방앗간 있잖아요.}

그땐 그래도 방아간 이씨끼여, 시방.{그땐 그래도 방앗간 있었어요, 시방.}

잔:치는 방아간 찌울기, 도란, 기계로 도라가자네요. {잔치는 방앗간 기울기, 도란, 기계로 돌아가잖아요.}

전기로 해서. {전기로 해서.}

@ 옛날 방아간 말고, 이게 소로 이러케 도라가는 거 인나요, 소로? {옛날 방앗간 말고, 이게 소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나요, 소로?}

그건 아이 그건 아주 고려조 때구요.{그건 아이 그건 아주 고려조 때고요.}

근 그건 아주 고려 시대고, 여기는 꼬럼, {그건 그건 아주 고려 시대고, 여기는 그럼.}

@ 그 그런 방아를 이르물 뭐라고? {그 그런 방아를 이름을 뭐라고?}

그 그 저 저즌 뺑아라 하지. {그, 그 저 젓은 방아라 하지.}

@ 네? {네?}

저즌 방아. {젓은방아.}

@ 자...{자...}

그저 제주도 가머는 제주도 가면 가래, 저 이 고:라 하라버지 그 역싸에 그거또 그거또 다:이따고. {그저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면 **, 저 이 고라 할아버지 그 역사에 그것도 그것도 다 있다고.}

@ 그럼 소로 이러케, {그럼 소로 이렇게.}

그 소로 매:거 가지고, 옥소리 가면 이 저 꺼러가면 이 이 이 꼬테가 이 물:케 가지고, 그래서 까, 껌때기를 까진다 하지. {그 소를 매 가지고, 옥소리 가면 이 저 걸어가면 이 이 이 끝에가 이 물켜 가지고, 그래서 까, 껌때기를 까진다고 하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 그러머는 그, 베:나 보리가튼 경우는 예 남는 껌찔, 그런 껌찔, 이제 종류가 마니 이짜나요. {그러면 그, 벼나 보리같은 경우는 여기에 남는 껌찔, 그런 껌찔, 이제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 보 보리는, 보리는:, 껌찌를 껌찌를 이썸 문제 거, 제:가지고 문데기고, {그럼 아이 보 보리는 보리는 껌찔을 껌찔이 있으면 그걸 제 가지고 문데가지고,}

밀:하고 청밀하고는 건 아 알벼하고 때미래.{밀하고 청밀하고는 그거는 아 알벼하고 때밀어.}

그건 그냥 메포레 그냥 가라 머거요. {그건 그냥 멧돌에 그냥 갈아 먹어요.}

@ 그 다:메 변, 베느뇨?{그 다음에 변, 벼는요?}

베:도 찌야지. {벼도 찢어야지.}

@ 베:는 찢머는 처음 찢을 때 나오는 그 껌찌를 뭐라고 하나요? {벼는 찢으려면 처음 찢었을 때 나오는 그 껌찔을 뭐라고 하나요?}

처음? 아이 건, 아이, 아이, 아이, 아이라고 해찌, 아이 찢:다 구러찌. {처음? 아이 그건 아이, 아이,아이, 아이라고 했지, 아이 찢는다 그랬지.}

아이 두: 벌씩, 아이 이제 찌:머는 껌떡, 껌때기 다 까져. {아이 두 벌씩, 아이 이제 찢면 껌찔,

껍대기 다 까져.}

@ 그 그준 그 제는 뭐라고 하나요? {그 그거는 그 제는 뭐라고 하나요?}

요 그 저넌 그저 그 아:이 심는다 그래, 그건 껍때기를. {이 그 전에는 그저 그 아이 심는다 그 래, 그건 껍때기를.}

@ 아, 근데 고 제를 어 저기 저의 아버니문, 왕:게라고 이러케 하든데.{아, 근데 그 제를 어, 저기 저의 아버님은 왕겨라고 이렇게 하던데.}

아, 껍때기를? {아, 껍때기를?}

아, 껍때기를 왕게라 그래요, 왕게, 왕게 껍때기라 하지. {아, 껍때기를 왕겨라 그래요, 왕겨, 왕 겨 껍때기라 하지.}

베: 껍때기를 왕게 껍때기라 한다고. {벼 껍때기를 왕겨 껍때기라 한다고.}

@ 그건 고게 한 번 더 이게 개:서 보드라운 거능뇨?{그건 거기에 한 번 더 이렇게 개서 보드라운 거는요?}

그거는 뭐라더라.{그거는 뭐라더라.}

@ 그 저기 등게라고 하던데.{그 저기 등겨라고 하던데.}

망게?{망겨?}

@ 왕게? {왕겨?}

등:게 마져, 등:게.{등겨 맞아, 등겨.}

고 다:메 등:게 다:메 고정 쌀 찢는 거는, 아이구 뭐이라 하더라, 또? {그 다음에 등겨 다음에 고 정 쌀 찢는 거는, 아이구 뭐라고 하더라, 또?}

그 그:건 그:건 건 문 때, 그 쌀: 찢는 무른, 그 뭐야, 끄레 가주 멍는데. {그 그건 그건 * * 때, 그 쌀 찢는 물은 그 뭐야, 끓여 가지고 먹는데.}

@ 아 메찌우른? {아 메기울은?}

밀찌울? {밀기울?}

@ 네, 그래 언 언제?{네, 그래 언 언제?}

밀찌우르~ 밀찌우리라능 거는 속, 아덜메 갈:글 빼고, 거틀 거틀 밀찌부로 한다고. {밀기울은 밀 기울이라는 거는 속, 아덜메 갈 글 빼고, 겉을 겉을 밀짚으로 한다고.}

@ 네, 속? {네, 속?}

알:, 알:. {알, 알.}

소 가늘, 껍 껍때기 좀 이짜네. {소 간을, 껍 껍때기 좀 있잖아.}

고:걸 인제 갈기 되고, 제도 개봉이 되고, 고담 끄:테가 좀 썰:거찌. {그걸 이제 가을이 되고 제 도 개봉이 되고, 그 다음 끝애가 좀 썩었지.}

그거 그거 인제, 뭐시라 한다고.{그거, 그거 이제 뭐라고 한다고.}

@ 예, 그럼 인제 그러케 곡씩 타자글 하고 나며는, 그 다:메 고 나문 직, 이짜나 직, {예. 그럼 이 제 그렇게 곡식 타작을 하고 나면, 그 담에 그 남은 직 있잖아 직,}

@ 베짖 마니 이쪼, 베:짖, 그걸로 모 굉장히 옴나렌 마니 여러가지로, {벧짖 많이 있지요, 벧짖, 그걸로 뭐 굉장히 옛날엔 많이 여러가지로,}

아이 베짖: 뭐냐면 요게는, 우리 요 이 동며네 요 삼 요는 대:마를 마니 띠우기래, 대:마가 열 이 이래웁.{아이 벧짖 뭐냐면 이거는, 우리 여기 이 동면에 여기 삼, 여기는 대마를 많이 ****, 대 마가 열이 이래요.}

열뚜 자거든. {열두 자거든.}

@ 예. {예.}

삼:, 삼, 대마, 그러 그 그 그 대: 올라간 정상에 이러그 베:져 가주고, 집 지붕 다 해 따고 지붕 을. {삼, 삼, 대마, 그런 그 그 그 대에 올라간 정상에 이렇게 벧를 지어 가지고, 집 지붕 다 했다

고, 지붕을.)

@ 아 대마르료? {아, 대마르료?}

어, 대마, 그.{어, 대마, 그.}

@근데 옴:나레 베짖 , 옴:나레 {근데 옛날에 벧짖, 옛날에.}

베짖분 아 베짖분, 드러봐라, 베짖폰 {벧짖은 아, 벧짖은 들어봐라, 벧짖은,}

@ 네.{네.}

하:리 짜람들 그 부리찌만 뭐 하자네 ***** {하리 사람들 그 보리 짓지만 뭐 하잖아, *****}

@ 어디 사라미요? {어디 사람이요?}

요 하:리. {여기 하리.}

옴: 하:리랑게 안 이썰요. {여기에 하리라는 게 안 있어요.}

이 석골쩔로 내려가면 하:리라고 한다, 하:리. {이 석골제로 내려가면 하리라고 한다, 하리.}

저쪼글,{저쪽을,}

@ 아 거기를 하:리라고, 아이 하 짜썰서 하:린가? {아, 거기를 하리라고, 아이 하 자 썰서 하린가?}

응, 그러치.{응, 그렇지.}

거게는 대:마를 마니 안 자네요, 안 하니까 그 지붕에 인다고, 베 이츠깁, 거 이 지피라 한다, 아페 요 이:밥 폰 이:밥 .{거기는 대마를 많이 안 짓잖아요, 안 지으니까 그 지붕에 인다고, 벧짖을, 그걸 이 짚이라 한다, 앞에 여기 이 밥은 이밥.}

이: 밥, 쌀 밥, 메밥, {이밥, 쌀밥, 메밥}

@ 네, 네.{네, 네.}

제사 지내고 나면 메밥, 쌀밥,이밥 하자네요. {제사 지내고 나면 메밥, 쌀밥, 이밥 하잖아요.}

그래 거기는 그 이, 베짖풀 이러 이러케 여꺼 가주고, 지붕 다 일꼬, 그담 우리드른 그건 가져와 가지구 이 새:끼 꼬능 겨, 새:끼 알?, 새:끼. {그래 거기는 그게 벧짖을 이렇게 이렇게 엮어 가지고, 지붕에 다 일고, 그 다음 우리들은 그거 가져와서 이 새끼 꼬는 거야, 새끼 일, 새끼.}

잘 쉼? 빈허요, 광:은 요 이 구들, 구드레 깔꺼, 깔 깔지. {잘 쉽게 변해요, 광은 여기 이 구들, 구들에 깔고, 깔, 깔지.}

@ 그러면 짜:끼로 만드능 게, 아니 거 지푸로 만드능 게 아까 이,{그러면 지게로 만드는 것이 아니 그 짚으로 만드는 것이 아까 이,}

장, 장:서.{장, 장서.}

그 장성이라고. {그 장석이라고.}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장석, 명석. {장석, 명석.}

지푸로 가지고 맨드러, 장석 명석 이렇 거 하고, {짚을 가지고 만들어, 장석 명석 이런 거 하고.}

@ 모양이나 크기는 어트게 되나요?{모양이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제 명서그론 할:타시지뵤. {이건 저 명석으로는 하기 나름이지 뵤.}

마당 크:면, 큰 대로, 저금 저:근 대로, 한 말, 다섯 마니 늘 망석, 항 가마니 늘 망석, 연 클쭈록 더 마니 일고, 저글쭈록 저게 일고, 또 자:래도 이 이 장석 짜리도, 방이 여덜 짜면 여덜 짜. {마당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한 말, 다섯 가마니를 망석, 한 가마니를 망석, 이건 클쭈록 더 마니 일고, 작을수록 작게 일고, 또 자리도 이 이 장석 자리도, 방이 여덜 자면 여덜 자.}

@ 건 보통 둥그라케 하나요, 아니며는 네모나케? {그건 보통 둥그라케 하나요, 아니면 네모나케?}

아 망서근 똥그라케하고, 명서근, 고 다:메 장에는 이 방 생긴 대로, 재:가지고 이 고속또를 내:, 이케. {아, 망석은 둥그라케 하고, 명석은 그 다음에 장에는 이 방 생긴 대로, 지서 이 *** 내, 이렇게.}

저 장서가 못 빠써? 우리 요 이 다 인는 노니래요. {저 장서를 못 봤어? 우리 여기 이거 다 있는 논이예요.}

함 다 이따고래. {하면 다 있다고.}

@ 아, 장서카고, {아, 장석하고,}

@ 장:서카고 명석 하곤 어트게 다룅가요? {장석하고 명석하고는 어떻게 다룬가요?}

장서근: 새끼로 꼬 가주고 구들 까능 게 장서기고 방에, 명서그른 새끼를 앙 꼬고, 새끼를 까둔 안 해도 나, 나를 너:서, 자꾸 나를 마:니 파고 너:가주구서는 이 지폴 가주구 요러케 여꺼요.{장석은 새끼로 꼬아 가지고 구들 까는 것이 장석이고 방에, 명석은 새끼를 안 꼬고, 새끼를 까지는 않아도 나, 나를 넣어서 자꾸 나를 많이 파고 너어 가지고서는 이 짚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요.}

요러케 이쫘그로 자:꾸 여꺼가주 그래 그래 한 그게 망서긴데 그건 곡썩, 곡썩 여기에서 어빠.{이렇게 이쪽으로 자꾸 엮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한 그것이 망석인데 그건 곡식, 곡식 여기에서 어빠.}

바께 곡썩 잉:다고 고거는. {밖에 곡식 인다고 그거는.}

@ 그 목, 명서기 더 촌촌하겐네요? {그 목, 명석이 더 촌촌하겠네요?}

쫘 촌촌허지 그럼. {쫘 촌촌하지 그럼.}

@ 네. {네.}

@ 그 다:메 또 그렁 결로 또 뭐 만드룬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결로 또 뭐 만들었나요?}

@ 그기 뭐 싱꼬 다니는, {그게 뭐 신고 다니는,}

집썩, 집썩 사며, 집썩. {짚신, 짚신 삼어, 짚신.}

@ 아, 먼:날로 보통을 하나요? {아, 몇 날로 보통을 만드나요?}

그거 집썩는 네:, 나리 네: 개고, 참시는 여선 나리고. {그거 짚신은 네 날이 네 개고, 참신은 여섯 날이고.}

@ 참시는 뭘로? {참신은 뭘로?}

참시는 저 대:마. {참신은 저 대마.}

대:마 꺾썰로 가주고 그 썰:겨, 그거는 쫘 썰:기다고. {대마 꺾썰을 가지고 그제 질겨, 그거는 쫘 질기다고.}

그걸 가져 파:가주구 전소글 이 요골 꼬고 뭐이 맨드래가주 그건, 한테 그거는, 자색마 시느머는 우리 장마에 썩썩 안 하면 그건 그래도 오:래 사라, 건: 뭘. {그거를 가지고 파 가지고 전속을 이 이거를 꼬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건, 하는데 그거는, 자색마 신으면 우리 장마에 썩지 않으면 그건 그래도 오래 신어 그건 뭘.}

이 시골 땡기면 그 한 보칸 이:시빌까지 상:꼬 땡겨두 건 그치마는, 그 집썩니라능 거는 딱 오래 시:너따, 그래 이래 이래 쫘 비도 오고 축축하면제 인제 한 이틀 신:는데 이 한 사날 썩:는데, 해가 마니 나따, {이 시골 다니면 그 한 복한 이십 일까지 신고 다녀도 그건 그렇지만, 그 짚신이라는 거는 딱 오래 신었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쫘 비도 오고, 축축하면 저거를 이제 한 이틀 신는데, 이 한 사일 신는데, 해가 많이 났다.}

저 이 그 짜드라기라해, 이 경지가. {저 이 그 짜드라기라고 해, 이 경지가.}

@ 네? {네?}

짜드락.{짜드락.}

@ 짜드랑뇨?, 네.{짜들락이요?, 네.}

@ 집썩두 집썩두 {짚신도 짚신도.}

지:꼬 자뜨랑이, 자뜨랑이라능 거, 짜드랑이라능 거는 지금 이거 이러케 이 경사지문 뭘:라 그래 지금, 시방 말로. {짓고 자드랑이, 자드랑이라는 거, 자드랑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 이렇게 이 경사가 지면 뭘라고 그래 지금, 시방 말로.}

@ 비탈길.{비탈길.}

비탈끼라 시방. {비탈길이라 시방.}

@ 예.{예.}

옴:나렌 짜드랑이라 한다고. {옛날에는 자드랑이라고 한다고.}

@ 아, 그 짜드락 저따고요? {아, 그 자드락 졌다고요?}

짜드락, 제 짜드락 바치 가라따고, 짜드락. {자드락, 제가 자드락 받을 갈았다고, 자드락.}

@ 아 저:쪽 바치 짜드락 빠치네요, 그러면 {아 저쪽 발이 자드락 발이네요, 그러면.}

응, 그러치.{응, 그렇지.}

@ 네.{네.}

그런데 가서 돌:맹이가 만차네. {그런데 가서 돌맹이가 많잖아.}

그 시:무 마리아 문:테면 집썬 사무니 하루, 하루에 고 여겨푸나고마리. {그 신은 말이야, 문지르면 쥔신 삼은 것이 하루, 하루에 그 망가지고 말아.}

@ 음.{음.}

이 나:레 나감 모썬:지고마. {이 나리에 나가면 모신 지고.}

나리 사:너 개 이 하먼, 떠러지면 고만, 고: 고무신 마리 묵찌끈 들랑가치워. {나리 4개 이렇게 하먼 떨어지면 그만, 고 고무신 마리 *** 들랑 같이 뭐.}

@ 네.{네.}

그런 시대여:. {그런 시대야.}

그래간 겨우레 여르몹 장:마지고 비 오면 드러 안자서 삼 그 심찌.{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에 장마지고 비 오면 들어 앉아서 삼, 그 심지.}

집씨늘 한 커레 두 커레 싱꼬 내 사, 으 저 사:머가지고, 저: 매:다 놔: {쥔신으르 할 켄레 두 켄레 신고 내 사, 으 저 삼아 가지고, 저기에 매달아 놔.}

그래먼 오늘 오늘 산:짜네. {그러면 오늘 오늘 신잖아.}

오늘 신태가 떠러지면 내 빠리고, 고담 또 꺼 꺼내썬꼬. {오늘 신태가 떨어지면 내버리고, 그 다음 또 꺼 꺼내 신고.}

오느른 업:씨먼 뭐 맨발로 땡겨, 맨발로 마니 땡기다메 막 또. {오늘은 없으면 뭐 맨발로 다녀, 맨발로 많이 다녔다고 막 또.}

@ 네.{네.}

요 맨발또 마니 땡겨, 맨:발로. {이 맨발도 많이 다녀, 맨발로.}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이고. {하이고.}

@ 그 막 바리 마니 다치고 그래쥔네요? {그 막 발이 많이 다치고 그랬쥔네요?}

여기여 여 전세가 썬 전소가 이 말하자면 이러치 뭐. {여기 이 전소가 썬 전소가 이 말하자면 이러치 뭐.}

이 까씨가 쥔려도 잘 안 드러 갈 썬도지 뭐, 구더가지구. {이 가시가 쥔려도 잘 안 들어 갈 썬도지 뭐, 굳어가지고.}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손 앙 그래? {손은 안 그래?}

시방 여르메 거 장가불 찌니, 안 썬 안 되자나, 이제는. {시방은 여름에 거 장갑을 끼니까, 안 끼면 안 되잖아, 이제는.}

찌니 고마 더:워 쥔굴되는데, 옴:나렌 전:소가 이 낭가가 해:도, 까시, 까시거 이썬도 이, 전소가 이 손, 옴:날 소:느로 해. {끼니까 그만 더워 쥔굴되는데, 옛날에 전소가 이 나무를 해도 가시 가시 가시가 있어도 이, 전소가 이 손, 옛날 손으로 해.}

그 찢리면 또 파:내고. 여 여 전체가 이 끄르미 지:고, 뭐 토시가 인나 뭐 인나. {그 찢리면 또 파내고, 이 이 전체가 이 그룹이 지면 뭐 토시가 있나 뭐가 있나.}

명 지방, 그 얘:기하면, 아이구, 우리는 고진감내 흥진비. {지방 그걸 얘:기하자면 아이구, 우리는 고진감내 흥진비야.}

#단, 당거또 머거보고, 씨 썬:거또 뭘 보고, 조아도 보고, 우러도 보고, 고생도 해 보고, 짐 우리는 잘: 사는 거요.{단, 단 것도 먹어 보고, 쓴 쓴 것도 먹어 보고, 좋아도 보고, 울어도 보고, 고생도 해 보고, 지금 우리는 잘 사는 거요.}

#옴:나레 고생해뵈 얘:기두, 옴:나레 고생하지 참, 이, 근데 지방 생강, 지방 생각 하며는 고생한 생가기 항 개도 안 나.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도, 옛날에 고생하지 참, 이 근데 지방 생각. 지방 생각 하면 고생한 생각이 한 개도 앓나.}

내 이러케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레 우리는 고진감내 흥진비란 얘:기가, 당 거도 머꼬 씨꼬 머건는데, 옴:나레 고생은 한 오:십 때까지 해따고. {그레 우리는 고진감내 흥진비란 얘:기가 단 것도 먹고, 쓴 것도 먹었는데, 옛날에 고생은 한 오십 대까지 했다고.}

그레 이개는 삼십 칠러나라두루 방아늘 안 지면 호과를 한다고. {그레 이거는 삼십 칠 년이라 방아를 안 지으면 호과를 한다고.}

지방 농사는 농사 가찌 아니 하네요. {지방 농사는 농사 같지 아니 하네요.}

전속 업씨, 차가 막 바 빠치 다 하지, 나감 경웅기 다 하고, 모 모 모 그져, 옴:나레 이거 해 질 머지고 아께 말 따라 그러케 그러케 소 함 마리씩 물구저는 자:께 말해 팬다게 올라가잠 아니때 루 흘러도 사라따고 그레도. {전속이 없이, 차가 막 발 발을 다 하지, 나가면 경웅기 다 하고, 뭐 뭐 뭐 그러지, 옛날에 이거 해서 짊어지고 아까 말 처럼 그렇게 그렇게 소 한 마리씩 물고 저는 작게 말해 편당에 올라가자, 아니 때로 흘러도 살았다고 그레도.}

그레도 병: 안 들고, 병: 하나도 안 들, 안 들고. {그레도 병 안 들고, 병 하나도 안 들 , 안 들고.}

@ 네. {네.}

요새는 그레도 맹:장, 응, 하나또 업씨, 마궂레 한 사발씩 머꼬 쓰, 거시, 그 아 아라리 해 대미 서. {요새는 그레도 맹장, 응 하나도 없이 막궂리 한 사발 씹 먹고서 그 아 아리랑 하면서.}

@ 네. {네.}

@ 그럼 어르신, 그 아까 그 집썬도 이썬꼬, 그 지폴 이:는 그 지불 이:는 그걸 뭐라고 헐나요? {그럼 어르신, 그 아까 그 쥔신도 있었고, 그 쥔을 이는 그 쥔을 이는 그걸 뭐라고 헐나요?}

지붕. {지붕.}

@ 지붕인는 걸 뭐라고 헐나요?{지붕 이는 거를 뭐라고 헐나요?}

지붕, 지붕요.{지붕, 지붕요.}

@ 지붕에 뭘 인는다, 영? {지붕에 뭘 인다, 영?}

영 요, 이:영, {영이요, 이영.}

@ 예. {예.}

이:영이라 하지, 이:영. {이영이라 하지, 이영.}

@ 아 그걸,{아, 그걸}

그걸 이:영이라 한다고. {그걸 이영이라 한다고.}

@ 아, 그걸 이기도 하, 해쫐? {아, 그걸 잇기도 하, 헐지요?}

그럼 저 여궂 난 그 베궂 가지고 하, 지구 지푸라기 여궂서 하는 그건 이:영, 이:영 영는다 구 래, 영월가찌. {그럼 저 옆에 난 그 벧쥔 가지고 해, 쥔을 지고 쥔을 엮어서 하는 그건 이영, 이영 엮는다 그레. 영을 **.}

일:쩐 지붕 인는다 이라고 , 논는다 그래 지부로. {일전에는 지붕 인는다 이라고, 놓는다 그래
짚으로.}

마:리, 옴:날 말: 뭐 그리 허고. {말이, 옴날 말 뭐 그렇게 하고.}

@ 어르신, 그 옴나레 그 인제 겨울 되면 따뜨테야 되니까, 땀까므로 어떤 걸 썬나요? {어르신, 그
옴날에 그 이제 겨울이 되면 따뜻해야 되니까, 땀감으로 어떤 걸 썬나요?}

@ 겨울 차...{겨울 차...}

겨우레? {겨울에?}

@ 네. {네.}

옴:나레 전소가 사네 가서 짹: 해오지. {옴날에 전소가 산에 가서 짹 해오지.}

화:모.{화모.}

@ 예? {예?}

사네 가서, 사네 가서 인제 {산에 가서, 산에 가서 이제 }

@ 어떻 거 어떻 거, 땀려면, {어떤 거 어떤 거 땀려면,}

#옴:나레는 그 왜냐, 아이 저거 왜냐면 이 구더지, 구, 구:니 주는 서규꾸니 나라에 이찌 아나짜네
요? {옴날에는 그 왜냐하면, 아이 저거 왜냐하면 이 구더취, 군 군이 주는 석유꾼이 나라에 있지
않았잖아요?}

건 건 또 거래 멀고, 그래고 대:로 이 바까~이 이는다고 사들 뒤져, 사니 일찌기 사유 소유꾸니
나고, 내가 이, 저 무 삼병무 이짜네요. {건 건 또 거리가 멀고, 그리고 대로 이 바깥이 인다고 산
을 뒤져, 산이 일찍이 사유 소유권이 나고, 내가 이, 저, 무, 삼병무 있잖아요.}

그건 가주 소 소늘 한 번 구뵈, 그차네요? {그거 가지고 소 소늘 한 번 굽혀, 그렇잖아요?}

그래 아께 내 얘기한 그대로, 그 내가 예:저네 목쌍 가지구 돈: 좀 버러따고, 그래도 생활비를
버러, 버러따고. {그래 아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 그 내가 예전에 목상 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그
래도 생활비를 벌어, 벌었다고.}

@ 어디서요?{어디서요?}

목쌍.{목상.}

@ 예, 목쌍, 그런데 인제, 옴, 어릴 때, 금 어르신네 어릴 때는 인제 땀감, {예, 목상, 그런데 이제
옴 어릴 때, 지금 어르신네 어릴 때는 이제 땀감 ,}

땀:감, 그럼 가서, {땀감, 그럼 가서,}

@ 연탄 업쓰며는 뭐 뭘로 해주난, {연탄 없으면 뭐 무엇으로 해주나,}

#글쎄 그러니까 사네 가서 그 이짜나, 사네 가면, 짜:리, 짜:리 이찌, 짜:리. {글세,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있잖아, 산에 가면 짜리, 짜리 있어, 짜리.}

잠:목 {잔목.}

@ 예.{예.}

장모기 크며는 작:, 크지 아나, 이러케. {잔목이 크면 작, 크지 않아, 이렇게.}

네.{네.}

피:나오면 짜리니 뭐, 인제 소 끄러 그저 내쳐 크자네요? {나오면 짜리니 뭐, 이제 소 끌어 그저
** 크자네요?}

그래면 동네가 오십 호, 삼십 호, 호면 그기 이 삼 년 가면 한:질 지자네요. {그러면 동네가 오
십 호, 삼십 호, 호면 그게 이 삼 년 가면 한 길이 나잖아요.}

그 그거 전소가 베:지, 낭게칭 거 지버 와 가주고, 걸: 꺼꺼서, 모아 그래 노코, 또 소나무 이러
올라가면, 아지. {그 그게 전소가 베지, 나무 친 거 집어 와 가지고, 그걸 꺾어서 모아 그렇게 놓
고, 또 소나무 이러 올라가면, 아지.}

@ 네.{네.}

아지를 그기 여름 하:절기 가서 이러케 처나요. {아지를 그게 여름 하절기에 가서 이렇게 처
나요.}

세: 바리 노코 올라 가주구, 저놈 따:포지면 그 이트 한 이 이 개월랄 일 너네 바니면, 노:나커
바르자네요. {세 발이 놓고 올라 가 가지고, 저놈 딱 포지면 그 이트 한 이 이 개월 날, 일 년에
반이면 *** 바르잖아요.}

그 소꼬바리라고, 소꼬바리.{그 소꼬바리라고, 소꼬바리.}

그거 저다가 그래서 겨울: 준비를 요:새 가, 이, 요:새. {그거를 저다가 그래서 겨울: 준비를 요:새
가, 이 요:새.}

요:새 인진 아프론 겨울 나면 한:달, 안 한: 달.{요즘 인제 앞으로 겨울 나면 한 달, 안 한 달.}

그럼 하루에 석:쩍 썩 파 자러 두면 한두 살, 구:십쯔미요, 구:십썩. {그럼 하루에 석진 썩 파서
잘라 두면 한두 살 구십 짐이요, 구십 짐.}

그러면 덩:거지, 덩:거지가 뭔지 압니까?, 덩:거지.{그러면 덩거지, 덩거지가 뭔지 압니까? 덩
거지.}

@ 모빠쨌요, 덩거지는?{못 봤지요, 덩거지는?}

저 장봉낭거는, 고 다:메 인제 그 정갈항 게 이페~이로 하능 거 장봉낭기고, 덩거지랑 거는 패:
서 또이자내서, 요건 장장, 지금 장자기라 하죠? {저 장봉낭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 게 잎팡이
로 하는 게 장봉낭기고 덩거지라는 거는 패서 또 잘라서 이건 장작, 지금 장작이라 하지요?}

그 덩거지라 합니다, 옴:나레는. {그걸 덩거지라 합니다, 옛날에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응.}

#그래 그런 거또 인제 패:서, 가:래서 노코, 그래 거 불로 때요, 가:메. {그래 그런 것도 이제 패:서,
갈아서 놓고, 그래 그걸 불로 때요. 가:마에.}

가:미서 가:메에서 그걸겐 소이 끼리 주고, 저 온돌빵 이쨌? {가:마에서 가:마에서 그걸 소한테 꿇
여 주고, 저 온돌방 있지요?}

저게 불: 러머는 아래, 아래싸:람 우싸:람, 우싸:라미 하라버지, 아래싸:람 이머는 아버지, 또 아
빵에는 할무이, 그두 중아~에는 어무이, 내 실랑가씨는 우빵, 이러케 말하자면 삼:대 살: 찌거는
그래 부를러면, 안치, 안채에는 바패 멍느라 소테 불르니까두루 아침 저: 너:니까 뜨시고, 사:라문
아치미역 소:주께는 뜨시고, 이 방이 이만큼 뜨끈뜨끈하지 뭐. {저기에 불을 넣으면 아래, 아랫사
람, 윗사람, 윗사람이 할아버지, 아랫사람이면 아버지, 또 앞방에는 할머니, 그리고 중앙에는 어머
니, 내 신랑각시는 윗방, 이렇게 말하자면 삼대가 살 적에는 그렇게 불을 넣으면 안채, 안채에는
밥 해 먹느라 술에 불을 넣으니까 아침 지어 넣으니까 뜨시고, 사리문 앞 소주께는 뜨시고, 이 방
이 이만큼 뜨끈뜨끈하지 뭐.}

그래머는 그 귀:리 메물, 그게 또 떠러 놔:썩 갈:게 가서 가:메 쨌요. {그러면 그 귀리, 메밀, 그
거를 또 떨어 냈으면 가을에 가서 가:마에 쨌어요.}

물 뵈가지구.{물을 부어가지고.}

@ 네. {네.}

그래 쨌: 가주구 다시 말래 가주구, 물: 뵈가지구 쨌:야마니, 오른 찌리 나온다구 허지. {그래 쨌
가지고 다시 말려 가지고, 물을 부어 가지고 쨌야만 오른 찌리 나온다고 하지.}

그래이머는 이기 중:한 애:기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애:기예요.}

@ 네, 네.{네, 네.}

옴:나레 아주 이 지금 통상 저 넥타이 다: 매:고, 뭐 그래도 사오십마넌 찌리, 한 뱅마넌 찌리,
팔시번 찌리, 노마~이 차꼬 땡기쨌? {옛날에 아주 이 지금 통상 저 넥타이를 다 매고, 뭐 그래도
사오십 만원 찌리, 한 백만 원, 팔십 원 찌리, 노팡이 차고 다녔지요?}

@ 뭐 뭘 간다고? {뭐, 무엇을 간다고?}

노마~이. {노망이}

@ 노마이가 뭐죠? {노망이가 뭐지요?}

노마~이 몰라? {노망이 몰라?}

@ 네. {네.}

지금, 지금 요 넥타이 하고 땡기는 이름 뭐요, 그게? {지금 지금 이 넥타이 하고 다니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뭐:라한타고 {뭐라고 한다고?}

@ 마이.{마이.}

마~이.{마이.}

지금 마~이라, 마~이라 하죠? {지금 마이라, 마이라 하지요?}

예 노마이다, 노마이. {이 노마이다, 노마이.}

노:마이 놈:말 이런데, 시방 그 다: 다 이짜네요. {노마이 놈말 이런데, 시방 그 다 다 있잖아요.}

@ 네. {네.}

옴:나레는 삼베지 적쌈, 요 팬때에 뽕:스, 저네 뽕:스라 하지. {옛날엔 삼베지 적쌈, 이 팬티에 뽕쓰, 전에는 뽕스라고 하지.}

그도 그 이 한:겹 이버써. {그것도 그 이 한 겹 입었어.}

@ 네. {네.}

그래도 시방은 이부자리가 좀 조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부자리가 좀 좋아요?}

깔:고 땡꼬 마리오 뭐 깐주근 아유 조건 구지뿐인데, 옴:나레는 그 여:자 장식짜리 깔:머는 덩 땡개 업따고. {깔고, 땡고 말이요 뭐, *** 아유, 저건 ****, 옛날에는 그 여자 장식자리 깔면 땡개 없다고.}

@ 네.{네.}

돈: 업찌, 삼베 적쌈 내:가주고 제우알 이 여르메 하:복 해 입꾸, 그담 겨우레 영광싸람들 민 무:, 무:명하고 광하거버 바꿔가지구 그거 인제 바지 저고리 해구 마라싸, 그거또 인는 사라미 해 이버따고. {돈 업찌, 삼베 적쌈 내가지고 겨우 이 여름에 하복 해 입고, 그 다음 겨울에 영광사람들 무, 무명하고 **** 바꿔 가지고, 그거 이제 바지 저고래 하고 말았어, 그것도 있는 사람이 해서 입었다고.}

야:들 만:코 이러케 큰 사람드른 그름 모타자네요. {애들 많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무를 가메에 찌가지구 미래가따 땅바다게 여러. {그러면 그 메밀을 가마니에 찌가지고 밀에 갔다 땅바닥에 넣어.}

@ 어디에 던다고요? {어디에 던다고요?}

가 가메에 찌 가주고, {가 가마니에 찌 가지고,}

@ 구들해요? {구들 해요?}

어, 방에다가 여러. {어, 방에다가 넣어.}

열곤 장사네 까러. {넣고는 장산에 깔아.}

기냥 부를 때:머는 그게 뜨신 짐:이 야 올라와. {그냥 불을 때면 거기에 뜨거운 김이 올라와.}

@ 어르신, 쪼금만 천천히 줌 말씀해, 예 예.{어르신, 쪼금만 천천히 줌 말씀해, 예 예.}

그기: 그 야기라고, 약. {그게 그 약기라고, 약.}

@ 예.{예.}

사라미 이 바라를 마즈머는 어디가서 쑥:찌물 한다 그래자나, 뭐 영기.{ 사람이 이 바람을 맞으면 어디에 가서 쑥뺨을 한다 그러잖아, 뭐 연기.}

@ 쑥점뇨? {쑥점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그런 그 독써게 지:물 모임 한다고. {근데 이거는 그런 그런 그 *** 김을 모임 한다고.}

그럼 그래구 그 자능겨. {그럼 그렇게 하고 그 자는 거야.}

깨문 새:벽 세: 시는 추 추울게 아니요? {깨면 새벽 세 시는 추 추울 게 아니에요?}

@ 예. {예.}

추우며는 장식 그 미린 드러가능 기요. {추우면 장식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레 가 가주고 걸 장식 그걸 평이라구유. {들어 가 가지고 그 장식 그걸 딱 이라고요.}

시방 바께 사:라미 주거 시방은 주거도, 조:리 이부로 덩짜네요. {지금 밖에 사람이 죽어 지금은 죽어도, 조리 이불로 덮잖아요.}

@ 조:리, 응, 예. {조리, 응, 예.}

시방 다 정는데, {지금 다 적는데.}

그 그때:는 뭐냐하머는 아주 읍:씨 사니까 장식 짜리 미테 추우면 거: 드러가 잔다구요. {그 그때는 뭐냐면 아주 없이 사니까 장식 자리 밑에 추우면 거기에 들어가 잔다고요.}

자봄 조치. {자보면 좋지.}

그래가주 인제 아:드리 한 오형제, 사오형제 되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한 오형제, 사오형제 되잖아요?}

그 마지가 열다섯 썰 되머는, 고 다:매 두: 살 차이, 세: 살 차 이래머는 망내이면 이제 두: 살, 그르초? {그 만이가 열다섯 살 되면 그 다음에 두 살 차이, 세 살 차이, 이러면 막내면 이제 두 살, 그렇지요?}

두:살, 세:살 된다고요. {두 살, 세 살이 된다고요.}

앙 그래요? {안 그래요?}

망내~이가, 동생이.{막내가, 동생이.}

그래 한 방에 자능겨요. {그래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정 추우면뇨, {정 추우면요.}

엔:나렌 이 팬때가 뺑:쓰가 업찌마는 그래두 뭐 열썰 이상 되머는 요 공:방 두:가 이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팬티가 뺑스가 없지만 그래도 뭐 열 살 이상 되면 이 공방 두가 있어야 되는데.}

@ 공:방줄롱.{공방줄롱}

요 고댕이 올라오능 거.{이 고댕이 올라 오는 거.}

질:게 모태둔, 뭐 이편다구 업찌가주구. {질게는 못 해도 뭐 입힌다고, 없어가지고.}

네, 네. {네,네.}

그래 여잘 이푸키문, 그 형들 그런데 마지형도 정치네 해 그럼 이버따. {그래 여자를 입히면, 그 형들 그런데 맞이형도 정초에 해서 그럼 입었다.}

그러면 네:째, 다섯째는 안죽 언:내니까 그냥 여 미테 꼬출 내 노코 땡게. {그러면 넷째, 다섯째는 아직 어린내니까, 그냥 이 밑에 고추를 내 놓고 다녀.}

@ 네.{네.}

그땐 자:지라 하지, 자:지.{그때는 자지라고 하지, 자지.}

그럼 그게 자능 겨. {그럼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 이 가치 인제 형들하고 자고 이러나머는 형드른 여 바지, 저 밤바지를 이버쓰니까두루, 이 끈 낭:치미는 그거뚜 미테 동생은 훌쩍 빼꼬, 꼬추만 다 내쓰니 자 잘게 아니여. {그래 이 같이 이제 형들하고 자고 일어나면 형들은 이 바지, 저 반바지를 입었으니까, 이 끈 낭침은 그것도 밑에 동생은 훌쩍 벗고, 꼬추만 다 내 났으니까 자 잘게 아니요.}

그 아침에 일라머는노, 요 꼬추에 문두가 요 문주가 이래썸 형이 툭툭 터리조. {그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꼬추에 문두가 이 문주가 이렇게 있음 형이 툭툭 털어줘.}

뭐 무더따고, 요꿈네통거, 그러케 컨 사:람드리 바로 우리 우리래요. {뭐 묻었다고, 요꿈내 같은 거, 그렇게 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우리래요.}

기가 매키릴 아니요, 글썸. {기가 막힐 일 아니요, 글썸.}

그때 그 당시에 그 세:위를 보낸 사라미 지금 우리형이라고, 내 뿐 아니라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세월을 보낸 사람이 지금 우리 형이라고, 나 뿐만 아니라고.}

지금 팔십 다섯 밋 칠십 다섯, 요 패드론 이걸 다: 안다고 지금두. {지금 팔십 다섯 밋 칠십 다섯, 이 패들은 이걸 다 안다고 지금도.}

@ 그럼 어르신, 다 이 저 도라가 땀:감, 땀:까메서 소늘,{그럼, 어르신, 다 이 저 돌아가서 땀:감, 땀:감에서 소늘.}

@ 어르신, 그럼 아까 땀:감 중에서 옐날 아까 소, 솔코, 솔:코바리라고 이짜, 이씨짜나. {어르신, 그럼 아까 땀:감 중에서 옐날 아까 소, 솔코, 솔코발이라고 있잖아, 있었잖아.}

응, 소코바리. {응 소코발이.}

@ 소꼬바리 말,{소꼬발이 말,}

소, 저 소:나무. {소, 저 소나무.}

#소:나무 까는 소코바리 한다고. {소나무 까는 소코발이 한다고.}

소나무 가리틀요? {소나무 가지틀요?}

소나무 가지 깔래나문 소꼬바리라 한다, 소꼬바리. {소나무 가지 까고 나면 소꼬발이라 한다, 소꼬발이.}

@ 아, 그러면 고 솔:, 솔: 이게 떠러진 그거를 무슨, 말링 걸 뭐라고 하나요? {아, 그러면 그 솔, 솔 이게 떨어진 그것을 무슨, 말린 거를 뭐라고 하나요?}

그거 소꼬바리라 한다고, {그게 소꼬발이라 한다고.}

@ 소꼬바리요? {소꼬발이요?}

응, 그건 소꼬바리. {응, 그건 소꼬발이.}

@ 갈비라고 마를 안...{갈비라고 말을...}

갈비는 소꼬바리에서 그 저 저 떠러징 거이 또 소꼬바리 타리찌? 파리. {갈비는 소꼬발이에서 저 저 떨어진 것이 또 소꼬발이 털있지? 잎파리.}

@네.{네.}

그거 떠래헨 니 갈:비라고. {그거 떨어진 것이 갈비라고.}

@ 아, 서꼬바리 {아, 석고발이.}

아래 이 떠린 갈:비고, 그 아:지, 이 썸:카난 아지래미 깔링 거는 소꼬바리. {아래 이 떨어진 것이 갈비고, 그 아지, 이 새카만 아지랑이 깔린 거는 소꼬발이.}

@ 아까 그, 불:, 아까 동굴 가튼 데 드러갈 때 불: 이러케 하능 거 이짜노, 불: {아까 그, 불, 아까 동굴 같은 데 들어갈 때 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불.}

@ 불: 발키는 , 그건 뭐로 만드능 거예요?{불 밝히는, 그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 소나무에.{소나무에.}

아께, 소 소까지. {아까, 소 소가지.}

소까지, 소까지, 소까지는 그 소나~기 그, 그 지:니 만차노, 소나무 지:니. {소가지, 소가지, 소가지는 그 소나무 그 그 진이 많잖아요, 소나무 진이.}

@ 네.{네.}

소낭간 인제 비:구, 베:, 이력 굴:군 소낭가늘 베: 치우며는 그 한 십:년, 시보연 이십 년, 그 정도 되며는 다: 써거요, 꼬튼.{소나무 이제 베고, 베, 이렇게 굵은 소나무를 베서 치우면 그 한 십

년, 십오 년, 이십 년 , 그 정도 되면 다 썩어요, 끝은.}
 # 다 썩꼬, 아네 그 속 썩:니, 아네 속 소끼니 말하자머는 그 소나무 그 내려오는 그 뭐시기지. {다 썩고, 안에 그 속 진이, 안에 속 속진이 말하자면 그 소나무에서 그 내려오는 그 뭐야.}
 # 소나무 피:지, 사:라마나따나. {소나무 피지, 사람처럼.}
 # 피:라고 볼 쭈 이썬, 그 소나 그기: 그 속 속 썩:니 올라가 올리 땡기면서 소나~기 크자네요. {피라고 볼 수 있어, 그 소나무 거기 그 속 속 진이 올라가 올라가 다니면서 소나무가 크잖아요.}
 # 그래 그:게 인제 마꼬 그 뿌리 근처에 와서 아네 드러가 가주고, 아네 보면 파썩 말러. {그래 그:게 이제 맞고, 그 뿌리 근처에 와서 안에 들어 가 가지고, 안에 보면 바썩 말랐어.}
 # 말러 가지고 거게 고:애기 이른다, 고:애기가 . {말라 가지고 거기에 고액이 흐른다, 고액이.}
 # 바:썩 말러.{바썩 말라.}
 @ 고애기요? {고액이요?}
 # 고액, 고애:기.{고액, 고액이.}
 # 고애:기랑건 바:썩 말라따 소가 아 아니 뿌리여 파:썩 말림 고 고애기.{고액이라는 거는 바썩 말랐다, 소나무가 아, 아니, 뿌리야, 바썩 말리면 고 고액이.}
 @ 아, 고: {아, 고,}
 # 액:, 애:기. {액, 액이.}
 @ 고애기 된다고요? 고액. {고액이 된다고요? 고액.}
 # 그래 그걸 인제 판:다고. {그래 그걸 이제 판다고.}
 # 사:람드리 가서 파:내가주고 {사람들이 가서 파 가지고.}
 @ 그 소느로 파면 돼요?{그 손으로 파면 돼요?}
 # 아니, 그 고 꼬깨~이 가서 패야지, 어:이. {아니, 그 고 곡괭이 가지고 가서 패야지, 어이.}
 # 힘드려요, 아이.{힘들어요, 아이.}
 # 산 따~이 뿌리 뿌리가 바로 썬:거서, 거트른 썬:꼬, 아넨 안, 안, 아네 인능게 그:게 고애:기라고, {산 땅이 뿌리 뿌리가 바로 썩어서 걸은 썩고, 안에는 안, 안,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고액이라고.}
 @ 네.{네.}
 # 그래 그걸 인제 파는 데는 심:말도 꼬깅이 뭐 이렇게 뒤로 짜놔도 돼. {그래 그걸 이제 파는 데도 힘 말도 곡괭이 뭐 이렇게 뒤로 찌어 놔도 돼.}
 # 떠빙기고 이래 해:고 저 하는데, 걸: 인제 파가주 와 가주고, 지베가따 은제 그 건: 뭐 여:러 집 파요.{떠빙기고 이렇게 하고 저 하는데, 그걸 이제 파 가지고 와 가지고, 집에 갔다 언제 그 건 뭐 여:러 집에 팔아요.}
 # 겨우레 파다가, 옴:나레는 그 지:름도 업짱, 기:름. {겨울에 파다가, 옛날에는 그 기름도 없어, 기름.}
 # 소:경도 업써따고. {소경도 없었다고.}
 @ 네. {네.}
 # 일본 시대 때 그 저 배급, 배그부로 한 병 두 병 식 우리가 바단는데, 고 당시에는 그걸 또개가 주고 코끄랑, 코끌. {일본 시대 때 그 저 배급, 배급으로 한 병 두 병 썩 우리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나누어 가지고 코끄랑, 코끌.}
 @ 네, 아, 네.{네, 나, 네.}
 # 지베 코끌 아니 해고.{집에 코끌 아니 하고.}
 @네, 고거 쭈 이따 다시 설명 쭈 해주시고, 네 네 코끄를. {네, 그거 쭈 이따 다시 설명을 쭈 해주시고, 네, 네 코끌을.}
 # 소꿈, 소까:지 방에. {** 소가지 방에.}
 # 그 소까지 그기: 팔게요. { 그 소가지 그:게 팔게요.}

@ 네. {네.}

아주 발겨타고. {아주 빨강다고.}

@ 네. {네.}

그 고애:기 돼 가주구. {그 고액이 돼 가지고.}

그래 그 도글 도끼래가주 이 이 똥해 가주고 마치 강간:하게 주까치 맨드러 가주고, 성냥 뿌리는 나즈보리 탁: 그래가주 이래 변해머뇨, 꿈 으:터. {그래 그 도글 도끼를 가지고 이 이 동해 가지고 마치 간간하게 죽 같이 만들어 가지고, 석냥 뿌리는 낮으로 탁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변하면 요, ***.}

그럼 이만:치 목짜네요, 다늘. {그럼 이만큼 묶잖아요.}

무꺼가주구 이래 콧: 이래 들머는 그 부리 확: 부짜네요? {묶어 가지고 이렇게 콧 이렇게 들머 그 불이 확 붙잖아요?}

부툼 요게 이 우리 방에 이래썸 전체가 환:하지 뭐. {붙으면 여기에 이 우리 방에 이러면 전체가 환하지 뭐.}

그래가주 구:레 드러가, 구:레 드러가주구 우리가 비둘기 잡꼬 그래따~이. {그래 가지고 굴에 들어가, 굴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비둘기 잡고 그랬다고.}

#옴:나레는 {옛날에는}

@ 비둘기요?{비둘기요?}

비둘기. {비둘기.}

아껴 내 그러자나, 비둘기 자버따고.{아까 내가 그러잖아, 비둘기 잡았다고.}

@ 네, 네.{네, 네.}

@ 아, 그러머는 이제 옴나레는 어 바메 부를 캐는 그 건 어떻게 이썸요? {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밤에 불을 켜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야:간등? {야간등?}

@ 네.{네.}

@ 아니 방에.{아니 방에.}

@ 이 정기 업쓸때요.{이 전기 없을 때요.}

정기 업쓸 켜는 그 지 지르미 하지, 지:름. {전기 없을 때에는 그 기 기름으로 하지, 기름.}

서구지름. {서구기름.}

@ 네. {네.}

그, 유교사:변 후옴 지르미 마:니 나와썸니다. {그 육이오 사변 후에는 기름이 많이 나왔썸니다.}

@ 금 지름 저네느뇨? {그럼 기름 전에는요?}

지름 저네 소까지지. {기름 전에는 소까지지.}

마른 소까지라 소까지 줌비를 마:니 한다고 겨우레 사네 가서 막 파 파다가 마당까:가 졸라 매:. {마른 소까지라 소까지 준비를 많이 한다고 겨울에 산에 가서 막 파, 파다가 마당가에 가 졸라 매.}

해 노코는 심심하면 나가 도 돌끼로 맨드러 가주고 사랑은 사랑, 안빵에 안빵, 코꾸리이썸, 코꿀. {해 놓고는 심심하면 나가서 도 도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랑은 사랑, 안방에는 안방, 코꾸리 있어, 코꿀.}

저 푸대다가 구술 켜서 사:람 코쳐럼 이러케 저 코대달 쪽: 이래 후리고 나서, 이러케 해 노코 미테다 불릴 바쳐노코 거다가 불 해나, 이, 불.{저 푸대에다가 구술을 켜서 사람 코쳐럼 이렇게 저 *** 쪽 이렇게 후리고 나서,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 불일 바쳐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해놔, 이 불.}

그래 뭐 영기는 구두락, 구돌 아네 내문서 매굴짜네요. {그래 뭐 연기는 구돌, 구돌 안에 내면서 매우자네요.}

매우께 내 꼬네 그치만, 거 쪼금 올라 가 가주고, 바끄로 나가다 굴:뚜기 이써, 굴:뚝또. {매우니 까 내 ** 그렇지만, 그 쪼금 올라 가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 굴:뚝이 있어, 굴:뚝도.}

굴:뚝. {굴:뚝.}

그렇게 글 나가. {그러니까 그리로 나가.}

그 바라미 되: 불며는 꼬만 굴:뚜구로 바라미 드려오면, 방에 또 영기가 확: 전체는 뭐 그만 아 네서 뭐 재채기들 하고, 그래 그런 사잔 지드크 사른 꼬:실지. { 그 바람이 되 불면 그만 굴:뚝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방에 또 연기가 확 전체는 뭐 그만 안에서 뭐 재채기들 하고, 그래 그런 ** *** 살이 꼬실리지.}

그럼 그 거게 인제 소까지 부를 행:타가 그 푸꺼져따. {그럼 그 거기에 이제 소까지 불을 하다가 그 불이 폭 꺼졌다.}

꺼지면 그 부:를 살려 가주고 또 불 나야 되자네요. {꺼지면 그 불을 살려 가지고 또 불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드른 난 제 뭐 이렇게 뭐 이 사홀썩 사물 사며.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난 제 뭐 이렇게 뭐 이 사홀 썩 삼을 삼아.}

삼, 베:삼, 한 제를 하머는 꺼지니까 꺼:저 불러, 우리는 안저서 불, 야 니 언:니이 좀 불 좀 놔:라고, 그 불르는다구. {삼, 벧삼, 한 제를 하면 꺼지니까 꺼지면 불러, 우리는 앉아서 불, 야, 니 언 니 좀 불 좀 놓으라고, 그 부른다고.}

그리 꺼지머는 그 부:를 살:리기 위해서 드리대고, 그, 소까지 부:를 부러. {그렇게 꺼지면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들이대고, 그 소까지 불을 부러.}

잉거래가 이쓰니까 드레 후를 부르다 보면 확: 부리 부틀 게 아니요. {인 거리가 있으니까 들어가 후를 부르다 보면 확 불이 붙을 거 아니요.}

그러면 이마게 왜 확: 치다라 가지고, 머리가 확: 꼬시능교. {그러면 이마에 왜 확 치달아 가지고, 머리가 확 꼬실리는 거예요.}

머리가 이래 여: 여:가, 확: 꼬냥 꺼서, 머:리 꼬러게 확 난다고.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확 그냥 꼬셔서 머리 *** 확 난다고.}

그런 시저레 그런, 그러케 살다가 유교사:벼니 난 후에는 지르미 좀 드러가 도랑통으로 오머는 동네다가 장사가 나도 지름 장사해따고. {그런 시절에 그런 그렇게 살다가 육이오 사변이 난 후에는 기름이 좀 들어가 드림통으로 오면 동네에다가 장사가 나도 기름 장사 했다고.}

사변 후에, 한 다라 썩 가따가 동네 피고는 한 명씩 너:주고, 두: 명씩 주머는 고 다 시번 썩 내가 어 이영 머꼬, 그런 장사 해따구요. {사변 후에, 한 다라 썩 갔다가 동네에 피고는 한명 썩 넣어 주고, 두명 썩 주면 그 다 십원 썩 내가 어 이윤을 먹고, 그런 장사를 했다고요.}

@ 등잔 가튼 거또 이쨌나요? {등잔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 그러치. {그 그렇지.}

그 그때 쓴 등장이지 바로. {그 그때 쓴 것이 등장이지 바로.}

@ 언제요? {언제요?}

그 유교사변 저네도 이쨌꼬, 시바사뇨, 일본시대부터 등이 이쨌쨌쨌, 등.{그 육이오 사변 전에도 있었고, 시바사뇨? 일본 시대부터 등이 있었었지, 등.}

호롱뽕을 크는데 소까지 부른 인제, 지르미 마:느머는 소까지 안 하지만 지르믈 그때 일본놈드리 배:그불 줘따, 배:그불. {호롱불을 키는데 소까지 불은 이제 기름이 많으면 소가지는 안 하지만 기름을 그때 일본놈들이 배급을 줬다, 배급을.}

배:급, 배:그비란 뭇이던 동네 인제 예를 드러서 하청와따. {배급, 배급이란 뭇냐면 동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청 왔다.}

그레이머는 굴근 지머는 시꾸 마는 집, 방 마는 지분 두:봉, 자근 지분 병가, 평반, 또 아:주 저

근 지분 한 병, 그램 그걸 그냥 쓰집 저 다름 해 노코, 호룽에다 쪼끄로 노코, {그러면 굶은 집은 식구 많은 집, 방 많은 집은 두 병, 작은 집은 병가, 평반, 또 아주 작은 집은 한 병, 그러면 그걸 그냥 ** 저 달아 매 놓고, 호룽에다 쪽 따라 넣고,}

@ 어디 다라나요? {어디에 달아나요?}

방에다 달매 노코 짐, 병을. {방에다 달아 매 놓고 짐, 병을.}

그래 호룽 소게 오르네 부꼬는 그 불켜 논 땐:하자네요. {그래 호룽 속에 오르네 부꼬는 그 불을 켜 놓으면 땐 하잖아요.}

그걸 계속 키머는 다 떠러져짜네 그래모 한 돈지 이면 그 행사가 나옴 쓸라고, 그 지르믈 애:끼고, 소까지, 소까지 그 코끄레, 그 코끄리라 한다, 코끝. {그걸 계속 키면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한 돈지 이면 그 행사가 나옴 쓸라고, 그 기름을 아끼고, 소가지,소가지, 그 코끄레, 그 코끄리라 한다, 코끝.}

코처럼 생겨따, 코끄레 한다고, 아려요? {코처럼 생겼다, 코끄레 한다고, 알아요?}

@ 네, 네, 아 저 봐습니다, {네, 네, 아 저 봤습니다.}

봐씨요, 고걸? {봤어요, 그걸?}

@ 네, 네, 봐씨요, 네.{네, 네, 봤어요, 네.}

이 그 그 코글 생겨쪼? {이 그 그 코글 생겼지요?}

그래 코끄리요, 거.{그래 코끄리요, 그게.}

@ 네.{네.}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금 어르신, 어르신 그 소도 머기서씨요? {그럼 어르신, 어르신 그 소도 먹이셨어요?}

영? {응?}

@ 소 머깁 거, 보셔씨요, 소? {소 먹이는 거 보셨어요, 소?}

거 소: 내가 파는 제가 인제 {그 소 내가 팔던 때가 이제,}

@ 저쪼게도 소: 이땐데요, 아까도. {저쪽에도 소가 있던데요, 아까도.}

이제, 내가 인제 이 집 이 집 지:꼬는 지끼 저네 소 이 또 이 집 지:꼬는 소 마구간, 마구간도 치워따고. {있지, 내가 이제 이 집, 이 집 짓고는 짓기 전에 소 이 또 이 집 짓고는 소 마구간, 마구간도 치웠다고.}

@ 네.{네.}

여 여:기 인능 거 때려치우니까두루, {여 여기 있는 거 때려치우니까,}

이 소: 안 멩게 올해 십삼 년. {이 소 안 먹인 것이 올해 십삼 년.}

@ 안 메긴지 십 삼년,{안 먹인지 십삼 년.}

십삼 년 그럼 {십삼 년 그럼.}

@ 근데 소 한 마니 머길 때는 멩마리 정도, {근데 소 한, 많이 먹일 때는 몇 마리 정도,}

소 마:니 메길 썩기는 뭐 십, 그 큰 소 두 마리씩 몸 미고, 큰 소 하나, 송아지 하나.{소 많이 먹일 썩에는 뭐 십, 그 큰 소 두 마리씩 못 먹이고, 큰 소 하나, 송아지 하나.}

@ 네.{네.}

응, 송아지 두 :마리, 저 거또 내가 쏘가 쌍:둥이라, 또 쌍:똥이. {응, 송아지 두 마리, 저거 그것도 내가 소가 쌍둥이라, 또 쌍둥이.}

쌍둥이 나:니까 두 마리 그 씨가 서너 마리 술쪼? 서너 말하고, 그래고 뭐 건 아물지. {쌍둥이 나니까 두 마리 그 씨가 서너 마리 ** 서너 말하고, 그러고 뭐 그건 아물지.}

@ 그니까 옛날에는 그 소를 이제 보통 어르게 기르나요, 기를 때는?{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소를 이제 보통 어떻게 기르나요, 기를 때는?}

뭐 송이를 봐야지.{뭐 송아지를 봐야지.}

겨우레는 아 아께 코 그 콩깍찌에 옥수수 꺼, 대공, 이런 조이 그, 소 뭐 이런건 홀 파:가주고, 잡또 썬 너서 그 뜨레가 소 주고, 겨우레.{겨울에는 아 아까 코 그 콩까지에 옥수수 그 대공 이런

** 그 소 뭐 이런 거를 홀 모아 가지고, 잡도 썬어 넣어서 그 뜰에 가서 소 주고, 겨울에.}

@ 아, 그러며는 네, 소를 기를 때 그, 소를 기를려면는 뭘 지어야 되나요? {아, 그러면 소를 기를 때 그, 소를 기르려면 뭘 지어야 되나요?}

@ 어떻게 이썬요, 소 소 기를... {어떤 게 있어요, 소 소 기를...}

기른, 마:구 이짜나, 마구간.{기르는 건 마구 있잖아, 마굿간.}

@ 아, 그거요?{아, 그거요?}

왜 이, 한: 지베 이리케 여덜 카니라 하며는, 마 삼십 평이라 하며는, 안빵, 우빵, 정지문, 가매 쟁지랑 게 이썬, 강냉이 가매 끄는 가매, 큰 강애. {왜 이 한 집에 이렇게 여덜 칸이라 하면 뭘 삼십 평이라 하면 안방, 윗방, 정지문, 가마니 정지라는 게 있어, 강냉이 가마니 끄는 가마니, 큰 강애.}

소주 끼리고, 안정제는 바케 노쿠, 그 가매 가매 인는 담:, 마램 그 구두리 소, 소 방이지 뭘. {소죽 끓이고, 안정지에는 ** 놓고, 그 마니 가마니 있는 담, ** 그 구들이 소, 소 방이지 뭘.}

@ 아, 근데, 예, 그 인제 고 재민는게, 어떤 나, 어떤 도, 어떤 지방을 가며는 소 마구까니 따로 인는데, 저기 제가 아는 조:게 강원도 부평이나 이쥬게 가니까, 정지는 하난데, 요 요 안쥬게는 밥 썬꾸 하는 가마도 이쥬, 고 바로 뒤에 그냥 나무 하나 뒤에 쳐 노코, 마구까니 이썬요. {아, 근데 예, 그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어떤 나, 어떤 도, 어떤 지방을 가면 소 마굿간이 따로 있는데, 저기 제가 아는 쪽에 강원도 부평이나 이쥬에 가니까, 정지는 하난데, 이 이 안쥬에는 밥 쥬고 하는 가마도 있고, 그 바로 뒤에 그냥 나무 하나 뒤에 쳐 놓고, 마굿간이 있어요.}

@ 여기는 어떠케 한나요? {여기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도 여게도 인제 처음엔 인제 그러케 하고, 내중에는 인제 모두 보며는 마:구간, 그 마:구에 소똥내가 저 마니 난다 해 가주구, 그 여페 좀 먼 미다 떠러져서 요리 따로 제: 가주고, 소 여그로 퍼 주기도 하고 그래.{여기도 여기에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모두 보면 마굿간, 그 마구에 소똥내가 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그 옆에 좀 몇 미터 떨어져서 여기에 따로 지어 가지고, 소 여기에다 퍼 주기도 하고 그래.}

그진 뭘 그러케 소키미 다 달려, 다 다 .{그진 뭘 그렇게 소 키우는 것이 다 달려, 다 ,다.}

@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주로 어떠케 하셔썬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서 그러케 해따고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 아, 소를 키울 때, 그냥 가치 그냥 하나에서 썬 썬나요, 그냥,한 마구간? {아, 소를 키울 때, 그냥 같이 그냥 하나에서 썬 썬나요, 그냥 한 마구간?}

한 지비. {한 집에.}

@ 그니까 정지 아네다가 그, {그러니까 정지 안에다가 그,}

아:니, 마구까니 다 카니 달려 이때, 아, 그럼. {아니, 마구간이 다 칸이 달려 있어, 아 그럼.}

아 소킴, 소, 소 마:구까니 따로 이썬, 방빠니 그럼.{아 소 키우면 소, 소, 마구간이 따로 이썬, *** 그럼.}

@ 그럴 때 인제 소 먹기 줄려면는 그 그기 뭘 소 머글 수 이또록 할 썬 인나요? {그럴 때 이제 소 먹이 줄려면 그 그게 뭘 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그 소영, 소구영 이짜나, 소구영. {그 소영, 소구영 있잖아, 소구영.}

@ 아, 소구영. {아, 소구영.}

그 저네 다 아페 큰: 옴나른 아람두리 이러거 부:자짜리 소를 소나무 베: 가주고, 이 소를 팬드러. {그 전에 다 앞에 큰 옛날은 아람들이 이러거 부자짜리 소를 소나무 베어 가지고 이 손을 만 들어.}

이 이러 고여 쥘:다고 요러케. {이, 이렇게 고여 쥘:다고, 이렇게.}

@ 뭇로 치나요? {뭇로 치나요?}

그, 저, 이 뭇 자구가통 거 가 가주고, 저저 파:서, 파:서 퍼 내고, 그럼 고 아네 무리 아무래도 그 엄:청 드러간다고. {그, 저, 이, 뭇 자구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저 저 파서, 파서, 퍼 내고, 그럼 그 안에 물이 아무래도 그 엄청 들어간다고.}

이리 쥘: 항겨.{이렇게 * 하는 거야.}

고게 모 뻘썩, 소영 모뻘썩? {그거 못 봤어, 소영 못 봤어?}

그래 그 소구영이라고. {그래 그 소구영이라고.}

고:거 가통 그거는 거닥 소, 소주 *** 뭇 그래지. {그거 같은 그거는 그닥 소, 소주 *** 뭇 그래지.}

@ 그 소드론 주로 어떤 걸 마니 머건나요?{그 소들은 주로 어떤 걸 마니 먹었나요?}

@ 소들 머기능겨.{소들 먹이는 거.}

그래 배우러 아께 양 그래요, 콩깍찌, 조이겍, 조이, 저이 머시기 대공, 고 담 옥썩수, 요 옥썩수가 이게 조음 거요, 옥썩수.{그래 배우라고 아까 안 그래요, 콩깍지, ***, 조, 저 뭇야 대공, 그 다 음 옥썩수, 이 옥썩수가 이게 좋은 거예요, 옥썩수.}

@ 또 마룻 걸 주나요?{또 마른 걸 주나요?}

아니지, 이거는 작두 썩러 가주구, 가매다가 물: 부꼬, 소 송 마리먼 가매 함 물 그 뚜어 뵤요, 뇨 요통으로, {아니지, 이거는 작두에 썩어 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물을 붓고, 소 송 말리면 가마니에다가 한 번 물을 그 부어요, 요 요통으로.}

@ 나도 뻬 ? {나도 뻬?}

아잉 도:늘 모뻬도, 조를 조를 요 메출부름, 메추름. {아잉, 돈을 못 대도, 조를 조를 이 ****,***}

@ 매초룻이요? {매초룻이요?}

응, 응.{응, 응.}

그래면 사:십 뻬로 머는 사:지 뻬. {그러면 사십 뻬로 머는 사지 뻬.}

개썩로 사:십 뻬 정도 멍이 인는다고. {개썩로 사십 뻬 정도 멍이 잇는다고.}

그래저드 거다 그래 가서는 저, {그렇게 하거든 거기에다 그래 가서는 저,}

@ 요 요 네, 네, 소리를 쯔 노금 쯔 해야 되서, 네. {요 요 네, 네, 소리를 쯔 녹음 쯔 해야 되서, 네.}

사:십 뻬를 부어 가주고, 그, 그저네는 부:자 썩부는 글다가 콩싸래기레 이썩. {사십 뻬를 부어 가지고, 그 그전에는 부자 썩은 거기에다가 콩싸라기라고 있어.}

콩싸라기에 콩, 콩 인제 까불고, 그 밥 방:개가 잘 아주버리기 저 저 싸래기 나가. {콩싸라기에 콩, 콩 이제 까불고, 그 밥 반 개가 잘 아주 버리기 저저 싸래기 나가.}

그래 그걸 모아따가 소를 이제 가끔 타서 주머는, 이 보미 되면 소가 털 빨리 뿔꼬, 저거에 사리 저 나오고, 아주 엄는 사람 그거또 모타머는 그, 소를 겨우네 그런 핑냥을 제대로 모 쥔 소는, 보메 나머는 털도 모 뿔꼬, 소가 패:래서 매른 업썩. {그래 그걸 모았다가 소를 이제 가끔 타서 주면, 이 봄이 되면 소가 털 빨리 뿔고, 저거에 살이 썩 나오고, 아주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하머는 그, 소를 겨울 내내 그런 식냥을 제대로 못 준 소는, 봄에 나면 털도 못 뿔고, 소가 패래서 매른 업썩.}

그리고 부:자 썩부는 곡썩글 쯔 매 매미네, 사리 부:하게 자가주고 그래치. {그리고 부자 썩은

곡식을 좀 먹었기 때문에 사리 부하게 찌가지고 그렇지.}

@ 음...{음...}

@ 그러며는 그 예저네는 그 나메 집 소를 머기기도 하자나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 남의 집 소를 먹이기도 하잖아요.}

@ 그 나*** {그 나***}

그럼, 능사레 나무 시무이지. {그럼, *** 나무 심어야지.}

뭐 업씨 모싸는 사람 소 소도 업따고. {뭐 없이 못 사는 사람은 소 소도 없다고.}

그래 부익, 부익 뿌 빈익 뻔 하면뇨, 부익뻔는 농토도, 토지도 만:코, 그차네요? {그래 부익, 부익 부 빈익 빈 하면요, 부익부는 농토도, 토지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두루 인제 농상 마:니 지나까두루, 이우씨 그 못 싸는 사라미 쌀 함 말, 두 말 가따 머꼬는 그 집 이:를 해 주능 거요. {이러니까 이제 농사를 많이 지나까 이웃에서 그 못 사는 사람이 쌀 한 말, 두 말 갔다 먹고는 그 집 일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이:를 할 쭈 업짜네요, 자기 농지도 업짜네요.{그래 자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농지도 없잖아요.}

나무 농토 부체 가주고, 도시허자네요. {남의 농토 부쳐 가지고, 도시하잖아요.}

노늘, 노늘 부치든 그 옥썴수 하던 하머는, 노니 이래도 한 마지기머는 한 모지베서 쌀 딱 세 나, 서: 마른, 전주가 저들 꺼 아니요. {논을, 논을 부치든 그 옥수수 하던지 하면, 논이 이래도 한 마지기면 한 모지기 에서 쌀 딱 서 말이 나, 서 말은 전주가 자기들 것 아니요.}

그럼 흥년 들면, 그럭 그러케 도중이 주고 나머는 업:는 사람 그 이듬해 가서 배골른다고, 이저 배골,{그럼 흥년이 들면, 그럭 그렇게 도중이 주고 나면 없는 사람은 그 이듬해 가서 배를 골른다고, 이 저 배골,}

싱냥이 모자란 사람, 하, 배 골른다고. {식량이 모자란 사람, 하, 배 골른다고.}

그래 여 또 업씨니 또 또 그 사람데 꺾:다 머꼬, 장:이, 장:이는 모냐면 향 가마이, 한 말 가따 머금 밤 말 가따 쥐, 밤:말. {그래 이 또 없으니 또 또 사람한테 꺾다 먹고, 장이 장이는 뭐냐면, 한 가마니, 한 말 갔다 먹으면 반 말을 갔다 쥐, 반 말.}

그이 그 이짜가 도:느로 말할 꺼 가트면 그기 오:십푸로여, 오십푸로. {그게 그 이자가 돈으로 말할 거 같으면 그게 오십프로야, 오십프로.}

마:년 가따 쓰고, 오:쳐년 가따주면 오:쳐년. {만 원 갔다 쓰고 오천 원 갔다주면 오천 원.}

아라요? {알아요?}

요 그래 그래다 보니까 우:는 우:는 사라문 결론저그로 인는 사라메 돈 빠리 해주구, 인는 사람 이땅 부자 시켜준단 얘:기요. {이 그래 그렇다 보니까 우는 우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있는 사람에 돈 벌이를 해 주고, 있는 사람들만 부자 시켜준다는 얘:기요.}

@ 아이, 고건 쯤 이따 여쭙볼건데요. {아이, 그건 쯤 이따 여쭙볼 건데요.}

@ 그러며는 소를 인제 나메 집 소를 마니 가져 오는 경우에 조꺼는 어떠케 돼요? {그러면 소를 이제 남의 집 소를 많이 가져 오는 경우에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꺼는 그, 저, 농기쇠로 농기쇠로 그냥 농, 농기, 농사 지으니깐 농기소. {조건은 그, 저, 농기 소로 농기소로 그냥 농, 농기, 농사 지으니까, 농기소.}

@ 예.{예.}

농기로 어더 온다고. {농기로 얻어 온다고.}

어더와서, {얻어 와서,}

@ 그걸 농, 농, {그걸 농, 농,}

농기쇠, 농기.{농기소, 농기.}

@ 아, 농기쇠라고 하나요? {아, 농기소라고 하나요?}

응, 농기쇠가 노리 농기소.{응, 농기소가 노래 농기소.}

응, 우리 시대느뇨.{응, 우리 시대는요.}

@ 아, 그냥 이게 어더 온 소를 농기소.{아, 그냥 이게 얻어 온 소를 농기소.}

응, 농기소, 그냥 그 소를 인제 어드가다 내가 가따 암:소 거튼 이걸 말하자머는, 인제 요 쇠 가져와따. {응, 농기소, 그냥 그 소를 이제 얻어다가 내가 갔다 암소 같은 이걸 말하자면, 이제 이 소 가져왔다.}

소를 가져 와씨머는 내 이 농사 지:꼬, 또 후년 농사 한 일 년 칸 지나가면 가져와짜네? {소를 가져 왔으면 내 이 농사 짓고, 또 후년 농사 한 일 년 간 지나가면 가져왔잖아?}

그러면 소가 또 매:놔, 송아지를 함 마리 나:. {그러면 소가 또 매놔,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아.}

그 새끼를 난단그래, 엔:나레는.{그 새끼를 낳는다 그래, 옛날에는.}

그래이머는 이: 태 가서, 그 새끼난 소하고 저 이 쩌 머리쭙 머리 쥐:, 줄 찌게는, {그러면 이 태 가서, 그 새끼 낳은 소하고 저 이 저 머리 쭙 머리 쥐, 줄 적에는.}

인제 지베 마꺠리 한 통자 질머지고, 또 장보 고뻘 해: 가주고, 은행 해 가주고, 저: 알푸레 머루기도 하고, 거덩 머레 주고, {이제 집에 막꺠리 한 통자 쭈어지고, 또 장보 고뻘 해 가지고, 은행 해 가지고, 저 *** ** 하고, ** ** 주고.}

@은행기 한다고요?{은행기 한다고요?}

은행기 요 소귀, 고뻘 잠능겨.{은행기 이 소귀, 고뻘 잠는 거.}

@ 예, 소귀.{예, 소귀.}

그래 가도 모이 주고.{그래 가도 모이 주고.}

요즘 또 음, 유교사:변 이후로는, 그르쑈라고 이쑈, 그르쑈. {요즘 또 음 육이오 사변 이후로는 그르쑈라고 있어, 그르쑈.}

그르쑈란 모냐머는, {그르쑈란 뭐냐면.}

@ 그르, 그르쑈요?{그르, 그르쑈요?}

내가 가따 매기자네요? {내가 갔다가 먹이잖아요?}

이연 매겨주머는, 사지가 일러네 함 마리 나, 가는데, 그 대신 저 지비, 소 준 지비 사:지를 함 마리 쥐. {이 년 먹여주면 사지가 일 년에 한 마리 낳고 가는데, 그 대신 저 집이 소 준 집이 사지를 한 마리 쥐.}

그러농기로, 그러농기. {그러농기로, 그러농기.}

@ 그러농기.{그러농기.}

그러농기는 사:지를 함 마리 요, 이 연 농사 잘 지꼬, 소 **** 얻는다고. {그러농기는 사지를 한 마리 요, 이 년 농사 잘 짓고, 소 **** 얻는다고.}

@ 아, 그문 유기오 저네는 아예 그냥 아무거또, 그런 거 업씨 그냥. {아, 그러면 육이오 전에는 아이에 그냥 아무 것도 그런 것 없이 그냥.}

@ 그냥 그냥 그냥 주기만 하고 아무거또 반는게 업썌네요? {그냥 그냥 그냥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는 게 없었네요?}

그럼.{그럼.}

더러 농사 켜: 사라미 마꺠리 해 가주가 지물 쭙 안쑈서, 아 잘쑈서 이러고, 예:전 지끔 소 쭙 마:니 늘구 이래니까, 고저네 건 농기라능 거는 이: 태에 가따 그래고 사:지를 함 마리 바더따고. {더러 농사를 지은 사람이 막꺠리 해 가지고 가, ** 쭙 앉아서, 아 잘쑈서, 이러고, 예전에, 지금은 소가 쭙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전에 그거 농기라는 거는 이 태에 갔다 그렇고 사지를 한 마리 받았다고.}

@ 아, 근데 보통 소를,{아, 근데 보통 소를.}

@ 그러면, 그러면 그, 아까 아 소를 기르는 쪼꼬로 아까 그, 어 농기소도 이꼬, 그르, {그러면 그

러면 그 아까 아, 소를 기르는 쪽으로 아까 그, 어 농기소도 있고, 그르,}

그르소.{그르소.}

농기소 다:메 그르소. {농기소 다음에 그르소.}

@ 예, 그르소는 이제 자기가 받는 소요? {예, 그르소는 이제 자기가 받는 소예요?}

응, 그럼 사:지를 함 마리 받는 소.{응, 그럼 사지를 한 마리 받는 소.}

바까는 쇠를 가따 매:게 가주고, 사지를 함 마리 받는 기 그르소. {발 가는 소를 갔다 먹여 가지고, 사지를 한 마리 받는 것이 그르소.}

@ 예, 근데 보통 이게 소를 이 가지고 올 때는 암소나 어, {예, 근데 보통 이게 소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암소나 어,}

아, 데리 암소 가주오지. {아, 암소 데리고 가져오지.}

@ 암소를요? {암소를요?}

그럼, 수소는 안 근제, 수소는, 수소는 그거또 그러어티고 바깥기가 틀리자네요, 수소는 만만치 아나요. {그럼 숫소는 안 가져 와, 숫소는 숫소는 그것도 그러어티고, 바깥기가 틀리잖아요, 숫소는 만만하지 않아요.}

수소는 그래고 그기, 암소처럼 요샌 앙 그런데 수소는 낭가니 사:람 뜨자네요. {숫소는 그리고 그제, 암소처럼 요새는 안 그런데 숫소는 낭간에 사람 뜨잖아요.}

수소가 사람 뜰면 그 그 클:란다구. {숫소가 사람 들면 그 그 큰일난다고.}

그러니까 수소:는 이제 엔:나레 그 종모소라고, **** {그러니까 숫소는 이제 옛날에 그 종모소라고, ****.}

수소를 함 마리 그 도 이써야 암소 그, 발정기 할 썩, 발정기 할 썩게, 교배를 해야 되자나요? {숫소를 한 마리 그 두고 있어야 암소 그, 발정기 할 적에 발정기 할 적에 교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엔:나렌 일본 시대 때는 조은 씨 너어서, 그 종자 바들라구, 종, 종모소, {그래 옛날에 일본 시대 때는 좋은 씨 넣어서, 그 종자 받을라고, 종 종모소,}

@ 아, 종모소라고. {아, 종모소라고.}

그 종자 용이라고 조은쇠로 한다고.{그 종자 용이라고 좋은소로 한다고.}

종자씨 바들라고. {종자씨 받을라고.}

그래서 아주 아:주 보면 뭐 썩카:니 모터, 이제 한 사람 매긴다고. {그래서 아주 아주 보면 뭐 새까맣게 못 해, 이제 한 사람이 먹인다고.}

@ 고걸 화소라고? {그걸 화소라고?}

화소, 그럼.{화소, 그럼.}

그럼 모두, 그럼 이제 소가 발정기가 되머는, 모두 그 종모쇠한테 가서 교배를, 교배를 한다고. {그럼 모두 그럼 이제 소가 발정기가 되면 그 종모소한테 가서 교배를, 교배를 한다고.}

그래고 고 다:메 이제 그, 종모쇠가 업씨머는 동네 이제 어떤 사람드른 그 함 마리씩 가따 매기면, 그래 매기면 그럼 따:러, 대:략 저 저 암소 매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모소가 없으면 동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마리씩 갔다 먹이면, 그래 먹이면 그럼 따러 대략 저 저 암소 먹이지.}

용소봉이야 또 송아지 나면, 그 일러네 함 마리씩 나니까두루, 그거두 팔머는 시방 또느로 뭐 사뵈마너니다, 이 뵈마넌 바들 그두 큰 수화기 아니야. {용소봉이야 또 송아지 나면 그 일 년에 한 마리 썩 낳니까, 그것도 팔면 지금 돈으로 뭐 사백만 원 이다, 이 백만 원 받으면 그것도 큰 수확이 아니야.}

@ 네, 그 소 중에 그 아까 수소, 수쇠도 이꼬, 화쇠도 인나요?{네, 그 소 중에 그 아까 숫소, 숫소도 있고, 화소도 있나요?}

아, 수쑤가 화쇠지. {아, 수소가 화쇠지.}

화쇠가 수쑤이고. {화소가 수쑤이고.}

@ 아, 가튼 마린가요? {아, 같은 말인가요?}

@ 어떤 마를 마니 쓰나요? {어떤 말을 많이 쓰나요?}

요 요 와서는 수소라, 수소. {요 요 와서는 수소가, 수소.}

수소지. {수소지.}

@ 아, 예. 이, 예.}

누니빠면 수쇠. {눈이 빠면 수쇠.}

@ 네, 수쇠, 아 예, 수쇠. {네, 수쇠, 아 예, 수쇠}

@ 예, 이쪽 말론, {예, 이쪽 말로는.}

응, 수쇠, 수쇠. {응, 수쇠, 수쇠.}

@ 예, 이쪽 마:를 제가, 저 궁금해 가주구. {예, 이쪽 말을 제가, 저 궁금해 가지고.}

@ 그러면 소를 지를 드려야 되자나, 소 마를 안 드르면, {그러면 소를 길을 드려야 되잖아, 소 말을 안 드르면,}

질 드려야지. {잘 드려야지.}

@ 질 드릴라문 어트게 해야 되나요? {기를 드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질 드릴라문 애 먹지. {아, 길 드릴려면 애 먹지.}

@ 예? {예?}

질 드릴라머는 그거또, {길 드릴려면 그것도,}

@ 가장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영, 그럼 어릴 때 그럼 한 세:살 쯤 되머는 거다 인제 바테 가서 막, 막 띠, 이 소가 말 안 드 쩌. 막 경경 뛰고 마랴. {영, 그럼 어릴 때, 그럼 한 세 살 쯤 되면 거기에다 이제 밭에 가서 막, 막 뛰어, 이 소가 말을 안 듣지, 막 경경 뛰고 말이야.}

말 안 할꺼 아냐 지 모르자네요, 머이 뭔지. {말 안 할 꺼 아냐, 자기가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그럼 사라미 아페 이:끄러야 된다고. {그럼 사람이 앞에 이끌어야 된다고.}

이끈다한다고, 이끈다. {이끈다 한다고, 이끈다.}

이제 고 고삐를 딱 쥐머는, {이제 고 고삐를 딱 쥐면,}

@ 근데 고삐를 쥘려면 뭐가 이 이 풀? {근데 고삐를 쥘려면 뭐가 이 이 풀?}

아 그기 코똥, 이걸 코똥기라 하지, 코똥기야, 위에 코. {아, 그게 콧등, 이걸 코똥기라 하지, 코 똥기야, 위에 코.}

이 건들래지, 코똥래. {이 건들래지, 코똥래.}

건들래 쪼글, 소, 소를 자버. {건들래 쪽을 소, 소를 잡어.}

@ 금 언제 코를 풀른, 푸르능 거? {그럼 언제 코를 풀른, 풀른 거예요?}

그거는, 소가, 한 이, 한 일 련, 한 일 련, 그 좌우간 되면 뜨고 이래. {그거는 소가 한 이, 한 일 년, 한 일 년, 그 좌우간 되면 뜨고 이래.}

@ 아, 어트게 풀버요? {아, 어떻게 풀어요?}

아, 저 머시 나무꼬지, 막달라무 꼬지 이거 가주고 땀:까 가주고선 따:니 쿨, {아, 저 땀이 나무 꽃이, 막달나무 꽃이, 이거 가지고 땀:까 가지고선 따:니까 코를,}

@ 움지기자나요? {움직이잖아요?}

아, 음들음들 모글 또 매:지, 여기를. {아, 음들음들 목을 또 매지, 여기를.}

@ 모글 매요? {목을 매요?}

이 대충 이 매:가주, 저 남자가 아네 저 이 미트로 구녕 내서 따:일매 달며까주 이 썰:걸 이래가 주 꺾: 주, 쿨:다고. {이 대충 이 매 가지고, 저 남자가 안에 저 밑으로 구멍을 내서 딱 이렇게 달

아가지고 이 썬 거를 이래 가지고 꼭 쥔다고.}

그럼 이래가주구, 탁:해가주 콧도 비자네요, 또 비면 요 군드래 가따 때려 쥘:머는 장구 확 꾸머, 나도 뭐에 아무소리 모타는 거여.{그럼 이래 가지고, 탁 해 가지고 콧도 비잖아요, 또 비면 이 군드래 가져다가 때려서 쥘면 장구 확 넣어, 나도 뭐라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 그러면 먼저 코를 뚫코 나서 콧물을,{그럼 먼저 코를 뚫고 나서 콧물을,}

그 꼬지~이를 가주 확 뚫짜네요? {그 콧이를 가지고 확 뚫잖아요?}

@ 네. {네.}

뚫버 쑥 빼면 구멍이 이쉴게 아니요? {뚫어서 쑥 빼면 구멍이 있을 게 아니요?}

그럼 군드래 매맏기서 나뭇 군들래, 이런저. {그럼 군드래 만들어서 나무 군드래 이런 거.}

그럼 군드래 쥘:야지. {그럼 군드래 쥘어야지.}

군드래 뚫그랑통 *** {군드래 뚫그랑게 ***}

응, 그러치, 그래 그래가주 이거 그래 이래가주 어능기, 이게 어능기라고 요게. {응, 그렇지, 그래 그래 가지고 이거 그래 이래 가지고 어능기, 이게 어능기라고 이게.}

@ 이 어능기로 요리케, {이 어능기로 이렇게.}

응, 짜서.{응, 짜서.}

@ 네, 짜서 요리케. {네, 짜서 이렇게.}

응, 그럼 그게 큰 소가 될 거 아니요. {응, 그럼 그게 큰 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질: 대러, 바깥 쪼게, 나제 치머는 여:를 부뜨래야지, 만델 안 비자네요. {그럼 길이 들어서 받을 갈 적에 낮에 치면 여기를 붙들어야지, 만 델을 안 비잖아요.}

코 이러케 되면 아파서, 몬 해자네요. {코가 이러케 되면 아파서, 못 하잖아요.}

그럼 인제 이래면. {그럼 이제 이러면,}

@ 어능기를 부뜨는 거예요?, 어능기 쪼글? {어능기를 붙드는 거예요? 어능기 쪼글?}

그래 가주구 질, 그래 가주구, 아 전 날리지, 막 올라따 내려따 이래면 인제 오늘또 그래고, 고다:매 그더, 요 요즈무는 전속 농:에에는 모를 마:니 무케가주고, {그래 가지고 길을 그래 가지고, 아 전 날리지, 막 올라따 내려따 이러면 이제 오늘또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래, 요 요즘은 전속 농:에에는 모를 많이 묵혀 가지고.}

@ 네? {네?}

멍에, 멍에. 그 멍에란다 보구래 소 이거. {멍에, 멍에, 그 멍에라고 한다, 보구래 소 이거를 }

보구래 멍에 타줄:.{보구래 멍에 타줄.}

저 소가 이래 이래 거러가면 음 이쪽 여게.{저 소라 이렇게 이렇게 걸어 가면 음 이쪽 여기에.}

@ 목쪼게요?{목쪼게요?}

그 그래 모, 모 뺏썬? 멍에 모 뺏썬? {그 그래 못 못 봤어? 멍에 못 봤어?}

@ 아, 멍에. {아, 멍에.}

@ 아, 멍에, 예, 예, 네, 네.{아, 멍에 예, 예, 네, 네.}

그게 멍에라구.{그게 멍에라고.}

이:건 다주리구. {이건 다주리고.}

그럼 멍에 인제 가머는 뒤에다가 령은 하나 다리. {그럼 멍에 이제 가면 뒤에다가 령은 하나 달아.}

저 남갈 토마글 달던지, 한 배끈짜리, 백 오십 다러가주, 싱냥 뭘 자꾸 자꾸 끄러멧게. {저 나무 토막을 달던지, 한 백 근 짜리, 백 오십 달아 가지고, 식량 뭘 자꾸 자꾸 끌어 당겨.}

그럼 여게가, 소가 여게가 우어기 딱 뜨러, 제 여게가. {그럼 여기가, 소가 여기가 우어기 딱 생겨, 제 여게가.}

자꾸 인제 이렇 거기 그거만, 멍에가 모시 간다고, 이게 사:라미 요 손도 여게다 자꾸 문지, 제

때려면 그 꾸룬 구둔 살 베기자네요. {자꾸 이제 이렇게 거기 그거만, 멩에가 모시 간다고, 이게 사람의 이 손도 여기에다 자꾸 문지르면, 제 때려면 그 굳은 살이 베기잖아요.}

항 가지 모가 딱 드러 친다고. {한 가지 모가 딱 들어 친다고.}

그래 그래간 인제 바테, 자:꾸 이 사:람 아페 이끌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밭에, 자꾸 이 사람 앞에 이끌지.}

그래면 인제 여: 어램 한 수를 안 먹짜네요. {그래면 이제 여 어램 한 수를 안 먹잖아요.}

마:를 모태 그러치, 그럼 저 머꼬가능교. {말을 못 해 그렇지 그럼 저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끄거는, 가 다: 가자, 모치:, 하면 쇠구 도라 선다고, 다. {아니 그거는 가다가 가자, 모치, 하면 소가 돌아 선다고, 다.}

@ 아, 그러면 어르신, 고걸 쯔 궁금항 게 인는데, 소를 인제 부릴 때, 소 모는 소리가 이짜나요? {아 그러면 어르신, 그걸 쯔 궁금한 게 있는데, 소를 이제 부릴 때, 소 모는 소리가 있잖아요?}

@ 그럼 소가 이제 이러케 가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그럼 소가 이제 이렇게 가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이러, 이러, 이러지. {이러, 이러, 이렇게 하지.}

이러. {이러.}

이러, 어, 이러. {이러, 어, 이러.}

이러 이러 이랬 혼쳐 가, 이러 이러 하면 모에 뭉기라문 간다고. {이러, 이러 이러면 혼자 가, 이러 이러 하면 모에 뭉기려면 간다고.}

가다가, 가다가 뭉치면 와:. {가다가, 가다가 뭉치면,와.}

와:하, 와:, 이래면 또 쇠가 서요, 가다가. {와하, 와. 이러면 또 소가 서요, 가다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짜까 맨:다 가자네요. {그럼 저쪽에 가서 맨다고 가잖아요.}

땡가 가서는 도라오자나. {매러 가서는 돌아 오잖아.}

오치:, 오치: {오치, 오치.}

요치, 오치. {요치, 오치.}

오씨. {오씨.}

@ 오취. {오취.}

어. {어.}

이러 이씨야 오치:하고 시방 오치를 아러 머거요. {이렇게 있어야 오치하고, 시방 오치를 알아 먹어요.}

@ 아, 그럼 이게 도라서나요? {아, 그럼 이게 돌아서나요?}

그래 도라서면 이 보구래 도는 기계가 가 베:문 간또 이 짜게 쇠가, 쇠가 질: 드리면 사:라문 나한테 그리 자기 꼴 터고 나능거요. {그래 돌아서면 이 보구래 도는 기계가 가서 베면 ** 이 쪽에 소가, 소가 길이 들면 사람은 나한테 그렇기 자기 꼴을 타고 나는 거예요.}

@ 꼴 타곤. {꼴을 타곤.}

그럼. {그럼.}

아 제리도 부디, 돌: 가려 이러 가자네요? {아, 제리도 부디, 돌 갈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이여 복, 족판네 살:미 이러간 소투 저래 응, 오치: 하무네, 비그래가 딱 빠러 스고 이게, 이:: 도라서, 딱 찌가 서, 차올라 간다구요. {가다가 이여 복, 족판에 ** 이러니깐 소도 저래 응, 오치, 하면 비그래가 딱 빠러 서고 이게, 이 돌아서 딱 지가 서 차올라 간다고요.}

그 보면 참 탄보카지. {그거 보면 참 탄복하지.}

@ 음, 그러머는. {음, 그러면.}

그래 지를 드린다고, 기를 드린다고. {그렇게 길을 드린다고, 길을 드린다고.}

@ 그러며는 그 소를, 예를 드려서, 아, 소 모는 데, 이 소가 바깥, 소가 가는데 이 소가 이 쪽빠로 가기도 하는데, 왜 소를 이게 노넨, {그러면 그 소를 예를 들어서 아, 소 모는 데, 이 소가 밭에 소가 가는데, 이 소가 이 쪽바로 가기도 하는데, 왜 소를 이렇게 **}

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바닥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 이 오른, 이 이 쪼그로 가기도 하고, 왼쪼그로 가기도 하자나요.{이 오른 이 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소가 함 지를 드릴, 기를 드리자네요?{소가 한 번 길을 들일, 기를 들이잖아요?}

지:를 드리며는 이리 가며는 이, 왼쪼그로 돌면 아라요, 소가. {길을 들이면 이쪽으로 가면 이, 왼쪽으로 돌면 알아요, 소가.}

@ 어트게?{어떻게?}

아니 그래간 인제 이러케 가면, 오치: 하면 소가 소도 이 미텐 가른 바치고, 여기가 안 가른 바치니까두루, 오치:하면 보구래 똑 때머는 저: 일 도 저 안:다고, 안, 크 그래 연스비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오치 하면 소가 소도 이 밑에는 같은 밭이고, 여기가 안 같은 밭이니까 오치 하면 보구래 똑 때면 저 일도 저 안:다고, 아니 그래 연습이지.}

@ 고삐가통 걸로 이러케,{고삐 같은 걸로 이렇게,}

아, 고삐도 이찌. {아, 고삐도 있지.}

이찌마는, 마냐게 안 드러오고 이랴, 오치:하면 꼭 말: 안 드림, 고삐를 한 번 탁 땡긴다고. {있지만, 만냐게 안 들어오고 이러면 오치하면 꼭 말을 안 드르면 고삐를 한 번 탁 땡긴다고.}

그럼 도러오고. {그럼 돌아오고.}

이 산쇠는 잘 도라가. {이 산쇠는 잘 돌아가.}

그럼 이짜가섬도 반대 방향으로 오치:하면, 일로 도러오고, 해: 이 여보시오 소가 한 열: 쌀, 열 쌀 이상 된 소는 바틀 한 사: 년 가라짜네요? {그럼 이쪽에 가서도 반대 방향으로 오치 하면, 이쪽으로 돌아오고, 해 이 여보시오, 소가 한 열 살, 열 살 이상 된 소는 밭을 한 사 년 갈 았잖아요?}

이런 소는 귀시니라고. {이런 소는 귀신이라고.}

사람 편하, 가다가 도:레 가다 탁 걸리자네, 그럼 땡기보면 자기 보통 나리나보단 탁 걸리자네, 그럼 가마니 서 인능 거요. {사람 편해, 가다가 돌에 가다가 탁 걸리잖아, 그럼 다녀보면 자기 보통 날이나 보다는 탁 걸리잖아, 그럼 가마니 서 있는 거예요.}

마냐 거게서 탁: 뚜 이래문 보섭 똑 뿌러지지. {만약 거기에서 탁, 뚜 이러면 보섭이 똑 부러지지.}

그러타고, 이 꼬추바치 이러면 험골가 짹: 찌나 저 나가래 봄:노, 뒤꼬레 약 하나 머거요. {그렇다고 이 고추밭이 이러면 험골가 짹 지어나, 저 나가서 보면요, 뒷골에 약 하나 먹어요.}

@ 그 그 오른쪼그로 갈 때는 그냥 고삐도 가치,{그, 그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고삐도 같이,}

탕케~ 나도 가, 가다가 말: 안 드르며는 잘 저기에 모치:에 안 도러서머는 도라서라 그래고, 그래면 또 이 밭 가다도, 이찌녀~ 저쪼끄루 되: 되자네요.{당겨야 나도 가, 가다가 말을 안 들으면 잘 저기에 모치에 안 돌아서면 돌아서라 그러고, 그러면 또 이 밭 갈다가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되 되잖아요. }

시방때 쯤 되:가, 한 사:라미 이래머 질머질버나 되:면 쯤 서:야 되자네. {지금때 쯤 되:가, 한 사람이 이렇게 쭈어 지서 힘들면 쯤 쉬어야 되잖아.}

가마니 바테 가다가, 쯤 쉬:고선 쯤 자기 되:머는 잘 양가. {가마니 밭에 가다가, 쯤 쉬고서는 쯤 자기 힘들면 잘 안 가.}

잘 가, 그래면 요 요 한: 곧 더 가라야 되는데 하고선 마리아, 빨리 가자, 고삐를 탁 때리며는

지가 아프니까 빨리 가. {잘 가, 그러면 이 이 한 곳을 더 갈아야 되는데 하고서는 말이야, 빨리 가자, 고삐를 탁 때리면 자기가 아프니까 빨리 가.}

그 도리와가주 고 다:메 도리 세워 노코는, 마:아, 마:아 이럼 금세 가자도, 와: 이럼 승거요. {그럼 돌아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돌려 세워 놓고는, 마아, 마아, 이러면 금세 가자도, 와, 이럼 서는 거요.}

와서 안눈다고. {와서 앉는다고.}

그럼 쉬키지. {그럼 쉬게 하지.}

@ 그럼 어르신, 그, 소, 소를 보며는, 소도 보며는 새까리나 모양이 다 다르자나요. {그럼 어르신, 그, 소, 소를 보면 소도 보면 색깔이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고럼. {다르지요 고럼.}

@ 엔나렌 어떤 소드리 이썬나요, 숨 모양? {옛날엔 어떤 소들이 있었나요, 소 모양?}

대:락 뽀머는 하누라고 다 누:러치 소가. {대락 보면 한우라고 다 노랑지, 소가.}

소가 노:라치요.{소가 노랑지요.}

하누 야:들하고, 소 비까레가 꺾 누:리하지 그차네요. {한우 애네들 하고, 그 소 빛깔이 그건 누리끼리 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빨간 쇠가 좀 빨씩 항거 인는데, 그렇건 좀 드물게 오래고, 흑 흑 흑쇠. {그럼 아주 빨간 소가 좀 빨씩 한 거 있는데, 그런 건 좀 드물게 오래고, 흑 흑 흑소.}

꺼문쇠, 새카망 거, 새카망 게 얼뚝쇠 이꼬, 아주 아주 새카만 쇠가 이꼬,{검은 소, 새카만 거, 새카만 거 얼뚝소 있고, 아주 아주 새카만 소가 있고.}

@ 그걸 얼뚝쇠라고 하나요?{그걸 얼뚝소라고 하나요?}

그럼.{그럼.}

얼뚝, 얼뚝쇠는 여: 호래~이, 호랑이처럼 주리 시커머꺼 아이네. {얼뚝 얼뚝소는 이게 호랑이, 호랑이처럼 줄이 시커멓게 있어요.}

시커머 이카고, 고 담 요 요 썬:, 요노무네하고, {시킴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담 요 요 *, 요놈들 하고.}

그 얼뚝쇠가 이썬, 얼뚝쇠.{그 얼뚝소가 있어, 얼뚝소.}

@ 아, 얼뚝쇠도 이꼬. {아, 얼뚝소도 있고.}

응, 이꼬.{응, 있고.}

또 새:카망게 이꼬, 흑쇠. {또 새까만 게 있고, 흑소.}

아주 아주 까망 거 이꼬.{아주 아주 까만 거 있고.}

@ 그걸 흑쇠라 하기도 하고, 까문:소라고 하나요? {그걸 흑소라 하기도 하고, 까만 소라고 하나요?}

그 끄럼.{그, 고럼.}

그래구 또 그 낱: 처럼 마리 요 머리가, 여 여 소타배기라고, 여게 또 허 허여꾸, 이 모태기도 허여코, 또 여겨도 허여꾸, 거기두 이꼬.{그리고 또 그 낱 처럼 말이 요 머리가, 이 이 소타백이라고, 여기에 또 하 하얇고, 이 몸탱이도 하얇고, 또 여기도 하얇고, 거기도 있고.}

@ 그건 이르미 뭔가요? {그건 이름이 뭔가요?}

아, 건 소타배기라 하지, 소타벼~이야. {아, 그건 소타박이라고 하지, 소타병이야.}

@ 아, 솟? {아, 솟?}

소타배기.{소타백이.}

@ 아, 소타배기, 아. {아, 소타백이, 아.}

그럼 종류가 또 누:런 소도 이꼬, 그 다:메 소타배기 이꼬, {그럼 종류가 또 누런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소타백이 있고.}

#흑쓰, 흑씨, 흑썬, 흑썬. {흑스, 흑시 흑썬, 흑썬}

흑썬, 꺼문썬.{흑썬, 검은 소.}

얼룩썬, 아, 얼룩썬요? {얼룩소, 아, 얼룩소요?}

그래, 그러치, 비까리가, 비까리가 그러타 이럼 돼, 비까리가. {그래 그렇지, 빗줄이가 빗줄이가 그렇다 이러면 돼, 빗줄이가.}

@ 아, 비까리가, 네.{아, 빗줄이가, 네.}

그대, 끄럼.{그러게 하면 돼, 그럼.}

@ 그러면 저기 보니까, 소도 보니까 뿔 모양이 다 다르드라고요? {그러면 저기 보니까, 소도 보니까 뿔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조. {다르지요.}

@ 뿔모양이 어특?{뿔모양이 어떻게 ?}

뿔모양이 정가그로, 정가그로 바로 나능 게 이꼬.{뿔모양이 정각으로, 정각으로 바로 나는 게 있고.}

고거 담 {그거 담.}

@ 고 이르믄 뭐라고 하나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그래 그 정가기라 하지, 정:각. {그래 그 정각이라 하지, 정각.}

@ 정각, 네.{정각, 네.}

정가근 마른 쪼글하고. {정각은 마른 쪽을 하고.}

고 다:메 또 하늘, 하늘 불쏘라고 뿌:리 또 하늘로 올라 웅 게 이썬, 이러케. {그 다음에 또 하늘, 하늘 불쏘라고 뿌리 또 하늘로 올라 온 게 있어,이렇게.}

이러게이~? 이러케 올라가 이꼬, {이런 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고 다:메 또 어능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 이르믄 모라고 하나요?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건 건 모 건 그러치.{그거는 그건 뭐 그건 그렇지.}

하늘 소라도 안 하고, 그 뿌:리 그래 나면 몬 나따 그러지, 그래 우리는. {하늘소라도 안 하고, 그 뿔이 그렇게 나면 못 났다 그러지, 그래 우리는.}

뿌리 정가그로 바리 쭈: 나가주고, 이 나이 마느머는 뿌리 처져. {뿔이 정각으로 바르게 쭈 나가지고, 이 나이 많으면 뿌리 처져.}

이거가, 그래 이런 이렇게 처진다구, 올라가지 안 하고.{이거가, 그래 이런 이렇게 처진다고, 올라가지 못 하고.}

그 대략 뽐 뿌:리 요러케 좀 올라오능 거는 그건 아:들 머 소뿔 썬 뿌리 잘, 잘몬 나꾸나, 그래 그러이지 뭐 거. {그 대략 보면 뿔이 이렇게 좀 올라 오는 거는 그건 이 애들 뿔 소뿔 저 뿔이 잘, 잘 못 났구나, 그래 그러지 뭐 그거.}

그기 뭐 하:늘 뿌리, 뭐 그 그렇 거 업썬. {그게 뭐 하늘 뿌리, 뭐 그 그런거 없어.}

@ 그럼 소가 뿌리 보니까 요기, 저쪽 뽐니까 요:러케 된능 거또 이짜네요?{그럼 소가 뿔을 보니까 여기 저쪽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치 그럼.{그렇지 그럼.}

그걸 인제 나이 마:느니까, 처:메 날 썬게는 대:략, 대략 요러케 모, 여현, 썬, 하먼, 한 대:쌀 가먼 뿌리 요기썬 오자네요. {그거를 이제 나이 많으니까, 처음에 날 적에는 대략, 대략 이렇게 뿔 여 썬 하먼 한 대 살 먹으면 뿔이 여기썬 오잖아요.}

그게 크면 요 올라가주 네조? 함 암소고 하쇠고 나이 마느머는 천지강이랑게 이썬, 이러케. {그게 크면 이 올라 가가지고 ** 하면 암소고, 하소고, 나이 많으면 천지강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리 오러가 자 썬우려징기 천지강이고,또 아푸로 이래 꼬부랭 거또 저건 또 자퍼지먼 이래,

건: 건: {이리로 올라가 자 찌우려진 거 천지강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꼬부랭진 것도 저건 또 옆
어지면 이래, 그건, 그건,}

처:매, {처음에,}

@ 요리케 된 건 천지가기고, {이렇게 된 건 천지각이고,}

천지각 꼬림. {천지각 그림.}

@ 그 정각또 이꼬요.{그 정각도 있고요.}

정각또 이꼬.{정각도 있고.}

@ 하늘로 올라강 건?{하늘로 올라 간 건?}

그건 뭐 하늘소라 하니까, {그건 뭐 하늘소라 하니까,}

@ 이르미 업써요? {이름이 없어요?}

업써요, 건.{없어요, 그건.}

@ 아, 그럼 요리케 휘어징거는? {아, 그럼 이렇게 휘어진 거는?}

아이, 그 다 건 천지가기라 구래. {아이, 그 다 그건 천지각이라 그래.}

@ 아, 천지가기라고요.{아, 천지각이라고요.}

야꾸 올라와만 애:기지. {** 올라왔단 애:기지.}

@ 음, 금 소를, 소도 보며는, 이르미 이짜나, 그러게 한 살 머금 한 살 머근 소, 이름 이릅니까?
{음, 금 소를, 소도 보면 이름이 있잖아, 그렇게 한 살 먹으면 한 살 먹은 소, 이름 있릅니까?}

그건 한 살:, 한 살: 그 그러지, 아이 한: 살, 두: 살, 이런데 그 재:보지기 성모지기에 이써. {그
건 한 살, 한 살, 그 그러지, 아이 한 살, 두 살 이런데 그 재보지기, 성모지기에 있어.}

@ 아, 그건 뭐예요? {아, 그건 뭐예요?}

재:보라능 거는 이 세: 발, 이 사람 쟈 이거 빠져. {재보라는 거는 이 세 발, 이 사람 * 이거
빠져.}

이 빠지면 재:보.{이 빠지면 재보.}

하나 빠지면 재:보저따구 너. {하나 빠지면 재보졌다고 너.}

고담 성모, 성모지기는 이가 저 빠지고, 업써지면 성모지기라 구래. {그 다음에 성모, 성모지기
는 이가 저 빠지고, 없어지면 성모지기라 그래.}

@ 아, 이가? {아, 이가?}

한: 번 빠져. {한 번 빠져.}

@ 한 번 빠지면? {한 번 빠지면?}

빠지면 아, 재:보지기는 한 다섯 싸리다, 네:사리다, 그 그래. {빠지면 아, 재보지기는 한 다섯
살이다, 네 살이다 그 그래.}

@ 아 재보지기는뇨? {아 재보지기는요?}

@ 그럼 성모지기는뇨? {그럼 성모지기는요?}

성모지기는 또 성모털모는 또 다시 올라오면 서 성모 터따 구래써. {성모지기는 또 성모털모는
또 다시 올라오면 서 성모 털 있다 그랬어.}

또 그 메 싸리랑 거 알고, 인제 그 그래.{또 그 몇 살이라는 거 알고, 이제 그 그래.}

@ 성모, 성모지기는 한 며 쌀 정도 되나요? {성모, 성모지기는 한 몇 살 정도 되나요?}

재보지기는, 그 성모지기는 그게 세:간 내선 그 근디 빠져야 되고, 재:보지기는 다시 올라간 걸
재:보지기.{재보지기는 그 성모지기는 그게 세 살 되어서 그 근데 빠져야 되고, 재보지기는 다시
올라간 걸 재보지기.}

대 여서뎌, 예 함 그래. {대 여섯 돼, 예 함 그래.}

@ 서너 살 되면 성모지기고, 한 네: 다섯 쌀 되면 재:보지기, 아, 예. {서너 살 되면 성모지기고,
한 네 다섯 살 되면 재보지기, 아, 예.}

그래 열살 너머 가면 아, 나 나따무:이라, 나따무:이라 베:꾸나.{그래 열 살 넘어 가면 아, 나 나따무:이라, 나따무:이라 뵈구나.}

@ 네?{네?}

나따보. {나따보.}

@ 나따북? {나따북?}

나따부. {나따부.}

설:, 열 살만 너 너머 가머는, 아 그 쇠는 막 나따무:이나 되꾸, 나따묵. {열 살만 넘 넘어 가면 아, 그 소는 막 나따무:이나 뵈고, 나따묵.}

@ 나따묵 돼따, 나따무기 돼따.{나따묵 뵈다, 나따묵이 뵈다.}

@ 예.{예.}

@ 어르신, 그 소를 마니 소도 *** 그러서쨌? {어르신, 그 소를 많이 소도 *** 그러셨지요?}

내가 소장수두 좀 헐는데 뭘.{내가 소 장수도 조금 헐는데 뭘.}

@ 그럼 조은 소를 고르는 방버비 이쨌네요? {그럼 좋은 소를 고르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쨌.{있지요.}

@ 어떤 어떤 소를 골라야 돼, 조은 소를 {어떤 어떤 소를 골라야 돼, 좋은 소를.}

소가 우선 마리아 그, 처쨌, 그 생긴 얼구리가 사:나와, 얼굴레 제대로 생기되고, {소가 우선 말이야, 그 첫 쨌, 그 생긴 얼굴이가 사나와, 얼굴이 제대로 생겨야 되고,}

암소는 암소답게 좀 코가 이되고, 하소는 하소답게 둥글고, 또 생기야 되고, {암소는 암소답게 좀 코가 이래야 되고, 하소는 하소답게 둥글고, 또 생겨야 되고,}

고 다:메 이 목 목덜미가, 여:가 다 생명이요. {그 다음에 이 목 목덜미가 여기가 다 생명이요.}

@ 목덜미가?{목덜미가?}

이, 새 새: 모가지라고, 새:, 요 가느자네요? {이, 새, 새 목아지라고 새, 요기가 가늘잖아요?}

@ 네. {네.}

아 암:소는 암:소다이 가능 가늌 부시테. {아 암소는 암소가 가늘면 부실해.}

여 염:주리:, 이 탱기자보텀 {여기 염주리, 이 태가자가 부터.}

@ 네.{네.}

여 차저 이 차저판쨌가, 여:서 부터야 돼, 이러케 가주고. {여기가 차저, 이 차저단주가 여기에서 붙어야 돼, 이렇게 가주고.}

이리 아:간하니쨌 그래야지 소가 아주 보는 보는 모양이 이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지 소가 아주 보는 보는 모양이 있고,}

@ 염, 염주는 뭇가요? {염 염주는 뭇가요?}

아, 여 여기 텍 미테 더러 염주리라 한다구요. {아, 여 여기 텍 밑에 더러 염주리라 한다고요.}

@ 텍 미테 내려오는 주리 염주리다, 아, 염주리, 아 고 염주리 쪽: 터끄리 또 부터야 되나요?{텍 밑에 내려오는 줄이 염주리다, 아, 염주리, 아 고 염주리 쪽 터끝에 또 붙어야 되나요?}

어떻 거는 거 안 부꼬, 요 그늘해요, 이기:.. {어떤 거는 그게 안 붙고, 여기가 그늘해요, 이계.}

여:가 쪽 부꺼드뇨, 그래요 여:서부터감 이런 조감 이쨌, 하손 다:고, 그래고 그 다:메 모냐면 그 뒤:, 뒤: 광팡이. {여기가 쪽 붙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부터 가면 이런 ** 있고, 하소는 다 그렇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뭇냐면, 그 뒤 뒤 광팡이.}

@ 광팡, 엉덩이?{광팡, 엉덩이?}

엉덩, 엉덩이 광팡이래 광팡. {엉덩, 엉덩이, 광팡이래 광팡.}

그기 뒤:이 이 일 일짜로 쨌:나가야 되시오.{그게 뒤가 이 일 일자로 쨌 나가야 되지요.}

뒤:에 궁덩인데 그래 궁덩이라 또 그러자나? {뒤에 엉덩인데 그래 엉덩이라 또 그러잖아?}

@ 네, 네. {네, 네.}

그레이막 조골 마리아 이 궁:댕이, 소궁댕이래 우리가. {그러니까 저걸 말이야, 이 엉덩이, 소 엉덩이래 우리가.}

소궁댕이 쪼기, 똥 누는 궁댕이 쪼기 짱게 패야 돼, 일짜루.{소 엉덩이 쪽이 똥 누는 엉덩이 쪼깁니까 패야 돼, 일자로.}

@ 패야 된다고요?{패야 된다고요?}

응, 거: 패잔하고, 여 광, 광방이찌? {응, 거기가 패잔하고, 여기 광, 광방있지?}

광방에서 이렇게 이리 {광방에서 이렇게 이리,}

광방이요?{광방이요?}

이 이 광방이라 여그가.{이 이 광방이라, 여기가.}

그 뒤:서부터 이렇게 처 꼬부래지머는 쇠가 보는 이 업썸. {그 뒤에서 부터 이렇게 처 꼬부라지면 소가 보는 이 없어.}

거: 찜매 패야 된다고. {그거 찜 매서 펴야 된다고.}

배 하소는 암쇠, 양개 암쇠도 대략 이 이런데 이래 짜게 패야 아주 여 이 목덜미, 이 목덜미 한 여섯똥, 저: 꼬까진 아주 툅 찢러야 내가 해준다구, 그래야 인제 그기 새로 건 두 번째 보능 기고, {배 하소는 암소, 양개 암소도 대략 이 이런데— 이렇게 찢 펴야 아주 여 이 목덜미, 이 목덜미 한 여섯 드으 저 끝까진 아주 툅 찢러야 내가 해준다고, 그래야 이제 그기 새로 그건 두 번 찢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모냐머는 하:죽. {세 번째는 뭐냐면 하죽.}

하:죽, 발 {하죽, 발.}

@ 네. {네.}

바:리 잘 생김두, 바:리.{발이, 잘 생겨야 돼, 발이.}

소는, 마리 외서 자, 지를 잘근 잘해요, 마리. {소는 말이 외서 자, 길을 잘근 잘해요, 말이.}

말 바리 목 목 모꾸저끼 쥘:때도 모꾸, 모꾸라지 아라요? 모꾸? {말발이 목 목 목구저끼 쥘테도 목구, 목구라지 알아요? 목구?}

제사 지내는, 제사 지내는 그 낭기 모꾸라거등, 나무 목 짜, 음식 꾸 짜.{제사 지내는, 제사 지내는 그 나무 목구라고 하거든, 나무 목 자, 음식 구자.}

고 왜 똥:그래야 지지. {거기가 왜 똥:그래야 하지.}

그기 사:람 손끄처럼 나와주 이러능 거, 갈:바리래, 갈:발.{거기가 사람 손끝처럼 나와 가지고 이러는 거, 갈발이래 갈발.}

그거는 거르플 모 꺼러. {그거는 걸음을 못 걸어.}

이 아파가주구, 그래구 짜두라기 받, 바출 갈:머는 가지를 모태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리고 짜투리 발, 발을 갈면 갈지를 못 해요.}

이 아파 들리고 이런데, {여기가 아파 들리고 이런데.}

이 모꾸바른, 말: 처럼 생김 거는 잘 가거든. {이 목구발은 말 처럼 생긴 거는 잘 가거든.}

비끼를 탁: 탁탁탁 막 진다고. {빗길을 탁 탁탁탁 막 간다고.}

그래서,{그래서,}

@ 그 그 목구발:처럼 생겨야 되나, 갈:발처럼 생기면 안 되고요? {그 그 목구발처럼 생겨야 되지, 갈발처럼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럼 세:가지 거니문 으뜸소지 뭐.{그럼 이 세가지를 거닐면 으뜸소지 뭐.}

그럼 다 백태 이상이요. {그럼 다 백태 이상이요.}

그 소가 저게 백태라 그러지. {그 소가 저게 백태라 그러지.}

뱅:마넌 조 해에 질: 잘랑 게 백태이상. {백 만 원 조 해에 제일 잘란 게 백태이상.}

백:태라고 백태, 소를 {백태라고 백태, 소를.}

@ 젤: 잘란 소를 백태. {제일 잘란 소를 백태.}

어, 아니, 장에 그날 장에 최고 백, 뱅 마리 나짜네. {어, 아니, 장에 그날 장에 최고 백, 백 마리 나왔잖아.}

거:서 질: 소가 질, 인제 내 말 따라 여기가도 행, 여기 잘, 잘 생겨짜네. {거기에서 제일 소가 제일 이제 내 말처럼 여기다고 행, 여기 잘, 잘 생겼잖아.}

그런 소를, 아 저 소가 이번 짱에, 백태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지. {그런 소를 , 아 저 소가 이번 장에 백태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지.}

뱅 마리 중에 최고다 그 얘:기고, 또 오십 마리 중에 최고다 소리 안 하고, 오십 태 중에 최고다. {백 마리 중에 최고다 그 얘:기고, 또 오십 마리 중에 최고다 소리 안 하고, 오십 태 중에 최고다.}

일똥 쇠다 이기여. {일똥 소다 이거야.}

소를 그래 고르지도라고, 소를. {소를 그렇게 골라야 한다고, 소를.}

@ 근데 건 아는 사람만 고르젠데요,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건 아는 사람만 고르겠네요, 모르는 사람...}

아, 모르지. {아, 모르지.}

그, 아니 시고레 소 키우는 사람 대략 아려. {그, 아니 시골에 소 키우는 사람은 대략 알어.}

내래 소를 마니 키우는 사라몬 장사는 아니래도 소 다 임무리 다 아려, 그치마는 이 장에 가편 소장산 사, 가, 사문 제는 그렇 거는 소를 한 갑 더 주지. {나처럼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장사는 안 해도 소 다 인물이 다 알아, 그렇지만 이 장에 갔던 소장사는 사, 가, 살 때는 그런 거는 소를 한 갑 더 주지.}

갑쓸 더 주지.{갑을 더 주지.}

마닐 뱅마 년 짜리라면 한 십마 년 더 주지. {만일 백만 원 짜리라면 한 십만 원 더 주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끄럼. {그럼.}

@ 그, 어르신, 옴나레는 이게 나메 집, 머슴 품두 사라짜나요? {그, 어르신, 옛날에는 이렇게 남의 집, 머슴 품도 살았잖아요?}

@ 그런 사람드리 만차나요?{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치, 머스꾸룬.{ 많지, 머슴꾼은}

@ 예, 그 머슴?, 나메 집 사는 사람 을...{예, 그 머슴? 남의 집 사는 사람을...}

메슴, 머슴 다, 머슴꾸니라,그 머슴.{메슴, 머슴,다 머슴꾼이라, 그 머슴.}

@ 맨 년 다니로 사나요, 보통? {몇 년 단위로 사나요, 보통?}

그건 뭐, 대중 업찌. {그건 뭐, 대중 없지.}

처:메는 그 이:연 계똥 안 한다구. {처음에는 그 이 년 계약을 안 한다고.}

당, 당진 당녀네 한다고. {당, 당진 당년에 한다고.}

올해 이게 {올해 이게,}

@ 해마다, 예. {해마다, 예.}

내가 인제 머슴꾼 뉘:파. {내가 이제 머슴꾼이 됐다.}

그 저네 이 금녀네 강녕이, 두 가마이, 콩자가마이.{그 전에 이 금년에 강녕이 두 가마니, 콩자가마니.}

@ 예, 그 조꺼니 어트케 돼요? {예,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인제 월그비라고. {아, 그게 이제 월급이라고.}

말하자면 푸, 농, 그, 머슴꾸니, 일련 삼백 육십 오일랄 내 일 해주구 글 머슴사리로 그 품갑쓰로 중 거요. {말하자면,푸, 농, 그, 머슴꾼이 일련 삼백 육십 오일 내 일 해주고, 그렇게 머슴살이

로 그 품값으로 준 거요.}

그래가 인제, 응, 그래가 아이 저고리 함 별, 저고리, 바지 저고리 함 별, 뚜 개는 주적삼 함 별.
{그래서 이제 응, 그래서 아이 저고리 한 별, 저고리 한 별, 두 개는 주적삼 한 별.}

@ 네? {네?}

여름 주적삼.{여름 주적삼.}

@ 주적삼? {주적삼?}

응, 매마즘 한 걸, 그 두: 별 해 주고, {응, *** 한 걸, 그 두 별 해 주고.}

시누는 저기네 사 상:기고, 강냉이 두: 가마이, 콩 두 가마~이, ** 향 가마이, 다서 까마이, 미물
향 가마이, 돼지?까마~이, 해 줄테니 너 우리 지배 오너라, 주인하고 인제 그기, 그기 인제 계:야
기 된다고. {신은 저기에 가서 사 신기고, 강냉이 두 가마니, 콩 두 가마니, ** 한 가마니, 다섯 가
마니, 메밀 한 가마니, 돼지? 가마니, 해 줄테니까 너 우리 집에 오너라, 주인하고 이제 그계 그계
이제 계약이 된다고.}

그럼 그 지배 인능 거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거요?}

봄부텨, 봄부텨 농사 다: 해주고, 소 다: 매:기고 다: 해주고는, 그, 동지 전날까지 그 집 나무
다: 해 주능 걸. {봄 부터, 봄 부터 농사 다 해주고, 소 다 먹이고 다 해주고는 그 동지 전날까지
그 집 나무 다 해 주는 걸.}

나무, 땔 라무, 겨울라무 뭐 베쩍, 오썸 다: 해주고는, 동지 팔쪽 머금 나가. {나무, 땔 나무, 겨
울 나무 뭐 벗짚, 오심 다 해주고는 동지 팔죽 먹으면 나가.}

나가는데는, 다시 그 지배 이슬라머는 또 재계약 또 해. {나가는데, 다시 그 집에 있을려면 또
재계약 또 해.}

내너네 또 씨구게, 그러면 주인 양반, 날 그계 그 곡씨글 향 가마니 더 주시오.{내년에 또 씨구
게, 그러면 주인 양반, 나한테 그럼 그 곡식을 한 가마니 더 주시오.}

또 그래든지, 또 뭐, 도:늘 자주 하든지, 다시 그래 하문 그 주인하고 인제 일:꾼하구 마:미 마즈
머는 오:연도 조쿠, 사, 팔련도 조아. {또 그렇게 하든지 또 뭐 돈을 가지고 하든지, 다시 그렇게
하면 그 주인하고 이제 일꾼하고 맘이 맞으면 오 년도 좋고, 사, 팔 년도 좋아.}

그래 비버니 상하문 한 해, 한 해 하구는 그 가능기여. {그래 기분이 상하면 한 해, 한 해 하고
는 그 가는 거야.}

한 해 하다가 실타가 중동그이 하다 나가면 안 되자네.{한 해 하다가 싫어도 중간에 하다가 나
가면 안 되잖아.}

중동그이가 뭐냐머는 중바네 가문, 싸글 못 빠짜네. {중동그이가 뭐냐면 중간에 가면, 싹을 못
받잖아.}

그래 그렇거여 건, 일:꾸는 일:꾸는 그 만냐게 그러카지, 여텔 요 모 판:디약처럼 삼년 사이 건
안 한다고. {그래 그런거야, 일꾼은 일꾼은 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어딜 이 모 판띠약처럼 삼 년
살이 그건 안 한다고.}

@ 그러머는 그, 어르신 그 옌나래 품마시 가튼 경우도 자주 이쨌나요? {그러면 그, 어르신 그 옛
날에 품앗이 같은 경우도 자주 있었나요?}

아 품마시는 이쨌, 아끼네 그조.{아, 품앗이는 있지요, 아까 내가 그렇지요.}

내가 오늘 저 집 꼬추 시머 주머는, 저 지비 우리 집 꼬추 시무러 오고, 내가 저지파고 받 갈문
바깥러 여: 오고,또 그래고 어:얼 한다고. {내가 오늘 저 집 고추 심어 주면, 저 집이 우리 집 고추
심으러 오고, 내가 저 집하고 받 갈면, 받 갈러 여기에 오고, 또 그러고 어얼 한다고.}

내가 소가 함 마리 이짜네요.{내가 소가 한 마리 있잖아요.}

저의 쇠가 함 마리 이짜네요. {저의 소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럼 그 집 하고, 또 저 저 집또 소 함 마리, 세: 찌비 올라가주고, 아께 말 가트나 제이 저리

소 하 하나 갈:고, 하난 그 골:키고, 그 세:찌비 올 해 오늘 우리 집 와서 오늘 콩을 심어따, 콩 나따. {그럼 그 집하고 또 저 저 집도 소 한 마리, 세 집이 올라 가 가지고, 아까 말처럼 제이 저 리 소 하 하나 갈고, 하나는 그 골 키고, 그 세 집이 올해 오늘 우리집 와서 오늘 콩을 심었다, 콩 났다.}

오늘 한 이천 평 가라따 하면 내:일로 그적 그 그적 찢 가서 또 언제 모 콩: 하든지 모, 옥수수 하든지 그 그 집 해간다 하면 그기 인제 어:울한다, 어울러. {오늘 한 이천 평 갈았다 하면 내일로 그적 그 그적 집 가서 또 언제 뭐 콩을 하든지 뭐, 옥수수 하든지 그 그 집 해간다 하면 그게 이제 어울한다, 어울러.}

한 해 농사를 어:울러 진:는다고. {한 해 농사를 어울러 짓는다고.}

푸마시라는 거는 오늘 가따가 내가 하:고, 또 바꼬, 고 그리 끈나고 말람 마 하고 이래찌머는 그 이렇게 찢:기래,찢:. {품앗이라는 것은 오늘 갔다가 내가 하고 또 받고, 그 그렇게 끊나고 말라면 마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렇게 찢이래, 찢.}

요 오늘, 오랜 그 지파고 찢글 한다. {이 오늘, 올 해는 그 집하고 찢을 한다.}

사:라미 소찢:기래, 소찢:. {사람이 소찢이래, 소찢.}

소말간 소찢:글 해서 일러네 농사를 제:보면, 그 사람네 시니를 안다 이기여. {소처럼 소찢을 해서 일 년의 농사를 지어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안다 이거야.}

@ 음...{음...}

알자네요.{알잖아요.}

저 지비, 지:, 자기 농사 질:찌게는 하:주 애머꺼, 응, 힘드려 하고, 찢찌비래 가서는 히미 듬 찢, 찢 부리고, 그차네요? {저 집이, 지가 자기 농사 지을 적에는 아주 애 먹어, 응 힘들어 하고, 찢 집에 가서는 힘이 들면 찢, 찢 부리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한 해하구, 에이 저 사람하고 해보니까 저 찢 부리고, 나는 안 한다, 소그로 그 체? {그래 그래서 한 해하고, 에이 저 사람하고 해 보니까 저 찢 부리고, 나는 안 한다, 속으로 그 치요?}

그래먼 떠리질 쑈 이꼬, 세: 집 다: 마:미 통해, 내 농사나 그 집 농사나 또까튼 그 마:를 가지고 농사를 지:꾸, 심머리 되머는 삼:년, 시보년, 팔년, 찢 마쳐하지. {그러면 떨어질 수 있고, 세 집이 다 마음이 통해, 내 농사나 그 집 농사나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십 년이 되면 십 년, 십오 년, 팔 년 찢 맞쳐서 하지.}

그렇게요. {그런 거예요.}

@ 아, 그로게 찢글 가치 하능 게 인네요? {아, 그렇게 찢을 같이 하는 게 있는요?}

그럼, 여게 이찌, 그럼. {그럼 여기에 있지, 그럼.}

푸마시 말또 해지. {품앗이 말도 했지.}

@ 푸마시를 할 때, 우리지분 그 한 네: 마지긴데 딴 지분 두 마지기예요.{품앗이를 할 때 우리 집은 그 한 네 마지기인데, 다른 집은 두 마지기이예요.}

@ 그러머는 고 나머지는 뭘로 보상을 받느,{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로 보상을 받느,}

아이 푸마시란 건 그러치 아녀요.{아이, 품앗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푸마시 하러 오이면 내가 인제 이러케 오늘, 예, 뭘 천 평을 뭘 심는다. {품앗이 하러 모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 예, 뭘 천 평을 무엇을 심는다.}

그럼 사:라미 마낙 열 찢:라미 피료하다. {그럼 사람이 만약 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이머는 어느 주 어느 지부는 내가, 아푸로 그 지비랑 저, 가서 이 이:를 하루 해주고, 어느 사:라몬 농사를 안 지꼬 이래, 그 사람 또 사:지. {그러면 어느 주 어느 집은 내가, 앞으로 그 집이랑 저 가서 이 일을 하루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이래, 그 사람은 또 사지.}

사 사가주 음 곡썩준데, 사가주 그래가주 다 하 하고, 그 사람 돈 주고, 고수 쥐쓰니까 그마니

고, 고담 푸마시 완 사람 그 이틀, 그 이틀 가 해주고.{사, 사 가지고 오면 곡식을 주는데, 사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하 하고, 그 사람 돈 주고, 고수 췌었으니까 그만이고, 그 다음 품앗이 온 사람 드 이틀 그 이틀 가 해주고.}

@ 아, 푸마시 한 사람 고 정도로 푸마시 하고, 그 다:메 {아, 품앗이 한 사람 그 정도로 품앗이 하고, 그 다음에,}

돈 쥐써 그래, 품까지 ****{돈을 췌어 그래, 품까지 ****.}

@ 아, 풍초로요? {아, 풍초로요?}

@ 그 일련 다뉘로 이제 머슴 사능 거 말고, 그, 이:를 할 때마다 이러케 사랑을 얻는 경우 이짜나요. {그 일 년 단위로 이제 머슴 사는 거 말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얻는 경우 있잖아요.}

@ 풀 뭐라고 합니까? 날, 하루?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날, 하루?}

아, 그건 제 하루 건너는 거는 아니지마는, 하루 건너는 거는 그 사람 고 고정임부라 하지. {아, 그건 제 하루 건너는 거는 아니지만, 하루 건너는 거는 그 사람 고정인부라 하지.}

고정 씨킨 사람. {고정식힌 사람.}

마냐게 한 사:라미 한 다레 일: 하든지, 이시빌 이:를 그래 꼬하, 하 하는 사람 고정임부.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달의 일을 하든지, 이십 일 일을 그래 하고, 하 하는 사람 고정인부.}

고정임부라 하고, 고정 고정임부라에 하고, 내가 부레 머꼬, 쓰고, 고 다:메 일 가 하는 사라문 그, 고정임부, 임부레 날품파리라, 날품파리. {고정인부라 하고, 고정 고정 인부라에 하고, 내가 부러 먹고, 쓰고, 그 다음에 일 가 하는 사람은 그 고정인부, 인부레 날품팔이라 날품팔이.}

나나레 하니까, 고러 마짜네, 이 지비 더런 해 주구 시름 안 가자네요. {나날이 하니까 그게 맞잖아, 이 집에서 더러 해 주고 싫음 안 가잖아요.}

그 날품파리라고, 날품파리.{ 그 날품팔이라고, 날품팔이.}

고정임부 날품파리.{고정인부 날품팔이.}

아, 걱정하지마. {아, 걱정하지마.}

@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 그럼 그 분들 일:할 때, 간식 가튼 거또 식싸로 가튼 거 주나요? {그럼 그 분들 일 할 때, 간식 같은 것도 식사로 같은 거 주나요?}

아이, 주조.{아이 주지요.}

진노리.{진노리.}

시방은 간시기라 하조?{지금은 간식이라 하지요?}

@ 네. {네.}

그건 켄노래라고, 켄노래.{그거 켄노래라고, 켄노래.}

참. {참.}

@ 며 뻔 주나요?{몇 번을 주나요?}

오:저네 함 번, 오후에 함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 그러면 이제 이:를 이:를 이제 나메 집 이틀 하러 오며는 그 지베서 머꼬 오냐요,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일을 일을 이제 남의 집 일을 하러 오면 그 집에서 먹고 오냐요, 아니면?}

아, 자기가 아치문, 식싸는 자기가 하고 오지. {아, 자기가 아침은 식사는 자기가 하고 오지.}

짹:찌비 해도 그래, 짹:찹찌리 해도 그러코, 돈: 바꼬, 푸마, 뭇시리 가도 그러 품파리 가도 그러코, 푸마시는 푸마시는 서로가 가치 도라감 하능기 푸마시고, 품파리는 다니 잘가서 돈: 바꼬 오능 게 그기 그 품파리요. {짹 집이 해도 그래, 찹집끼리 해고 그렇고, 돈 받고 품아 뭐하러 가도 그렇고 품팔이 가도 그렇고, 품앗이는 품앗이는 서로가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품앗이고, 품팔이는 다니면서 잘 가서 돈 받고 오는 것이 그게 그 품팔이요.}

그래니깐 품팔이든 짝:찌기든 자기 지배 조반 머꼬 인제 오자나, 오머는 {그러니까 품팔이든 짝찌기든 자기 집에서 조반을 먹고 이제 오잖아, 오면,}

@ 멀 머꼬 온다고요? {뭘 먹고 온다고요?}

아, 자기 자기 지배 조, 식쌀 하고 오자나요. {아, 자기 자기 집의 조, 식사를 하고 오잖아요.}

아, 아침 식사를 하고, 인제 오 오 우:저네, {아, 아침 식사를 하고, 인제 오 오 오전에,}

이: 터에 올 게 아니요. {이 터에 올 게 아니요.}

내가 저그네 오는 뭐 한다 하머는 상: 어더 놔쓰니 저거네 오늘 내 콩을 시머. {내가 저기네 오는 거 뭐 하다 하면 상을 얻어 났으니 저거네 오늘 내 콩을 심어.}

거리 온다고요. {걸어온다고요.}

거 오면 일곱 씨부터 시작 하자네요. {그 오면 일곱 씨 부터 시작 하잖아요.}

그럼 여덟 씨에, 아홉 씨, 두: 시간 하자네, 두: 시간. {그럼 여덟 씨에 아홉 씨 두 시간 하잖아, 두 시간.}

이 아홉 씨 반, 열 씨 돼 가주고, 두: 시간 반 하던지 하머는 찬: 뭐냐 하머는 옴:나레 막걸리 이짜나, 막걸리, 곡주. {이 아홉 씨 반, 열 씨 돼 가지고, 두 시간 반 하든지 하면 찬이 뭐냐 하면 옛날에 막걸리 있잖아, 막걸리, 곡주.}

@ 고걸 차미라고 하나요? {그걸 참이라고 하나요?}

참: {참.}

@ 아까 제 젼노리, {아까 제 젼노리.}

젼노리 이러 하기도 차미라 그래도 그래 불려요, 두: 가지 무꺼따고. {젠노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이라 그렇기도 그래 불려요, 두 가지 묵었다고.}

젼노리 머그러와, 이런 사람도 이꼬, 차 머그러 와 이런다고. {젠노리 먹으러 와, 이런 사람도 있고, 참 먹으러 와 이런다고.}

그래 그래, 그래 인제 막걸리 이썸 막걸리 걸러 가주고, 요 나미또 마껴떠, 향 개씩 머꼬, 제 주인 때게 거러가고, 고 다메 그때는 모 {그래 그래, 그래 이제 막걸리 있음 막걸리 걸러서 가지고, 이 남의 * ***, 한 개씩 먹고, 제 주인 댁에 걸어가고, 그 답에 그때는 뭐.}

@ 젼노래는 멀 멩나요? {젠노래는 뭘 먹나요?}

요 모 감자 썬 가주 가고 모, 저 저 저 강, 옥수수, 강냉이 썬 가주 가고, 고 다메 칼국수, 가씨기, 그렇게 해 가주 가, 보리밥, 그렇게 해 가주 가 바테 가따 퍼 노쿠 멩는 기요. {이 뭐 감자 썬 가지고 가고 뭐 저 저 저 강, 옥수수, 강냉이 썬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칼국수, 가씨기 그런 거 해 가지고 가, 보리밥,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밭에 갔다 퍼 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머는 열두시두 요거는 아:무도 업씨 그 지배 안 올라오면 바테도 전시를 해야 아주머니 해요, 가 저 밭 까서 머꾸, {그러면 열 두시도 요거는 아무도 없이 그 집에 안 오라오면 밭에도 점심을 해야 해서 아주머니가 해요, 가 저 밭 가서 먹고.}

그래 또 일하구 저녁때 또 네시 되머는 고 그 나제 점심 머거뎡 거 남, 남능 게 이따고. {그래 또 일하고 저녁 때 또 네 시가 되면 그 그 낮에 점심 때 먹었던 거 남, 남능 게 있다고.}

그래 젼: 조웅 거 해 가주고 가지. {그래 제일 좋은 거 해 가지고 가지.}

바비 한 서너 사:라미 먼 여나흠 되면 말게 하면서 그른 나무머는 한 반 그르씩, 무래 마라 가주구 이래서 막걸리 머꾸, 그래 참 머꾸, 시방 빵:이, {밥이 한 서너 사람이면 여나흠 되면 말게 하면서 그 남으면 한 반 그릇 씹, 물에 말아 가지고 이래서 막걸리 먹고, 그래 참을 먹고, 지금은 빵이.}

@ 오후에는 젼노래를 언제쯤 멩나요? {오후에는 젼노래를 언제쯤 먹나요?}

거 네: 시. {그 네 시.}

@ 네 시요? {네 시요?}

시방 모 빵:, 그차뇨, 우유, 전 만차네. {지금은 뭐 빵, 그참아요, 우유, 많잖아.}

머 과:자, 짜제 짜제 머, 차:무로 뭐 이 사탕도 면는 거 주고 이 이러지만, 그때는 그 그저네 그 그거만 가시기, 제 아푸로 {뭐 과자, 과자 과자 뭐 참으로 뭐 이 사탕도 먹는 거 주고 이 이러지만, 그때는 그 그전에 그 그거만 가시기, 제 앞으로.}

@ 가식? {가식?}

으응, 오저네 가시기고, 오후엔 지금 모,{으응, 오전에 가시기고 오후엔 지금 뭐.}

@ 가시기는 뭔가요?{가시기는 뭔가요?}

가시기 에 칼로 가주 미능 뭐 뭐.{가시기는 예, 칼을 가지고 미는 뭐 뭐.}

요 흥투깨라 저 무쳐이썬. {요 흥두깨라 저 무쳤어.}

@ 네 네 네.{네. 네, 네.}

뭉쳐 가주구, 쿡까루 너쿠. {뭉쳐 가지고 쿡 가루 넣고.}

@ 네, 가시길 가튼거요?{네, 가시길 가튼 거요?}

@ 그 저너근 안 주나요?{그 저녁은 안 주나요?}

다 안 줘요, 꺼는.{다 안 줘요, 그거는.}

1.8. 세시 풍속과 놀이

1.8.3. 전설과 설화

그 엔, 그 엔:나레 내려오는 얘기가 풍문, 바라메 드른 거들 얘기 아니구, 살:찌 내려오는 유래 얘기를 내가 함 해드리까요? {그 옛날에 내려오는 얘기가 풍문, 바람에 들은 거, 얘기 아니고, 실 제 내려오는 유래 얘기를 내가 한 번 해 드릴까요?}

@ 아 예, 그 조씀니다. {아 예, 그 좋습니다.}

@ 여기 뭐 전서리나.{여기 워 전설이나}

전:설 {전설}

@네, 전서리나 그런 거뜰, 네네 {네, 전설이나 그런 것들, 네네.}

#전설, 예, 전서리 아주 오래된 저 전서리 지금 하며는 한 저 삼백 년 아네 저니래요. {전설, 예, 전설이 아주 오래 된 저 전설이 지금 하며는 한 저 삼백년 안에 전이래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일백 오십년 고 새: 전서린데, {일백 오십년 그 사이 전설인데}

@ ** 해 주시면 조케씀니다, 네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엔:나레 그 아께 저네 그, 그 정:선 부:자집 터 이 미테 이따 그래짜네요. {옛날에 그 아까 전에 그, 그 정선 부자집 터 이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 부자?{부자?}

부:자 정선, 정선 가뿌터에 부테이 이썬 집 인는데, 거 지비 어뜨케서 {부자, 정선, 정선 갑부 터에 ***있어, 집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해서 }

@ 거기가 그 혼?{거기가 그 *?}

아니 요구 요구 요구 내려가는 {아니 요기 요기 요기 내려가는 }

@ 풍초네 이썬니까?{풍춘에 있습니까?}

아니 요구 내려 이뻡메다래요. {아니 요기 내려 200m래요.}

@ 아 이뻡메다. {아 200m}

가따 낭 내려가보면 알꺼래요. {가다 내려가보면 알꺼래요.}

그 인왕 전씨드리 그 사리 민 하고 미테 임금 왕인데, 이 존소근 이러케 부스로 내 글:미처럼

이런 터이 업썩요. { 그 인왕 전씨들이 그 사람 인 하고, 밑에 임금 왕인데, 이 존속은 이렇게 붓으로 내 그림처럼 이런 터가 없어요.}

터이 산, 이 산세가 조:케 잘 드러와찌마는, 이:런 이런 터:이 경상도나 전라도 어데, 아프 아빠 널분 바다에 가서 산 이러케 터이 자퍼 이썩면 요 큰:: 대:지 터이랍니다. {터가 산, 이 산세가 좋게 잘 들어 왔지마는, 이런 이런 터가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 앞에 넓은 바다에 가서 산 이렇게 터가 잡혀 있으면 요 큰 대지 터입니다.}

여이 옴나레 도승이::가 자버따하는데 그때는 요래 내 왜: 이래썩꼬 이랜 이래니까, 그러며는 거 옴:나레 거 호짜 준짜하는 그, 전씨들 하라버지 내가 그 우리 요 살 썩게는 칠 형제 칠악짜, 아드리 칠 형제고, 으 고 다:뻔, 그 노짜함 이러버런는데 {여기 옛날에 도승이가 잡았다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내 왜 이랬을까, 그러며는 옛날에 호 자, 준 자, 하는 그 전씨들 할아버지, 내가 그 우리 여기 살 썩에는 칠 형제 칠 **, 아들이 칠 형제고, 그 다음에 그 *** 잃어버렸는데,}

@ 네 전호준 하라버지 {네, 전호준 할아버지}

호주니요. {호준이요.}

범 호짜, 준걸 준짚데 {범 호 자, 줄말 준 잔데}

@ 그 어떤 준 찜니까? {그 어떤 준 자 입니까?}

저 준걸 준. {저 준말 준}

@ 준말 준짜요? 네네. {준말 준 자요? 네네}

그런데 그 양바니 인제 그 아드리 전 교고, 두 아드리 인제, 주으니고 이래썩 썩 이꼬한 삼:대, 어 사는데, 옴:날 그 옴 내려온 애:기가, 십:년 옴? 그 부자:: 그 내려가면 잘 내려간다 그런데 삼:대 내려가썩, 삼대. {그런데 그 양반이 인제 그 아들이 전 교고, 두 아들이 인제 ***** 이랬을 썩 있고 한, 삼대 사는데, 옛날 그 옛 내려온 애기가, 십 년 옴? 그 부자 그 내려가면 잘 내려간다 그런데 삼대 내려갔어, 삼대.}

삼:대를 내가고, 거에 고조 고소니 나까드뇨, 고손까지. {삼대를 내려가고, 거기에 고조 고손이 났거든요, 고손까지.}

@ 고...{고}

고손.{고손}

@ 고소니 뻔니까? {고손이 뻔니까?}

@ 아 고손, 아 고손. {아 고손, 아 고손}

고손::, 아들 손자 징손 고손까지 난 난 터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그부니 호짜준짜 양바니 인제 정:서네 인제 그 그... 서울 가게보러 땡기고 이털썩게, 아:무 그리 조아도 서울 땡기면서 초시해뻔, 초시. {고손, 아들 손자 증손 고손까지 난 터라고 그래, 그런데 그 그분이 호 자 준 자 양반이 인제 정선에 인제 그 그 서울 가게 보러 다니고 이털 썩에,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 서울 다니면서 초시해뻔, 초시}

초시::는 딱 그 치를 바꼬 마란는데 그래도 인제 강릉에 땡기면서, 거게 인제 추리파고 땡기는데, 거가 전 장구니라고 내 한 분 이썩, 전 장군. {초시는 딱 그 치를 받고 말았는데, 그래도 인제 강릉에 다니면서, 거기에 인제 출입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전 장군이라고 한 분 있어, 전 장군.}

전 장구닌데 그 전장구느는 여겜 이 어깨 미테, 셀: 참새이짜나. {전 장군인데, 그 전장구는 여기 이 어깨 밑에 새, 참새 있잖아}

참새, 새: 나래처럼 보닝기 여 터기 저 찰벌썩 나뻔, 이거 양짜게. {참새, 새 날개처럼 보니까 여 털이 저 *** 났데, 이거 양쪽에}

그래서 저:: 썩기 저 요 요 압썩 저기야.{ 그래서, 저쪽이 저 요 요 앞산 저기야.}

아빠~이로 아뻥사니 나꺼드뇨.{앞 쪽에 앞병산이 났거든요.}

올 가성인데 아뻥사네 거기가서 나라가썩썩.{여기 가장자리인데 앞병산에 거기가서 날아 갔썩지.}

거기가서 그 장:수, 무를 머꼬 히물 내가지고 장사해떼. {거기가서 그 장수, 물을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장사했데.}

그 새니미 {그 새님이}

@ 새님?{새님?}

재:니미라 하지 인제. {재님이라 하지 인제}

장, 장:수, 장:수래도 인제 기운만 써지, 도:는 업꺼든. {장수, 장수래도 인제 기운만 세지, 돈은 없거든.}

그래니까 그거 인제 일뚜 해주미서 장:수 노르탄다 이기여. {그러니까 그거 인제 일도 해주면서 장수 노릇한다 이거야.}

그래 호짜 준짜에 하는 하라버지가 강능에 인제 장:보러 간다 이기여. {그래 호 자, 준 자에 하는 할아버지가 강릉에 인제 장 보러 간다 이거야}

강:능에 강:능 인제 하:루치 인제 일 쫄까 하며는, 이 사라미 그 이튼날 절: 가따 이기여. {강릉에 강릉 인제 하루치 일을 하며는, 이 사람이 그 이튼날 거기를 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새:니미, 아 이 사라마 자네 우:째 이루 완는가 지베 이를 안 하고 이러니. {그러면 그 새님이, 아 이 사람아 자네, 어떻게 이리로 왔는가? 집에 일을 안 하고, 이렇니}

@ 근데 샌:니미 누군가요? {근데 새님이 누군가요?}

새:니미 바로 호짜 준짜 이 양바니조. {새님이 바로 호 자 준 자 이 양반이쥬.}

@ 아아 이르플 그 다르게 부르니 샌:니미라고 부른건가요? {아아, 이름을 그 다르게 부른 것이 샌님이라고 부른건가요?}

응 그럼. {응, 그럼}

옴:나레 그레 불러꺼드노. {옛날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도 보고 떠기 보고 소알 아실갈? {그러니까 제가 장도 보고, 떡이 보고 ** 아십니까?}

그러케 얘기하니까드루, 금 떠글 머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떡을 먹게.}

그래 떠글, 그러니까두루 그 시방 모 보통 장에 가며는 마:년 이마:년 머거봐야 안 되게꺼든. {그래 떡을,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보통 장에 가면 만 원, 이만 원, 먹어봐야 안 되겠거든.}

그래 큰: 말: 떠글 딱 주무는, 그 사라미 그 전 장구니 그걸 머꼬는 인제 또 지부로 온다 이기여. {그래 큰 말떡을 딱 주며는, 그 사람이 그 전 장군이 그걸 먹고는 인제 또 집으로 온다 이거야.}

그래이머는 새:님 너는 마를 타고 가니까, 하루 가고 두: 말 가다 자 자고 이러고 쉬지마는, 이 장 전 장구는 추끼레 강거야. {그러면 새님 너는 마를 타고 가니까, 하루 가고 두 말 가다 자고 이러고 쉬지마는, 이 전 장군은 축지해서 간거야.}

@ 아 축찌에서 {아 축지에서}

또 주찌에서 하무는 후:카먼 저 흥 나라가고 흥 날라가고 거 또 찌불하는데 꿩: 두찌머 와보먼 지베 와꺼든.{또 축지해서 하며는 혹 하면 저 혹 날라가고, 혹 날라가고, 거 또 **하는데, **** 와 보면 집에 왔거든.}

그날 하루는 땡, 그 전 장, 전 장구니, 가마::니 생가카니까드루, 중:, 그 어디 가래 바꿀 중:니미 라고 이따요. {그날 하루는 땡, 그 전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 그 어디 가래 바꿀 중님이라고 있어요.}

왜 그때는 얘기가 시방 스 스니미라 하는데, 가래 버꿀 중:니미라고 해따고 중:눔. {왜 그때는 얘기가 지금 스 스님이라 하는데, 가래 바꿀 중님이라고 했다고, 중눔}

@ 가 가래 받? {가 가래 받?}

바꿀 중:눔, 중느미 우:무카꺼드노. {바꿀 중눔, 중눔이 우묵하거든요.}

@ 네.{네}

우무캐 그래한다고. {우묵해 그래한다고}

@ 중:느미라고? {중늠이라고?}

응.{응}

중:니미라고 또 그래해따고. {중늠이라고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때 중:이 하도 어데 어데 준:시 그 전 장군하고 씨:름하로 온다는거여.{그래 그때 중이 하도 어디 어디 ** 그 전 장군하고 씨름하러 온다는 거야.}

@ 네.{네}

그래 전 장구니 가장:: 생가하니까드루 자기 키 자기가 장구느로써 드는 걸 몰 퀘 두드리는 거는 기운 씨:지마는, 마닐 불:또로 하는 기술 하는 건 모타게꺼든. {그래 전 장군이 가장 생각하니까, 자기 자기가 장군으로써 드는 거 뭘 퀘 두드리는 거는 기운 세지마는, 만일 불도로 하는 기술 하는 건 못하겠거든.}

@ 불또 기술료? {불도 기술요?}

응, 고케 하는 그거슨 머시 중 한테는 스님한테는 모타게쓰니까, 이 사라미 꺾:를 내따구, 장구니.{응, 그렇게 하는 그것은 중 한테는 스님 한테는 못 하겠으니까, 이 사람이 꺾을 냈다구, 장군이.}

@ 네. {네}

마당에 나가가지고, 마당 마당에 나가주고 큰:: 돌: 돌리쪼, 통 통똥.{마당에 나가가지고, 마당 마당에 나가가지고, 큰 돌,돌 있쪼? 통 통돌}

돌 큰: 늠, 아주 아른 돌:미를 망치를 가지고 똑또또또독 깨서 그래 자:꾸 손뼉을 올려 소늘 인제 반들반들 만드려.{돌 큰 늠, 아주 알은 돌맹이를 망치를 가지고 똑또또또독 깨서 그래 자꾸 손뼉을 올려 손을 인제 반들반들 만들어.}

@ 네 네. {네 네}

그래노코는 아:무나 온다는 거 즉 그 전 장구니 지 집까비, 생가기 나거든. {그래 놓고는 아무나 온다는 거 즉, 그 전 장군이 집값이 생각이 나거든.}

아이 그 내일 하면 어딜 갈보꼬 중:이 나하구 씨름하러 올꺼다. {아이 그 내일 하면 어딜 갈보꼬 중이 나하고 씨름하러 올꺼다.}

생가글 하구는, 젤: 새:니를 보고, 제 노려~이 이쓰니, 오늘 저는 어딜 좀 가야 되게썸니다. {생각을 하고는 * 새님을 보고, 제 요령이 있으니, 오늘 저는 어디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가래 바꿀 중:이 씨름하러 옵니다.{왜? 가래 바꿀 중이 씨름하러 옵니다.}

저하구 저 전 장구니라고 씨름하러 오며는, 새:님께서 우리 장구는 어디로 가따.{저하고 저 전 장군이라고 씨름하러 오며는, 새님께서 우리 장구는 어디로 갔다.}

오늘 볼릴 보러 가따. {오늘 볼일 보러 갔다.}

이래카시고, 뭐하러 완냐 이러케 무러 보시고 그래면, 뭘 할꺼미다 그래씨.{이렇게 하시고, 뭐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 보시고 그러면, 뭘 할 겁니다, 그랬어.}

그래 인제 장구는 가빠리고, 인제 중:이 그 이튿날 와따. {그래 인제 장군은 가버리고, 인제 중이 그 이튿날 왔다.}

언제 오니 그르 무르니까, 전제 저 새:님 하는 말쓰미 그리문 우리 장구는 어디 간는데 우째 오썸썸니까? {언제 오니 그렇게 물으니까, 전제 저 새님 하는 말썸이, 그러면 우리 장군은 어디 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 장구니, 아이 기우니 쫘 그래가 내가 어디 가 씨름 한 번 겨루러 와썸미다. {아이 장군이, 아이 기운이 쫘 그래서 내가 어디 가 씨름 한 번 겨루러 왔습니다.}

아이구 말두 마시오. {아이구 말도 마시오.}

우리 전 장군 지금, 씨 씨름 해바야 모따 한 테이니까 그냥 가시오. {우리 전 장군 지금, 씨름 해 봐야 못할 테니까 그냥 가시오.}

그냥 가라니까드루~기 안 되게꺼든. {그냥 가라니까 안 되겠거든.}

@ 네. {네}

그 보:고 가야 한 번 보:고 가야 된다고. {그 보고 가야 한 번 보고 가야 된다고.}

그 보:나마나 우리 장군 솜씨를 볼람미까? {그 보:나마나 우리 장군 솜씨를 볼람니까?}

저 마당에 큰: 동:뿔, 저걸 마리어 우리 전 장구니 탁 드러다가, 광주에 치뜨린다 이기야, 확 {저 마당에 큰 동돌, 저걸 마리아, 우리 전 장군이 탁 들어다가, 광주에 치뜨린다 이거야, 확}

공처럼 확 치뜨러가지고서는 굴러와서 탁 때려 방는다 이기여. {공처럼 확 치뜨러가지고서는 굴러와서 탁 때려 박는다 이거야.}

@ 아...{아...}

이제 해테가두씨리 {이제 *****}

@ 네 {네}

가마::니 보니까드룬, 중:이 가마:니 보니 그 씨:니미거든, 장구니. {가만이 보니까, 중이 가만이 보니, 그 스님이거든, 장군이}

@네. {네}

가서 동 토러 가설 달라보니 땅땸두 안 하거든:. {가서 동 돌에 가서 들어보니 땅땸도 안 하거든.}

@ 예? {예?}

땅땸 안 한다, 땅땸. {땅땸 안 한다, 땅땸}

땅땸미라 이 이 {땅땸이라 이 이 }

@ 아 따~ 땸또 안 한다고요? {아 땅땸도 안 한다고요?}

응 응 아난다 안 한다 토리 {응, 응, 안 한다, 안 한다, 둘이}

@ 땅에도 이게 안 떠러진다 {땅에도 이게 안 떨어진다.}

안 떠러지지, 이게 이찌. {안 떠러지지, 이게 있지.}

그 땅뜨미 네, 그랜 그래. {그 땅뜨미 네, 그래 그래.}

@ 아 네, 땅땸 네. {아 네, 땅땸, 네}

그래서 손:때 걸러 반드르 보다 하는코 보니까드루, 실:째룬 아 이거 그말 증말 전 쟁구니 시뜨라지 안 쿨 굴러보다 아니 먼저 이걸 빨리 가야지. {그래서 손:때 걸러 반드르 하는 거 보니까, 실 제룬 아 이거 정말 전 장군이 **** 안 굴러보다 아니 먼저 이걸 빨리 가야지.}

클나게꺼든. {큰일 나겠거든}

@ 네. {네}

그 나두구 가따 이기여. {그거 놔두고 갔다 이거야.}

간는덴 또 며칠때까드루 중:이 가서 가마::니 생가켜다 쏘:거꺼든. {갔는데 또 몇 일 되니까 중이 가서 가만이 생각하다 속았거든.}

@ 네. {네}

그때 동항며네 이레 큰: 광무를 피 치떠리려문 치 이룬 확 치뜨린다 하더료, 골로 방는다는 거는 고리 깨지두 이꼬, 그기 택쏘쭈 일컨두~ 여 공갈로 쏘:거따는 거 알거든: {그때 동학면에 이렇게 큰 광무를 치떠리려면 이렇게 확 치뜨린다 하거든, 골로 박는다는 거는 골이 깨지기도 하고, 그게 *** 공갈로 속았다는 거 알거든.}

장구니 그러고 가쓰니까, 음 중:이 가마:니 생가카니까드루, 아 이걸 아무래도 안 되게꺼든. {장군이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음 중이 가만이 생각하니까,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다:시 또 인제 다음날 또 와따 여 여기를, {다시 또 인제 다음날 또 왔다 여 여기를}

와가지고 그 다음 장군을 만:나따 이기여. {와가지고 그 다음 장군을 만났다 이거야.}

완는데 장구니 와서 쪼차 쪼께 갈 쑤도 업꼬, 너 왜 완느냐? {왔는데 장군이 와서 좇아 좇겨 갈 수도 없고, 너 왜 왔느냐?}

나 또 씨름 줌 하러 와따고요, {나 또 씨름 줌 하러 왔다고요.}

그럼 해보자.{그럼 해 보자.}

그래 그 놈두고, 요기 올라가면 요게, 한 일 한 한 사: 한 유칠뱅 메다 가면 여: 이씨요, 여게 {그 래 그 놈두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 한 일 한 한 사, 한 육 칠백 미터 가면 여기에 이씨요, 여기에}

큰: 싱냥 구:리가요.{큰 식량 굴이가요.}

이 이런 구:리따고요.{ 이 이런 굴 있다고요.}

@ 네, 구리요?{ 네 굴이요?}

응, 구:리 인는데, 거게 보면 이걸 뽕~에, 뽕대라 이씨 뽕때. {응, 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거 뽕에, 뽕대라 있어, 뽕대}

@ 예. {예.}

#뽕때 아 아세요, 뽕때?{뽕대, 아 아세요, 뽕대}

@ 네네, 뽕때, 그 아주 별 이게 볼, 돌 이러케 노퍽 벼락 뽕때 예 {네네, 뽕대, 그 아주 이게 볼, 돌 이렇게 높은 벼락 뽕대, 예}

그건 뽕:때라 한다고 엔:날 우리 과:거에 뽕때 {그건 뽕대라 한다고, 옛날 우리 과거에 뽕대}

@ 요즈문 벼:랑인데 뽕때라고 하조, 뽕때. {요즘은 벼랑인데 뽕대라고 하조, 뽕대}

그래 인젠 걸르쓰 씨름 쫘 하다 가서 그 중:이 전 장구를 보고서는 ,저:: 꼭대기에 가서 함 네 뽕: 보라. {그래 인젠 걸러서 씨름 쫘 하다 가서 그 중이 전 장군을 보고서는, 저 꼭대기에 가서 한 번 너 뛰어 보라.}

나려 내 와봐라. {내려와 보라.}

장구니 머 머 내려봐라 이카~두루, 응 꺾 가게따 이기야. {장군이 뭐 뭐 내려와 보라 이렇게 하 니까, 응 거기를 가겠다 이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메짜썩 무:거. {그러고서 나중에 몇 자씩 먹어.}

부굴 등 등:: 데니까, 그니까 장구거튼 그래 하주화 , 하준 하게꺼든. {북을 둥둥 데니까, 그렇니 까 장구 같은 그래 하주화, 하준 하겠거든.}

부굴 등 등:: 확: 정말 내려오니, 이 내려오는데:, 아이 너는 중:이 마리얀 창, 창 찌를 창 이쪄? 대창. {북을 둥둥 , 확 정말 내려오니, 이 내려 오는데, 아이 너는 중이 말이야 창, 창 찌를 창, 있 죠? 대창}

차:~을 가지고, 장구들 확: 낭내로 치:니깐뇨 {창을 가지고, 장군을 확 *** 치니깐요.}

그림 저 자불라고 한줄 알지요. {그림 저 잡을라고 한 줄 알지요.}

그래요~이 장:구니 시물 쪼끔 내도 흘:쩍 나라서는 저 쪼그로 나라꺼던. {그래 장군이 힘을 조 금 내도, 흘쩍 날아서는 저 쪽으로 날았거든.}

날개가 이쓰니까 나라서, 그래 모짜바따 이기여, 중이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서, 그래 못 잡았 다 이거야, 중이}

이제 그래 그래드니 이제 장구니 또 뭐이라하냐머는, 야 나는 {이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장군 이 또 뭐라고 하나면, 야 나는 }

@ 근데 왜 주기 주길려고 그래씨요? {근데 왜 죽이 죽일려고 그랬어요?}

아 엔:나레는 씨 씨 기우니 씨:고 이래머는 그 {아 옛날에는 기운이 썩고 이러면 그 }

@ 아 주길라고? {아 죽일라고?}

그러초, 엔:나렌 인젠 뭐 이 장:구니라고 그러면 서로가 까마비로 그 그 그래꺼드뇨. {그렇죠, 옛날엔 인젠 뭐 이 장군이라고 그러면 서로가 까마비로 그 그랬거든요.}

그리니까 그저 그러니까 그러니 이노므 중:이 가마니 생가커니까 장구늘 모 짜버꺼든.{그러니까 그저 그러니까 그러니 이놈의 중이 가만이 생각하니까 장군을 못 잡아꺼든.}

@네. {네}

그러초, 이 인제 클라꺼든.{그렇지요, 이 인제 큰일 났거든.}

저 봉종타기, 나는 나는 내려와쓰니까 너도 너 중:눔 놈 중:눔 너도 마리오, 나도 내려온다 이거여. {저 봉종타기, 나는 나는 내려왔으니까 너도 너 중놈 중놈 너도 말ियो, 나도 내려온다 이거야.}

@ 이 저 씨:름 절금 저게 저거메기니까 기술 저젠니 저금하니까 기술로{이 저 씨름 절금 저게 저거 메기니까, 기술 저게 저금하니까 기술로}

절그미 뭘미까?{절금이 뭘니까?}

어:우로 노 이케 {어울러 봐 이렇게}

@ 아 서로 절금하는거요. {아 서로 절금하는 거요}

쫌: 저금하는 걸 그걸 절그미라 한다고. {쫌 저금하는 걸 그걸 절금이라 한다고.}

그 씨:름 저그미지. {그 씨름 저금이지.}

@ 아 씨름 저금 네.{아 씨름 저금, 네}

그래 인제 올라가요 인제 {그래 인제 올라가요, 인제}

미테는 참 부굴 똥똥: 치니까드루 이놈 중:이 안 드러 올 쭈 이짜네요.{밑에는 참 북을 똥똥: 치니까, 이놈 중이 안 들어 올 수 있자나요.}

@ 네네. {네네.}

그 주떼런 인제 내 때:들 꺼 아니요.{그 죽 대드러 인제 내 때릴 거 아니요.}

흥: 나라 내려오는데, 그 씨:를 고만 모시 전 장구니 그 대창 대창 이짜네.{혹 날아 내려 오는데, 그 새를 그만 전 장군이 그 대창 대창 있잖아.}

대드러서 콧: 찌르니, 주구무는 지팍 치지를 건드론 장구는 후 떠가져 가는데, 이놈 모시기는 중:은 나는 갈 쭈 업짜네. {대드러서 콧 찌르니, 죽으면 집 밖 *** **, 장군은 혹 떠가져 가는데, 이놈 뭘시기는 중은 나는 갈 수 없잖아.}

요 탁 찢체가지고 요지를 자버따고. {요 탁 질러가지고 요지를 잡었다고.}

자버가주고 바로 글 중에 시 시 사:체, 사:체조. {잡어 가지고 바로 그 중의 시 시 사체, 사체조.}

사:체를 가따가 어데 무더주고 그 진녕꾸리라 이씨요.{사체를 가져다가 어디 묻어주고, 그 진녕 굴이라 있어요.}

@ 어 어느 굴 {어 어느 굴?}

지 진장굴:, 천장굴 {진장굴, 천장굴}

@ 아 천장굴: 네 {아 천장굴, 네}

천장구:레 그 가둔다가 지버너서 거기서 그 씨거, 중이 썩는데 그 뼈:가 뼈:가 우리 내가 우리가 봐:따고 {천장굴에 그 가둔다가? 집어 넣어거기서 썩어, 중이 썩는데, 그 뼈가 뼈가 우리 내가 우리가 봤다고,}

시바~는 업는데 우리가 한 삼십 썩 될 썩게 고 아넌 토 토닥 비둘기가 건 가 자요.{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한 삼십 살 될 적에 고 안에 토 토닥 비둘기가 거기 가 자요.}

지부로 {집으로}

@ 아 비둘기가요? {아 비둘기가요?}

그럼 우리가 청년시저레 이 소까주굴 부쳐 가지고 거: 비둘기 자부러 가무는 {그럼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이 소까지를 부쳐 가지고 거기에 비둘기 잡으러 가며는 }

@ 술갑 소까불 부쳐따고요? {술갑, 술갑을 부쳤다고요?}

소 소 소까지, 소까지{소 소 소까지, 소까지}

@ 아 소까지 자바서요, 아 예 예. {아 소까지 잡아서요, 아 예 예.}

소까지 뿌리라는 건 부쳐가지고 소나무 속 뿌리파서 부쳐가지 건디 거 이러면 자:넌 이럭 빠러 박:따망거 {소까지 뿌리라는 건 부쳐가지고, 소나무 속 뿌리 파서 부쳐가지고 거 이러면 ** 이러케 ** 박다만거.}

@ 어 빠가 이써썬요? {어 빠가 있었어요?}

응, 그럼 그럼 그럼. {응, 그럼 그럼 그럼. }

근디 요즘 모 그냥 사는지 모른두~, 그래서 하늘 천짜, 천자이거든 {근데 요즘 뭐 그냥 사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늘 천 자, 천 자 이거든}

@네 {네}

장:사진는 거 장사 짜, 그래 그래서 천장구:리요.{ 장사 진는 거, 장사 자, 그래 그래서 천장굴이요.}

구:리 그루 크:게 인는데, 그 이르미 천장구리라구. {굴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그 이름이 천장 굴이라고.}

그 유래가 한 역사가 그루 되우. {그 유래가 한 역사가 그렇게 되우.}

그래 그 장:군, 그 장:구는 대략 보면 무:래요, 무:{그래 그 장군, 그 장군은 대략 보면 무래요, 무}

장계를 안 가 안 가짜네, 장가를 머 장군 장군짹, 장군집 장군 뭇 하다 보니까 장:가를 묻 까따 구유. {장가를 안 가, 안 갔잖아, 장가를 뭐 장군 장군집, 장군집 장군 뭇 하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갔다고요.}

그럼 무:허고 제 지끔 제가 늘거짜뇨? {그럼 무하고 제 지금 제가 늘었잖아요?}

@ 예? {예?}

무: 무: {무, 무}

@ 네{네}

아드리 업쓰니까 뭐: 어들겨 {아들이 없으니까 뭐 얻을꺼야}

무: 무: 업쓸 무짜, 어 무:가 되짜뇨. {무,무, 없을 무 자, 어 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장구느 묘:가 저: 이씀니다, 저 우리 요게. {그래서 장군의 묘가 저기에 있습니다, 저 우리 요기에}

@ 아 그래요?{아 그래요?}

시방도 가 보면 인는데, 엔:나래 크:게 켜:는데 그 무거썬요. {지금도 가 보면 있는데, 옛날에 크게 지었는데 그 묵었어요.}

요러구 치면 소:리 망 나거든, 이러케 타구. {이렇게 치면 소리가 막 나거든, 이렇게 타구}

@예. {예.}

그래 유래가 그런, 이 이 동네 유래 유래라구 그게 {그래 유래가 그런, 이 이 동네 유래 유래라고 그게}

@ 아 그런게 이써요? {아 그런게 있어요?}

으이 이 미테 썬:기 요 암 미테 터에: 전씨드리 울리는 터이 지끔, 고 고향 호짜 준짜하나, 아드리 소 손자가 칠형제가 실무자 칠학짜, 실무자란 모이미 이러구서 일고비 다: 살림사리 괜찬탄 얘기고, 학짜라는 거는 그리 세 일곱 사람 다 칠형제가 다 그리 조탄 얘기요. {으이 이 밑에 저기 요 앞 밑에 터에, 전씨들이 울리는 터가 지금, 고 고향 호 자 준 자 하나, 아들이 소 손자가 칠형제가 실무자 칠학자, 실무자란 뭐냐면 이러고서 일곱이 다 살림살이 괜찬단 얘기고, 학자라는 거는 글이 일곱 사람 다 칠형제가 다 글이 좋다는 얘기요.}

그러케 전 전 전씨드리 오래 살:다가 오:덴마:네 떠 떠나가따구.{그렇게 전 전 전씨들이 오래 살다가 오 대 만에 떠 떠나갔다고.}

서울로 막 떠나가버려썬, 그 저네가 전씨들 드:러 가지고, 또 고만 그 또 마~하고, 또 전씨가 드려가 마:하구이루, 그 털 지버 떠비여따고 {서울로 막 떠나가버렸지, 그 전에가 전씨들 들어 가지고, 또 고만 그 또 뭐 하고, 또 전씨가 들어가 뭐 하고 이래, 그 터를 집어 떠비었다고.}

그 인자 아푸로 그 이직 후:세에 인질 여기 나오꺼요. {그 인제 앞으로 그 이직 후세에 인제 여기에 나올거요.}

그런데 그 터:이 뭐냐면, 이 뒤에 일본 싸람드리 엔:나렌 그 연하부:수형국 고 아페 찌리 도로가 나는데, 일본 싸람드리 도로를 구직 전: 저:늘 끄너따구. {그런데 그 터가 뭐냐면, 이 뒤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연화부수형국 고 앞에 길이 도로가 나는데, 일본 사람들이 도로를 구직 전, 전을 끊었다고.}

@ 멀 끄너요? {뭘 끊어요?}

주 주룽 주룽 {주 주룽, 주룽}

주룽은 뭐예요? {주룽은 뭐예요?}

주룽이요, 직 직 사늘 산 이겨 썬데논 이 인 제 용주를 주룽이라 합니다.{주룽이요, 직 직 산을 산 이겨 썬데 놓은 이 제 용주를 주룽이라 합니다.}

직때 용주를 {직때 용주를}

@ 주: {주}

주룽 주룽 주룽 주룽. {주룽, 주룽, 주룽, 주룽}

@ 주:룽이라고 쓰나요? {주룽이라고 쓰나요?}

@ 그 한짤가요?{그 한짜인가요?}

아 주룽이라곤 찌 이 찌 이 저 용 용짜는 용 용짜를 쓰지, 주룽이 주룽이 이레 타나, 내려 타 내려 온다능거 {아 주룽이란거는 저 이 저 이 저 용 용자는 용 용 자를 쓰지, 주룽이 주룽이 이렇게 타나, 내려 타 내려 온다능거}

산 산세에서, {산 산세에서,}

@ 아...주룽이라는 그 불근 용이 내려온다고요? {아 주룽이라는 그 붉은 용이 내려온다고요?}

그러치 그러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 요 요 요 그런 유래는 머 이거는 유래가 현:재 지금 내려오는 유래 유래가 아니, 한 삼백 년 이백오십 년 고 고 새:에 내려오는 머 역싸란 역 역싸라고 볼 쭈 이쓸까? {그래 요 요 요 그런 유래는 뭐 이거는 유래가 현재 지금 내려오는 유래, 유래가 아니, 한 삼백 년 이백 오십 년 고 고 사이에 내려오는 뭐 역사란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

@ 네네, 아...{네네, 아}

요 그리구 또 요 고령터 이써요, 고령터.{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 고령터 있어요, 고령터.}

@ 고...{고}

고:래 고래장. {고려, 고려장}

@ 아 고래장터 {아 고려장터}

칠씨베 고래하는 고래장터. {칠십에 고래하는 고래장터}

요 이따구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응 쏜 고려장 고려 고려 때 해께찌, 그런데 시방 거 터 이따구 터이 {그거는 고려장, 고려 고려 때 했겠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터가 있다고, 터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도 이러케 이러케 해난 터 이따구.{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터 있다고.}

고려장, 이거 우리 마으레.{고려장, 이거 우리 마을에.}

@ 아 예. {아 예.}

@ 고런 고런 전서리 또 인네요. {그런 그런 전설이 또 있네요.}

@ 혹씨 고령 거 말고 또 아시능 거 이쓰세요? {혹시 그런 거 말고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 이... 쪼게 {이 쪽에}

그래 아께 그 여나부:수형구기라구, 그거이 참 얘기컨데 그래 그래니까드루 인제, 그 연하부:수형구근 모나하머는 아께 그 전 전씨들 근 장 전장구니 거기 나:고, {그래 아까 그 연화부수형국이 라고, 그거 참 얘기인데, 그래 그러니까 인제, 그 연화부수형국은 뭐냐면 이까 그 전 전씨들 장, 전장군이 거기에서 나고,}

@ 고 난 터가 네, 연하부:수형국 {거기 난 터가 네, 연화부수형국}

고마니 연하부수인데, 그건 그건 도승이가 {*** 연화부수인데, 그건 그건 도승이가}

@ 누가요? {누가요?}

도 도승이 {도 도승이}

@ 도승이 {도승이}

도승이, 그래 도승이가 거...저건 잘 아는데, 여겐 여겐 그...지불 지꾸, 터글 자부머는 삼:나메 이 르를 날리게따. {도승이, 그래 도승이가 거...저거는 잘 아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그...집을 짓고, 터 를 잡으며는 삼남에 이름을 날리겠다.}

그래건두 시미에는 남 따는 안 바꼬, 썩~ 도라가메 동서남부그론 자기 소유를 가:제꼬, 삼:나메 이름 날려도, 이 이레 정선 땅에 근 서울 땡기며 광야를 보러 땡기게따 그 얘기여. {그래 그건 시 미에는 남 땅은 안 받고, 썩~ 돌아 가며 동서남북으론 자기 소유를 가져 지었고, 삼남에 이름 날 려도, 이 정선 땅에 서울 다니며 광야를 보러 다니겠다 그 얘기야.}

@ 아 삼:나문 어디 정도에? {아, 삼남은 어디 정도에?}

삼나문 인제 말하자머는:, 그인 여기 지여 카:고, 고다메 머 위일 머 일 서울 가머는 이 제 제 처느로 해나가던 그러차네요? {삼남은 인제 말하자면, 그 여기 지역 하고, 그 다음에 뭐 위 뭐 이 서울 가머는 이 제 제천으로 해 나가던, 그러참아요?}

형:서울 해 나가던지, 감, 까: 가 이름 날리면 서울가 날리고, 삼나메 겐 군데군데 이름 날리게 따. {형섭을 해 나가던지, 감, 거기 가서 이름 날리면 서울 가 날리고, 삼남에 군데군데 이름 날리 겠다.}

그럼 근 그래가주 거게서 칠력짜 칠부자가 나고, 그래서 연하부:수형구기라 해서, 그 이러케 내 가는데, 고다메 뜰 뽕짜 꼬 툄짜 하다가 인제 호:머니라고 인제 중도가 제:꼬, 그래가지고 저: 지 금 저 여게 내다 봄 우리 경로당이쨌요? {그럼 그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칠력자 칠부자가 나고, 그 래서 연화부수형국이라 해서, 그 이렇게 내 가는데, 그 다음에 뜰 범짜, 꽃 화짜 하다가 인제 호 면이라고 인제 중도가 지었고,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저 여기에 내려다 보면 우리 경로당 있지요?}

@네 {네.}

저긴 여놔당입니다, 여놔당.{저긴 연화당입니다, 연화당}

@ 아...{아...}

저걸 내가 제:썩요. {저걸 내가 지었어요.}

@ 아...네.{아...네.}

옴: 나레 그 심양 올라가면 이 쪼그로 응어리집, 또 이기 연꼬치 요레 하나머니 가이짜네요.{옛 날에 그 심양 올라가면 이 쪽으로 응어리집, 또 여기 연꽃이 이렇게 하나 면이 가 있잖아요.}

@예?{예?}

연꼬치 연꼬치 무:레 떠 이쓰니까 무:레, 연꼬또 무레 이찌, 따~ 읍짜네요. {연꽃이 연꽃이 물에 떠 있으니까 물에, 연꽃도 물에 있지, 땅에 없자나요.}

그 썩 연꼬치 모:세 인는데 연모세 인는데, 연꼬치 하 항 개가 인능게 아니라 이기여. {그 연꽃 이 못에 있는데 연못세 있는데, 연꽃이 한 개가 있는게 아니라 이거야.}

쿵 거 이꼬 두: 개 이썩 꺼 아니요. {큰 거 있고, 두 개 있을 거 아니요.}

그래 큰: 부자쩍 터:에 한 제일 쿵:기고, 요 올라오면 해: 요거또 존소가, 이 옴 연꼴 모 모 모

야~이래요, 요러케.{그래 큰 부자집 터에 제일 큰 거고, 여기 올라오면 해, 이것도 존소가 이 연꽃 모양이래요, 이렇게}

그런디 그래서 저거, 저걸 요 여봐 부:수형구기라고, 그걸 내가 내가 제:써그래. {그런데 그래서 저거, 저걸 연화 부수형국이라고, 그걸 내가 내가 지었어그래.}

@ 아...그러쿠나. {아 그렇구나.}

@ 어르신, 요 가까운 지여게 보니까, 그 여긴 호처인데, 저 저 오다 보니까 모르는 데도 이꼬, 소금강도 이짜나요. {어르신, 여기 가까운 지역에 보니까, 그 여긴 호천인데, 저 저 오다 보니까 모르는 데도 있고, 소금강도 있잖아요.}

@ 그런 쪼게서 내려 온 전설가튼 건 업나요? {그런 쪽에서 내려 온 전설 같은 건 없나요?}

거게 모루::니라는 거는 그:: 물: 모짜 구름 구름 운짜, 구르미 모 모여 대~긴다고 해서 거겐 모루니라구 으 그러케 개명을 헐줄 알고, {거기에 물운이라는 거는 그 물 모 자, 구름 구름 운 자, 구름이 모 모여 다닌다고 해서 거긴 물운이라고 그렇게 개명을 했는 줄 알고,}

고 다으메 그...구르미건 한치, 한치 미치 바로 소금강 이꺼드뇨. {그 다음에 그 구름이건 한치, 한치 밑이 바로 소금강 있거든요.}

소금강 문자 그대로; 여 금강산 아니래, 금강산. {소금강 문자 그대로, 여기 금강산 아니래, 금강산.}

그 그르 내려가면 그 그림바우래요, 그림바우.{ 그 그쪽으로 내려가면 그 그림 바위래요, 그림 바위.}

먼: 소재지까지 그림바우라고, 내려가면 그림바우. {먼 소재지까지 그림바위라고, 내려가면 그림바위.}

바우가 {바위가}

@ 네. {네}

바우가 그림처럼 생겨짜네요. {바위가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 그러쵸 아주 예쁘고 조쵸. {그렇쵸, 아주 예쁘고 좋쵸.}

응, 그러니까 그림바우. {응, 그러니까 그림바위.}

@네,{네}

그래서 거 화:아미래요. {그래서 거기가 화암이래요.}

그림 화짜 바우 암 짜, 그래서 거 화암며니다. {그림 화 자, 바위 암 자, 그래서 거기가 화암면이다.}

@ 아 그래요?{아 그래요?}

화아미고 그래서 화아미고, 동면 화아민데:, 장녀네 장녀네 와서 똥머늘, 역싸에의 이 이르틀 까무데:고 화:물 해따고.{화암이고 그래서 화암이고, 동면 화암인데, 작년에 작년에 와서 동면을, 역사의 이름을 까무데고 화암을 했다고.}

그래 존속 우레가, 나는 반대해씨요. {그래 존속 우리가, 나는 반대했어요.}

반델로 이 모인 윈손 존속 반대 하다가, 뭐 강능 이장드리 머 그따고 그러는데, 요 인 화:아미라는거는 그림 화 짜, 으 으 바우 암 짜, 그림 그린 그림 그링 거 처럼 생겨따하냐, 행 그걸 동며니라 써 노면 안 되잔냐 얘:기야. {반대를 이 뭐 윈손 존속 반대 하다가, 뭐 강릉 이장들이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화암이라는 거는 그림 화 자, 바위 암 자,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것 처럼 생겼다해서 한 그걸 동면이라 써 놓으면 안 되잖냐 얘기야. }

그래서 그래서 그 소굼 소굼강이, 그 내려가면 금강산처럼 이러케, 바우가 잘 생겨짜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 소굼 소굼 강이, 그 내려가면 금강산처럼 이렇게 ,바위가 잘 생겼잖아요.}

그래 그 소굼, 그 물거니라지 물, 그 물 쪽 꼬 꼬래, 저 인 소굼강이라고 소굼 거 소굼강. {그래 그 소굼, 그 물건이라지 물, 그 물 쪽 그 그래, 저 이 소굼강이라고 소굼 거 소굼강.}

@ 네{네}

그래 소금강이라 하지.{그래 소금강이라 하지.}

@ 네, 예, 잘 드러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항목번호	표준어	강원 정선
20101	벼	베가 노러케 잘 이거따
20102	이삭	베 이사기 베이사기 잘 여무리따
20103	볍씨	볍씨 볍씨 벼 씨가 아니고 볍씨
20104	못자리	모를 분능걸 모자리 모자리
20105	모판	모판 베가 올러오면 모판
20106	쟁기	*
20107	보습	보습 보소비 크다 보소피가 머 이거 보소플
20108	벗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요건 보구레 호리보구레(+소 한 마리 가 끄는 것) 저리뽀구레(+소 두 마리가 끄는 것)
20110	씨레	씨그레
20111	번지	이건 번지
20112	모내기	모내기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흙똥~이 흙똥이
20114	고무래	끌개(+발, 크기가 작음)
20114-1	고무래(곡식)	끌:개라한다고(+곡식)
20114-2	고무래(재)	곰배라고 또 이써 곰배라고 곰배(+아 궁이)
20114-3	고무래(흙)	논에 끌개 농끌개(+크기가 큼) 바테는 밀:개
20114-4	고무래(미는 것)	미:농건 밀:개(+논)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끌:개(+곡식)
20115	쇠스랑	이건 소시라~이고
20116	곡괭이	꼬:괭~이 꼬:괭~이
20117	괭이	괭~이는
20118	삽	삽 사빈데 사비
20119	호미	호미(+신) 호메~이(+구) 그래 호메~ 이(+구)
20120	농기구	농쟁기라 하고
20121	짐	짐: 옴:나레는 여개 짐: 우리 짐:매러 가자
20122	김매다	김:맨다 그래지
20123	애벌 매다	아이매고
20123-1	두벌 매다	두:벌매고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번쨌 세:벌매고
20124	논둑	논뜨렁

20124-1	논두렁	예, 논뜨렁 뜨렁 드러~이니까 그럼
20125	발둑	바뜨렁(+발둑'과 '발두둑'의 차이가 없음)
20126	발두둑	바뜨렁 바뜨렁
20127	발고랑	고:리고 골:
20128	발이랑	등
20128-1	(발이랑을) 타다/갈다/쩌다/파다	골:탄다고
20128-2	이랑뵈기	*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갈:보리
20129-2	봄보리	봄보리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추경가리 갈:카리 간:다고 갈카리
20132	감부기	감부기
20133	두엄	두엄 거(+소, 소의 똥이 섞은 것)
20134	거름	거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
20202	벧단	베탄
20202-1	벧단	태:판
20202-2	벧단	*
20202-3	벧단	큰집판
20203	가리	가리
20204	가리다	베 가린다고 베를 가리고
20205	벧가리	베까리
20206	날가리	베까리(+날알 붙은 것)
20207	타작	타:작 타:자기라 타:작
20208	벼훑이	*
20208-1	그네	베훑치기
20209	개상	태:뜯
20209-1	자리개	태: 쪼
20209-2	자리개 질	태:질하자네 이러케
20210	도리깨	도루깨
20210-1	도리깨장부	도루깨장치
20210-2	도리깨열	도루깨노리
20210-3	도리깨꼭지	아 도루깨꼬지 꼬지
20211	벧짚	건 이:짚 베짚 이:짚 베찌까주오너라
20211-0-1	-을	베 지폴 가주오너라 이:찌폴
20211-0-2	-에	베찌베 불래지 마라 베찌페
20212	새 껍기	소:꼬개~이
20213	쭉정어	쭉쟁이
20214	티	뽕떼기
20215	까끄라기	까실치

20216	풍구	풍채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수아비
20219	흉년	흉년 흉녀~이 저따
20220	머슴	머승꾼
20221	눔	품파리 품파리한다
20221-0-1	-을	품파리를 한다
20222	품앗이	꾸마시
20223	품샅	풍갑
20223-0-1	-으로	풍갑씨 싸다 비싸다

2.1.3. 방아 찼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뽕아
20303	방앗공이	공이 방 콩이
20304	방아확	호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
20307	절구	절구
20308	절구통	절구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절구꼬~이
20310	절구질	절구질 절구 절구질
20311	겨	제
20312	보릿겨	보리째
20313	왕겨	왕게
20314	쌀겨	등게
20315	검불	검부지기
20316	껍질	껍띠기 껍띠기를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씩 잘돼따
20402	참쌀	참쌀
20403	멥쌀	멥쌀
20404	쌀보리	*
20405	조	조이
20406	차조	차조이
20407	메조	메조이
20408	좁쌀	좁쌀 좁싸리 짜롬하지 멀
20409	잘다	잘지
20410	조이삭	조이삭 조이사기구마 {조이삭이구먼}
20411	수수	쉬끼 쉬뀌
20411-1	붉은색 수수	소쉬뀌
20411-2	장목수수	장쉬뀌 장목수뀌라하지 장목

20411-3	찰수수	차쉬뀌
20411-4	메수수	메쉬뀌 메쉬뀌
20412	수수깡	속:때구~이라하는데 여:는
20413	옥수수	강내~이
20413-1	찰옥수수	찰강내~이
20413-2	메옥수수	메징거는 메강내~이
20414	귀리	귀:리 귀:리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 코~을 인제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메줄 가따 달지 매:단다
20420	띠우다	메주를 띠운다고 띠우먼
20421	곰팡이	곰파~이
20422	강낭콩	광:재~이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가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더꼬시지 창깨가 더 꼬시지 아주 꼬 시다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나무리지 나물
20502-1	나물(밭)_재료	나물 무체 머거따 바테 나물
20502-2	나물(밭)_반찬	나물 나물반찬 이래지(+밭)
20502-3	나물(들)_재료	나물(+들에 나는 것) 드레 나물
20502-4	나물(들)_반찬	나물반찬(+들)
20502-5	나물(산)_재료	나물 산나물 무체 머거따 나물(+산 에 나는 것)
20502-6	나물(산)_반찬	그이 나무리야(+산)
20503	푸성귀	푸장가리
20504	다듬다	따듬찌 나물 다듬는다 따듬꼬 무체 라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신) 무꾸(+구)
20507	썰다	썰:다구래지 썰:다고 뚜꺼께 썰:러서 썰:고
20508	무청	이파리 무꾸 썰기 무꾸이파리
20509	시래기	건추 쓰레기
20510	무말랭이	무꾸말래~이
20511	장다리무	장다리
20512	배추	배:차를 배:차

20513	고갱이	양꼬개~이 꼬개~이
20514	오이	외:
20515	오이지	외집치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매능기 소배기라고
20517	가지	가지
20518	호박	달다 다노박 {달다 단호박} 떡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올:감자 느낌자 자지감제
20521	우엉	*
20522	파	파가 만타
20523	고추	꼬추
20524	시금치	이건 시금치아녀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분:추
20527	상추	부루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내~이(+신) 나새~이(+구) 이 나새~
20531	달래	이를
20532	도라지	달롱
20533	더덕	도라지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바베서 이밥 쌀바비라 하고
20602	찬밥	씨근밥
20602-1	더운밥	뜨신밥
20603	조밥	조바비라 하고
20604	누룽지	누룽기
20605	눌은밥	누룽거리
20606	송냥	송님
20607	뜨물	쌀뜸물
20608	김(蒸氣)	짐: 뚜구운 지:미고
20609	갱죽(羹粥)	건추국쪽
20610	싱겁다	싱급따 싱거워 몸머께따
20611	국수	국쭈
20612	칼국수	가쉬기라고(+콩가루가 들어감)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라능거는
20613	건더기	그거도 국쭈지
20613-1	국물	컨디기 건디기
		궁물

20614	고명	피:미
20615	꾸미	고기피미
20616	미역	미역
20617	김(海苔)	김: 기:물 싸명는다
20618	수제비	수제비꼭 어 수제비 수제비
20619	끼니	끄니를 끄니를 굴머따
20620	미음	미음 미으믄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미음 때레 미긴다 미음 힌주글 쏜다
20621	엿기름	질금
20622	식혜(食醴)	감주
20623	식혜	세캐 연: 세캐라 한다고 {여기는 식혜 라 한다고}
20624	달다(甘)	달지 다라서
20625	가루	갈기되지 가루 쌀갈기여 먼:갈기여 갈기 갈기래도 가루라 하지 가루
20625-0-1	-에	가루에 하자믄
20625-0-2	-을	가루를 만지니 하야타
20625-0-3	-도	가루도 읍따
20626	밀가루	밀칼젠 밀가루
20627	밀기울	밀찌울
20628	미숫가루	미스가루 미::스가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장:물 때린다(+구)
20702	된장	된:장
20703	고춧가루	고추가루 꼬추가루
20704	고추장	꼬추장
20705	소금	소금
20706	김치	배추김치 배:차김치(+구, +다) 김치
20707	김장	다머따 김치
20708	깍두기	김장 김장을
20709	나박김치	깍뛰기 깍뚜기
20710	담그다	무꾸짚지 나바근 무꾸만 행기 나바기 지(+할머니)
20710-0-1	-고	김치를 잘 다무자
20710-0-2	-어라	잘 다무자 김장을 당구자
20711	양념	다머 당구자 당귀라
20712	버무리다	양념
20713	버섯	싹 빠무려라 싹 싹 버무레라 양니믄
20713-0-1	-이	버무리라 이랜다고
20714	콩나물	버섯
20714-1	콩나물	버서시 만:타
20714-2	숙주(나물)	콩나물
		콩나물 무침
		*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걀	계란 달걀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르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잘 빈는다 고:께 비저라
20722	흰떡	절편 절편
20723	고물	콩보세~이 콩 보세~이
20724	팔죽	파죽 파죽기 마시따
20725	새알심	웅:시미(+구) 거 새알(+신)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박쌍 튀배기 박쌍 튀배기
20728	술	수리 술 수를 마신다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저:기라고 적: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뜨막
20802	가마솥	가매라 하기도 하고 가마솥(+소) 가매솥(+다)
20802-0-1	-을	가매소틀 만드러따
20802-0-2	-에	가마소치 크다 쿡가매소치 크다
20803	아궁이	아구니
20803-0-1	-이	아구니가 크다
20804	그을음	끄시름
20805	불쏘시개	불살개
20806	연기	연기 연기가 땀따
20806-1	내(煙氣)	내금새가 난다
20807	그을리다	마:~이 끄시러따
20808	부지깥이	부지께~이
20809	부삽	부사비래 부삽
20810	넙다	내곶따 누니 내곶따 이래 너무 매곶따
20811	넙비	넙비라구래 넙비
20812	그릇	그륄
20812-0-1	-을	그르슬 설거지한다
20813	뚜껑	넙비뚜꺼~이 뚜껑을 가주오너라
20814	주발 뚜껑	게우
20815	사발 뚜껑	이걸 뽕찌께라 한다고
20816	술뚜껑	소뚜꺼~이 소뚜껑 소디~이
20817	밥주걱	뽕죽

20818	순가락	수까락
20819	젓가락	절까락 절까지
20820	종지	종지(+소) 종지기 머 이리치 머(+다) 종제기(+할머니)
20821	보시기	탕:끼 탕:깨 탕:깨
20822	뚝배기	뚜가리 마저 뚜가리 뚜가리는
20823	접시	즈:근접씨 큰접씨
20824	조리	조:리 쌀 쌀 이는 조:리
20825	이남박	쌀 이박 쌀리바기야 쌀리박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행주로 땀는다
20828	행구다	행귀라 행군다고 행귀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그른 썬:무리 자심무리라고 자신물 드 릅따
20831	찌꺼기	찌꺼기(+구) 찌꺼지(+신, +다) 찌꺼 기 버레
20832	화로	화:로
20833	화롯불	화:로뿔
20834	부젓가락	불 절까지
20834-0-1	-이	부절까지요 부절까지가 이따
20834-1	부손	불도두깨
20835	다리쇠	아르쇠 아르쇠 아르쇠
20836	석쇠	적쇠 모태는(+다) 이거도 모태라고 한다고 고기모태
20837	도시락	코:리
20838	바구니	바구미
20839	뒤주	뒤지 두지
20840	찬합	차:나비 마따고
20841	강판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개:다리소바~이지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암뽕
20902	벽	벽씩
20903	다락	새:가 그 다라기라고 다 다락
20904	벽장	벽짱
20905	감추다	감췌다 감쳐 나:라
20906	흙	흐:미 생게따
20907	돌쩌귀	돌:짜기 돌:짜
20907-1	암짹	암 암돌짹
20907-2	수짹	수노믄 수돌짹

20908	미단이	미:다지
20909	여단이	통무니야 통문
20910	덧문	덧문
20911	열다	활짝 여려야 된다 여려야 된다 으— ㄴ:다고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자물쇠라한다고
20914	간히다	가두케이따
20915	열쇠	열:쇠 업써 난 열:쭈 업따 열:쇠를 잘 보관해라 으—ㄴ:쇠
20916	잠그다	장군다 자무문 내가 꼭 자머쓰니까 장귀라
20917	구멍	구녀~을 뚫는다 구녕을 뚫는다 구 녀~을
20917-1	취구멍	취구멍 취 구멍으는
20918	찢다	쨌다 쨌지 마라
20919	구들	구들짱
20920	흙받기	흑빠침
20921	흙손	흑빠쭈
20922	흙칼	흐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칼 그:도 나무칼 나무카리고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꼬칼 쇠칼
20923	바르다	홀글 바른다 고:께 발러라
20924	장판	장판자리 나무장판
20925	종이	종이 백찌조~이
20926	도배	되배
20927	구석	저 구석 구석
20928	굽도리	문선도리
20929	깨끗하다	깨끄타니 기분조타
20930	문지방	저이 문찌바~이요 문찌빠~이 놓따
20930-0-1	-에	문찌바~아 올라가지 마라
20931	틈	틈 트메 바람드론다
20932	가장자리	방꾸서근 방꾸석
20933	가운데	복판 한복판 가운데 한복판 항가 운데 마:라 항가운데 모예라 우에 논능거 선반(+널빤지로 만듦) 선 바~이 머 행장(+긴 통나무 두개로 만 듦)
20934	시렁	부억 선반
20935	살강	거:도 선바니여
20936	선반	이거 빼다지
20937	서랍	화장대 이래따고 화장대
20938	경대	경:대 거울
20939	거울	거리노코 건:다
20940	걸다	호롱 코꿀 {고꿀} 등장 {등잔}
20941	호롱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이 놓따
21002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로 해서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수끼와
21005	암키와	암끼와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충이서까래 충 충이서까래
21009	처마	처마끝
21010	오두막	오두막싸리집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이영
21012-0-1	-에서	이영을
21013	용마름	용마름
21014	기스락	끄테 지스랑
21015	낙숫물	지스랑에 무리 흐른다 지스랑 물
21015-1	기스락물	*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루 거:도 용마루지
21018	토방	홀그로 해:도 디딤또리라 한다고
21019	댓돌	물바침 물바침 돌
21019-1	섬돌	되뜰 되뜰 되또리라 되뜰
21020	마루	마루
21020-0-1	-에	마래: 올라가지 마라
21021	툃마루	그양 마루여
21022	기둥	기둥
21023	주춧돌	주춧뜰
21023-0-1	-을	주춧뜰을 논는다
21024	굴뚝	굴:뚝

2.3.3. 마당

21101	뜰	오랍뜨리 가차운데는 오랍뜨리라 하고 압뜰 오랍뜨르는
21102	마당	내 이 마당을 지나가서 큰마당
21103	넓다	마당 우리 마다~이 널따
21103-0-1	-어서	마다~이 널러서 놀:기 조:타 마당이 널 버서 놀:기 조타
21104	넓히다	널퀴썸 조타
21105	곳간	고간
21106	외양간	마구간
21107	마구간	마~아지간 마아지간 마구가

21108	광	고방 고방
21109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독때
21112	장독 뚜껑	장:뚜께
21113	변소	정낭 그 정나~이라고
21113-1	똥장군	똥통 장분
21114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담:장 거 담:자~이고 담 다미 나따
21115-0-1	-에	다:메 올라가지 마라
21115-0-2	-도	담:자~이 낍따
21116	사립문	싸리문
21117	뒤꼐	똥:마당 댐:
21117-0-1	-에서	대:네
21118	바깥	바까치라구래지
21118-0-1	-에	바까테가 노라
21119	모퉁이	모티~이는
21120	모서리	모사리 모사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큰말: 마을 마을 동:네
21202	윗마을	운말:
21203	이웃	이운
21203-0-1	-이	이우지 만타
21203-0-2	-에	이우제 우리 이우제 산:다
21204	마을가다	마실간다 이운마실가씨
21205	우물	우물
21206	두레박	드르박
21207	샘(泉)	거 새:미 나온다그래지
21208	가(邊)	가:
21208-0-1	-을	가: 가:라한다고
21208-0-2	-에	가:예 언:제 나가느나
21209	물지게	무지게
21210	가게	가:게 가:게
21211	싸다	싸다 싸게 해 다:와
21212	비싸다	비싸따
21213	홍정	홍정 홍저~으는
21214	거간꾼(중매인)	홍정꾸니라고 홍정꾼
21215	잔돈	잔도늘 날 다:와 잔돈 얘기는 잔도늘
21216	에누리	다:와
21217	거스름돈	에누리
21218	거스르다	거시름돈
21219	꾸다(借)	거실고 다:와
		꾼다

21219-0-1	-어야	꼬:다와 이래고 꼬주지 구두쇠 구두쇠라고 도:는 안쓰고 저 꾸다리다 먹통(+남의 것만 얻어 먹고 자기돈을 쓰지 않는 사람, 공짜 로 남의 것을 얻어 먹는 사람.)
21220	구두쇠	매긴다 매끼논는다 나머지 나머지라한다고 그걸
21221	말기다	덤: 우썬리를 좀 더준다
21222	나머지	제 목 제 목씨준다
21223	덤	제 모글 준다 내 모글 마:~이 챙게따
21224	몫	빈 비지 만:타
21224-0-1	-을	비즐 저따 비즐 가리고 이짜내
21225	빚	비제 쪼들린다
21225-0-1	-을	아:짜
21225-0-2	-에	심:부름
21226	이자(利子)	한드름 드름
21227	심부름	축 한축 추기라 한축
21228	두름	드름
21228-1	축	접 배개는 한저비라고
21228-2	꽤	한쌔미 한쌔 거 한쌔미라 한다고
21228-3	접	함뭉치 뭉치
21228-4	쌔	큰단 즈근단 그러치 자근단 쿵거
21228-5	두름	는 큰단
21228-6	단/뭇	한단 함무꾸미다 함무꿈 무꿍건 다:
21228-7	단/뭇	나라 한다고
21228-8	뭇	축
21228-9	모숨	함모숨 모숨
21229	컬레	항커리(+다) 항컬레(+소) 신향 커리 두:마지기는 서:마지기는 함마지기 두:
21230	마지기	마지기 (+논은 한 마지기당 150평) 백 오십평(+논의 경우 한 마지기는 150 평)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항끄러미 항끄럼 끄럼
21231	꾸러미	그루
21232	그루	함폐기 두폐기 폐기
21233	포기	저울
21234	저울	자루 자루 가주와 자루라 한다고
21235	자루(布袋)	자루를 가주오너라(+신) 그 잘글 가주 오너라(+구)
21235-0-1	-을	잘게 싸를 너:야 된다 잘게
21235-0-2	-에	하나 하나가 남는다
21236	하나	열개
21236-1	한 개	한되
21236-2	한 되	한말
21236-3	한 말	둘:
21237	둘	

21237-1	두 개	두:개
21237-2	두 되	두:되
21237-3	두 말	두:말
21238	셋	세: 셋:
21238-1	세 개	세:개
21238-2	세 되	스:되 서:되
21238-3	세 말	세:말 서:말
21239	넷	네: 넷:
21239-1	네 개	네:개
21239-2	네 되	느:되 너:되
21239-3	네 말	네:말 너:말
21240	다섯	다서 다서시 남는다 다서슬 다선
21240-1	다섯 개	다서개
21240-2	다섯 되	다서되 다되라도 한다고
21240-3	다섯 말	다섬말 담말
21241	여섯	여서 여서시 남는다 여선
21241-1	여섯 개	여서개
21241-2	여섯 되	여서되 여되
21241-3	여섯 말	여선말
21242	일곱	일고
21242-1	일곱 개	일고개
21242-2	일곱 되	일곱되
21242-3	일곱 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덜 여덜비 남는다
21243-1	여덟 개	여덜개
21243-2	여덟 되	여덜되
21243-3	여덟 말	여덜말
21244	아홉	아호
21244-1	아홉 개	아호개
21244-2	아홉 되	아홉되
21244-3	아홉 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1	열 개	열개
21245-2	열 되	열:되 열되
21245-3	열 말	열말 염말 열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 개	수무개
21246-2	스무 되	스무되
21246-3	스무 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른개
21247-2	서른 되	서른되
21247-3	서른 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 개	마흥개
21248-2	마흔 되	마흔되

21248-3	마흔 말	마흔말
21249	췌	췌:
21249-1	췌 개	췌:개
21249-2	췌 되	췌:되
21249-3	췌 말	췌:말
21250	예췌	예췌
21250-1	예췌 개	예췌개
21250-2	예췌 되	육췌되
21250-3	예췌 말	예췌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 개	이른개
21251-2	일흔 되	칠췌되
21251-3	일흔 말	이른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 개	여든개
21252-2	여든 되	팔췌되
21252-3	여든 말	여든말
21253	아흔	아은
21253-1	아흔 개	아은개
21253-2	아흔 되	구십되
21253-3	아흔 말	아흔말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백개
21254-2	백 되	백되
21254-3	백 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들	한들
21256-1	한두 개	한두개
21256-2	한두 되	한두되 한두되
21256-3	한두 말	한두말
21257	두셋	두세
21257-1	두세 개	두세개 두세개 두세개
21257-2	두세 되	두세:되 두세되
21257-3	두세 말	두세말 두세말
21258	두서넛	두세넛
21258-1	두서너 개	두세네개
21258-2	두서너 되	두서네 되
21258-3	두서너 말	두세네 말
21259	서넛	서너 서넛
21259-1	서너 개	서너개 서너개 세네개
21259-2	서너 되	서너되 세네되
21259-3	서너 말	서너 서너말 세네말
21260	네댓	너덜
21260-1	네댓 개	네다서개
21260-2	네댓 되	네다서되 네다서되
21260-3	네댓 말	네다섬말 네다선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 개
 21261-2 대여섯 되
 21261-3 대여섯 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 개
 21262-2 예닐곱 되
 21262-3 예닐곱 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 개
 21263-2 일여덟 되
 21263-3 일여덟 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 개
 21264-2 여덟아홉 되
 21264-3 여덟아홉 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 개
 21265-2 여남은 되
 21265-3 여남은 말

대여섯 | 대여섯
 대여섯개
 대여섯되 | 다서여섯되 | 아, 대여섯되
 대여섯말 | 다서여섯말 | 대여섯말
 예일곱
 여일구개 | 여일곱 개 | 예닐고개
 여일곱되 | 여일곱되 | 여일곱되 | 예일
 곱되
 여일곱말 | 예일곱말
 일고여덟
 일러덜개 이러케 한다고 | 일러덜개
 일러덜되 | 일고여덜되라고도 하고
 일러덜말 | 일러덜말
 아홉 여덟
 여더라호깨라 그래지 여더라호깨
 여덜아홉 되
 여덜아홉말
 여나무 여나무개
 여나무개 이능걸 가주와
 여나무되 인능 가주와
 여나무말즘 가주와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장
 21315 겹
 21315-0-1 -에
 21315-0-2 -을
 21316 홑옷
 21317 겹옷

치마(+소) | 치매라 하고 치매 | 치매(+
 다)
 기리 치매기리
 저고리
 색동저고리
 뛰 {띠} | 그건 배뛰라 해짜나 | 배뛰는
 무너 무너
 고재~이 | 속:고재~이
 바지
 후루막 | 후루매기
 의복
 끼기지 마라 | 끼긴다고
 고름 | 오꼬름
 단추
 동장 | 동장
 거치 드:립따
 거테 | 거테 무더따
 거틀 따까라
 홑돈
 저보시라 하고

21318	잠방이	곰방주~우 곰방주우
21319	누더기	누데기
21320	거지	거러시
21321	구절	구절한다 구절
21322	조끼	조끼 조깨(+구)
21323	내의	내이
21324	껴입다	껴고입는다
21325	소매	오쏸매 소매가 길:다
21326	주머니	주머~이
21327	호주머니	호주머니
21328	허리띠	허리끈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사깔
21331-0-1	-에	사까시라고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관대 사:무관대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그기 감:바리라고 감:발
21337	짚신	집썬
21338	미투리	참신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견다	집썬을 삼:는다
21339	나막신	통신
21340	설피(雪皮)	살쿠 살구 살구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지
21401-1	명주실	명지실
21402	목화	모카 모카를
21402-1	목화다래	*
21403	무명	무명
21403-1	무명실	무명실
21404	씨아	틀
21405	자새	자새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를 찢다
21408	길쌈	건 질쌈(+소) 길쌈 한다능그는(+다) 길쌈(+신) 질쌈(+구)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진고리	반지끄를
21411	가위	까깨 까깨가
21411-0-1	-을	까깨를 가주와

21411-0-2	-에	까깨에 소늘 베:따
21412	마르다(裁)	오슬 마른다
21412-0-1	-고	쳐:늘 마르고 이따
21412-0-2	-어라	잘 말러라
21413	형겅	형:겅 형:거괴 크다
21413-0-1	-을	형:거블 거주와떠라
21413-0-2	-에	형거괘 무더따
21414	바늘	바늘
21415	꺄다	구녀~을 꺄:다구래서
21415-0-1	-고	꺄:구이따
21415-0-2	-어라	꺄:라 바늘꾸녀~을 꺄:라
21416	바느질	바느질
21417	재봉틀	자봉틀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끈 노끄는
21420	참바	다줄 다줄
21421	매듭	매드블 진:는다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위다/묶다	매드블 진는다
21422	보자기	보채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미라 이불런는 소:미라고 솜: 솜 소:를 نن는다
21425	포근하다	푸근하다
21426	홀이불	흔니불
21427	겹이불	겹니불(+소) 점니불 마니 쓰지(+다)
21427-1	솜이불	솜:니불 솜: 이불
21428	누비이불	뉘비이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꺄디기이랜다고
21430-0-1	-에	베개꺄띠기 때가 무더따
21431	목침	몽치미 몽치미
21432	퇴침	퇴:치미
21433	방석	방석 자부동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뺑매~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대레비
21439-1	다림질	대레비지란다 대레비질
21440	인두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드미방매~이
21442	다듬잇돌	빨래돌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랄
21502	설	설:명절 서:를 쉰다
21503	선달 그믐날	그믐날 서딸그믐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오래
21505-0-1	-는	오래는 풍년
21505-1	작년	장년 장년
21505-2	재작년	저장년
21505-3	내년	내연 내연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저후년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윤:
21507-0-1	-을	유:틀 던진다 유:트 처따
21507-0-2	-에	그래 유:튼 이거는 유:치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한개피 네:개피 네:개
21508-1	도	떠 떠
21508-2	개	개:
21508-3	결	결
21508-4	웃	윤
21508-5	모	모 모
21509	단동	말 하나 행동
21509-1	외동무니	외동 외동 외동간다
21509-2	두동무니	아버간다 두동 아버간다
21509-3	석동무니	숙똥 아버간다
21509-4	넉동무니	네:개면 늑똥 아버간다 늑또~이 마주간 다
21509-5	막동	그양 막또~이 간다
21509-6	단동무니	행동불쑈해따 이기야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
21511	추석	항가위 추석
21512	망월	달마지
21513	취불놀이	취:불로리 취 불로리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 막대	메뛰기
21514-2	긴 막대	자: 이랜다고 자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호미씨심하자
21517	팽과리	팽과리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젠노리 아침젠노리 지역젠노리
21520	무당	무:당(+보통 여자를 가리킴)
21520-1	박수	어 남자무당
21521	고수레	꼬시네
21521-1	고수레!	고시네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행상
21524	굴건	굴건
21525	제사	제:사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귀:신 나온다 귀:신
21528	도깨비	또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고삐 소고삐이래지
21602	굴레	굴:레 굴레
21603	멍에	몽에 모~에라 그랜다고
21604	길마	지르매
21605	부리망	멍
21606	구유	구영 구영
21607	작두	작뚜
21608	꼴	꼴 꼴 비로 가자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구바가지
21612	수레	마:차
21613	끌다	끄:러라
21613-0-1	-고	끌:고간다
21614	바퀴	바퀴
21615	새끼(繩)	새끼' 새'끼하고 새끼'하고(+구별됨)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라한다 새끼' 짐승은 새'끼 나 따
21616	망태기	망태기
21617	떡등구미	봉새~이
21618	거적	거치기 거치기
21619	가마니	가마~이 말:고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 짜는 가마~이틀 가마~이트르 는
21620	돛자리	도짜리
21621	자리틀	날개틀(+자리를 만드는 기구)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 다/매다	자리 맨다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산태미
21623-1	짚 삼태기	집삼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삼태미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게미
21625-1	고운체	체라고 한다고 체 체라 하고 조만체
21625-2	굵은체	조만체
21626	대장장이	도드미
21627	대장간	대:장
21628	풀무	대장간
21629	모루	풍구
21630	모루채	모루 모루
21631	갈퀴	모루뿔
21632	집게	각:썰~이
21633	장도리	찌꺼
21633-1	노루발	모뻘기망치
21634	툽	모또두꺼 못 도두꺼
21634-0-1	-에	툽
21635	도끼	토부로 짜른다
21636	자루(柄)	도:꾸
21636-0-1	-을	도꾸자루 자루라 하다가
21636-0-2	-에	도꾸잘기를 자바라 자루를 자바라
21637	갈고리	자루에 흘기 무더따
21638	썰기	갈꾸
21639	송곳	썰:기
21639-0-1	-에	송:곤 말:고 이썬
21640	뿔죽하다	송:고테 찢러따
21641	숫돌	송:곤 끄치 빼조카다
21641-0-1	-에	수뿔
21642	맷돌	수또레 간:다
21642-1	수쇠	매뿔
21642-2	암쇠	수매뿔
21643	지게	암매뿔 미테
21644	발채	바:소고리지게 지게
21645	지게 작대기	바:소고리
21646	막대기	작때기
21647	몽둥이	막때기
		몽둥이 몽두~이가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루
21702	광주리	광지리
21703	소쿠리	바구니
21704	함지	아까 함:지란 애:기는
21705	폴비	술:
21705-1	귀알	*

21706	독	독
21706-0-1	-에	도글
21707	물독	물딴지 물딴지라 하지
21708	항아리	목째비라 목째비 이건 목째비라 하고
21709	단지	수레는 술딴지 단지그든 단지라 하고
21710	물동이	물또~이
21711	파리	따바리
21712	웅기	웅:기
21713	표주박	표주박
21714	키(箕)	까부는 치
21715	떡살	떡쌀
21716	다식판	떡쌀
21717	시루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를 가주오너라
21717-0-2	-에	실게 시르에 찢다 시루에 찢다
21718	시룻밑	시루민
21718-0-1	-에	시루미를 깎다
21719	시룻번	시루뿐
21720	부싯돌	부수뿔
21720-0-1	-을	부수뿔을 도:를 가주오너라
21721	부시	부수 부수
21722	부싯깃	부수뿔 부수 지시 만:타
21723	담배	담:배를 여다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설:때 이기 설:때
21726	대통	빨쭈기
21727	물부리	꼬가리 에 꼬가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쭈머~이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뿔 베루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핀
21734-0-1	-을	참피틀 가주오너라
21734-0-2	-에	참피테
21735	얼레빗	얼게
21736	세숫대야	세:수하먼 세수때야
21737	비누	비눌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후리개
21740	잉앗대	이~애 이~애라고 이~애
21741	부티	분데
21742	도롱이	도랭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이말 {이마를} 이말 왜: 때레
21802	이마빠기	이마빠기
21803	눈자위	눈짜우
21804	검은자위	거문동자
21805	흰자위	흰동자
21806	눈꺼풀	눈꺼푸리 눈꺼푸리 처저따 눈꺼푸리 도 처저따
21807	거적눈	거지기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질:다 눈썹비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피 질다
21810	눈두덩	눈두더기 두덕
21811	안경	양:경
21812	안경집	양:경집
21813	돌보기	도뻘기 도뻘기라 한다고
21814	주름살	쭈름살
21814-0-1	-이	쭈름사리 만타 쭈름사리도 마~이 생게 따
21815	엷되다	어레보인다
21816	수염	수염 코췌미
21817	귀레나룻	귀레날구지
21817-0-1	-을	귀레날구지르 가꺼따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크다 이래지
21819	콧수염	코췌: 코미테 코췌:
21820	코딱지	코따데기
21821	콧구멍	코꾸녕 코꾸머~이 미예따 코꾸녀~이 미예따
21821-0-1	-을	코꾸머~을 파라 코꾸녀~을 파라
21821-0-2	-에서	코꾸머~에서 피가 난다
21822	콧물	콧무리 흐른다
21823	입술	입술
21823-0-1	-에	입쭈리 잘생게따 입쭈리 두껍따
21824	다물다	다무러따 이불 다물고 조:심해라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던니 던니
21827	휘파람	휘빠람
21828	침	춤 추물 냉긴다 이랜다고
21829	삼키다	생긴다
21830	가래(痰)	가래춤
21831	뺨다	내:뺨는다 뺨:는다 뺨:터 치위라

21832	혀	배:터라 배:터라 세
21833	헛바늘	세 빠늘
21834	귓볼	귀뺨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거리지
21836	귀지	귀:체~이
21837	귀이개	귀과개
21838	소리	소리가 잘들린다 사르시 들른다 가마~이 들른다
21839	엿듣다	여:뜰른다 여:뜰룽기고 여뜰른데 여뜨러 바:라
21840	귀청	귀:체~이 떠러진다
21841	귀밑	귀민
21841-0-1	-에	귀미테 저미 이따
21842	관자놀이	관절
21843	기미	귀:미 귀:미가 찌에따
21844	주근깨	주근깨가 배게따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턱수염 턱췌미
21847	뺨	뺨을 때레따 그래지 뺨을
21847-1	볼	볼테기 볼 보리 볼테기여
21848	가름하다	자름하게도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라기 떠러저따
21851	비듬	비눌
21852	기계충	기계충
21853	정수리	장:배기라 하자내 머리 장:배기 장:배 기를
21854	대머리	땀:배기
21855	고수머리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가름배 가름배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름배를 타따
21857	가마(旋毛)	수가매 그계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매라 하고
21857-2	가마(轎)의 성조 · 음장	가:마 가:매 간다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도자기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가마 가마
21858	뒤통수	뒤: 통수 뒤통수 여 뒤통수 뒤통수를 쳐 이래자내요
21859	뒷덜미	덜미를 잡따 덜미 여 덜미
21860	목	목 모글 잠는다
21861	먹살	멕쌀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를 밀:지마라
21902	밀치다	어쩔 밀:지마라 이래지 그양
21903	저드랑	저드랑에 제탈 미테
21904	등	등 등
21905	가슴	가슴
21906	걸리다	절린:다
21907	갈비뼈	갈비 갈비뼈
21908	허파	허파
21909	쓸개	쓸개(+소) 아네 으ㅡ르:(+다)
21910	콩팥	콩팥
21910-0-1	-에	콩팥치 이사~이 이따
21910-0-2	-을	콩팥틀 검사해 바:라
21911	팔	파리 아프다 팔 하면 파리 아프다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짜~으 찌다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왼:손
21917	다르다	다르다 달려서 구별하기 쉽따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틀레따 틀레쓰니 다시 다시 해라
21918	왼손잡이	왼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가락
21920	집게손가락	지께가락
21921	가운뎃손가락	이게 장가라기 마저 장가락
21922	약손가락	명지가락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까락
21924	생인손	생선송꼬락 생선소늘 아러따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소나구가 시:다
21927	손목	숨목
21928	뺨	함뺨 뺨물 켜:다
21929	허리	허리 허리가 아프다
21930	지팡이	지폐~이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질군:다 너머 간질고 애:가 {너무 간 질여서 아이가} 간질구:지 마라
21933	간지럼	간질굼
21934	잔허리	잔뒤~이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꼬비 아프다
21937	목물	등어리를 씨킨다 등어리 씨킨다 이래

2.6.3. 하체

22001	복사빠	복쌍씨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발토비 빠져따
22005	냄새	내금새를 만든다
22006	코린내	코린내가 난다
22007	굳은살	구든사리 배게따
22008	정강이	장개~이 장개~이 장개~이
22009	종아리	여 종개~이 마저야 된다 조~아리 종아리 조아리
22010	장판지	장:판지
22011	회초리	회초리
22012	무릎	무릅(+소) 고배~이(+다) 고배~이 다 쳐따 고배~이가 아프다 여, 무릅(+소)
22012-0-1	-을	고배~이를 다쳐따 무루푸 꾸러따(+소)
22012-0-2	-에	고배~이에 무루페
22013	오금	오고미 아프다
22014	엉덩이	방:새~이 방:새~이를 다쳐따 한다고 여:를
22015	궁둥이	궁:테~이
22016	불기	불:기작
22017	명	심:바구
22018	명울	명어리 저따
22019	가랑이	가래~이를 왜 그래 가래~이
22020	사이	이 새간 { 사이}
22021	살	아주 미튼 사테기
22021-0-1	-이	사테기가 아프다
22021-0-2	-을	사테기를 벌레따 사테기는('살'이라고 쓰지 않고 속된 의미 를 갖는 '사테기'를 사용함) 여 사테기라고 사테기라 한다고
22023	가래툇	가래튀세~이 가래튀시~이
22023-0-1	-을	가래튀시~이 나따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여 허벅따리
22025	넙적다리	넙떡따리 넙떡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팽개 이럼 된:팽개(한 발을 허벅지까지 올린 상태)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 / 꼬다/하다	팽개치고 안저따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22102	기침	기침
22103	채채기	채치기
22104	사레	싸: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싸:레가 들레따
22105	딸꾹질	겔떠기
22106	트림	패:띠기
22107	곰보	곰부
22108	천연두	별쌍 별쌍을 손니미라 한다고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초시미라고 초시말른다고 한다고 초심
22110-1	하루거리	초시미고
22110-2	이틀거리	초시미고
22110-3	매일 앓는 학질	초시미고 그래요
22111	홍역	호~욕
22112	볼거리	단 다니라 단 다니 인:다 다니 이러따
22113	땀띠	땀떼
22114	두드러기	두두레기 두두레기 돈는다
22115	버짐	버지미 그양 버지미
22115-1	마른버짐	마른버지미
22115-2	진버짐	짐:버지미 진버지미
22115-3	도장버짐	돈: 버지미 돈:버지미
22116	문둥이	문:덩이
22116-1	문둥병	거 문:데~이뻥이라 하지 문:데~이병이 랜데
22117	부스럼	헌:데 헌데
22117-1	종기	종지가 나따
22118	고름	곤지 곤지가 난다
22119	곰기다	굉긴다
22120	난쟁이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먼산배기
22122	언청이	헤체~이 헤챙이
22123	소경	붕:사
22123-1	당달봉사	당달봉사 앵코(+신) 외통재~이라 한다고 외통 재~이
22124	애꾸	능썸 눈꼬비 찌에따
22125	눈곱	다래끼가 나따 이랜다고 다래끼
22126	다래끼	다래끼(+위에 난 것)
22126-1	다래끼	눈다래끼 그림(+아래 난 것)
22126-2	다래끼	눈다래끼 그림(+아래 난 것)
22127	절름발이	절룩빠리
22128	곱사등이	곱쌔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말 더드미라고

22131	병어리	버버리 밤병어리(+조금 상태가 덜한 경우)
22132	잠꾸러기	장꾸러기
22133	졸리다	조블린:다 자부루물 조블린다 조블린:다
22134	하품	하'품(+높이는 변별적이지 않음) 하'품'
22135	졸음	자부름
22135-0-1	-을	자부루물 차머야 된다
22135-0-2	-에	자부루미 온다 조부르미 온다
22136	잠꼬대	잠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입또듬
22201-0-1	-을	입또두미 시:마다
22202	갓난아이	간나내기 해대기
22203	어린아이	어리내기 언나: 우리지베 언나: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 정끼한다
22205	눅히다	잘 눅페논는다 잘 눅페따
22206	계집아이	지지바(+욕할 때) 우리지베 여식 아: 여시가 우리지베 여시가:가
22207	예쁘다	예:뿌게 생게따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스마:
22209	아우 타다	애기탄다구래 애기 탄다 아시타능구나
22209-1	아우보다	동새~을 본다
22210	야위다	패래따 패래고 이따
22211	쌍둥이	쌍둥이 쌍뒤~이라고 쌍둥이
22212	오줌	오줌
22213	똥	똥을 눈다 똥을 마:~이 눈다
22214	기저귀	귀저구
22215	뉘다(排便)	누킨다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방:굴 꺾:따 방:구를 꺾:다
22217	구린내	쿤내가 난다
22218	구리다	쿠리다
22219	포대기	포데기
22220	기지개	지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개를 쓴다 나는
22221	거짓말	거:진말 하지마라
22222	남부끄럽다	남보기 부꾸럽따 남새스롭따하는
22223	겹쟁이	겹짜
22224	불쌍하다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웁웁
22226	곤지곤지	장기장기
22227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섬:마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풀:: 풀:: 풀무야
22231	걸음마	거름밭 거름밭 뽀다
22232	아장아장	아차아차 아차아차 걸른다
22233	넘어지다	너머저따 너머지~이 아푸다
22234	곤두박질	까꿀로 배게:따 강:등배기
22235	안기다	안긴다 엄마푸메 양긴다 양게라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회:뛰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소꿉노리
22240	사금파리	사금파리
22241	연	연: 여늘 날린다
22241-1	방패연	연: 그러치
22241-2	가오리연	연 연:
22242	걸리다	걸린:다
22243	고누	*
22244	땅뽀기	뽀뽀끼노리 하자 그래지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딱찌 딱찌노리
22247	구슬	*
22248	그네	그네 주른 그네고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춘처늘 뽀다 그래요 춘천뽀다고
22249	밀신개	안질개
22250	굴렁쇠	*
22251	굴리다	구불린:다
22251-0-1	-고	구불린:다 구불리:고
22251-0-2	-어야	구불레:라 구불레:야 뽀다
22252	자전거	자정거
22253	목말	몽말
22254	말타기	*
22255	달음박질	뽀박질로 뛰어간다 스께트 살피(+요즘의 스키와 비슷하게 생김) 살피는 아피 들리:고 뽀매는(+ 비닐이나 송판으로 만든 것)
22256	뽀매	쓰께토를 탄다
22256-1	얼음울(뽀매를) 지치다/타다	송:곤 송:고시 이써서 뽀매를 탄다
22256-2	송곳	엄사글
22257	엄살	엄살뽀린다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 다	
22258	부아	부애가 올라난다 부애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음 아버지 내려간 다고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엄마 배고퍼
22303	할아버지	하라브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할머~이는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우리 실랑(+젊었을 때) 아무개 하라부 지(+나이가 들어서)
22305-1	남편(호칭)	여보 밥잡쭙시오
22306	아내	내 아내 안사람 아냄미다 각썰미 다
22306-1	아내(호칭)	대이리 할머니 일로 와 각씨라 아나고
22307	형	여보 나이들어 여보게
22307-1	형(호칭)	형임 형이뎁다 형니미지
22308	아우	형아 밤머그러 와(+어릴 때) 형님 식싸 하러 오시오(+성인일 때)
22308-1	아우(호칭)	동새~이다
22309	누나	동생 밤머그러 와
22309-1	누나(호칭)	누나 누님
22310	누이	누님 식싸하시오 누나 밤머겨요 밤머 거 누님 식싸하세요
22310-1	누이(호칭)	내 여동사~임미다 동새~임미다 내 여 동새~임미다
22311	자식	동상 이래지
22312	말아들	자식 내 자시기라고 하고 불르지 자스 글
22313	만딸	크나들 마다들
22314	막내	마딸
22315	오빠	망내~이
22315-1	오빠(호칭)	오빠미다 오라버니 그도 오빠여 옐 나레 내 오빠 우리 오라버니
22316	언니	오라버이 밥잡쭙시오 오빠여
22316-1	언니(호칭)	언니(+신) 형(+아주 어릴 때) 형님(+ 더 컸을 때) 우리 형님
22317	아비	형님노 이래따고 형님 밥잡쭙:요 형 (+구) 언니(+신)
22317-1	아비(호칭)	애비 오테 간나?
22318	어미	크내:야
22318-1	어미(호칭)	에미 혼자이쉴 쯔네
22319	손자	에미 여: 밤머께 에미
22320	손녀	손자
22321	사위	손녀딸
		따른 사위 사위(+다) 큰싸우는 우리

22321-1	사위(호칭)	큰사위
22322	외손자	야 이서방 망내사위 일로 오게
22323	외손녀	외손자
22324	꾸짖다	외손 녀 외손녀 외손자
22324-0-1	-고	꾸질게 준다
22324-1	나무라다	꾸지러 조:야 된다
22325	총각	나무래:따 나무랜:다
22326	처녀	총:가기라하지
22327	혼인	처:녀
22327-1	혼인식	그양 그양 겨로니지 뭐
22328	혼인 잔치	겨론식
22329	장가가다	잔치 지낸다 잔차지낸다
22329-1	시집가다	장:개간다
22330	혼숫감	시지간다
22331	함	혼수
22332	겹사돈	함:
22333	새색시	접싸둔
22333-1	새색시(호칭)	새각씨
22334	시아버지	새각씨요
22334-1	시아버지(호칭)	남편 아버지 시아부지지 머여 시아번
22335	시아머니	님 시아번님밎다
22335-1	시아머니(호칭)	아번님 식싸하세요
22336	비위	시아머니
22337	아주머니	어머님 식싸하세요
22337-1	아주머니(호칭)	비유
22338	서방님	시아주번님 아주번님이라 이래따고(+구) 아주번님(+손위)
22338-1	서방님(호칭)	아주번님 식싸하세요
22339	도련님	아주버~이 아주버~이(+손아래 시동생)
22339-1	도련님(호칭)	아주버~이 아주번님(+결혼한 시동생)
22340	형님	도련님 우리 도련님밎다 도련님
22340-1	형님(호칭)	도련님 식싸하시오
22341	시누이	형님
22341-1	시누이(호칭)	그래 형임 식싸하세요 형임 식싸하세요
22341-2	아가씨	시 시누이 시누는 시누:가
22341-3	아가씨(호칭)	시누 시누 식싸해
22342	올케	아가씨
22342-1	올케(호칭)	아가씨 밤머거
22343	매형	올개 올개
22343-1	매형(호칭)	올개 밤머께
22344	매제	매형
		매형 밥잡쭈시오
		매부(+구) 매제(+신)

22344-1	매제(호칭)	매제 매부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버지 식싸하세요 큰크나버지 식싸 하시요 큰크나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둘:째크나부지 둘:째크나버지 자:근크 나버지 둘:째크나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세:째크나부지 세:째크나버지 세:째는 세:째크나버지 세째크나버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큰크너머~이가 크너머니 저와 바드세요
22346-1	큰어머니(호칭)	큰크너머~이 둘:째크너머~이 둘:째크너머이 저와 바 드세요 이래머는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둘:째크너머~이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세:째크너머이 네:째크너머이 세:째크너 머~이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건 자근아부지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근 그, 자그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머니
22350	삼촌	그기 삼초니라고
22350-1	삼촌(호칭)	삼촌 밥잡싸요
22351	아저씨	당숙 아저씨하능거는(+10촌이 넘어갈 때) 그게 아저씨지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 으:른 당숙으:른
22352	아주머니	당승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승모님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딸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몬님 고몬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고종사촌외사촌 고종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바테 이모 이몬님 이래지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중	이중 이중 이중사촌간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승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승모 식싸하세요
22363	외종	외사촌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 식싸하세요
22366	장인	자~인 자~인 으:른
22366-1	장인(호칭)	자~이너른 식싸하세요 자~인 어:른
22367	장모	장:몬님
22367-1	장모(호칭)	장:몬님 식싸하세요 장:몬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식싸하세요
22369	처남댁	처나무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무댁 식싸하세요(+구) 아주머니(+신)
22370	할아버	호래비
22371	할어미	과:부
22372	계모	새어머니 계:모라 쓰능거는 계:모다
22372-1	계부	이:부아버지 지 머 이:부지 머 이:부
22373	아저씨	이부라 한다 이:부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아저씨 식싸하세요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이
22375	사나이	아주머~이 식싸하세요
22376	영감	그 사나:(+부정적인 표현에서 사용함)
22376-1	할머니를 낮추어 말할 때(저 늙은이 늙은 할머니(+속상할 때) 할머니(+점잖게 부를 때) 할멈	웅:감 하라버지 이래도 되고
22377	나이	나이 만타
22377-0-1	-를	날: 명는다
22378	환갑	황:갑
22378-1	환갑잔치	황: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میم물꼬기
22403	피라미	참피리
22404	지느러미	고기 지리미 지리미
22405	아가미	아감
22406	창자	창지
22407	송사리	송 수에리 송수에리
22408	헤엄	헤엄치능거 헤엄
22409	메기	메:기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거북
22412	미꾸라지	밀꾸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소, +신) 올챙이~이가 오랑내~이 라 한다고 오랑내~이(+다, +구)
22415	뚜꺼비	뚜꺼비
22416	거머리	그:니~이 거:니~이
22417	다슬기	*
22418	우렁이	울랭이 우녕이 이래
22419	고둥	*
22420	달팽이	달패~이라고 달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대)_민물	그거도 새우여
22421-2	새우(소)_민물	자궁거도 새우지 머
22421-3	새우(대)_바다	그양 새우여
22421-4	새우(소)_바다	새우
22422	새우젓	새우전 새우전
22422-0-1	-이	새우저지 아니여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가재미
22428	멸치	이르꾸(+작은 멸치) 메르치(+큰 멸치)
22429	명태	동:태
22429-1	동태	그거를 명태 동:태래요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노가리새끼
22429-4	북어	명태 말링거는 명태
22429-5	생태	동:태
22430	조기	조기
22431	도미	도미
22432	뱀장어	뱀자~어라 하지 뱀:장어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꼬내
22435	낙싯대	낙씨때
22436	얼레	자:새 자새
22437	조개	조개 조개
22438	소라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
22502	날벌레	날빨거지
22503	파리	파리 그기 똥파리(+소)

22503-1	쉬파리	쉬파리라 해도 해(+다) 쉬파리라고 마:~이 쓰지(+다)
22504	쉬슬다	쉬쓰러 나:따 쉬를 씨러따
22505	가시	꾸더기 꾸더기여 꾸더기 만:타(+변소 에 있는 것)
22506	진딧물	진:딘무르는 아주 그거는 진디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진디기가 이러따
22507	잠자리	소금재~이 여: 소금재~이이래 소금쟁 이
22508	방아깨비	방개비
22508-1	암컷	아 다 방개비지 그럼
22508-2	수컷	방개비
22509	매뚜기	밀뛰기
22510	여치	여:치 여:치 이따고
22511	사마귀	사:마구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키운다
22513	땅벌	땅뻔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뎠이	땅뻔레기
22517	모기	모:구 모구(+다) 모기(+소) 모구도 그 인제 그
22518	장구벌레	* 모기벌레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레 개똥벌 개똥버리 이래 개똥버리 땡긴다йка
22521	반딧불	개똥벌 불 개똥버리 부리야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뽕이	굼:뽕이
22524	구더기	구더기
22525	노래기	노래~이 노래~이
22526	그리마	*
22527	지네	지네 지네는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좌:미
22530	진드기	찐:디기
22531	벼룩	베레기
22532	이(蟲)	이 이가
22532-1	서캐	썰개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추~이 송추~이벌레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 귀뚜라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꼬치 고치
22537	번데기	번디기

22538	지렁이	지:레~이
22539	회충(蛔蟲)	거시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물방개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매와 매와 매:와 매와
22605	황소	수소
22606	길들이다	질드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이러이러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와: 와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	도러서 도러서 이래지 머 오:취 외:취 이래 오:취하먼(+오른쪽으로 돌 때) 도러서 도러서 이래지 머 외:취 이래 외:취(왼쪽으로 돌 때)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	외:취(왼쪽으로 돌 때)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물러서 물러서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
22609	돌치	돌쇠(+소의 경우) 돌개(+개의 경우)
22610	꼬리	꼬리
22611	망아지	팜마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터리 징:기 난나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산때지 사네 이씨~이 산돼지 이걸 나바리라 구래 돼:지주뒤~이 나발주뒤~이 이래
22615	주둥이	나발주뒤~이 이래
22616	돼지 머리	돼:지머리 돼:지머리 돼지대까빠리
22617	돼지우리	돼지우리 돼:지 우리
22617-1	오래오래	꿀꿀꿀꿀꿀 이랬다고
22618	개(犬)	개: 개:가 진는다
22618-1	수개	수개
22618-2	암개	암개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수꼬야~이
22621-2	암고양이	양꼬야~이 토끼 투꾸는(+검고 더 큰 산토끼) 불 토끼라능거는(+작은 산토끼, 약간 검은 것과 하얀 것 등이 있음)
22622	토끼	토끼라능거는(+작은 산토끼, 약간 검은 것과 하얀 것 등이 있음)
22623	거위(鵞)	게우

22624	암탉	암딱 암따기 울:면 지바~이 망한다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한조그로 몬:다 항군데 마:라
22627	수탉	수딱
22627-0-1	-이	수따기 울:지
22628	벧(鷄冠)	베실
22629	부리	닥뿌리 뿌리가 질:다
22630	모이	모이준다 모이
22630-0-1	-을	모이를 좌:명는다 모이를 명는다
22630-1	모이다	한조그로 모인다 한조그로 모예라
22631	닭털	닥털
22632	닭똥	닥똥 달그똥
22633	어리	닥 우리 우리 우리
22634	닭장	닥짱
22635	둥우리	둥지리
22636	날개	날개르 날개
22637	깃	지털
22637-0-1	-을	지터를 보거라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범:(+소) 호:래~이 온다 호~라~이 온다
22702	살쾡이	이래따고(+다)
22703	여우	살게~이 살쟁이
22704	원숭이	여께~이
22705	사슴	원:숭이
22706	노루	사슴
22706-0-1	-이	놀게~이
22706-0-2	-을	놀게~이가 만:타
22707	고슴도치	놀게~이를 자바따
22708	두더지	고슴도치
22709	족제비	두더지
22710	뱀	족제비
22711	도마뱀	뱀: 배:미 만:타
22712	구렁이	도마뱀
22713	살무사	먹꾸레~이(+검은색을 땀) 구:레~이 이
22714	생쥐	래 구:레~이라고 마~이 하지 구:레~이
22715	박쥐	살무사
22716	거꾸로	사양주
22717	다람쥐	빨:쥐
22718	새(鳥)	까꿀로
22719	꿩지	다람쥐
22720	솔개	새:가 난다
22721	독수리	꿩지
		솔개미
		독쭉리

22722	제비(燕)	제:비가 만타
22723	두루미	황:새 황:새
22724	소쩍새	소종새
22725	평	평 풍을
22726	장끼	장끼
22727	까투리	까투리
22727-1	꺼병이	꽁어 벼~아리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빼꾸기 빼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북새
22732	올빼미	오빼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덧 더치 쪼개(+뵈히면 양쪽이 가운 데로 모여서 동물을 잡는 덧의 일종)
22735-0-1	-을	더틀 논는다
22736	올가미	올누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꼴 창꼬치야 창꼴 창꼬틀 창꼬 트는 {진달래꽃은}
22802	철쭉꽃	개꼬튼 즈 개:꼴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맨드래미
22805	봉선화	봉:수나
22806	파리	꽤: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꼬뽕오리
22809	시들다	씨든다 씨드러서 몸명는다
22810	질경이	빼짱구 뽕짱구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뽕짱풀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식용이 아님)
22811	빨기	*
22812	비름	비듬풀(+식용이 아님)
22813	쇠비름	비듬 비듬풀
22814	썸바귀	심바구 이꼬
22815	고들빼기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꼬들빼기 풀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꼬들빼기 반찬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괴:비

22818	도깨비바늘	귀:사리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
22820	억새	억:새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바~우온 방우오시 만:타
22823	아주까리	피마주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수시미
22826	덤굴	덤불째 너머와따
22827	덤불	덤불
22827-1	가시덤불	덤불까시
22828	잔디	잔뛰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소낭기 만타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소까지
22904	솔가리	갈비 갈비를
22905	그러모으다	끄러몬:다 끄러몬:는다 끄러마:라
22906	뽕나무	뽕나무 뽕낭기 만타
22907	오디	오두
		도토리 재랭이는 아주 재래~이도토리(+제일 작음) 그 담 갈라무도토리(+중간 크기) 갈:랑게 도톨리 마:~이 여러따
22908	도토리	떠깎라무라능거는 떠깎라무는 또(+있이 넓음)
22909	떡갈나무	떠깎라무도토리 그르치(+가장 큼) 온나무
22910	상수리	오치 올리따 온
22911	옻	옻트루 치란다
22911-0-1	-으로	버드나무 버드낭기 만:타
22912	버드나무	느테나무 느테낭기 만:타
22913	느티나무	그림자 그림자가 저따
22914	그림자	그느리 저서 그느리
22914-1	그늘	습 수피 저따
22915	숲	수풀 다 태워따
22915-0-1	-을	수피 드러가자
22915-0-2	-에	시워나다 시워::내 조타
22916	시원하다	절레
22917	절레	칙 칠기 만:타
22918	취	칠글 머저라
22918-0-1	-에	가지
22919	가지(枝)	끝
22920	끝	

22920-0-1	-이	끄치 빼주카다
22920-0-2	-을	끄틀 자바라
22920-0-3	-에	끄테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을 판다/꺾다/하다	삭따리를 꺼꺼라
22922	나무	낭기라 한다고 걸
22922-0-1	-을	낭글 해온다
22922-0-2	-에	낭게 걸레따 여니
22923	나무하다	낭글해온다
22924	그루터기	그루토~이 이걸 그루토~이라 한다고 그루통 쉬꾸그루 그루 조이끄루 이 글기 라 한다고 글글 글기 나마이따 그기 등거리라고 등거질 패자
22924-1	그루터기	
22925	등걸	
22926	장작	장적 장작 장자기 만:타
22927	패다	패:라 장자글 패:라
22928	부스러기	뿌꾸리기
22929	숯	숯 숯 참숯
22929-0-1	-이	수치 만:타
22929-0-2	-을	수틀 수틀 꼬아서 판다
22929-0-3	-에	수테 부친다
22930	불잉걸	응거리 응거리
22931	쌈	쌈기 돈는다
22932	잎	나무이파리 입
22932-0-1	-을	이플 따와라
22932-1	잎사귀	입싸귀
22933	가랑잎	갈:리폰 갈:리피라 하는데 갈:립
22934	뿌리	나무 뿌리 뿌리가 지피 바케따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그믄 능그미 조:치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쌍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실
23006	고욤	고얌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앵두는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꽤
23010-0-1	-을	꽤를 먹짜
23011	석류	*
23012	모과	모:게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찌 꼭질 판다
23015	밤	바:미 마시따
23015-1	밤송이	밤쏘~이
23015-2	꽃밤	푸뽕 푼 밤: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둥밤	쌍뒤~이 쌍뒤~이밤
23016	보늬	속:겹찌를 속겹질
23017	호두	취지
23018	가래(秋子)	가래 그 가래낭기라 한다고
23019	개암	개금다리
23020	머루	덜구
23021	다래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거 할미바가지여 할미바가지
23024	참외	차외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_재배	개딸기
23025-2	딸기(밭)_야생	그걸 개딸기
23025-3	딸기(들)_재배	개딸기
23025-4	딸기(들)_야생	개딸기
23025-5	딸기(산)_재배	개딸기
23025-6	딸기(산)_야생	개:딸기
23026	뱀딸기	*
23027	마름(菱)	*
23101	산꼭대기	상꼭떼기
23102	기슭	산지슬기 지슬기 만타
23102-0-1	-에	지슬게 진는다
23103	골짜기	고:리 집따 골짜기 상골짜기
23104	메아리	소리가 마주치킨다 소리가 마주친다
23105	고함	괘: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괘:친다 외괘:친다 외가:물 질러
23106	묘	묘
23107	뿔자리	묘:짜리 보러댕긴다
23107-1	광중	창:광
23108	구덩이	장:꾸덩이(+동물을 잡기 위해 파는 구덩이) 구덩이 구디~이
23109	비탈	비탈
23110	가파르다	가파릅따 가파루와서 모올라간다
23111	언덕	언더그는 언더기고 언더기 저따 언더게서 떠러저따
23112	낭떠러지	베라꼬데~이 낭떠러저따
23113	들(野)	들: 드:리 널따
23113-0-1	-에	드:레 이라러 가자
23114	별	별판 별: 별이 널따
23115	갈림길	갈래길

23116	헤어지다	헤:진다 헤어진다
23117	바위	바우 큰바우 큰방구 큰바~우 자근
23117-0-1	-을	바~우 바~우
23117-0-2	-에	방구를 모뜬다 바~우를 모뜰게따
23118	돌(石)	바~우에 안저따
23118-0-1	-을	돌: 도:리 만:타
23118-0-2	-에	도:를 던진다 도:를 마저따
23119	자갈	도:레 마저따
23120	모래	자갈
23120-0-1	-를	모래
23121	진흙	모래를 퍼와라
23121-1	찰흙	진:흙 진:흙기 만타 진:흐기 만타
		차륵 찰 흙기 만:타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리 마시따
23202	거품	비눌 거푸민다 거푸민다
23203	개운하다	개운하다 엔:날말 개우나다도 해찌 엔
23204	도랑	나레
23204-1	붓도랑	또랑물(+깨끗한 물) 도랑물
23205	둑	보뜰 보: 뜰
23206	잠기다	뚝 뚜글 망는다 뚜기 터저서
23207	개울	장구케따
23208	내(川)	개굴
23209	미역 감다	내:까 내:
23210	발가숭이	모를 씨:로 가자 모요카러 가자
23211	목욕하다	알몸테~이 알몸테~이 모요칸다
23212	수채	몸쎄:라 모요캐라 그양 그래 모요그 란
23213	개골창	다
23214	시궁창	수채꾸여:~(+마구간의 똥이나 오줌이 나
23215	웅덩이	가는 구멍) 수채다 수채라 하면돼
23216	수렁	개구장물 개구장
23217	늪	*
23217-0-1	-에	웅데~이 웅데~이 웅덩이
23218	배(船)	시후답
23219	나루터	늪
23220	돛	느피 느페 머
23220-0-1	-에	배가 이따 나루뺨(+구)
23221	돛대	배터꺼리(+구) 거 나루터야 나루터라고
23222	돛배	(+신)
23223	돛 줄	*
		도틀 도틀 여:는 안다라써
		도때
		도때배 도때배
		도때줄

23224	닷줄	*
23225	거루	통배 이그 통배라 한다고 통배(+나무 를 파서 만든 배, 해방 전부터 사용되던 배) 나루뺨(+해방 이후에 나옴) 사때
23226	상앗대	개뺨
23227	개펄	어 육찌로 나가자
23228	물	육찌로
23228-0-1	-으로	밀물
23229	밀물	드론다고 썰물
23230	썰물	가라안는다 가라안저서 주거따
23231	가라앉다	그물른 그물
23232	그물	해:너
23233	해너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구) 새벽(+신, +다)
23302	새벽밥	새벽뺨 멍는다
23303	아침	아침 아처기 돼:씨~이
23304	아침밥	아침 멍는다 아침밥 아침 잡쭈시오
23305	점심	전:심 그래 지역 잡쭈시오 이래자나 저~여게 는 지역 잡쭈시오(+저녁밥) 저영무렵 {저녁 무렵}
23306	저녁	너울리울해저따 이소리 행는데
23307	설핏하다	노오리 노:리 저따 노:리
23308	노을	노오리를 보고 이따
23308-0-1	-을	뿔쓰름하기도 하다 뿔쓰르마다
23309	불그레하다	해거름 해꺼르미라 항거는
23310	해거름	땅검 저따
23311	땅거미	봄 보미 와따
23312	봄	여름 여르미 와따
23313	여름	더우
23314	더위	추우
23315	추위	갈: 가:리 와따 가:리 된다 갈:
23316	가을	갈:게 추수한다
23316-0-1	-에	겨울 겨우리 돼:따 겨우리 온다
23317	겨울	겨우레 누:니 온다 겨우레
23317-0-1	-에	어름 어르미 된다
23318	얼음	오느리다 오늘
23319	오늘	넬:
23320	내일	모레
23321	모레	글패
23322	글피	저글패
23323	그글피	어제
23324	어제	그저께 그저께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저그저께
23327	훗날	훈:날
23328	하룻날	하룻날
23329	이튿날	이튿날
23330	사흘날	사흘날
23331	나흘날	나흘날
23332	닷셋날	다썬날 다썬날
23333	엿셋날	여썬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여드렌날 여드레날
23336	아흐렛날	아흘날(+’르ㄴ’ 연쇄가 가능함) 아흘날 열흘 여를랄 여를날(+’르ㄴ’ 연쇄가 가 능함)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알
23341	나흘	나알
23342	닷새	다썬
23343	엿새	여썬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질 한나지레
23348-1	반나절	반:나질 반:나절
23349	그믐	그믐 그믐날
23349-1	그믐께	그믐정께
23350	지금	지금 해:라 시방
23351	아직	안죽 때가 안죽 때가 안돼썬.(+할머니) 안주 양가썬.
23352	이제	인제 인제 밤머글라 해
23353	이미	이:미 때는 느저따
23354	요즈음	요즘 낭거 요썬: {요즈음 나온 것 요즈음} 요즈믄 요즈믄 요썬도
23355	금방	금방 시집와썬썬 나는 금방 바블 머거 썬미다 금방 머거땀 애기여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해뻘 뵤 잘 나는데
23401-0-1	-이	베치 나~이까 베치 잘 든다
23401-0-2	-을	베틀 썬인다
23402	따스하다	따시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래~이 아지랭이
23404	응달	음지(+소) 음달(+다)
23405	양달	양지(+다) 음달 양달 이래지

23406	비(雨)	비 비가 온다
23407	가랑비	고담: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양:개 양:개처럼
23410	눈개	웅개비 웅개비가 웅개가 온다 그래 웅개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낙빠 쏘나기가 억쭈로 내려온다
23413	갑자기	갑작씨리 온다
23414	홍수	홍수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
23418	무섭다	무섭따 무수와서 모까게따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싸랑눈 싸랑눈
23421	발자국	발짜구 눈:발짜구
23422	진눈깨비	징갈피
23423	우박	유리
23424	고드름	추우먼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해에 나능거 해머리 해머리 햄머리 에워따
23426	달무리	다레 나능거 달머리 달머리 달머리 에워따
23427	둥글다	둥굴다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뽕 새:뽕
23430	가뭇	가물(+소) 가뭇(+다) 가뭇미 드러서
23431	마르다	잘 마른다
23431-0-1	-어서	잘 말려서 조타
23432	위	머리 우로 지나간다 우이고
23433	아래	알:로 간다 아:리다 알: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결	전 저치다 전
23436-0-1	-에	내 저테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돌개바라미 도라간다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거:도 남풍 이래지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이래지

제 3 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	테(輪)	테
31001-0-1	-이/가	테가 굴:따
31001-0-2	-보다	테도 굴따
31002	태(胎)	태
31002-0-1	-이/가	태가 굴따
31002-0-2	-보다	태도 굴따
31003	떼(群)	떼 떼야 떼
31003-0-1	-이/가	떼가 만:타
31003-0-2	-보다	떼도 만타
31004	때(時)	
31004-0-1	-이/가	때가 돼따
31004-0-2	-보다	때도 돼:따
31005	틀(機)	틀
31005-0-1	-이/가	트리아따
31005-0-2	-보다	틀또 이따
31006	털(毛)	털
31006-0-1	-이/가	터리 만:타
31006-0-2	-보다	털또 만:타
31007	글(文)	
31007-0-1	-이/가	그리 조타
31007-0-2	-보다	글또 조타
31008	걸(옷)	
31008-0-1	-이/가	거리 나와따
31008-0-2	-보다	걸또 나따
31009	기(旗)	
31009-0-1	-이/가	기가 날린다
31009-0-2	-보다	기도 날린다
31010	귀(耳)	귀
31010-0-1	-이/가	귀가 크다
31010-0-2	-보다	귀도 크다
31011	시(生時)	
31011-0-1	-이/가	시가 조타
31011-0-2	-보다	시도 조타
31012	쉬(蠅卵)	
31012-0-1	-이/가	쉬가 만타
31012-0-2	-보다	쉬도 만타
31013	쇠(鐵)	쇠
31013-0-1	-이/가	쇠가 무겁따
31013-0-2	-보다	쇠도 무겁따

31014	외:국(外國)	외:국
31014-0-1	-이/가	외:구기 닐따
31014-0-2	-보다	외:국또 닐따
31015	왜국(倭國)	왜놈
31015-0-1	-이/가	왜느미 만타
31015-0-2	-보다	왜놈도 만타
31016	쉬:다(休)	
31016-0-1	-이/가	췌:라
31016-0-2	-보다	췌:다 쉬:구이따
31017	쇠:다(철을~)	
31017-0-1	-이/가	서:를 췌:라
31017-0-2	-보다	서:를 췌:다 쇠고 이따
31018	베(布)	베
31018-0-1	-이/가	베가 만타
31018-0-2	-보다	베도 만타
31019	배(船)	
31019-0-1	-이/가	배가 만타(+탈 것)
31019-0-2	-보다	배도 만타
31020	배(腹)	배(+몸)
31020-0-1	-이/가	배가 부루다
31020-0-2	-보다	배도 부루다
31021	(떡)메	
31021-0-1	-이/가	메가 이따
31021-0-2	-보다	메도 이따
31022	매(鞭)	매고 매:고 다르지
31022-0-1	-이/가	매를 든다 매가 이따
31022-0-2	-보다	매도 이따
31023	메:다(擔)	
31023-0-1	-이/가	메:라
31023-0-2	-보다	멘:다 메:고 간다
31024	매:다(繫)	
31024-0-1	-이/가	매:라
31024-0-2	-보다	맨다 매:고이따 멘:다
31025	떼:다(分離)	
31025-0-1	-이/가	떼:라
31025-0-2	-보다	턴다 떼고 이따
31026	때:다(炊)	
31026-0-1	-이/가	때:라
31026-0-2	-보다	땐:다 때:고 이따
31027	베:다(切斷)	
31027-0-1	-이/가	베:라
31027-0-2	-보다	베를 빈:다 비:고 이따
31028	배:다(孕胎)	
31028-0-1	-이/가	배:따
31028-0-2	-보다	배:고 이따
31029	세:다(算)	

31029-0-1	-이/가	세:라
31029-0-2	-보다	신:다 시:고이따 무리 샌다
31030	새:다(漏泄)	
31030-0-1	-이/가	새:서 안된다
31030-0-2	-보다	새고이따
31031	뒤(後)	뒤
31031-0-1	-이/가	뒤:가 암보인다
31031-0-2	-보다	뒤:도 암보인다
31032	되(升)	되
31032-0-1	-이/가	되가 돼따
31032-0-2	-보다	되보다 더쿵건 말 되도 크다
31033	게:(蟹)	게:
31033-0-1	-이/가	게:가 게:간다 게:가 간다
31033-0-2	-보다	게:도 게간다
31034	개:(犬)	개:
31034-0-1	-이/가	개:가 진는다
31034-0-2	-보다	개:도 진는다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31035-0-1	-이/가	여러시이따
31035-0-2	-보다	여러도 이따 여러또 봐:라 이르
31035-0-3	-을/를	여러슬 봐:라
31036	물결(波)	물결
31036-0-1	-이/가	물껴리 친다
31036-0-2	-보다	물결또 친다
31036-0-3	-을/를	물껴를 친다
31037	예:의(禮儀)	
31037-0-1	-이/가	예:이가 조타
31037-0-2	-보다	예:이도 조타
31037-0-3	-을/를	예:이를 가져라
31038	계:획(計劃)	계:육
31038-0-1	-이/가	계:획기 조타 계:호기 조타
31038-0-2	-보다	계:혹또 조타
31038-0-3	-을/를	계:요글 세운다 계:호글 세워라
31039	규칙(規則)	
31039-0-1	-이/가	
31039-0-2	-보다	
31039-0-3	-을/를	
31040	휴일(休日)	
31040-0-1	-이/가	휴이리 조타
31040-0-2	-보다	휴일도 조타 휴일또
31040-0-3	-을/를	
31041	교통(交通)	

31041-0-1	-이/가	교통이 북짜바다
31041-0-2	-보다	교통도 북짜바다
31041-0-3	-을/를	교통을 잘 지켜라
31042	효:자(孝子)	
31042-0-1	-이/가	효:자가 만타
31042-0-2	-보다	효:자도 만타
31042-0-3	-을/를	효:자를 바라
31043	웬일(何事)	
31043-0-1	-이/가	웬 이리냐 웬니리냐?
31043-0-2	-보다	
31043-0-3	-을/를	웬 웬닐로 완느냐
31044	괴:(작)(櫃)	
31044-0-1	-이/가	괴:가 크다
31044-0-2	-보다	괴:도 크다
31044-0-3	-을/를	괴:를 바:라
31045	왜란(倭亂)	왜:란
31045-0-1	-이/가	임진 왜라니 돼따
31045-0-2	-보다	왜란도 나따
31045-0-3	-을/를	왜라늘 마가따
31046	햇대(鷄架)	해에 올라가따
31046-0-1	-이/가	해가 길:다
31046-0-2	-보다	해도 길:다
31046-0-3	-을/를	해를 자바따
31047	원망(怨望)	
31047-0-1	-이/가	원:마~이 만타
31047-0-2	-보다	원:망도 만타
31047-0-3	-을/를	원:망을 하지마라
31048	권:투(拳鬪)	권:투
31048-0-1	-이/가	권:투가 재미따
31048-0-2	-보다	권:투도 재미따 권:투도 바:라
31048-0-3	-을/를	권:투를 바:라
31049	의논(議論)	
31049-0-1	-이/가	으노니 만타
31049-0-2	-보다	으논도 만타
31049-0-3	-을/를	으노늘 해:라
31050	무늬(紋)	
31050-0-1	-이/가	무너가 곱:따
31050-0-2	-보다	무너도 곱:따
31050-0-3	-을/를	무너를 봐:라
31051	왕(王)	
31051-0-1	-이/가	와~이이따
31051-0-2	-보다	왕도 이따
31051-0-3	-을/를	와~을 바라
31052	과자(菓子)	과자
31052-0-1	-이/가	과자가 만타
31052-0-2	-보다	과자도 만타

31052-0-3 -을/를 과자를 머거라

3.1.3. 장모음·성조

31053	일(一)	
31053-0-1	-이/가	이리 만타
31053-0-2	-보다	일또 만타
31054	일:(事)	
31054-0-1	-이/가	이:리 만타
31054-0-2	-보다	일:또 만타
31055	매(鞭)	
31055-0-1	-이/가	매가 이따
31055-0-2	-보다	매도 이따
31056	매:(驚)	
31056-0-1	-이/가	매:가 이따
31056-0-2	-보다	매:도 이따
31057	밤(夜)	
31057-0-1	-이/가	바미 길:다
31057-0-2	-보다	밤도 길:다
31058	밤:(栗)	
31058-0-1	-이/가	바:미 이따
31058-0-2	-보다	밤:도 이따
31059	눈(眼)	
31059-0-1	-이/가	누니 크다
31059-0-2	-보다	눈도 크다
31060	눈:(雪)	
31060-0-1	-이/가	누:니 온다
31060-0-2	-보다	눈:도 온다
31061	말(馬)	
31061-0-1	-이/가	마리 이따
31061-0-2	-보다	말또 이따
31062	말(斗)	
31062-0-1	-이/가	마리 이따
31062-0-2	-보다	말또 크다
31063	말:(言)	
31063-0-1	-이/가	마:리 만타
31063-0-2	-보다	말:또 만타
31064	손(客)	
31064-0-1	-이/가	소니 온다
31064-0-2	-보다	손도 온다
31065	손(手)	
31065-0-1	-이/가	소니 크다
31065-0-2	-보다	손도 크다
31066	손:(孫)	
31066-0-1	-이/가	소:니 귀하다

31066-0-2	-보다	손:도 귀하다
31067	배(梨)	
31067-0-1	-이/가	배가 마시따
31067-0-2	-보다	배도 마시따
31068	배:(倍)	배: 배:
31068-0-1	-이/가	배:가 길다
31068-0-2	-보다	배:도 길다
31069	벌(罰)	벌 슌다
31069-0-1	-이/가	버리 무슌따
31069-0-2	-보다	벌:또 무슌따
31070	벌:(蜂)	
31070-0-1	-이/가	버:리 만타
31070-0-2	-보다	벌:또 만타
31071	솔(松)	
31071-0-1	-이/가	소리따
31071-0-2	-보다	솔또 이따
31072	솔:(刷)	
31072-0-1	-이/가	소:리따
31072-0-2	-보다	솔:또 이따
31073	줄(鉉)	
31073-0-1	-이/가	주리 길다
31073-0-2	-보다	줄또 길다
31074	줄:(연장)	
31074-0-1	-이/가	주:리따
31074-0-2	-보다	줄또 이따
31075	돌:(石)	
31075-0-1	-이/가	도:리 만타
31075-0-2	-보다	돌:또 만타
31076	담(牆)	
31076-0-1	-이/가	다미 눅따
31076-0-2	-보다	담도 눅따
31077	담:(膽)	
31077-0-1	-이/가	다:미 아프다
31077-0-2	-보다	담:도 아프다
31078	들:(野)	
31078-0-1	-이/가	드:리 눅따 들:또 눅따
31078-0-2	-보다	
31079	달-(縣)	단다
31079-0-1	-고	달고이따
31079-0-2	-더라	달더라
31080	달-(甘)	달다
31080-0-1	-고	다러따
31080-0-2	-더라	달더라
31081	달:-(熱)	
31081-0-1	-고	달:고이따
31081-0-2	-더라	달:더라

31082	갈-(換)	
31082-0-1	-고	등을 간다 갈고이따
31082-0-2	-더라	갈더라
31083	갈-(磨)	간다 가니
31083-0-1	-고	갈고이따
31083-0-2	-더라	갈더라
31084	갈:-(耕)	간:다
31084-0-1	-고	갈:고이따
31084-0-2	-더라	갈:더라
31085	건-(收)	건는다 거더라
31085-0-1	-고	거꼬이따
31085-0-2	-더라	거떠라
31086	걸:-(步)	거르물 걸:른다
31086-0-1	-고	걸:꼬이따
31086-0-2	-더라	걸:떠라
31087	적-(書)	정는다
31087-0-1	-고	저꼬 이꾸나 저꼬 이따
31087-0-2	-더라	적떠라
31088	적:-(小)	
31088-0-1	-고	저개도 저:꼬
31088-0-2	-더라	적:떠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	막-(防)[ㄱ]	망는다
32001-0-1	-지	막찌
32001-0-2	-고	마꼬
32001-0-3	-더라	막떠라
32001-0-4	-으니까	마그니 조타
32001-0-5	-아/어(-왔/였다)	마거라
32002	흐르-(流)[ㅡ]	흐른다
32002-0-1	-지	흐르지
32002-0-2	-고	흐르고
32002-0-3	-더라	흐르더라
32002-0-4	-으니까	흐르니 조타
32002-0-5	-아/어(-왔/였다)	흘러서 간다
32003	오-(來)[ㅏ]	온다
32003-0-1	-지	오지
32003-0-2	-고	오고
32003-0-3	-더라	오더라
32003-0-4	-으니까	오니 조타
32003-0-5	-아/어(-왔/였다)	오너라 와라
32004	듣-(聞)[ㄷ 변]	듣는다

32004-0-1	-지	들찌
32004-0-2	-고	들꼬
32004-0-3	-더라	들떠라
32004-0-4	-으니까	드르니 조타
32004-0-5	-아/어(-았/었다)	드리라
32005	많:- (多)[냐]	만:타
32005-0-1	-지	만:치
32005-0-2	-고	망:코
32005-0-3	-더라	만:터라
32005-0-4	-으니까	마:느니깐두루 시끄럽따 마:느니 실타
32005-0-5	-아/어(-았/었다)	마:나서 시끄럽따 마:내 사렘 마:내
32006	말:- (任)[트]	조타
32006-0-1	-지	채기틀 만는다
32006-0-2	-고	마찌
32006-0-3	-더라	마꼬
32006-0-4	-으니까	마떠라
32006-0-5	-아/어(-았/었다)	마트니 조타
32007	알:- (知)[르]	임:무를 마터야지
32007-0-1	-지	안:다
32007-0-2	-고	알:지
32007-0-3	-더라	알:고
32007-0-4	-으니까	알:터라
32007-0-5	-아/어(-았/었다)	아:니 조타
32008	감:- (閉眼)[크]	아라야 된다
32008-0-1	-지	감는다
32008-0-2	-고	감찌
32008-0-3	-더라	감꼬
32008-0-4	-으니까	감떠라
32008-0-5	-아/어(-았/었다)	까무니 조타
32009	벗:- (脫)[스]	꺼머라
32009-0-1	-지	번는다
32009-0-2	-고	버찌
32009-0-3	-더라	버꼬
32009-0-4	-으니까	버떠라
32009-0-5	-아/어(-았/었다)	버스니
32010	옴:- (可)[르]	버서라 버서야 된다
32010-0-1	-지	올타
32010-0-2	-고	올치
32010-0-3	-더라	올코
32010-0-4	-으니까	올터라
32010-0-5	-아/어(-았/었다)	오르니 조타
32011	입:- (着衣)[브]	오러 오러
32011-0-1	-지	임는다
32011-0-2	-고	입찌
32011-0-3	-더라	입꼬
		입떠라

32011-0-4	-으니까	이부니 조타
32011-0-5	-아/어(-왔/었다)	이버라
32012	바꾸-(換)[ㄸ]	바꾼다
32012-0-1	-지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고
32012-0-3	-더라	바꾸더라
32012-0-4	-으니까	바꾸니
32012-0-5	-아/어(-왔/었다)	바꼬라
32013	덮-(覆)[ㅍ]	덮는다
32013-0-1	-지	덮찌
32013-0-2	-고	덮꼬 더꼬이파
32013-0-3	-더라	덮떠라
32013-0-4	-으니까	더푸~이 따뜨타다
32013-0-5	-아/어(-왔/었다)	더퍼라
32014	물:- (問)[ㄷ 변]	물:른다
32014-0-1	-지	물:찌
32014-0-2	-고	물:꼬
32014-0-3	-더라	물:떠라
32014-0-4	-으니까	무르니 조타
32014-0-5	-아/어(-왔/었다)	무러라
32015	낫:- (癒)[ㅅ 변]	
32015-0-1	-지	나:찌
32015-0-2	-고	나:코 이파
32015-0-3	-더라	나:떠라
32015-0-4	-으니까	나:니 조타
32015-0-5	-아/어(-왔/었다)	나:파 나:야 된다
32016	닫-(閉)[ㄷ]	나는 무늘 닫는다
32016-0-1	-지	다찌
32016-0-2	-고	다꼬
32016-0-3	-더라	다떠라
32016-0-4	-으니까	다드니 조타
32016-0-5	-아/어(-왔/었다)	다다라
32017	쫓-(追)[ㅈ]	쫓는다
32017-0-1	-지	쫓치 쫓치지
32017-0-2	-고	쫓꼬 쫓치고
32017-0-3	-더라	쫓떠라 쫓치더라 이래지 그럼
32017-0-4	-으니까	쫓츠니 쫓치니
32017-0-5	-아/어(-왔/었다)	쫓체라
32018	베:- (枕)[ㅂ]	벤:다 빈:다
32018-0-1	-지	비:지
32018-0-2	-고	비:고
32018-0-3	-더라	비:더라
32018-0-4	-으니까	비:니 조타
32018-0-5	-아/어(-왔/었다)	베:라
32019	깨:- (破)[ㄱ]	깼다
32019-0-1	-지	깨지마라

32019-0-2	-고	깨고이따
32019-0-3	-더라	깨더라
32019-0-4	-으니까	깨니 조타
32019-0-5	-아/어(-왔/었다)	깨:따 깨:라
32020	펴-(伸)[ㄱ]	
32020-0-1	-지	폐지
32020-0-2	-고	폐고
32020-0-3	-더라	폐더라
32020-0-4	-으니까	폐니
32020-0-5	-아/어(-왔/었다)	폐따
32021	밝-(明)[ㄹ]	발따
32021-0-1	-지	발찌
32021-0-2	-고	발꼬
32021-0-3	-더라	발떠라 발근
32021-0-4	-으니까	발그니 발그니 조타
32021-0-5	-아/어(-왔/었다)	발가 조타
32022	쌈-(烹)[ㅁ]	쌈:는다
32022-0-1	-지	쌈:찌
32022-0-2	-고	쌈:꼬
32022-0-3	-더라	쌈:떠라
32022-0-4	-으니까	쌌므니 조타
32022-0-5	-아/어(-왔/었다)	쌌머 머거라
32023	음-(吟)[ㅇ]	음는다
32023-0-1	-지	읍찌
32023-0-2	-고	으꼬
32023-0-3	-더라	읍떠라
32023-0-4	-으니까	을푸니 조타
32023-0-5	-아/어(-왔/었다)	을퍼라
32024	밟-(踏)[ㅍ]	밟:는다
32024-0-1	-지	밟:찌
32024-0-2	-고	바:꼬
32024-0-3	-더라	밟:떠라
32024-0-4	-으니까	발부니 조타
32024-0-5	-아/어(-왔/었다)	발버라
32025	하-(爲)[ㅏ 변]	한다
32025-0-1	-지	하지
32025-0-2	-고	하고
32025-0-3	-더라	하더라
32025-0-4	-으니까	하니 조타
32025-0-5	-아/어(-왔/었다)	빨리 해:라
32026	맺-(結)[ㅈ]	맨는다
32026-0-1	-지	매찌
32026-0-2	-고	매꼬
32026-0-3	-더라	매떠라
32026-0-4	-으니까	매즈니 조타
32026-0-5	-아/어(-왔/었다)	매저라 매저야 된다

32027	없:-(無)[ㅂㅅ]	업:따
32027-0-1	-지	업:찌
32027-0-2	-고	업:꼬
32027-0-3	-더라	업:떠라
32027-0-4	-으니까	업:쓰니 업:쓰니 무섭따
32027-0-5	-아/어(-왔/었다)	업:써서 무습따
32028	앉:-(坐)[ㄴㅅ]	
32028-0-1	-지	안찌마라
32028-0-2	-고	안꼬
32028-0-3	-더라	안떠라
32028-0-4	-으니까	안즈니 안즈니까
32028-0-5	-아/어(-왔/었다)	안자따 안자라
32029	비비:-(刮)[ㅣ]	비빈다
32029-0-1	-지	비비지
32029-0-2	-고	비비고
32029-0-3	-더라	비비더라
32029-0-4	-으니까	비비니
32029-0-5	-아/어(-왔/었다)	비베라 비베야 된다
32030	끄:-(消)[ㅡ]	끈다
32030-0-1	-지	끄지
32030-0-2	-고	끄고
32030-0-3	-더라	끄더라 끄드라
32030-0-4	-으니까	끄니까
32030-0-5	-아/어(-왔/었다)	꺼라
32031	꺾:-(折)[ㄸ]	꺾는다
32031-0-1	-지	꺾찌
32031-0-2	-고	꺾꼬
32031-0-3	-더라	꺾떠라
32031-0-4	-으니까	꺾끄니까
32031-0-5	-아/어(-왔/었다)	꺾꺼라
32032	신:-(履)[ㄴ]	신:는다
32032-0-1	-지	신:찌
32032-0-2	-고	신:꼬
32032-0-3	-더라	신:떠라
32032-0-4	-으니까	신:느니까
32032-0-5	-아/어(-왔/었다)	신:너라
32033	보:-(視)[ㅂ]	본다
32033-0-1	-지	보지
32033-0-2	-고	보고
32033-0-3	-더라	보더라
32033-0-4	-으니까	보니까
32033-0-5	-아/어(-왔/었다)	바:라 빨리 바:라
32034	추:-(舞)[ㅈ]	춘다
32034-0-1	-지	추지
32034-0-2	-고	추고
32034-0-3	-더라	추더라

32034-0-4	-으니까	추니까
32034-0-5	-아/어(-왔/었다)	추어라 추물 덩실덩실 춹:라
32035	피우-(吸煙)[ㅍ]	피운다
32035-0-1	-지	피우지
32035-0-2	-고	피우고
32035-0-3	-더라	피우더라
32035-0-4	-으니까	피우니 조타
32035-0-5	-아/어(-왔/었다)	빨리 피워라
32036	서-(立)[ㅅ]	선다
32036-0-1	-지	서지
32036-0-2	-고	서고
32036-0-3	-더라	서더라
32036-0-4	-으니까	서니
32036-0-5	-아/어(-왔/었다)	서따 서라
32037	기-(匍腹)[ㄱ]	긴다
32037-0-1	-지	기지 마라
32037-0-2	-고	기고이따
32037-0-3	-더라	기더라
32037-0-4	-으니까	기니까
32037-0-5	-아/어(-왔/었다)	게:야된다 게:라
32038	이-(戴)[ㅇ]	더러 인다 인다
32038-0-1	-지	물통을 이지
32038-0-2	-고	이고
32038-0-3	-더라	이더라 또 이래 물통을 이더라
32038-0-4	-으니까	이니까
32038-0-5	-아/어(-왔/었다)	여따 예:라 예 예:라
32039	아니-(否)[ㅇ]	아니다
32039-0-1	-지	아니지
32039-0-2	-고	아니고
32039-0-3	-더라	아이~더라
32039-0-4	-으니까	아니니까
32039-0-5	-아/어(-왔/었다)	아니여서(+소) 아니래서(+다) 난 채 기 아니래서 암보게써
32040	되-(升)[ㄷ]	되로 된다
32040-0-1	-지	되지
32040-0-2	-고	되고
32040-0-3	-더라	되더라
32040-0-4	-으니까	되니까
32040-0-5	-아/어(-왔/었다)	돼:라
32041	있-(有)[ㅇ]	이따
32041-0-1	-지	이찌
32041-0-2	-고	
32041-0-3	-더라	이떠라
32041-0-4	-으니까	이쓰니 조타
32041-0-5	-아/어(-왔/었다)	이써서 조타 이써 조타
32042	놓-(放)[ㅇ]	

32042-0-1	-지	노치 마라
32042-0-2	-고	노코이따
32042-0-3	-더라	노터라
32042-0-4	-으니까	노:니 조타
32042-0-5	-아/어(-왔/었다)	나:따 노아따 놔:라
32043	홀-(-掬)[ㅅ]	홀른다
32043-0-1	-지	홀찌
32043-0-2	-고	홀꼬
32043-0-3	-더라	홀떠라
32043-0-4	-으니까	홀트니 조타
32043-0-5	-아/어(-왔/었다)	빨리 홀터라
32044	곰:-(-麗)[ㅂ 변]	곰:따
32044-0-1	-지	곰:찌
32044-0-2	-고	
32044-0-3	-더라	곰:떠라
32044-0-4	-으니까	고:부니 고:부니 조타
32044-0-5	-아/어(-왔/었다)	고:바서
32045	쥐:-(-握)[ㄱ]	견:다
32045-0-1	-지	견:지
32045-0-2	-고	견:고
32045-0-3	-더라	견:더라
32045-0-4	-으니까	견:니 견:니 조타
32045-0-5	-아/어(-왔/었다)	빨리 쥔:라
32046	가-(-去)[ㅈ]	간다
32046-0-1	-지	가지
32046-0-2	-고	가고
32046-0-3	-더라	가더라
32046-0-4	-으니까	가니
32046-0-5	-아/어(-왔/었다)	가거라 가야 된다
32047	먹-(-食)	멍는다
32047-0-1	"{-지,-고,-더라}"	머꼬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라
32048	뜯-(-摘)	폴뜯는다
32048-0-1	"{-지,-고,-더라}"	뜨꼬 이따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라
32049	같-(-如)	
32049-0-1	"{-지,-고,-더라}"	가따 가꼬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태서 조타
32050	얕-(-淺)	얕따 나따 납따 야따 {알다}
32050-0-1	"{-지,-고,-더라}"	야:꼬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바서 무리 날버 조:와 날부니 조타 얕바서
32051	흩-(-散)	헤친다 흐친다
32051-0-1	"{-지,-고,-더라}"	흐치고 이따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체라
32052	날:-(-飛)	난다

32052-0-1	"{-지,-고,-더라}"	날고 땡긴다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서
32053	울:-(<small>泣</small>)	운:다
32053-0-1	"{-지,-고,-더라}"	울:고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선 안된다
32054	일:-(<small>洵</small>)	인:다
32054-0-1	"{-지,-고,-더라}"	일:고이따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라
32055	얼:-(<small>凍</small>)	은:다
32055-0-1	"{-지,-고,-더라}"	을:고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으:니 어려서 춥따
32056	넘:-(<small>越</small>)	넘:는다
32056-0-1	"{-지,-고,-더라}"	녕:꼬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라
32057	숨:-(<small>隱</small>)	숨:는다
32057-0-1	"{-지,-고,-더라}"	숨꼬 숨찌마라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라
32058	쉽:-(<small>易</small>)	쉽:따
32058-0-1	"{-지,-고,-더라}"	쉬:꼬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워서
32059	눅:-(<small>臥</small>)	
32059-0-1	"{-지,-고,-더라}"	누코이따 둔누:시오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워따 누어야 된다 둔뉘:라
32060	깁:-(<small>縫</small>)	진:는다
32060-0-1	"{-지,-고,-더라}"	지:꼬이따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야 된다
32061	밋:-(<small>憎</small>)	밋따
32061-0-1	"{-지,-고,-더라}"	미꼬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우니 실타 미워서 암불란다
32062	높:-(<small>高</small>)	
32062-0-1	"{-지,-고,-더라}"	놉따 노푸다 노꼬 놉따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사~이 마:~이 노퍼
32063	짓:-(<small>作</small>)	진:는다
32063-0-1	"{-지,-고,-더라}"	지:꼬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야 된다
32064	붓:-(<small>腫</small>)	분:는다
32064-0-1	"{-지,-고,-더라}"	부꼬이따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따 버:서
32065	웃:-(<small>笑</small>)	방실방실 운는다
32065-0-1	"{-지,-고,-더라}"	우:꼬 이따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라
32066	짖:-(<small>吠</small>)	진:는다
32066-0-1	"{-지,-고,-더라}"	지:꼬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저라
32067	꽂:-(<small>插</small>)	꽂:는다
32067-0-1	"{-지,-고,-더라}"	꼬꼬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자라 꼬자야 된다
32068	낱-(産)	난는다
32068-0-1	"{-지,-고,-더라}"	나코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야 된다
32069	땅:-(-辯)	판:는다
32069-0-1	"{-지,-고,-더라}"	따코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
32070	끊-(切)	끈는다
32070-0-1	"{-지,-고,-더라}"	꿍코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너라
32071	괜찮-(無妨)	
32071-0-1	"{-지,-고,-더라}"	괜:찬타 괜:창코 괜:차내 이래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차내 괜:차느니
32072	읽-(讀)	채글 일른다
32072-0-1	"{-지,-고,-더라}"	일꼬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라
32073	뿔:-(-濼)	툽:따
32073-0-1	"{-지,-고,-더라}"	트:꼬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틀:브니 틀:버서 몸머께따
32074	움:-(-遷)	
32074-0-1	"{-지,-고,-더라}"	올머쓰~이 웅:꼬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무니 올마서 안조타
32075	뚫:-(-貫)	뚫:는다
32075-0-1	"{-지,-고,-더라}"	뚜:꼬 이따 뚫:꼬 뚫:떠라 뚫:버야 된다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뚫:버따 뚫:버따
32076	꿍-(脆)	
32076-0-1	"{-지,-고,-더라}"	꿀지 마라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따 꾸러라
32077	닿-(扨, 연필 십이 ~)	
32077-0-1	"{-지,-고,-더라}"	딸:코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르니 따라서 만나온다
32078	달:-(-煎, 솥에서 장이 ~)	
32078-0-1	"{-지,-고,-더라}"	달:고이따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다르니 안조타 다라서 뚜겁따
32079	짜-(鹽)	짜다 짜다 짜굽따
32079-0-1	"{-지,-고,-더라}"	짜굽따 짜굽따 이래고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구와 몸머께따 짜구와서 몸머께따
32080	말-(捲)	만다
32080-0-1	"{-지,-고,-더라}"	말고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러라
32081	쓰-(書)	쓴다
32081-0-1	"{-지,-고,-더라}"	쓰고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리 써라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라}"	오르고 이따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 간다 오르니 조타 올라야 된다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라}"	바쁘다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서 모까게따
32084	고프-(餓)	
32084-0-1	"{-지,-고,-더라}"	고푸다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푸니 머거야 된다 고파서
32085	쏘-(射)	쏜다
32085-0-1	"{-지,-고,-더라}"	쏘고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화를 쏘:라
32086	꾸-(夢)	뀨:다
32086-0-1	"{-지,-고,-더라}"	뀨:고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뀨:라
32087	머무르-(留)	
32087-0-1	"{-지,-고,-더라}"	머물고 이따 머물지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무러서
32088	다듬-(整)	
32088-0-1	"{-지,-고,-더라}"	다듬꼬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머라
32089	견디-(忍)	전딘다
32089-0-1	"{-지,-고,-더라}"	전디고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테라
32090	마르-(裁)	마른다
32090-0-1	"{-지,-고,-더라}"	마르고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러라
32091	끼-(烟鎖, 안개가 ~)	
32091-0-1	"{-지,-고,-더라}"	찌:고 찌고이따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따 찌서
32092	마시-(飲)	마신다
32092-0-1	"{-지,-고,-더라}"	마시고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세라
32093	세:-(強)	씨:다
32093-0-1	"{-지,-고,-더라}"	씨:고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야 된다
32094	포개-(重疊)	포갸:다
32094-0-1	"{-지,-고,-더라}"	포개고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개:라
32095	두드리-(敲)	두두린다
32095-0-1	"{-지,-고,-더라}"	두두리고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두레라 두두레션 안된다
32096	켜-(點燈)	켄다
32096-0-1	"{-지,-고,-더라}"	케고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097	췌:-(바람을)	췌운다
32097-0-1	"{-지,-고,-더라}"	췌우러 가따 나가따 췌우고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위라	
32098	쇠-(老)	
32098-0-1	"{-지,-고,-더라}"	씹:거는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따 쇠:서 몸머께따	
32099	쉬:-(饔, 밥이 ~)	
32099-0-1	"{-지,-고,-더라}"	썩:다 쉬:고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비 썩:따	
32100	희-(白)	히다
32100-0-1	"{-지,-고,-더라}"	히고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니 헤:서 조타	
32101	볶-(炒)	뽕는다
32101-0-1	"{-지,-고,-더라}"	뽕꼬 뽕꺼라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2	안:-(抱)	
32102-0-1	"{-지,-고,-더라}"	양:꼬 이따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라 아나따 아느니 조타	
32103	묻-(埋)	묻는다
32103-0-1	"{-지,-고,-더라}"	무꼬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따	
32104	불:-(吹)	분:다
32104-0-1	"{-지,-고,-더라}"	불:고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니 부러서	
32105	빨-(洗濯)	빨다
32105-0-1	"{-지,-고,-더라}"	빨고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러야 된다	
32106	죽-(死)	중는다
32106-0-1	"{-지,-고,-더라}"	주꼬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선 안된다	
32107	걸:-(步)	걸:른다
32107-0-1	"{-지,-고,-더라}"	걸:꼬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라	
32108	가물-(旱)	
32108-0-1	"{-지,-고,-더라}"	가물고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서 안된다	
32109	졸:-(睡)	조분다
32109-0-1	"{-지,-고,-더라}"	조불고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부러서 안된다	
32110	쓸-(掃)	마당을 쓴다
32110-0-1	"{-지,-고,-더라}"	쓸고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라	
32111	감:-(捲)	감:는다
32111-0-1	"{-지,-고,-더라}"	강:꼬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머라	
32112	더듬-(摸)	더듬는다
32112-0-1	"{-지,-고,-더라}"	더듬꼬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머라	

32113	끓:- (炙)	끓:는다
32113-0-1	"{-지,-고,-더라}"	꾸:꼬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꿔:라 꼬:서 머거라
32114	무겁-(重)	무겁따
32114-0-1	"{-지,-고,-더라}"	무구꼬 무겁따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구와서 모플게따
32115	잇:- (連)	인:는다
32115-0-1	"{-지,-고,-더라}"	이:꼬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어라
32116	빗-(梳)	머릴 뻔는다
32116-0-1	"{-지,-고,-더라}"	뻔꼬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뻔서라 뻔서선 안된다
32117	까맣-(黑)	까머타
32117-0-1	"{-지,-고,-더라}"	까마코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매:서 조:타 이래야지
32118	넣-(入)	넌는다
32118-0-1	"{-지,-고,-더라}"	너코이따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따
32119	고:- (煮)	여슬 쏼:는다 이래 쏼:는다
32119-0-1	"{-지,-고,-더라}"	고:께한다 꺼:께한다 꼬:꼬이따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슬 꺼:라 꺼:서 멍는다
32120	엎-(載)	언는다
32120-0-1	"{-지,-고,-더라}"	엎꼬이따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따 언저야 된다
32121	귀찮-(囁)	
32121-0-1	"{-지,-고,-더라}"	귀창코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내
32122	바르-(剔, 생선 빼를~)	
32122-0-1	"{-지,-고,-더라}"	발리고이따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레야 된다
32123	맑-(淸)	말따
32123-0-1	"{-지,-고,-더라}"	말꼬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조타
32124	끓:- (膿)	곰:는다
32124-0-1	"{-지,-고,-더라}"	곰:꼬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곰마 터진다
32125	끓:- (太)	굴:따
32125-0-1	"{-지,-고,-더라}"	굴:꼬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32126	얇:- (薄)	얹:따
32126-0-1	"{-지,-고,-더라}"	야:꼬 얹:따 얹:꼬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얹바서
32127	썰-(春, 곡식을 절구에다 ~)	실:른다
32127-0-1	"{-지,-고,-더라}"	실:꼬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르니 시러라
32128	잃-(失)	

32128-0-1	"{-지,-고,-더라}"	일코 저:도 일코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이러꼬
32129	핍-(舐)	핍른다
32129-0-1	"{-지,-고,-더라}"	핍꼬이따 핍떠라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핍터선 안된다
32130	짧-(短)	짜르다
32130-0-1	"{-지,-고,-더라}"	짜르고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라서 안단는다
32131	놀라-(驚)	
32131-0-1	"{-지,-고,-더라}"	놀:리고이따 놀:리고 놀:라지 마라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래따 놀:라꼬 놀:라따
32132	자-(宿)	잔다
32132-0-1	"{-지,-고,-더라}"	자고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야된다
32133	못:하-(不爲)	모:탄다
32133-0-1	"{-지,-고,-더라}"	모:타고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태선 안된다
32134	모르-(不知)	모른다
32134-0-1	"{-지,-고,-더라}"	모루고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러 몰:라선 안된다
32135	아프-(痛)	아푸다
32135-0-1	"{-지,-고,-더라}"	아푸고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 아파서 머거따 아파서 히미하다
32136	크-(大)	크다
32136-0-1	"{-지,-고,-더라}"	크고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서 잘보인다
32137	꼬-(索, 새끼를 ~)	새끼 쏜다
32137-0-1	"{-지,-고,-더라}"	꼬고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꽈:라
32138	쭈-(造)	쭈글 쭈다
32138-0-1	"{-지,-고,-더라}"	쭈고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쑈:라 쭈어라(+주의깊은 발화) 쑈:서 멍는다
32139	맞추-(組合)	마췌다
32139-0-1	"{-지,-고,-더라}"	마췌고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췌라
32140	데우-(燂)	데꾼다하기도 하고
32140-0-1	"{-지,-고,-더라}"	데꾸고이따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꿔라 데꿔 머거라
32141	이:-(蓋, 지붕을 ~)	지붕을 인:는다
32141-0-1	"{-지,-고,-더라}"	이:꼬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라
32142	갈기-(打)	
32142-0-1	"{-지,-고,-더라}"	갈기고 이따 갈기지 마:라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게라
32143	기다리-(待)	기다린다

32143-0-1	"{-지,-고,-더라}"	기다리고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려야된다 기다려선 안된다
32144	세:- (算)	신:다
32144-0-1	"{-지,-고,-더라}"	시:고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라
32145	빼:- (拔)	뻘:다
32145-0-1	"{-지,-고,-더라}"	빼:고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라
32146	켜:- (引, 톱으로 ~)	켄:다
32146-0-1	"{-지,-고,-더라}"	케:고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돼:서 몸머께따
32147	되:- (硬)	바비 되:다
32147-0-1	"{-지,-고,-더라}"	되:고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돼:서
32148	쉬:- (休)	쉼:다
32148-0-1	"{-지,-고,-더라}"	쉬:고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쉐:라
32149	할퀴:- (搔)	회빈:다
32149-0-1	"{-지,-고,-더라}"	회비:고 회베:라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0	눌:- (焦)	눌:른다
32150-0-1	"{-지,-고,-더라}"	눌:꼬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르:먼 단:내가 나자내 누려:서
32151	깨달:- (覺)	
32151-0-1	"{-지,-고,-더라}"	깨달코이따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려:따 깨다라:서
32152	마렵:- (오줌이 ~)	매:를따
32152-0-1	"{-지,-고,-더라}"	매르:꼬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르와:서
32153	부끄럽:- (恥)	
32153-0-1	"{-지,-고,-더라}"	부꾸:를따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꾸루:워한다 부꾸러:워한다
32154	가깝:- (近)	
32154-0-1	"{-지,-고,-더라}"	가:참따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와 조:타
32155	깊:- (深)	집따(+다) 지푸:다 이래지(+소)
32155-0-1	"{-지,-고,-더라}"	지:꼬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모:견네간다
32156	긋:- (劃)	근:는다
32156-0-1	"{-지,-고,-더라}"	그:꼬이따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따 거:야 된다
32157	씻:- (洗)	썬:는다
32157-0-1	"{-지,-고,-더라}"	씨:꼬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몸썰:라 썰야: 된다
32158	쥼:- (搗)	쥼:는다
32158-0-1	"{-지,-고,-더라}"	쥼:꼬 쥼:치 쥼:꼬이따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째야 된다
32159	잡-(擧)	잡는다
32159-0-1	"{-지,-고,-더라}"	잡롱기고 그래 잡:꼬이따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잡거서는 안된다
32160	굶-(飢)	굶는다
32160-0-1	"{-지,-고,-더라}"	굶:꼬이따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서는 안된다
32161	닮-(似)	
32161-0-1	"{-지,-고,-더라}"	당:꼬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따 달머이따
32162	싫-(厭)	싫타
32162-0-1	"{-지,-고,-더라}"	싫코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싫러서 안된다
32163	끓-(飪, 달같이 ~)	곤다
32163-0-1	"{-지,-고,-더라}"	끓고이따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끓러따 끓러서 몸머께따
32164	붓-(注)	분는다
32164-0-1	"{-지,-고,-더라}"	부:꾸이따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따
32165	타-(乘)	탄다
32165-0-1	"{-지,-고,-더라}"	타고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32166	마르-(乾)	마른다
32166-0-1	"{-지,-고,-더라}"	마르고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려야 된다
32167	쓰-(苦)	씩굽따(+다) 쓰다
32167-0-1	"{-지,-고,-더라}"	씩굽따 엔:나레 썩굽따 이래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씩구와 몸머께따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라}"	슬푸다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서
32169	기쁘-(喜)	기뿌다
32169-0-1	"{-지,-고,-더라}"	기뿌고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뻐서
32170	쏘-(蜚, 벌이 ~)	쏜다
32170-0-1	"{-지,-고,-더라}"	쏘니 쏘고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171	주-(與)	준다
32171-0-1	"{-지,-고,-더라}"	주고이따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따
32172	키우-(育)	키운다
32172-0-1	"{-지,-고,-더라}"	키우고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워라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라}"	가둬고 이따 가둬지 마:라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둬:따 가둬야 된다

32174	부수-(碎)	부꾼:다
32174-0-1	"{-지,-고,-더라}"	뿌꾸고이따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뀌야 된다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라}"	노누고이따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농거머거라 노너라 노너야된다
32176	속이-(欺)	췌킨다
32176-0-1	"{-지,-고,-더라}"	쏘기고이따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게선 안된다
32177	끼-(插)	찌다
32177-0-1	"{-지,-고,-더라}"	찌고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라
32178	튀-(跳)	튬다
32178-0-1	"{-지,-고,-더라}"	튀고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서 다라난다
32179	괴:-(-滯)	개빈:다
32179-0-1	"{-지,-고,-더라}"	개비고이따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배:따 개배:서
32180	여위-(癰)	
32180-0-1	"{-지,-고,-더라}"	패래코 패래치 양코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패래진다 패래:서 보기 안조타 이 아 이도 패랜:네
32181	맵-(辛)	맷따
32181-0-1	"{-지,-고,-더라}"	이꼬추는 맷꼬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맷와서 몸머께따
32182	뀌:-(-尾)	뀨:다
32182-0-1	"{-지,-고,-더라}"	뀌:고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선 안된다
32183	고치-(改)	곤친다
32183-0-1	"{-지,-고,-더라}"	곤치고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체야 된다
32184	실:-(-載)	실:른다
32184-0-1	"{-지,-고,-더라}"	실:꼬 간다 실:꼬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시러라
32185	얻:-(-得)	
32185-0-1	"{-지,-고,-더라}"	으:꼬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으:더따
32186	빻-(粉碎)	빻는다
32186-0-1	"{-지,-고,-더라}"	빠코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
32187	파랑-(碧)	파:르타
32187-0-1	"{-지,-고,-더라}"	파러코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래서 보기조타
32188	다르-(異)	다르다
32188-0-1	"{-지,-고,-더라}"	다르고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라서

32189	푸-(汲)	푼다
32189-0-1	"{-지,-고,-더라}"	무를 푸고이따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올리고 퍼야 된다
32190	누-(尿)	눈다
32190-0-1	"{-지,-고,-더라}"	누고이따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야된다
32191	더:럽-(汚)	드:럽따
32191-0-1	"{-지,-고,-더라}"	드:러꼬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루와서 모까게따
32192	거두-(收)	거둔다
32192-0-1	"{-지,-고,-더라}"	거두구 이따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두어야 된다 거뒤서 온다 거뒤
32193	끓-(沸)	끓는다
32193-0-1	"{-지,-고,-더라}"	끓코 끄러야 된다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4	이기-(承)	이긴다
32194-0-1	"{-지,-고,-더라}"	이기고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게야 된다
32195	부시-(照)	부신:다 누니 부신:다
32195-0-1	"{-지,-고,-더라}"	부시:고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세야 된다
32196	자빠지-(後)	자빠진다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고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저선 안된다
32197	일으키-(使起)	일군다
32197-0-1	"{-지,-고,-더라}"	일구고 일고 조:라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8	당기-(引)	당긴다
32198-0-1	"{-지,-고,-더라}"	당기고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게라
32199	버리-(捨)	버린다
32199-0-1	"{-지,-고,-더라}"	버리고이따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레라
32200	훔치-(盜)	
32200-0-1	"{-지,-고,-더라}"	훔치고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체따 훔체서는 안된다
32201	지-(負)	
32201-0-1	"{-지,-고,-더라}"	지고간다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저라
32202	외:-:(暗誦)	외운다
32202-0-1	"{-지,-고,-더라}"	외우고 이따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워라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라}"	사귀구이따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구ㄱ라 사궤야 된다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라}"	씩찌 씨꼬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거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라}"	질고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32206	까불-(箕)	까분다
32206-0-1	"{-지,-고,-더라}"	까불고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러야 된다 까 부러야 된다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라}"	드물다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서 안조타
32208	줄:-(-縮)	준:다
32208-0-1	"{-지,-고,-더라}"	줄:고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서
32209	심:-(-植)	심는다
32209-0-1	"{-지,-고,-더라}"	심꼬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머야 된다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고,-더라}"	쓰다듬는다 다등꼬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머라
32211	샤:납-(猛)	샤:납따
32211-0-1	"{-지,-고,-더라}"	샤:나꼬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샤:나와서 무습따
32212	가볍-(輕)	가볍따
32212-0-1	"{-지,-고,-더라}"	가버꼬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부와서 조타
32213	져:-(-撈)	져:는다
32213-0-1	"{-지,-고,-더라}"	저:꼬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라 저어라
32214	두껍-(厚)	두껍따 두껍따
32214-0-1	"{-지,-고,-더라}"	두꺼꼬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꾸와서 조타
32215	무르-(軟)	무룬다
32215-0-1	"{-지,-고,-더라}"	무루고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러따 물러서 몸머께따
32216	분지르-(折)	부댄:다
32216-0-1	"{-지,-고,-더라}"	부대:고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대라
32217	배우-(學)	마:~이 배운다
32217-0-1	"{-지,-고,-더라}"	배우고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워라
32218	다리-(躐)	대린다
32218-0-1	"{-지,-고,-더라}"	대리고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레라
32219	후비-(空, 귀를 ~)	파넨다
32219-0-1	"{-지,-고,-더라}"	파내고이따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내:라 파내야 된다
32220	아리-(痛) 아리다
32220-0-1	"{-지,-고,-더라}" 아리고 아레서 심들다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1	그리-(畵) 그린다
32221-0-1	"{-지,-고,-더라}" 그리고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레라
32222	저리-(癡) 제리다
32222-0-1	"{-지,-고,-더라}" 제리고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레서
32223	불리-(增) 뿔:른다
32223-0-1	"{-지,-고,-더라}" 뿔꾸이따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뿔귀멍는다
32224	뜨시-(溫) 뜨시다
32224-0-1	"{-지,-고,-더라}" 뜨시고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세야 된다
32225	끓이-(使沸) 끄린다
32225-0-1	"{-지,-고,-더라}" 끄리고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레라
32226	누비-(縫) 뉘빈다
32226-0-1	"{-지,-고,-더라}" 뉘비고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베라 뉘베야 된다
32227	구기-(皺) 꾸긴:다
32227-0-1	"{-지,-고,-더라}" 꾸기:고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게라 꾸게야 된다
32228	비:-(空)
32228-0-1	"{-지,-고,-더라}" 비:고 이방도 비:고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따
32229	식히-(使冷)
32229-0-1	"{-지,-고,-더라}" 시키고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케 머거라
32230	매-(草) 푸를 맨다
32230-0-1	"{-지,-고,-더라}" 매고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라
32231	매:-(結) 맨다
32231-0-1	"{-지,-고,-더라}" 매고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라
32232	뛰-(走) 뛴다
32232-0-1	"{-지,-고,-더라}" 뛰고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뛴:선 안된다
32233	담:-(盛) 담는다
32233-0-1	"{-지,-고,-더라}" 담꼬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머따 다머라
32234	가렵-(癢) 개릅따
32234-0-1	"{-지,-고,-더라}" 개르꼬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루와서

32235	때리-(打)	때린다
32235-0-1	"{-지,-고,-더라}"	때리고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레라
32236	어둡-(暗)	어둡따
32236-0-1	"{-지,-고,-더라}"	어두꼬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와서 암보인다
32237	잡-(執)	잡는다
32237-0-1	"{-지,-고,-더라}"	자꼬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라
32238	차-(蹴)	찬다
32238-0-1	"{-지,-고,-더라}"	차고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라
32239	모자라-(不足)	모:재린다
32239-0-1	"{-지,-고,-더라}"	모:재리고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재레서 안돼따
32240	부르-(呼)	부른다
32240-0-1	"{-지,-고,-더라}"	부루고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선 안된다
32241	따르-(注)	때룬다
32241-0-1	"{-지,-고,-더라}"	때루고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뤄야 된다 때뤄라
32242	쫓:- (啄)	쫓:는다
32242-0-1	"{-지,-고,-더라}"	쫓:코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쫓아명는다 쫓:머거야 된다
32243	두-(置)	
32243-0-1	"{-지,-고,-더라}"	두고이따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나 도:땡기 {거기에 놔 두었던 것이} 뒤:따(+소) 도:따(+다)
32244	시키-(使)	씨킨다
32244-0-1	"{-지,-고,-더라}"	씨기고 이따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심:부름 씨게따 씨케야 된다
32245	지리-(漏, 오줌을 ~)	
32245-0-1	"{-지,-고,-더라}"	찌리지 마라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레선 안된다
32246	던지-(投)	던진다
32246-0-1	"{-지,-고,-더라}"	던지고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제따
32247	모이-(集)	모인:다
32247-0-1	"{-지,-고,-더라}"	모이고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예가주고 모예따가 모여 온다(+소) 모예쏘?
32248	만지-(拊)	만친다
32248-0-1	"{-지,-고,-더라}"	만치고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체서는 안된다
32249	쪼:- (曬)	쪼인다
32249-0-1	"{-지,-고,-더라}"	쪼이고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쫓예야 된다
32250	비틀-(捻)	비:튼다
32250-0-1	"{-지,-고,-더라}"	비:틀고이따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따
32251	돕-:(助)	돕:는다
32251-0-1	"{-지,-고,-더라}"	도:꼬이따 도와야된다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2	썸-(咀)	썸는다
32252-0-1	"{-지,-고,-더라}"	썸꼬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썸버라
32253	미끄럽-(滑)	미끄럽따
32253-0-1	"{-지,-고,-더라}"	미끄러꼬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와서 안된다
32254	닿-(接)	단는다
32254-0-1	"{-지,-고,-더라}"	다코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야 된다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라}"	눌:리고이따 눌:리고 눌:리지 마라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레따 눌:레션 안된다
32256	주무르-(揉)	쭈문다
32256-0-1	"{-지,-고,-더라}"	쭈물고이따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무러서 조:타
32257	메우-(填)	
32257-0-1	"{-지,-고,-더라}"	메꾸고이따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꿔야 된다 미꿔:서는
32258	고소하-(香味)	꼬시다
32258-0-1	"{-지,-고,-더라}"	꼬시고 고소하다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세서 조타 고소::해서 조타
32259	내리-(降)	네린다
32259-0-1	"{-지,-고,-더라}"	네리구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레따 네레야 된다
32260	구르-(轉)	구분다 굴린다
32260-0-1	"{-지,-고,-더라}"	굴리고(+소, +신) 구불고(+다, +구)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부러 간다
32261	만들-(作)	만든다 맨든다
32261-0-1	"{-지,-고,-더라}"	맨들고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맨드러야
32262	늙-(老)	늘른다
32262-0-1	"{-지,-고,-더라}"	늘꼬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거진다
32263	앓-(病)	알른다
32263-0-1	"{-지,-고,-더라}"	알코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션 안된다
32264	따르-(隨)	
32264-0-1	"{-지,-고,-더라}"	따르시고 딸코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러라 날 잘 따러야 된다 따라야

		된다(+소) 따러야 된다(+다)
32265	사-(買)	산다
32265-0-1	"{-지,-고,-더라}"	사고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야된다
32266	치우-(除)	치운다
32266-0-1	"{-지,-고,-더라}"	치우고이따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워라
32267	부러지-(被折)	
32267-0-1	"{-지,-고,-더라}"	부러지고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져따
32268	다치-(傷)	
32268-0-1	"{-지,-고,-더라}"	다치고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쳐따
32269	느리-(緩)	느리다
32269-0-1	"{-지,-고,-더라}"	느리고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려서 안된다
32270	무치-(和, 나물을 ~)	거 무친다고그래 무친다고 이견 무친다
32270-0-1	"{-지,-고,-더라}"	무치고이따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체라
32271	죄:- (締)	죄인다
32271-0-1	"{-지,-고,-더라}"	조이고 조이고이따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예서는 안된다
32272	팔-(賣)	판다
32272-0-1	"{-지,-고,-더라}"	팔고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야 된다
32273	뽑-(選)	뽑는다
32273-0-1	"{-지,-고,-더라}"	뽑꼬이따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버야된다 뽑버서는 안된다
32274	뒤지-(索)	뒤진다
32274-0-1	"{-지,-고,-더라}"	뒤지고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제선 안된다
32275	마치-(終)	마친다
32275-0-1	"{-지,-고,-더라}"	마치고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쳐야 된다
32276	절이-(鹽)	저린다 배:차 저린다(+신) 절균:다(+구)
32276-0-1	"{-지,-고,-더라}"	절구:고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귀야 된다
32277	휘-(曲)	휜다
32277-0-1	"{-지,-고,-더라}"	휘고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훼:선 안된다
32278	줍:- (拾)	준:는다
32278-0-1	"{-지,-고,-더라}"	주:꼬이따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야된다
32279	빼앗-(奪)	
32279-0-1	"{-지,-고,-더라}"	빼:꼬이따 빼:찌 마:라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아사따 빼:서따

32280	기울-(傾)	기운다
32280-0-1	"{-지,-고,-더라}"	기울고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우러진다 기우러지고 기우러져따 기우러선 안된다
32281	아깝-(惜)	아깝따
32281-0-1	"{-지,-고,-더라}"	아껴꼬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꾸와서
32282	반갑-(歡)	방갑따 방갑따
32282-0-1	"{-지,-고,-더라}"	방거꼬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과: 조:타
32283	찌-(蒸)	찐다
32283-0-1	"{-지,-고,-더라}"	찌고이따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284	노랑-(黃)	노라타
32284-0-1	"{-지,-고,-더라}"	노:라치 노라코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래서 안조타
32285	푸르-(靑)	푸루다
32285-0-1	"{-지,-고,-더라}"	푸루고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루니 조타 푸러야 된다
32286	서두르-(忙)	서두른다
32286-0-1	"{-지,-고,-더라}"	서두루고이따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두러야 된다
32287	서투르-(不熟)	스:툴다
32287-0-1	"{-지,-고,-더라}"	스:툴고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투러선 안된다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라}"	게그르다 게그리고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그레선 안된다 게그러선 안된다
32289	따뜻하-(溫)	따뜨타다 따시다
32289-0-1	"{-지,-고,-더라}"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시~이 조타 따뜨타~이 조타 따세 야 된다 따뜨태:야 된다
32290	춥-(寒)	춥따
32290-0-1	"{-지,-고,-더라}"	추꾸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와서는 안된다
32291	뜨겁-(極熱)	뚜겁따
32291-0-1	"{-지,-고,-더라}"	뚜거꼬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구와야 된다
32292	미지근하-(微溫)	매지그니하다
32292-0-1	"{-지,-고,-더라}"	무리 매지그니하다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지그니하~이 조타 매지그니해:야 된다
32293	차갑-(寒)	차굽따
32293-0-1	"{-지,-고,-더라}"	차구꼬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구와서 손시럽따
32294	부럽-(羨)	부럽따
32294-0-1	"{-지,-고,-더라}"	부러꼬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와서 배아푸다	
32295	알땃-(憎)	
32295-0-1	"{-지,-고,-더라}"	알:미롭따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루워서 안조타
32296	비슷하-(類似)	비저타다
32296-0-1	"{-지,-고,-더라}"	비저::타다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저::타~이 조타 비저::태:야 된다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라}"	기리 새롭따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와서 조타
32298	서:럽-(悲痛)	서:럽따
32298-0-1	"{-지,-고,-더라}"	서:러꼬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와서 눈물난다
32299	까다롭-(難)	
32299-0-1	"{-지,-고,-더라}"	까:다롭따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와서
32300	외롭-(孤)	웨롭다
32300-0-1	"{-지,-고,-더라}"	웨로꼬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로와서
32301	아쉽-(不滿)	아쉽따
32301-0-1	"{-지,-고,-더라}"	아쉬꼬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쉬와서 안조타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라}"	단단하다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서 조타
32303	늦-(晚)	느따
32303-0-1	"{-지,-고,-더라}"	느꼬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느저서는 안조타
32304	남:- (餘)	
32304-0-1	"{-지,-고,-더라}"	마::~이 남:꼬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머따 나머서
32305	남기-(使餘)	
32305-0-1	"{-지,-고,-더라}"	냉기지 말고 다 머거라 바블 냉기고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게선 안된다
32306	넘어뜨리-(使倒)	
32306-0-1	"{-지,-고,-더라}"	너머띠리고 이따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띠레따 너머띠레선 안된다
32307	쭈그러뜨리-(使凹)	쭈굴티린다
32307-0-1	"{-지,-고,-더라}"	쭈굴티리고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굴티레야된다
32308	전주-(比)	전준다
32308-0-1	"{-지,-고,-더라}"	전주고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취라
32309	외우-(誦)	외운다
32309-0-1	"{-지,-고,-더라}"	외우구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워라

32310	문지르-(摩)	문질군:다
32310-0-1	"{-지,-고,-더라}"	문질구:고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귀:라
32311	가리키-(指)	가르친:다
32311-0-1	"{-지,-고,-더라}"	가르치:고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चे:라
32312	가르치-(敎)	가르친:다
32312-0-1	"{-지,-고,-더라}"	가르치:고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가르चे:라
32313	겨누-(照準)	목표를 겨눈다
32313-0-1	"{-지,-고,-더라}"	저누구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눠라
32314	겨루-(競)	겨룬다
32314-0-1	"{-지,-고,-더라}"	겨누고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눠라
32315	달래-(慰撫)	달랜다(+소) 달겐다(+다)
32315-0-1	"{-지,-고,-더라}"	달개고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개라
32316	본받-(效)	
32316-0-1	"{-지,-고,-더라}"	뿐바꼬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바더라 뿐바더야 된다
32317	어지르-(散)	어질군:다
32317-0-1	"{-지,-고,-더라}"	어질구:고 어질귀:선 안된다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8	달리-(走)	달린다
32318-0-1	"{-지,-고,-더라}"	달리고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레간다 달레라
32319	우기-(拗)	우긴다
32319-0-1	"{-지,-고,-더라}"	우기고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게선 안된다
32320	중얼거리-(獨言)	중얼거린다
32320-0-1	"{-지,-고,-더라}"	중얼거리고 이따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레선 안된다
32321	지꺼리-(騷)	지꺼린다
32321-0-1	"{-지,-고,-더라}"	지꺼리고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레선 안된다
32322	다니-(行)	댕긴다
32322-0-1	"{-지,-고,-더라}"	댕기고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게요
32323	떨어뜨리-(使落)	떨군다
32323-0-1	"{-지,-고,-더라}"	떨구고 떨귀라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4	깨-(覺)	자미 깬다
32324-0-1	"{-지,-고,-더라}"	깨고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서는 안된다 깨:야 된다
32325	시-(酸)	시다 시겅따

32325-0-1	"{-지,-고,-더라}"	시고 시겍따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서 시겨와서 몸머께따
32326	숫-(-湧)	소순다
32326-0-1	"{-지,-고,-더라}"	소수구 소수구 이따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서야 된다
32327	좋-(-好)	조:타
32327-0-1	"{-지,-고,-더라}"	조:코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호니 조:와서 조타
32328	빨강-(-赤)	좀 빨거타 빨:가타
32328-0-1	"{-지,-고,-더라}"	빨가코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개:서 조타
32329	끌-(-曳, 땅에 질질 ~)	끈:는다(+소) 끈:다구래지 끈:다고(+다)
32329-0-1	"{-지,-고,-더라}"	끌:꼬(+다) 끌:찌 마라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라(+소) 끄어서는 안된다 끄:러라
32330	넓-(-廣)	널따 너르다 너르다(+강이)
32330-0-1	"{-지,-고,-더라}"	널:꼬 너르고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부니 조:타 널버야 된다 너르니 널러서 조타
32331	하얗-(-白)	
32331-0-1	"{-지,-고,-더라}"	하여코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애: 조타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구기 마시따
32332-0-2	-을/를	구글 자주와라
32332-0-3	-에(서)	구게
32332-0-4	-으로	구구로
32332-0-5	-도	국또 마시따
32333	논(飡)	논
32333-0-1	-이/가	노니 널따
32333-0-2	-을/를	노늘 바:라
32333-0-3	-에(서)	노네 드러가지 마라 노네 간다
32333-0-4	-으로	노누로 간다
32333-0-5	-도	논도 만타
32334	쌀(米)	
32334-0-1	-이/가	싸리 만타
32334-0-2	-을/를	싸를 머거라
32334-0-3	-에(서)	싸레
32334-0-4	-으로	쌀로 떠글 만든다
32334-0-5	-도	쌀또 만든다
32335	봄(春)	봄
32335-0-1	-이/가	보미 와따
32335-0-2	-을/를	보를 마자라

32335-0-3	-에(서)	보메 난다
32335-0-4	-으로	보무로 씨를 뿌린다
32335-0-5	-도	봄도 되고 여름도 돼:따
32336	집(家)	
32336-0-1	-이/가	지비 크다
32336-0-2	-을/를	지블 제:라
32336-0-3	-에(서)	지베 이따
32336-0-4	-으로	지부로 간다
32336-0-5	-도	집또 크다
32337	옷(衣)	
32337-0-1	-이/가	오시 이따
32337-0-2	-을/를	오슬 이버라
32337-0-3	-에(서)	오세 문지가
32337-0-4	-으로	오스로 오스로 맨든다
32337-0-5	-도	오포 만:타
32338	방(房)	방
32338-0-1	-이/가	방이 널따
32338-0-2	-을/를	방을 따꺼라
32338-0-3	-에(서)	방에 가자
32338-0-4	-으로	방으로 가라
32338-0-5	-도	방도 널따
32339	낮(晝)	
32339-0-1	-이/가	나지 돼:따
32339-0-2	-을/를	나즐 나즐 칭구 삼는다
32339-0-3	-에(서)	나제 가자
32339-0-4	-으로	나즈로 가자
32339-0-5	-도	나또 되고 밤도 돼:따
32340	낯(顔)	
32340-0-1	-이/가	나치 뚜껍따
32340-0-2	-을/를	나틀 바:라
32340-0-3	-에(서)	나테 저미 이따
32340-0-4	-으로	
32340-0-5	-도	나또 뚜껍따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뵤:키 널따
32341-0-2	-을/를	부어클 바:라
32341-0-3	-에(서)	뵤:케 가라
32341-0-4	-으로	뵤:크로 가야된다
32341-0-5	-도	뵤:또 널따
32342	밭(田)	받
32342-0-1	-이/가	바치 널따
32342-0-2	-을/를	바틀 보아라
32342-0-3	-에(서)	바테 가라
32342-0-4	-으로	바트로 가라
32342-0-5	-도	바또 널따
32343	앞(前)	압

32343-0-1	-이/가	아피 널따
32343-0-2	-을/를	아플 봐:라
32343-0-3	-에(서)	아페 이따
32343-0-4	-으로	아푸로 가:라
32343-0-5	-도	압또 널따
32344	넋(魂)	
32344-0-1	-이/가	넋씨 나가따
32344-0-2	-을/를	넋씨를 봐:따
32344-0-3	-에(서)	
32344-0-4	-으로	
32344-0-5	-도	혼도 나가고 넋씨도 나가따 넋씨도 나가따
32345	흙(土)	흑
32345-0-1	-이/가	홀기 만:타
32345-0-2	-을/를	홀글 자바라
32345-0-3	-에(서)	홀게 벌거지가 이따
32345-0-4	-으로	홀그로
32345-0-5	-도	흑또 만:타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여덟비 만타
32346-0-2	-을/를	여덟블 세:라
32346-0-3	-에(서)	여덟베
32346-0-4	-으로	여덟브로
32346-0-5	-도	여덟도 만:타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도리 돼:따
32347-0-2	-을/를	도를 마저따
32347-0-3	-에(서)	도레 채린다
32347-0-4	-으로	돌로부터
32347-0-5	-도	돌또 되어따
32348	값(價)	
32348-0-1	-이/가	갑씨 비싸다
32348-0-2	-을/를	갑쓸 치룬다 갑쓸 조:라
32348-0-3	-에(서)	갑쎄
32348-0-4	-으로	그 갑쓰로
32348-0-5	-도	갑또 비싸다
32349	속:(內)	
32349-0-1	-이/가	소:기 아프다
32349-0-2	-을/를	소:글 모뿐다
32349-0-3	-에(서)	소:게서
32349-0-4	-으로	소:구로
32349-0-5	-도	속:또 아프다
32350	돈:(錢)	
32350-0-1	-이/가	도:니 만타
32350-0-2	-을/를	도:늘 거주와라
32350-0-3	-에(서)	도:네
32350-0-4	-으로	도:누로

32350-0-5	-도	돈:도 만:타
32351	발(足)	
32351-0-1	-이/가	바리 크다
32351-0-2	-을/를	바를 바:라
32351-0-3	-에(서)	바레 물찌비따
32351-0-4	-으로	발로 찬다
32351-0-5	-도	발또 크다
32352	짐(物)	짐
32352-0-1	-이/가	지미 무겁따
32352-0-2	-을/를	지플 거주와
32352-0-3	-에(서)	지메 무리 무리 이따
32352-0-4	-으로	지른 지므로 할쑤업따
32352-0-5	-도	짐도 만:타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이비 크다
32353-0-2	-을/를	이블
32353-0-3	-에(서)	이베 내금새가 난다
32353-0-4	-으로	이부로 나팔분다
32353-0-5	-도	입또 크다
32354	낫(鎌)	낫
32354-0-1	-이/가	나지 이따
32354-0-2	-을/를	나즐 거주와
32354-0-3	-에(서)	나세 노기 쓰러따 나제
32354-0-4	-으로	나즈로
32354-0-5	-도	나또 이따
32355	강(江)	강
32355-0-1	-이/가	가~이 널따
32355-0-2	-을/를	강을 봐:라
32355-0-3	-에(서)	강에 가자
32355-0-4	-으로	강으로부터 멀:다
32355-0-5	-도	강두 널따
32356	젖(乳)	젖
32356-0-1	-이/가	저지 나온다
32356-0-2	-을/를	저즐 따꺼라 저즐 무려라
32356-0-3	-에(서)	저제 저제 상처가 나따
32356-0-4	-으로	저즈로
32356-0-5	-도	저또 만:타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꼬치 예:뿌다
32357-0-2	-을/를	꼬틀 꺼꺼라
32357-0-3	-에(서)	꼬테 벌거지가 이러따
32357-0-4	-으로	꼬트로
32357-0-5	-도	꼬또 이:뿌다
32358	팥(赤豆)	팥
32358-0-1	-이/가	파치 만:타
32358-0-2	-을/를	파틀 멍는다

32358-0-3	-에(서)	파테
32358-0-4	-으로	파트로 주글 쏜다
32358-0-5	-도	파또 마시따
32359	옆(側)	
32359-0-1	-이/가	여피 널따
32359-0-2	-을/를	여폴 봐라
32359-0-3	-에(서)	여폐 안는다
32359-0-4	-으로	여푸로 가라
32359-0-5	-도	엽또 널따
32360	삿(賃金)	씩
32360-0-1	-이/가	싸기 만:타
32360-0-2	-을/를	싸글 조:라
32360-0-3	-에(서)	싸게도 돈:도 이따
32360-0-4	-으로	싸그로 빼슬 타따
32360-0-5	-도	삭또 만:타
32361	닭(鷄)	닥
32361-0-1	-이/가	달기 만:타
32361-0-2	-을/를	달글 자바라
32361-0-3	-에(서)	달게 벌거지가 이따
32361-0-4	-으로	달그로 삼게탕을 맨든다
32361-0-5	-도	닥또 만타
32362	밖(外)	박
32362-0-1	-이/가	바끼 널따
32362-0-2	-을/를	바끌 봐:라
32362-0-3	-에(서)	바께 나가자
32362-0-4	-으로	바끄로 나가라
32362-0-5	-도	박또 널따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바블 멍는다 내가 조:따
40101-0-2	내	내 물겨니다
40101-0-3	나-를	나:를 바라 날: 조:따
40101-0-4	나-에게	나에게 조:따 내한테 조:따 내인테 조:따 또 내게라고도 하지 내게도 조:따
40101-0-5	나-와	나와 가치 가자 나하고 가자
40101-0-6	나-는	나는 안:다
40101-0-7	나-도	나도 안:다
40102	저/제-가	저 올씨다
40102-0-1	저-가	제:가 하계썸미다 저가 암미다
40102-0-2	저-의	저에 물겨~임미다 저햄미다 {제 것입니다}
40102-0-3	저-을/를	저르 보십씨오 저를 주십씨오
40102-0-4	저-에게	저에게 주시오 저한테 주십씨오 저인테 주십씨오
40102-0-5	저-와/과	저하고 가치 갑씨다 저와 가치 갑씨다 저하고 가치 갑씨다
40102-0-6	저/-는	저는 암미다
40102-0-7	저/-도	저도 암미다
40103	우리	우리다 우리들 우리아버지
40104	저희	저에 아버짐미다 저에 아부짐미다
40105	너	너
40105-0-1	너-가	니:가 가라
40105-0-2	너-의	니꺼다 니: 물겨니다 너 물겨니다
40105-0-3	너-을/를	너를 바:라
40105-0-4	너-에게	너에게 준다 니한테 준다(+다) 너한테 준다(+소) 니인테 준다
40105-0-5	너-와/과	니와 나와 함치며는 너와 가치 가자 니하고 가치 가자(+소) 너하고 가치 가자(+다)
40105-0-6	너-는	너는 안:다
40105-0-7	너-도	너도 니가 되고 너도 안:다
40106	자네	사우 가보게(+질문지의 상황에서는 '사위'를 씀) 자네 완능가(+손아랫사람에 모두 사용) 당신 저 저 좀 가보시오.(+아이가 없으면 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개 아버지 거 좀 가보시오.(+아이가 있으면서 아내가
40107	당신	

		남편에게) 당신(+아이가 없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아이가 없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 절로 가보게(+남편이 아내에게)
40108	너희	느: 아버지 자네 아부지 느:아부지
40109	개	가:가 저쪄게 이따
40109-1	애	야:가 여:이따
40109-2	재	자:는 조분다 자:가 저:이따
40110	자기	자기말 드러라 자기말만 드러라
40111	당신	하라버지 방에서 지무신다 자기방에 지무신다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심미까? 누구시오?
40112-0-1	누-가	누가 완나?
40112-0-2	누구-의	누구에 아버짐미다 누구 도녕가? 이 도니 누구 도녕가?
40112-0-3	누구-를	누구를 만넌나? 물겨늘 누구를 존:나?
40112-0-4	누구-에게	누구인데 존:나? 누구한테 줄:라나? 누구한테 파련나?
40112-0-5	누구-와	너는 누구하고 간나?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냐? 머:심미까? 머:임미까?
40113-0-1	무엇-이	머:가 인느냐? 머이 머이 머꼬 수와?
40113-0-2	무슨	무슨 니를 하심미까? 먼:니를 함미까 또는 먼:이리 인능가?
40113-0-3	무엇-을	머:를 소네 췌썸미까? 머:슬 소네 췌썸 미까? 딸: 딸: 딸: 머꼬 수우냐?
40113-0-4	무엇-과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드르 가세 어두루 어두루 가야 함미 까 이리케 무를꺼 아~이여? 니는 오두 로 가나? 어드루 가니? 어들로 가 니?
40115	언제	운:제 운:제 운:제 올라능가?
40116	어느	어느지비 마메 드러?
40117	왜	왜:서 우:나? 니는 왜:서 우나?
40118	얼마나	얼:마나 걸리나?
40119	어떻게	우투게 파련나? 우투게 우투게 지내 나? 야 너는 어트게 지내?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요거 낭글 까까가주고 이기 멈:미까? 이저느 멈:미까?
40121	그것	아깨 그저는 그건 멈:미까? 그저느 멈미까? 그기 그기 멈미까?
40122	저것	저기 멈:미까? 저저느 멈미까?
40123	여기	도틀 도틀 여:는 안다라씨 여개고 여 기고
40124	거기	저:도 남풍 이래지 저:나 도:땡기 {거기 에 놔 두었던 것이} 거기고
40125	저기	저개도 저:꼬 {저기도 적고} 너는 저기 고 저기고
40126	이리	이리 오라 이리 오너라 일로 오너라
40127	그리	그리 가거라 글:로 가라
40128	저리	절로 가바: 저리 가그라 절로 가라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기부~이 조:와서 조:따 갑씨 비싸다
40202	-이/가(무엇이)	모이 여덜깨머는 팔모사~이라 팔모상 코가 크다
40203	-을/를(어디를)	날 잘 따러야 된다 때르 쓴다 귀를 때레따
40204	-을/를(무엇을)	수테 부르 부친다 무를 준다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사라메 조:라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구더러 하나? 누구더러 당시니라 하 나?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구보고
40208	-에(집에)	지베 간다
40209	-에(나중에)	내:중에 만나자
40210	-에서(큰집에서)	큰지베서 지:낸다
40211	-에서(서울에서)	나:중에는 서울서 만나자 부산서 만나 자
40212	-에서(여기에서)	여기서
40213	-으로(참쌀로)	참쌀로 한다
40214	-으로(짚으로)	지푸로 만든다
40215	-으로(새끼로)	새끼로 뭉는다
40216	-으로(어디로)	오두로 가나?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수:바과 차뵈 수:박 하::고 차뵈하고
40218	-와/과(나와)	나하고 두:리 가자 나하고 니하고 가치 가자 나 하:고 가치 가자
40219	-보다(형보다)	내보다도 니:가 가라 동생은 날:보다 더크다 키가 날:보다 더 크다 형보다

40220	-처럼(꽤처럼)	가 동새~이 크다 말처럼 땡게따고 저노른 돼:지처럼 살 마 저따 돼:지처럼 해:야 그기 딱
40221	-만큼(너만큼)	모글 저만큼 {뿔을 저만큼} 나도 니만: 침 커썸 조케따 너만:침 커썸 조케따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니: 머글만큼 머거라 머글 만:침 머거라
40223	-아/야(복남아)	봉나마
40224	-아/야(복남이)	봉나미
40225	-아/야(영수야)	야 철수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일로 오시오.
40226-1	-아/야(누님!!예)	누님뇨 식싸해요 이래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버지
40227-1	-아/야(할아범요!)	하라버지요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수리랑 안주랑 시큰 머거따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마:넌커니 처년도 업:따 마:넌커니는 난 처년도 업따 마:넌커니는 처년도 업따

4.2.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시동생으는 창꼬트는 {진달래꽃은} 달그는 쫓는다고 수른 머꼬 담땀 떼:따
40231	-만(딸만)	딸만 이:빠한다 늘: 잠마 잔다 나만 차가 업:찌
40232	"-도(키도, 얼굴도)"	키도 크고 얼굴또 잘생게따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다 멍는다 날마단 추웅걸 매일 춤 따 사:람마다 인제 다: 차몰고 땡긴다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켜늘꺼다
40235	-까지(내일까지)	넌:까지 끈내라
40236	-조차(물조차)	마실 물조차 읍따
40236-1	-조차(비할라)	*
40237	-이야/야(말이야)	마:리야 자란다
40238	-을랑(소릴랑)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러라 아예 하지도 마러라
40239	-이라도(부자라도)	부자래도 도:는 안쓴다
40240	-밖에(너밖에)	너배께 업따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싸가주 간다

4.2.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연: 세캐라 한다고 {여기는 식해라 한 고) 오라고 한다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아러쑈(+손아랫사람에게) 아러쑈미다(+ 손윗사람에게)
40244	-요(높임)(했지요)	형님 넌 생이리조?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앉아라)	이리 와 안저라
40302	-게(앉게)	오시게 양께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지시오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지십씨오
40305	-세요(앉으세요)	안지십씨오

4.3.2. 청유법

40306	-자(가자)	가자 가치 가자
40307	-세(가세)	가세
40308	-으오(가오)	갑씨다
40309	-십시다(가십시다)	가십씨다
40310	-세요(가세요)	가십씨다

4.3.3. 의문법

40311	-니(오니)	오니?
40312	-나(오나)	오능가?
40313	-오(오오)	우싸람 누가 해:쏘? 형님 비가 와요? 비가 오오?
40314	-습니까(옵니까)	누가 해썌미까? 옴미까?
40315	-나요(오나요)	바께 비가 옴미까?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 는지를 물을 때(가니)"	어드루 가니? 어들로 가니?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 는지를 물을 때(가나)"	가능가?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 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가시오?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 는지를 물을 때(가십니까)"	가십미까?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 는지를 물을 때(가세요)"	가십미까? 어드르 가세요?

4.3.4. 서술법

40321	-는다(먹는다)	잘 멏는다
40322	-네(먹네)	식싸 잘 하네 복씨리 멏네
40323	-오(먹소)	바블 잘 머거요. 머거요 멏네요
40324	-습니다(먹습니다)	잘 머거요. 잘 먹썌미다 이래지만
40325	-네요(먹네요)	바블 잘 먹썌미다 증:네요
40326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죽:따

40327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사우는 오시 너무 작따 장:네
40328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즈:거요 작:쏘
40329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십니 다)	자~인 오시 즈:썸미다
40330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세요)	장몬님 오시 즈:썸미다

4.3.5. 반말

40331	-아(아파)	아풍가?(+남편이 아내에게) 아프나?(+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니는 어디 아파?
40332	-지(거지)	가야지. 병워네 꼭 가야지

4.3.6. -이다

40333	-이다(생일이다)	생이리다
40334	-이니(생일이니)	생이리나?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생이릴세
40336	-인가(생일인가)	새~이링가? 사우 널 새~이링가?
40337	-이오(생일이오)	새이림미까? 새~이리오?
40338	-이오(생일이오?)	새~이리오.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신 이림미까?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생신 이림미다.
40341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생신나림미다.
40342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생신 이림미까?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냐)	머:니? 머:나?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멍:가?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그기 머이요?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 까)	머:심미까?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요)	그 머:심미까?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그거 머:요? 멍:가?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 요)	머:시오?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많습니다)	차가 만:썸미다
40351	-습디다(많습디다)	만:썸미다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잘 멍능구나 하능구나 자능구나 조이사기구마 {조이삭이구먼} 덤불째로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쿨러드러와꾸마 저사람 마리 올कु마 저 양 말이 올कु마 {저 사람 말이 올구만, 저 양반 말이 올구만} 밥또 잘 멍능구만

40354	-일세(오랜만일세)	오랜마~이쎄.
40355	-으마(값으마)	도:늘 가꾸마
40356	-음세(값음세)	어, 가품세
40357	-을라(다칠라)	칼가주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머꼬 머꼬서 테레빌 바:따
40402	-으면서(보면서)	보민서 보민서 바블 명는다 아:이르 를 부르민서
40403	-어/-어서	추와서 모와따 더와서 모와따
40404	-으니/-으니까	따시니 따시니까 뜨뜨타~이
40405	-관데	면: 이리 이킬래
40406	-다가	오다: 마자따 오다가 마자따
40407	-거든	그사람 만내거든 암부 저내라
40408	-더라도	먹떠래도 쪼마~이 머거라 먹떠래도 쪼 끄마~이 머거라
40409	-으려고	머글라고 함미다
40410	-도록	죽뚜루 이래따 나리 새:도록 공부해따
40411	-을수록	올라갈수록
40412	-듯이	물쓰드 탄다
40413	-지	나는 테레비만 보지 땅건 암바

4.5. 주체 존대

40501	-셔(오셔)	할머~이 일루와 이리 오시오 이래지
40502	-셨소(하셨소)	오세쑈? 다 하세쑈?
40601	-는/ㄴ-(웃는다)	잘 운:는다
40602	-는/ㄴ-(기어간다)	게:간다
40603	-는/ㄴ-(크다)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내 생이리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내리고 이따 오고 이따
40606	-왔/였-(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니? 밤 머꼬 완니? 아, 진지 드 세쑈미까? 잡쑈세쑈미까?
40607	-왔었(왔었다)	와뎡능가?
40608	-더-(먹더라)	잘 먹떠라
40609	-더-(먹더냐)	잘 먹떠나? 가: 바블 잘 먹떠나?
40610	관형형(만나는)	만날 만나는 칭구다
40611	관형형(만난)	올라 안정거 {올아 앓은 거} 떠러전 도: 네 {떨어진 돈에} 만난 칭구다
40612	관형형(만났던)	참: 만네뎌 칭구다
40613	관형형(만날)	만내볼 칭구다
40614	관형형(큰)	즈:근 아인테 커따
40615	관형형(크던)	키가 크던 아이가 요즈메 키가 앙크나?

40616	관형형(켰던)	커떤 아이다
40617	-겠-(않겠다)	앙케따
40618	-겠-(오겠다)	올꺼까따 올꺼꺼따 올꺼다 오게따

4.6. 시제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머거써요.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조:치안타 안: 만내따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내지븐 깨끗짜내.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개 앙가써. 장:가 앙가써.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다/만나 안 보았다)	만나보지 아나따 하지 암 만내바씀미다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다 먹찌앙코 잠만 잔다 먹찌도앙코
40706-1	부정(먹도 않고)	먹또 앙코 잠만 잔다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만내바써 몸: 만내바씀미다 몸:먹 씀미다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내마리 마짤:나?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레야 살레야 된다 살리고 이따
40802	늘리다	늘귀 늘군:다
40803	말리다1	말린:다 말린다
40804	말리다2	말린다
40805	얼리다	얼군다
40806	늑이다	늑긴다 늑긴다
40807	신기다	싱긴다
40808	보이다	보인:다(+신) 보예준다 보킨다(+구)
40809	알리다	알귀라 알구지 마라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앉히다	안천다 안첸서는 안된다
40812	벗기다	베께라 빼끼고이따
40813	웃기다	우깁다 우께야 된다
40814	씻히다	써깁다 세께야 된다 세기고 이따
40815	숨기다	헝게따 헝기구이따
40816	끓기다	궁게따 궁기지 마라
40817	깨우다	깨워라 깨우고이따
40818	돋우다	도꾸고이따 도꾸지 마라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자페따 자피고이따
40820	깨이다	까케따 까키니 기분 안조타 까킨:다
40821	끼이다	찌에따 찌:니 아프다
40822	떼이다	떼께따 띠케:따 띠케:서 기분나쁘다
40823	채이다	채에따(+신) 채케:따(+구) 당나구 뒤: 빨 채케따
40824	닫히다	뽕하고 다킨다
40825	들리다	잘 들린:다
40826	업히다	어페:따 어피:고 이따
40827	바뀌다	바꾸케:따
40828	씹히다	도:리 씨핀:다
40829	엎히다	언채:따
40830	찍히다	찌케:따
40831	놀리다	놀리케:따
40832	실리다	실레:가따 실레가따
40833	끓기다	끓케:따
40834	끓히다	끓채: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덜: 덜: 머꼬 수와? 머꼬 수와? 덜: 머꼬 수와? 바꼬 수웅거
40902	싶다(싶더니)	머:이 머꼬 숨쏘? 바꼬 숨따
40903	보다(보세요)	이버 보십씨오
40904	버리다(버렸네)	머거 버렌나?
40905	대다(댄다)	우러덴다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울:라능가부다 자능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마:~이 자나바 이러케도하고 그래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매우 추웅가보다

4.10. 부사

41001	실컷	너 밥 시큰 머거라
41002	많이	마:니 머거라
41003	너무	너머 간질고 애:가 {너무 간질여서 아이 가} 너무 피우지 마라
41004	조금	그양 좀 더 조라 쫓꿈만 쫓꿈만
41005	자주	자주 간다
41006	빨리	빨리 해:라 빨리 와따
41007	얼른	얼른 머거라
41008	기어코	결코 가따
41009	가끔	가끔 마신다

41010	먼저	먼저 가거라
41011	나중에	나:중에 주고
41012	가득	가득 채워따 몬딱 가주오너라 마카 가주오너라 썩 가주 오너라 오부디~이 가주오너라 오부디~이(+고구마를 먹을 때, 고구마 일부분을 떼어 먹으려다, 그렇지 먹지 말 고 그 전체를 떼지 말고 먹으라고 할 때, '오부텅이' 먹으라고 함)
41014	몽조리	몽조리
41015	혼자	나 혼자 이따
41016	항상	나는 항:상 바뿌다
41017	똑똑히	똑또기 바:라
41018	겨우	제:와 차마따
41019	늘	늘: 잠마 잔다
41020	저절로	저절로 다케따
41021	자꾸	자:꾸 나온다
41022	살마	살마 살마 날 썩게썰까?
41023	하마터면	함부로 칠:뻔해따
41024	함께	함께 구:경간다
41025	걸핏하면	걸푸타면
41026	공연히	괘:니 트집짬는다
41027	그냥	그양 갈:라무 그양 나와따
41028	매우	매우 출따
41029	곧장	고짱 가따 오너라
41030	벌써	벌써 끈넌나? 하머 끈넌나?
41031	가장	가장 발따
41032	가만히	가마~이 이씨라
41033	미리	미리 마거라
41034	이따금	이따망꿈 마신다 뜨문뜨문 이땀만끔 온다 이따망:꿈 온다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관용구(여보)	여보(+아내가 남편에게) 아무개 아버지 (+아내가 남편에게) 철쭉 아버지(+아내 가 남편에게) 철쭉 아버지요(+아내가 남편에게) 철쭉 엄마(+남편이 아내에게) 이사라마 여보게(+남편이 아내에게) 여보시오(+길가는 남자에게) 여보시오 (+길가는 여자에게)
41102	관용구(여보세요)	형님 안녕~이 게:세요
41103	관용구(들어가요)	수:고해:쑈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
이의 인사말) 오랜마~이다 | 참 오랜마~이다
-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으:른들 일하러 가심미까? | 안녕하심미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까 할때는
-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
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안녕하심미까? | 무:강하세썸미까?
-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
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돈 바드시오. | 아쑈
-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예
대답))
-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안:
대답))
-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난 아무차내:
- 41112 관용구(내버려 뒀) 내:버레도:
-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

4.11.2. 속담

- 41114 속담(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단지 깨:전데 물부끼라 | 깨:전 도게 물
부끼라
-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두기 소 도둑 된다
-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때:지 아는 굴뚜게 영기나리? | 때:지 아
는 굴뚜게 영기나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